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第7号(555)

차 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35년이 지나갔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 건설을 힘있게 벌려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고 륭성번영하는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의 패전과 그후의 사태발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계속 전쟁로선을 추구하면서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으며 나아가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반제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경각성있게 대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1)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한 정의의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2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찌부터 조선에서 세계제패를 위한 돌파구를 열려고 광분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의 도발은 그들의 모험적인 전쟁정책의 산물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방대한 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재들을 동원하고 전쟁력사상 류례가 없는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다. 그러나 적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전투적 호소따라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영웅적인 조선 인민과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적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빛나게 고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였다.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것은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신성한 의무이다. 오래동안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정권을 쥐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였다. 실지체험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은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이 시작되자 한마음한몸이 되여 혁명정권과 선진적인 사회제도,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성전에 떨쳐나섰던것이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될것인가, 청소한 나라가 강대한 미국을 과연 당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을 훌륭히 고수하였다.

조선전쟁은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을 믿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아무리 강대한 침략세력도 능히 쳐물리칠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 사변이였다.

오랜 침략전쟁력사를 가진 미제는 조선전쟁이전까지만 하여도 패배를 모른다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제의 《강대성》에 겁을 먹기까지 하였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제가 피비린내나는 자기의 침략전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조선이 미제와 싸워이긴 첫 나라로 됨으로써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미제와 능히 싸워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새로운 앙양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운명이 그 어떤 현대적 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사상적 우월성과 전략전술적 우세에 의하여 결정되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은 그 어떤 현대적 무기보다도 위력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공헌으로 되였다.

미제는 조선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면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킬것을 타산하였다. 영웅적인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기고 조선에서의 그들의 흉악한 계획을 분쇄함으로써 사회주의동방초소를 튼튼히 지키고 새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을수 있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특히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전행정에 걸쳐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싸우는 조선인민에게 물심량면으로 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이러한 국제주의적 지원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였으며 미제를 고립시키고 놈들의 정치도덕적 패배를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조선전쟁은 실로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기치밑에 반제반미공동전선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자랑찬 력사를 기록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이 남긴 력사적 교훈은 지난 35년동안 전쟁세력을 제어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2)

미제국주의는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새 전쟁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장본인이다.

조선반도에서는 정전이 실현된 다음에도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으로 하여 어느 하루도 평온이 깃든 날이 없었다. 미제는 오늘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시키면서도 조선반도에서만은 계속 긴장격화의 길을 추구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중국대륙과 인도지나반도에서 쫓겨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틀어쥐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반도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군사전략적 위치로 하여 대륙침략의 중요한 요충지로 되여있으며 아세아침략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침략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조선반도남쪽에서 침략과 전쟁소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식민지지탱점으로,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틀어쥐고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커다란 전쟁화약고로, 핵전쟁기지로 전변시켰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6~37폐지)

남조선을 거점으로 삼고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미제는 이러한 야망으로부터 무엇보다 남조선에서 저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왔으며 남조선전역을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오늘 남조선에는 최신살륙무기로 장비한 4만 3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으며 현대적 무기들이 대대적으로 반입되고있다. 미제는 이미 남조선에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을 전개하고 악명높은 중성자탄까지 끌어들여 온 남조선땅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그들은 방대한 수의 남조선괴뢰군을 최신형 무기들로 장비시키고있으며 무기와 작전장비의 남조선 현지생산도 다그치고있다.

미제의 전쟁책동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서 빈번히 벌리는 도발적인 군사연습들로 하여 더욱 격화되고있다.

미제가 해마다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단순한 《년례적인》 훈련이 아니라 핵공격을 전제로 하고있는 가장 모험적인 《핵시험전쟁》이며 《핵예비전쟁》이다.

미제는 올해에도 20여만에 이르는 방대한 수의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여기에는 미국본토와 하와이 그리고 괌도, 일본, 필리핀 등 해외기지들에서 최신살륙장비들로 무장한 미제침략군이 투입되였으며 남조선강점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모든 군종과 병종들이 동원되였다. 미제는 방대한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련합상륙작전, 도하작전, 해상훈련, 공중기동작전,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작전, 군사분계선돌파훈련 등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이 그 규모로 보나 작전연습내용으로 보아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립체적인 공격작전연습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른바 《올림픽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침략무력을 올림픽경기기간까지 계속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못박아두며 남조선괴뢰군과 남조선강점 미군 그리고 일본, 필리핀 주둔 전체 미제침략군무력을 《긴급출동태세》하에 두고 남조선주변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올림픽안전》이라는 간판을 걸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고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소동은 제24차 올림픽경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전면공격의 기회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준비책동과 긴장격화책동은 이른바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감행되고있다.

세계사회계도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남침위협》도 없으며 오직 북침위협만이 존재한다. 《남침위협》이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구

며낸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남침위협》이란 말도 되지 않으며 사리에 맞지 않는 생억지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우리는 온 나라가 다시 포화에 휩싸이고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드는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저들의 무력증강과 새 전쟁준비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것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정세의 추이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제국주의야말로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전쟁세력이라고 한 우리 당의 평가의 정당성을 확증해준다.

조선반도정세는 조선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소동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올림픽안전》을 위한 《공동대처》라는 구실밑에 일본 《자위대》 무력까지 끌어들이며 그것을 미일남조선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할것을 꾀하고있다.

올림픽경기기간에 미제7함대의 2개 항공모함전단과 함께 일본의 170여척의 해군함선과 수백대의 군용기, 3만여명의 병력이 우리 나라 동해에서 벌리려는 대규모 해상 종합연습에 동원될것이 예견되고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미제가 일본의 침략무력을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끌어들여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군사적 결탁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해외팽창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미제가 벌리는 모험적인 군사소동에 적극 가담하는것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남조선에 깊숙이 손을 뻗친 일본반동들은 이제 군사적으로만 침투하면 재침야망을 손쉽게 이룰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예로부터 큰놈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이골이 난 약삭바르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침략세력이다. 일본반동들은 상전의 겨드랑이에 붙어 저들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삽살개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의 전쟁마차를 타고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날치며 이웃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에 와서 전쟁로선은 일본의 파멸을 의미할뿐이다.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자체의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만을 가져올것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틀어쥐고 조선반도를 새 전쟁의 발화지점으로 삼고있는것은 그들의 아세아, 태평양 중시정책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오늘 미국지배층은 《21세기는 태평양시대》라고 하면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돌리고있으며 《힘》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 력량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려 하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매력있는》 략탈지역으로, 생명선으로 된다. 이 지역은 미국의 제국주의경제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원료략탈지, 상품판매지, 자본투하지로 되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는 중요한 자원지대들과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요소》로 보고있는 군사요충지들이 자리잡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지배층들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며 통제하는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있으며 세계전

략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는데서 조선반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조선반도는 미제의 아세아, 태평양 침략정책실현의 중요한 고리로, 《힘의 정책》의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 일대를 핵공격의 《제1선기지》로, 대륙침공의 《최전방진지》로서 중시하고있다. 미국의 악명높은 호전광이였던 덜레스는 한때 조선반도를 《단검》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틀어쥐기만 하면 아세아대륙을 마음대로 가르고 베여먹을수 있다고 떠벌이였던것이다.

이 모든것은 조선반도가 현시기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가장 위험한 발원지로,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반도의 정세는 말그대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막다른 벼랑턱에 놓여있으며 조선문제는 오늘 국제정세의 초점을 이룬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막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로 날카롭게 제기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그 근원자체를 없애는것은 이 지역은 물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항시적으로 긴장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것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정책과 책임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 인민의 완강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의 전쟁책동으로 하여 이미 오래전에 전쟁의 불집이 터졌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자기들을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의 《수호자》인것처럼 묘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평화수호》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위장된 평화교란에 지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 준비를 일삼으면서 《평화》의 연막을 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력사의 교훈은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수호》에 대하여 떠드는 요란스러운 소음속에는 반드시 침략과 전쟁의 흉계가 숨어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저들의 흉악한 침략계획을 감싸고 인민들의 각성을 무디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결코 《평화》를 바랄수 없으며 더구나 《평화의 사도》가 되여본적이 없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서두르고있으며 《친선》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검은 촉수를 뻗치고있다. 속에는 칼을 품고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선》의 미소를 짓는것이 미제의 악명높은 량면술책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수호》의 간판밑에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도 정세를 긴장격화의 한길로 이끌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친선》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기여들어 갖은 음모활동과 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교활한 《평화전략》에 환상을 가지고 대할 때 어떠한 후과를 빚어내는가 하는것을 력사는 심각한 교훈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엄중한 사태발전은 우리 인민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진보적 인류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제의 모험적인 무력증강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아세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없으며 인류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 미제의 전쟁광증이 제때에 타격을 받지 않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조만간에 세계전쟁, 열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 제국

주의자들은 결코 평화를 선사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더러운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준동하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이 없이는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꺾어버릴수 없으며 그들을 몰아낼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경각성과 혁명적 각오를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결과 전쟁로선을 걷어치워야 하며 수치스러운 력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3)

전쟁과 평화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위험을 가장 엄중하게 받고있는 우리 나라는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428페지)

반제반미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예속과 억압, 침략책동을 끝장낼수 있다.

자주성은 언제나 전쟁과 평화의 구체적, 력사적 성격을 규제하는 최고기준으로 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 립장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의 정세하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지 못하면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제국주의자들의 올가미에 말려들어가 그들의 희생물로 될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원쑤는 의연히 미제이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해결하는데서 반제자주적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책동과 평화교란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에 의한 남조선강점이 우리의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되며 그것을 끝장내는것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미군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견결히 요구한다.

오늘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량면전술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반동성을 더욱 철저히 밝가놓아야 한다.

미제는 량면전술에 적극 매여달리면서 세계 선량한 인민들속에서 혼란을 조성하려고 날뛰고있다. 긴장완화의 그늘밑에서 침략과 전쟁준비를 다그치는것이 미제의 본심이다. 혁명적 인민들은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는 모든 곳에서 호된 타격을 안기고 그들의 각을 뜯어냄으로써 세계의 한 지역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가 다른 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반동들을 사촉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뒤받침밑에 남조선괴뢰들이 《북방외교》를 고창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나라를 북과 남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두개 조선》 조작음모의 일환이며 국토분단을 고정화하려는 매국적 책동이다. 그렇기때문에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벌리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배격하는것은 현시기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초미의 과제로 된다.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가 아세아에서 의거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정치적 지탱점에 타격을 안기고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로서의 진면모를 백일하에 드러내놓고있다. 조선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성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미제를 등에 업고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망령은 조선반도의 남쪽땅에서 활보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금 미제의 반공화국소동에 발맞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을뿐아니라 《정치대국》, 《군사대국》을 참망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반공》보루의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와 아세아, 태평양 지역 정세를 한층 격화시키고 미일반동들의 침략적 야망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기본성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들의 해외팽창책동과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려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의 통일은 평화의 담보이며 조선의 분렬은 전쟁의 온상이다. 만일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분렬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긴장상태가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조선인민은 그 누구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이 무겁게 드리우는것을 반대한다. 지난 3년동안의 조선전쟁과정에 류례없는 참화를 겪은 우리 인민은 실지체험을 통하여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절감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민족의 념원과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일찌기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 방안들을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미 1984년에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과 여러가지 북남회담을 발기하였으며 1986년에는 주동적으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지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987년에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성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다그치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별 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으며 10만명의 조선인민군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이 모든 제안과 조치들은 갈라진 조국을 반드시 우리 대에 통일할데 대

한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은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해결의 리정표로 된다.

그러나 《두개 조선》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미제와 괴뢰도당은 우리의 평화노력을 외면하고 대결과 전쟁로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는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오늘의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는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에 북과 남의 당국과 각 정당, 단체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였으며 얼마전에는 북남련석회의가 소집되기전이라도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시였다.

이러한 제의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정당한 구국제안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시기적절한 애국적 발기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문제를 풀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나서야 하며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는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이다.

오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의의가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세계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반전평화력량과 밀접히 련결되고있다. 오늘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념원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조선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류와 평화애호인민들이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조선반도에서 계속 대결과 전쟁 로선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킴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온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

연 형 묵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로정을 걸어왔다. 백두밀림에서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왔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무거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혁명적 락관주의, 이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용감하게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전통으로 되고있는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으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 *

혁명적 락관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이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84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위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며 그 과정에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치렬한 계급투쟁과 거창한 변혁과 창조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완전히 실현된다.

장기성과 간고성, 복잡성을 띠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지닌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은 그 본성에 있어서 혁명적 락관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굿굿이 싸워나간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지조를 지키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며 언제나 생활을 검박하게 전투적으로 꾸리며 명랑하고 생

기발랄하게 투쟁하는 혁명적 생활기풍이다. 이러한 혁명정신과 혁명적 생활기풍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비관주의, 패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혁명적 락관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주저와 동요를 모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도록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라면 비관주의, 패배주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겁을 먹으며 불안과 절망에 빠져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자포자기하는 매우 유해로운 사상이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보다 휘황한 미래와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고유한 사상관점, 행동방식이며 비관주의, 패배주의는 멸망에 직면한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혁명투쟁과정에 나타나는 동요분자들의 타락한 사상관점, 행동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비관주의, 패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적 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있기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변하여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며 투쟁과 전진으로 이어지는 보람찬 혁명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간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고있기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생활을 언제나 전투적으로,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꾸려나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의 철석같은 믿음은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며 이 과정에 혁명위업의 밝은 전도를 확신하게 되고 그 승리에 대하여 철석같이 믿게 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한 령도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간고한 혁명투쟁과 거창한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승리의 신심드높이 힘차게 싸워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과정에 필승의 신념과 고상한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 락관주의는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심장깊이 간직된 드팀없는 신념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영예이고 가장 큰 행복이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놓이고 조선혁명이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하고있던 시기에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의 앞날을 굳게 확신하고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고상한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여왔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철석같은 신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차례의 사회혁명, 거창한 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길에서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는 영명한 지도자이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위대한 조직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예지와 세련된 령도에서 혁명의 밝은 전도와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을 뚫고 전진하는 과정에 높이 발휘되여온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고 투철한가 하는것은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나타난다.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혁명투쟁과정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다. 혁명정세가 유리하고 승리가 확고히 내다보일 때에는 실망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없지만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는 신심을 잃고 추세와 대세에 따라 흔들리며 나중에는 혁명의 길에서 리탈하는 락오자도 생기게 된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혁명적 신념과 혁명적 절개,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기어이 승리하는 강의한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락관주의의 빛나는 구감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혁명선렬들속에서 가장 숭고하게 발양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는 참으로 간고하고 엄혹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에 대한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전례없이 강화하면서 대륙침략에 미쳐날뛰고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실패만을 거듭하고있었다. 당시 혁편에서는 조선이 과연 독립할수 있겠는지 믿기도 어려웠으며 언제 독립하겠는지는 더욱 알수 없었다.

그러나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만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 신념으로 목숨바쳐 싸웠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전진하는 혁명적 락관주의의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였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혁명투쟁이였으며 고상한 혁명적 락

관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영광스러운 투쟁행로였다. 항일유격대는 국가적 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야 하였다. 적들의 검질긴 추격과 중첩되는 포위, 교활하고 악랄한 회유기만책동, 설한풍 휘몰아치는 엄혹한 추위와 모진 굶주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역경속에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운다는것은 참으로 상상을 뛰여넘는 일이였다.

이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항일혁명선렬들은 추호도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며 필승의 신념을 안고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갔다. 그들은 걸음마다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지어는 칠창속과 단두대우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았으며 조국의 광복과 우리 인민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면서 싸웠다. 이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은 혁명적 락관주의의 가장 숭고한 모범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고귀한 혁명정신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영웅적 인민으로 자랑떨치게 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민족적 독립을 갓 쟁취한 우리 인민과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최신장비로 무장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였으며 온갖 야만적인 전쟁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오늘도 조선인민의 영웅적 기상의 상징으로 거연히 솟아있는 1211고지의 방위자들은 한치의 땅도 내여주지 말라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땅이 타번지는 가렬처절한 싸움터에서도 불사조마냥 일떠서 놈들의 파상식 공격을 분쇄하고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다.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와 락천적인 생활기풍은 1211고지용사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였으며 그들이 지닌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전선과 후방의 모든 초소들에서 바로 이러한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영웅조선의 영예를 빛내이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싸울 때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인 혁명적 락관주의는 전후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거연히 일떠서 이 땅우에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벅찬 투쟁속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은 전쟁에 못지 않는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전후 우리에게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남은것이란 재더미뿐이였다. 우리의 형편은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게 어려웠으며 신심만 잃는다면 재더미우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사정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우리 인민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이상 또다시 새 생활을 건설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 달라붙었다.

사회주의건설시기 사람들의 혁명적 락관주의는 중요하게 당이 제시한 그 어떤 어려운 경제과업도 주저와 동요없이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수행해나가는 완강한 의지와 불타는 열정,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전투적인 공격정신을 통하여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빈터우에서도 2~3년안에 복구사업을 끝내고 방대한 제1차 5개년계획을 2년반에 완수하였으며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 위업도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자랑찬 력사는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밝은 앞날을 향하여 억세게 전진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투쟁에 의하여 창조된 영웅적 서사시이다.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는 전체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서해갑문과 같은 거창한 창조물도 5년동안에 일떠설수 있었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그리고 장엄한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승리와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혁명적 락관주의야말로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올수 있게 한 위대한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과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단행본, 39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반세기이전에 시작된 우리 혁명은 복잡하고 고난에 찬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면서 참으로 멀리 전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뚜렷이 바라보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며 혁명의 앞길은 의연히 간고하고 험난하다.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당면하게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도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데 계속 열을 올리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필승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혁명적 락관주의에 넘쳐 계속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혁명의 간고한 시기들에 발휘되였던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이긴것이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한것은 결코 군사장비에서 더 우월하였기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전후에 재더미우에서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진행하고 다시 일떠선것도 우리에게 그 무슨 큰 밑천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이 간고한 시기에도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으로 억세게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간고한 시기들에 높이 발휘되였던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이야말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할 고귀한 혁명정신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그들모두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하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1211고지 방위자들이 발휘한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본받아 당이 제시한 웅대한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는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생겨나는 혁명정신이다. 힘있고 강대한 민족일수록 그들의 신심은 더욱 강하다.

오늘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힘은 대단히 위력하며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나 전후복구건설시기와는 비할바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우리에게는 필승불패의 당과 강유력한 혁명정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모든것을 제힘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가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력과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 보다 휘황한 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계속 억세게 투쟁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더욱 깊이 지니도록 교양하는 목적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은 무조건 점령해야 하고 또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드높이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당면하게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과제를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대진군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대고조를 이룩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우리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

강 성 산

지금 온 나라는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200일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지니고 대건설행군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류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이 대건설행군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야 당의 의도와 요구대로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진다는것은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지닌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진다는것이다.

원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다.

력사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대규모의 공장들에서 집단적으로 일하면서 온갖 착취와 억압, 정치적 무권리와 빈궁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계급적 처지로부터 로동계급은 혁명투쟁에서 그 어느 계급보다도 견결하며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하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떠나서 로동계급이 지니고있는 혁명적 특성과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한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계급으로,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된다. 이것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본질적 특성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로동계급의 고유한 특성인것만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마땅히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가장 간고하고 엄혹하며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에는 참기 어려운 시련도 있을수 있으며 난관이 중중첩첩히 앞을 가로막아나설수도 있다.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혁명가들이 혁명성과 전투력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에 따라 그 승리적 진진이 좌우되게 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준엄한 길에서 혁명가들로 하여금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견결하게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요인이다.

혁명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

한 기질이며 기상이다.

혁명가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만 가지면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게 되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시련도 능히 이겨낼수 있으며 아무리 정세가 불리하여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지 못하면 결심품고 나선 혁명의 길에서 주저하게 되며 나중에는 패배주의에 빠져 혁명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다. 혁명가들은 오직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녀야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이것은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걸으면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여온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가 실증하여준 엄연한 진리이다.

혈전만리 불바다를 헤치면서 전개하여야 하였던 항일혁명투쟁과 미제를 괴수로 하는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물리쳐야 하였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재가루만 흩날리던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달라붙어 수행하여야 하였던 전후복구건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이 걸어온 길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이 어렵지 않을수 없지만 우리 혁명은 참으로 류달리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난관앞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며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그것을 맞받아뚫고나감으로써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참으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불굴의 투쟁정신이며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좌우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우선 혁명의 끊임없는 전진과 더불어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투쟁과정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며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한 새 세대들의 투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한 새 세대들은 혁명의 어려운 투쟁속에서 단련되지 못하였고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투쟁과정에 자그마한 난관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자기 힘으로 뚫고나가지 못할수 있다. 그들은 오직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질 때라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것과 관련된다.

생활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지면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벌써 맥을 놓고 일하기 싫어하며 혁명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생활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진 다음 혁명투쟁을 계속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가는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된다.

혁명가들은 생활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진 다음 혁명투쟁을 계속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혁명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또한 복잡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정세가 복잡하고 반혁명의 발악책동이 강화될수록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신년사》, 1984년, 11폐지)

혁명정세가 복잡하고 당과 혁명 앞에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수록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람들은 정세가 복잡하고 반혁명의 발악적 책동이 강화될수록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녀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력사는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하고 비겁한자들이 혁명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길로 나가지만 혁명성과 전투력이 높은 혁명가들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원쑤들의 공세를 맞받아나가며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투쟁목표이다.

지금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20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는 이 방대한 과업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는 환경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북으로부터의 위협》과 《올림픽안전》이라는 구실밑에 반공화국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가고있다.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복잡한 정세는 일군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사업을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전투적으로 생활하여야 당의 사회주의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력사적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참으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로운 침략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혁명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며 그것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한다는것은 일군들이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사람중심의 혁명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제시된 가장 정당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여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성적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점령에 관한 사상과 3대혁명에 관한 로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인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공산주의적 기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하여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한 로선과 정책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때 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이룩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의 혁명성과 전투력은 바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숭고한 삶의 요구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안으며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의 근본리익과 전망적인 과업을 반영한 로선과 정책도 있으며 혁명의 변천된 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따라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제시한 정책들도 있다.

일군들은 언제나 항구적으로 관철해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과 당면한 정책적 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당정책들이 련이어 제시되여도 그것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같이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을수 있다. 그 과정에는 험한 진펄도 있을수 있으며 불타는 강도 있을수 있다. 만약 일군들이 이러한 애로와 난관에 겁을 먹고 그것을 뚫고나가지 못한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관철할수 없으며 결국 당의 의도와 구상을 현실로 꽃피울수 없게 된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중도반단하는것과 같은 태도는 일군들의 활동방식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처음에는 벅적떠들면서 5분열도식으로 바글바글 끓다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의가 식어지고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이미 하던것을 줴버리는것과 같은 일본새는 혁명성이 없고 전투력이 없는 표현이다. 당에서 열가지, 백가지 과업을 주어도 그것을 다같이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일군이 바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닌 일군이며 그러한 일군이라야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 과업인 3대혁명로선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비롯한 전략적 과업들을 틀어쥐고 나가는것과 함께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건설과 대건설행군을 비롯하여 당면하게 풀어야 할 과업들을 반영한 당정책들을 다같이 관철하기 위하여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이 살며 투쟁하는 구체적 현실속에서 관철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군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 내려가서 모든 사업을 군중과 의논하며 군중에게서 배우고 가르쳐주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군중을 떠난 혁명이란 있을수 없는것처럼 대중속에 들어가는것을 떠나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대중과 떨어지면 현실을 알지 못하고 군중의 힘을 믿지 못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혁명성과 전투력을 잃고 패배주의에 빠져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똑똑히 관철할수 없게 된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자기 당을 굳게 믿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기백배하여 싸워나가는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는데서 높이 발휘되게 된다. 일군들이 현실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맴돌면 당정책이 관철되는 구체적인 현실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알수 없다.

혁명은 계속되며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것만큼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니고 전투적으로 일하자면 반드시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울 혁명적 각오를 더욱 굳게 가질수 있으며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함경북도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 때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닐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도당위원회는 우선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전투적으로 생활할데 대한 당과 수령의 의도를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우리는 지도일군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어 그들이 한개 단위씩 맡아가지고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걸린 문제를 풀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방법, 당적 방법으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발파법을 연구완성하고 쇠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도안에 제기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하였다.

이것은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자신을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이것은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소유한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선봉투사로 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지 않으면 머리에 녹이 쓸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결국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없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당성단련은 매 당원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함께 그들에 대한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가 옳게 결합되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우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은 당성의 최고표현으로서 그것은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적 신념과 불굴의 투지,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혁명의 길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 힘의 원천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성이 높고 전투력이 강한 투사로 되고 일생을 혁명에 충실하려면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심장깊이 지녀야 하며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이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생활은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함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높이고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학습회와 강연회, 당적 분공수행과 같은 당생활의 모든 계기들이 당성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견결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위훈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 영광스러운 력사에는 오중흡동지와 같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 그들의 뒤를 이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전사들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일군들과 천리마기수들의 빛나는 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한 혁명전사들의 불굴의 투쟁기풍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으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의 간고한 시기에 혁명성과 전투력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항일혁명전쟁시기나 조국해방전쟁시기와는 비할수 없는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을 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위대한 당과 혁명적 인민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일군들이 항일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지휘관들처럼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의 앞장에 서서 억세게 싸워나간다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적 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자신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가 오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사업을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단순히 당면하여 맡겨진 과업이나 수행하는 실무적인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상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기풍대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함으로써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지으며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탁월한 령도와 대중적 영웅주의가 가져온 위대한 승리

윤 치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35년이 된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현대조선의 찬란한 혁명투쟁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전승의 날을 맞으면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을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쟁취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가장 횡포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상대로 하여 진행한 류례없이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전쟁에서의 승리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그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전선에 최신무기로 장비한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군수물자를 들이밀었을뿐아니라 세균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가장 야만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우리 조국 력사와 세계전쟁사에서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최악의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인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싸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가 가져온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한몸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23페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전쟁에서 승리하자면 탁월한 령도와 대중적 영웅주의가 결합되여야 한다.

혁명전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는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의 특수한 형태이다. 사회혁명의 한 형태인 혁명전쟁에서의 주인, 그 직접적 담당자는 사람, 군대와 인민대중이다. 혁명전쟁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군대와 인민대중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혁명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다. 물론 무기와 군사기술이 전쟁승리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에 의하여 제약되게 된다.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인 군대와 인민대중이 참말로 위력한 력량으로 되자면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군대와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수령의 혁명사상과 수령이 내놓은 전략전술로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뭉쳐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선과 후방의 중하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혁명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백전백승의 주체적 군사예술, 숭고한 정치도덕적 풍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타승하고 놈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군대와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신것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는것은 혁명전쟁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렬되면 패하는것이 전쟁이다.

군대와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자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의 군사사상은 군대와 인민대중을 하나로 통일단결시킨 사상적 기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의 군사사상은 조국보위와 혁명전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승리의 결정적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군대와 인민대중이 주체사상과 주체의 군사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그들이 혁명전쟁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혁명전쟁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자신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전쟁이라는것을 인식시키며 전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정신으로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높여야 군대와 인민대중은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이 개시되자 지체없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여 당사업체계를 전시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당조직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안에 조직되여있던 각급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전반적인 부대와 구분대들에 당조직들을 내오게 하시였으며 그 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시환경에 맞게 당조직체계를 개편하시는 한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전시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종파주의와 자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고 그 전투적 위력이 강화된 결과 군대와 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전선과 후방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영웅적으로 싸웠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군대와 인민대중을 하나로 통일단결시키는 위대한 힘은 가장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지니고 그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는데 있다.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육친적 사랑과 배려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단결시키는 중요한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사람이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는 인간중심의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아래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주시였으며 보람찬 삶과 행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전쟁의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어버이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지에서 싸우는 전투원 한사람한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전우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고귀한 정치적 신임을 안겨주시였으며 친어버이사랑으로 그들을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는 동지적 사랑에 의하여 진선에서 싸운 모든 전사자들이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았으며 총포탄이 쏟아지는 고지의 전호속에서도 전사들이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으면서 적과 싸울수 있었다. 그리고 부상병들과 전상자들에 대한 온갖 치료조건과 국가적 혜택이 돌려짐으로써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영웅전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방 인민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모든것을 다 풀어주시였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우에는 언제나 작전명령과 함께 전재민들과 전쟁고아들을 구제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킬데 대한 문건이 놓여있었다.

시간이 가고 전쟁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만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적 사랑과 의리,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단결시킨 정신도덕적 원천이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 숭고한 동지적 사랑으로 군대와 인민대중을 통일단결시켜 혁명의 주체로 키우심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탁월한 군사 전략과 전술, 전법으로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타승하도록 하신것이다.

전쟁은 적대되는 계급들사이의 사상적 대결인 동시에 군사 전략과 전술, 전법의 대결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기나 기술적 우세가 아니라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 전법으로 싸우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고 적용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전쟁의 첫시작부터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쟁의 매 전략적 계단마다와 전투들에서 적들을 언제나 피동에 몰아넣고 호되게 타격하도록 하심으로써 적들의 모험적인 기도를 걸음마다 파탄시키시였으며 놈들의 최신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무용지물로 되게 하시였다.

전쟁의 제1계단에서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간파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놈들의 불의의 공격에 즉시적인 반공격을 들이대도록 하시였으며 적들이 대병력을 동원하기전에 높은 기동력으로 격멸소탕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전쟁이 시작된지 불과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한달 남짓한 기간에 남반부지역의 90% 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할수 있었다. 전쟁 제2계단에서는 전쟁승리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펼치시고 놈들을 앞뒤에서 타격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쟁의 전행정에서 주타격방향의 옳은 선정과 각 병종들의 유기적 결합, 포병화력의 집중적인 리용과 해안방어조직, 대포위작전과 갱도전을 배합한 방어전의 조직, 비행기사냥군조운동과 땅크사냥군조운동 등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기묘한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수적, 기술적 우세를 믿고 허장성세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포연이 날리고 총포탄이 쏟아지는 최전선에 나가시여 전선형편을 료해하시고 작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대전해방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전하시고 조직지휘하신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서울에서 쫓겨간 놈들은 대전을 《림시수도》로 선포하고 거기에 대병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미제는 《상승사단》으로 불리워온 제24사단과 수많은 병력을 집중시켜 어떻게 하나 대전을 지탱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 병종들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강력한 정면타격과 익측, 후방에서의 타격, 민첩한 기동과 우회, 매복과 습격으로 퇴로와 증원로를 차단하고 대전의 적들을 완전히 포위소멸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제침략군 제24사단은 완전히 전멸되고 수많은 괴뢰군이 녹아났으며 놈들의 이른바 《불퇴의 선》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졌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의 빛나는 승리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후방을 공고히 하고 전쟁에 필요한 물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신것이다.

후방을 공고히 하는것은 전쟁에 필요한 방대한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 구호밑에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전시경제를 조직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전쟁승리에로 동원하는 거대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모든 사업이 전시체계로 개편되였으며 군수품에 대한 전선의 수요를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전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키시고 탁월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이끄시였으며 후방을 공고히 하도록 하심으로써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은 다음으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에 의하여 승리한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고상한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422페지)

대중적 영웅주의는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을 집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대중의 희생적인 투쟁정신이며 과감한 행동

이다. 그것은 사회발전법칙, 혁명전쟁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인식한데로부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된 군대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높이 발휘하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이며 고도의 자각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행동이다. 대중적 영웅주의는 혁명전쟁승리에 작용하는 중요한 정신도덕적 요인이다.

혁명전쟁은 군대와 인민대중이 한다. 혁명전쟁에서의 승리는 결국 군대와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얼마나 굳게 단결하여 대중적 영웅주의를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전쟁의 운명은 몇몇 개별적 사람들의 영웅적 행동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집단의 전체 성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대중적 영웅주의, 집단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에 우리 인민군전투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안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억세게 싸웠다.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과 견디기 어려운 고역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면서 살아온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인민민주주의제도와 참다운 인민의 혁명정권을 세워주시고 자기들에게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300여척의 함선과 1,000여대의 비행기, 5만여명의 대병력을 상대로 하여 싸운 월미도해안포중대전투원들의 투쟁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가 얼마나 숭고한것이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월미도방위자들은 조국의 품은 곧 장군님의 품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당회의와 군인집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신성한 조국땅을 지켜 뼈가 부서지고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물러서지 않을것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들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귀중한 청춘을 바쳐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1211고지방어전투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대중적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승리한 빛나는 전투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아름드리나무가 뿌리채 뽑히며 다람쥐마저 숨을곳이 없어 전사들의 품속으로 뛰여드는 그러한 고지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밀려드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 한치한치의 조국땅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된 첫날부터 전승의 날까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진행된 모든 전투들에서 높이 발휘되였으며 그것은 인류전쟁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대중적 영웅주의는 전선에서만이 아니라 후방인민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되여있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대를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하여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원호하였다.

라원의 10명 당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보람찬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

위하여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남강마을의 녀성들과 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공급하였으며 전호속에서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적들을 때려눕혔다.

우리 농민들, 특히 농촌녀성들은 전선에 나간 남편을 대신하여 보잡이가 되여 소잔등에 위장을 해가면서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을 용감하게 벌리였다.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대중적영웅주의는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됨으로써 군대와 인민이 있는 모든곳에서 적들은 호되게 얻어맞고 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인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에 대한 힘있는 시위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자랑찬 승리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을 때려부신 반제자주력량의 승리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영웅조선으로, 우리 인민은 영웅적 인민으로, 우리 인민군대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으로 세계 혁명적 인민들속에서 높이 칭송받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빛나는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았으며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의 세계제패의 야망을 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세계 혁명적 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35년이 지나갔지만 우리 조국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깃들지 않았으며 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워져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항시적으로 강점하고있으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놈들은 오늘 《올림픽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수많이 증강배치해놓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모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만약 놈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된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과시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움으로써 그들이 혁명적 수령관과 함께 옳은 전쟁관점을 가지고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제도, 자기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주체적 군사 사상과 전법으로 군인들을 무장시키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군인들과 인민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 기풍

홍 시 학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련이어 나서고있다. 현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활동하는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일군들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지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우리 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역할에 의하여 중요하게 좌우된다. 지금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거창하게 벌어지고있는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사회주의 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쥐고있는 일군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당정책을 외곡하거나 그 집행을 중단하는 일이 없이 정확하게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한다는것은 일군들이 제시된 당정책을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빛나는 결실을 볼때까지 그것을 중단함이 없이 근기있게 관철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신하려는 일군들의 높은 정치사상적 각오의 발현이며 당정책의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결한 풍모이다.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가의 본분이며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일본새이다.

혁명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한생을 다 바쳐 싸울것을 결심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자각적인 투사이며 우리 일군들은 이 땅우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참된 혁명가이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공산주의자,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혁명가로서의 우리

일군들의 활동과 본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같이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는것이다. 물론 혁명투쟁과정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될수 있다. 이미 받은 과업을 채 끝내기전에 새로운 과업이 제기될수 있고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해야 할 과제가 나설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하던 일을 끝장을 보지 않고 줴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당정책을 제대로 관철할수 없다.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세게 투쟁하여 끝장을 내야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일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5분열도식으로 처음에는 벅적 떠들다가 얼마 못가서 하던 일을 끝내지 않고 중도에서 줴버리거나 질질 끄는것은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고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들, 참된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당정책적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여도 그것을 다같이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그들은 당정책이 자랑찬 결실을 맺기전에는 절대로 손을 떼지 않으며 일단 당정책적 과업이 제시되면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관철해나간다.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오랜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온 로혁명가들이 바로 그러하였다. 그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였으며 자기 직책상 본분을 언제나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것이 삶의 최고목적이였으며 투쟁과 생활의 전부였다. 우리 일군들은 그들처럼 사고하고 일할 때 당과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진행되게 되며 혁명의 전략과 전술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이다. 이것은 어느것이나 다 일관성과 계승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전술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혁명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다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혁명의 전망적 과업과 함께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따라 당면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도 다 반영되여있다. 이러한 당면과업들은 이미 제시된 전략적인 로선과 정책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이처럼 일관성과 계승성을 가지는것만큼 마땅히 그것을 관철하는데서도 일관성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인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적 과업을 관철하는 사업을 통하여 진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당의 로선과 당면한 투쟁과업을 밝힌 당정책을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새로운 당면과업이 나섰다고 하여 전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것을 소홀히

해도 안되며 그렇다고 당면과업을 수행하는데 관심을 적게 돌려도 안된다. 새로운 당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이미 제시된 당정책과 밀접히 결부시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적 과업들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일본새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사소한 우여곡절이 없이 승리적으로 확신성있게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은것도, 전후 성한 벽돌 한장 없이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도 다 우리 당이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이 확고히 견지됨으로써 오늘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근본방도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비롯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들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그리고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그것은 지난날뿐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 재부로,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여도 이미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벌리며 당면하게는 200일전투를 더욱 승리적으로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충성의 200일전투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부강한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락원으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의 200일전투기간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전투과업은 아직도 많다. 점령하여야 할 투쟁목표가 방대하고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우리 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야 한다.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4페지)

당정책을 어떤 태도와 립장에서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정책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을 접수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옳바른 태도와 립장으로 되며 그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는 혁명가이다. 매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에게 충성다하는 길이 곧 자기자신을 위한 길이며 자신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길로 된다.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사상과 그를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여 사회정치적 집단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혁명가의 보람과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가지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때문에 일군들은 혁명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고결한 혁명정신, 높은 혁명성을 가져야 한다.

혁명성은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일군들로 하여금 백절불굴의 투지와 강의한 의지,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 열정,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바탕이다. 높은 혁명성만 가지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수 있고 아무리 방대한 과업도 제힘으로 해낼수 있으며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됨이 없이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불리한 조건이 제기될수 있다. 조건이 어렵고 난관이 클수록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그것을 맞받아 뚫고나가는것은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질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드는 그런 혁명정신이 있어야 한다. 난관앞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하는것은 신념이 없는 행동이며 혁명성이 부족한 표현이다. 높은 혁명성을 가진 일군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앞에서 겁을 먹고 뒤걸음질을 치는것이 아니라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걷는 정신으로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간다.

우리 일군들은 사업에서 항상 난관이 제기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언제나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나서면 나설수록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그 집행을 위한 묘안과 수를 찾아내여 끝까지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고리들도 쉽게 풀릴수 있는 중심고리가 있고 선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업도 있게 된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은 이것저것 사업을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 당의 요구와 주어진 조건, 구체적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력량을 분산시키거나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만지는 식으로 일하게 되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일군들은 무슨 일에서나 끊고맺는 결단성을 가지고 일을 하나씩하나씩 모가나게 해제끼는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또한 중심고리에 힘을 넣으면서도 사업전반을 틀어쥐고 다같이 밀고나갈줄 아는 전개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한가지 일을 할 때 두가지 세가지 일을 해제끼는 솜씨로 당에서 열가지 백가지 과업을 주어도 그것을 다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이 있고 전개력있는 참다운 일군이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다그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러한 일군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끝까지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빈틈없는 조직사업이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이란 없다.

세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여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움직이게 할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일부 단위들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일관하게 관철되지 못하고 중도반단되고있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중요하게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집행대책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지 않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집행대책을 세우며 사람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분공을 잘 주고 누구나 다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사업을 포치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당정책집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똑바로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더욱더 보람찬것으로 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빛나는 전통

오 재 원

수령, 당, 대중이 혈연적으로 결합되여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과정은 곧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것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과정이며 그 불패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우리의 혁명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만이 위대한 당을 건설하고 위대한 인민을 키워낼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혁명의 려명기에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원형이 마련되고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 *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만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 출현하여야 하며 수령에 의하여 혁명적전위조직으로서의 당이 창건되고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의 빛나는 전통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마련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3페지)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는것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이며 중심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출현하여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내놓고 그것으로 무장한 선각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당을 창건하며 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할 때 그들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결합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정에서 확증된 진리이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은 피의 교훈을 통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일일천추로 갈망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선행한 민족주의자들과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찾으시였으며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투쟁에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한마음한뜻으로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로 우리 인민은 지난날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력사의 비극을 끝장내고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수령과 대중을 혈연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은 당에 의하여 수행된다. 당은 수령의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결속해나가게 된다. 당의 이와 같은 중추적 역할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게 되며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 기초를 확립하시는 한편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로 혁명의 전위조직을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사대주의에 물젖지 않은 순결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 혁명대오의 핵심력량을 꾸려나가시였다. 1926년에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과 그것을 계승하여 조직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통하여 선진적인 청년들이 결속되고 혁명조직의 골간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을 확대하시였으며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광범한 대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이리하여 수난과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조선혁명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빛나는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는 그 간고한 나날에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을 광범히 내오시고 그에 대한 정연한 조직지도체계를 세우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서와 유격구들, 국내외의 넓은 판도에서 당조직이 광범히 조직되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가 마련되였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의식화, 조직화되여야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있으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당조직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조직들을 건설하고 확대발전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가 창건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항일혁명대오에 튼튼히 결속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조직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이 이룩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대오에 굳게 결속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광범한 반일군중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통일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합하는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존재와 그 건전한 발전은 공고한 조직사상적 결합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려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결합시키는 유일사상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조직적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사상적 기초로 삼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사상적 기초이며 수령과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결합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결합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의식화되여야 한다.

항일혁명대오에 있어서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였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등대였으며 항일혁명대오를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기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보급하고 전파하며 그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이 광범한 혁명군중속에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함으로써 수령과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결합을 위한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모든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쳤다.

1928년 늦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받고 고산자일대에서 활동하던 차광수동지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켜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잘 보여준다. 당시 이 일대에 둥지를 틀고있던 《엠엘파》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헐뜯으면서 청년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백색테로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관철할수 없다고 생각한 차광수동지는 이자들과 담판하는것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한별정신은 우리의 생명이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운명이 한별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는 일인데 어떻게 한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할수 있겠소.》라고 하면서 놈들의 소굴에 들어가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을 지켜냈으며 항일혁명대오안에 사상

적 순결성을 실현하고 사상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간직한것으로 하여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종파사대주의, 민족개량주의의 온갖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 통일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직사상적 결합은 하나의 중심을 전제로 하며 조직사상적 결합의 공고성은 이 중심의 확고부동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조직사상적 결합의 중심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수령이다. 개별적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중심인 뇌수의 지휘에 의하여 결합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것처럼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힘을 자각하고 하나의 사회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뭉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없는 존경과 신뢰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부터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나갔다. 최근에 백두산밀영일대에서 발굴된 구호목들에 새겨져있는 내용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찾아볼수 있게 한다. 수백대나 되는 나무에 새겨져있는 구호들에는 《2천만 일심 독립조선 대통령 **김일성**》, 《독립후 2천만 최고원수 **김일성**》, 《2천만조선인민 최고지도자 **김일성**》, 《전민일심으로 **김일성**대장 받들자》를 비롯하여 당시 우리 나라 8도강산의 2천만의 전체 인민이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야 한다는것, 나라가 독립된후에도 **김일성**장군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한다는 사상이 력력히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은 구호들은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충성으로 불타게 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과 인민의 혈연적 통일의 위대한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여주고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의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혈연적인 통일을 실현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때문에 그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9페지)

조직사상적 통일과 도덕의리적 단결을 결합하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단결의 중심이 확고하고 사상과 목적이 일치하여도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받드는 도덕의리적인 감정이 없이는 수령과 전사, 당과 대중이 혈연적으로 통일될수 없으며 일심단결이 이루어질수 없다.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그것이 참으로 의식적인것으로,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 대오에서 싸워나가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믿음과 도움을 줌으로써 개변적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게 한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로 표현된다. 수령은 혁명전사들에게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며 전사들은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간다.

이리하여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사랑과 충성, 믿음과 보답의 진정한 혈연적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의 빛나는 모범을 귀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공고발전된 참다운 통일단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에 큰 뜻을 품고 찾아오는 동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였고 그들에게 친부모도 안겨줄수 없는 뜨거운 은정과 배려를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그러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의인》, 《정의인》으로 높이 우러르고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키워오신 그 고귀한 사랑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을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아 보살피시여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대원들을 아끼시여 돌려주신 한홉의 미시가루에도,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나가는 대원들의 신발에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전사들을 생각하시여 남기신 쉰개의 가루봉지에도 력력히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는 전사들에게 불바람 휘몰아치는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도 끝까지 시련의 고비를 넘고 생사를 같이하려는 굳은 혁명적 의지와 지조를 간직하고 동지적으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칠수 있게 한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그러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자기들의 혁명적 본분으로, 마땅한 도리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였으며 철창속에서도,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수령님께 다진 맹세와 혁명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켜 싸울수 있었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또한 혁명의 길에서 함께 투쟁하는 혁명동지들사이에서도 높이 발현되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상하, 관병이 참다운 혁명적 우의로 일치단결되여있었고 대원들모두가 혁명의 길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로 굳게 결속되였다.

항일혁명대오는 이처럼 수령과 전사, 전사들 호상간에 진정한 동지적 사랑으로 굳게 결합됨으로써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혈연적인 통일단결을 이룩

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그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것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행정이며 그 불패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여온 자랑찬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주체의 혁명적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심으로써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심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가장 위력한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위대한 전통이 있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일심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당으로,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을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위업이 주체의 주동적 작용과 능동적 역할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종국적으로 완성되여나가는것만큼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이다.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강화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며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싸워나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단결을 떠나서는 혁명의 주체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일심단결함으로써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며 혁명전통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이 혈연적으로 통일단결되여 이루어진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장기간의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가장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빛나는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200일전투와 군중정치사업

김 성 태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20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조직진행되고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200일전투는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전례없이 방대하고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인 전투이다.

방대한 규모에서 거창하게 벌어지고있는 200일전투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정치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 열성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이며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당사업과 당활동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당사업은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으로 시작되고 사람과의 사업으로 끝나는것이 당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200일전투를 지도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반드시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게 당조직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비롯한 당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200일전투과제를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며 여기에 바로 20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다.

200일전투를 당적으로 밀어주고 정치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당일군들의 기본임무는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군중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각성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군중정치사업은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이다.

군중정치사업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여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방법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은 혁명의 주체의 위력과 그의 추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된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체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며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영웅적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어야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사상적 량식을 주면서 꾸준히 교양하고 옳게 이끌어주어야 빨리 발전하게 되며 혁명화된다. 행정적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고 그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혁명화하는 사업은 오직 꾸준히 해설하고 설복하며 인내성있게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정치사업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군중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수 있게 하며 위대성교양과 온덕교양을 강화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수 있게 한다.

혁명적 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군중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200일전투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갈수 있게 한다. 군중정치사업은 또한 200일전투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모범과 혁신적 성과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함으로써 대중을 감화시키고 그들의 사상개조과정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며 각계각층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한다.

이처럼 군중정치사업은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군중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며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그 주인이며 직접적 담당자인 사람부터 움직이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은 사람이 하며 전투는 대중이 벌린다.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모든것은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이 힘을 낳고 기적을 창조한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혁명적 열의와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200일전투장들마다에서 집단적 혁신과 거대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200일전투의 성과여부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혁명투쟁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발양된다.

군중정치사업은 200일전투의 목적과 의의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귀착시켜 인식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200일전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실천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는 과정으로 보고 대하게 한다. 군중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200일전투가 당의 위력을 강화하고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전투과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끝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안게 되며 그것이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의 표시라는것을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 정당성과 수행방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게 된다.

군중정치사업은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림에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해설침투하고 그 정당성을 확신시키며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파악시켜 광범한 대중이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가지고 200일전투에 떨쳐나서게 한다. 당일군들은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것은 어떤것인가를 제때에 알려주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한다.

사람들은 정치사상교양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발동될뿐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서도 혁명적 열의와 투쟁의욕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군중이 살며 활동하는 모든 단위, 매개 초소들이 전투적 분위기로 들끓고 창조적 기백으로 약동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극과 충격을 받아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를 바로잡고 200일전투에 한몸바쳐나서야 하겠다는 강한 의욕과 높은 자각을 가지게 되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군중정치사업은 온 사회에 전투적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군중정치사업은 직관물과 방송선전, 경제선동과 예술선동을 비롯한 사상사업의 모든 수단들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들을 통하여 전투적이며 격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며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약동하는 혁명적 기상이 차넘치게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다 마음이 동하고 힘이 용솟음쳐 스스로 전투장에 뛰여들어 위훈의 창조자, 혁신의 선구자가 되게 한다.

이 모든것은 군중정치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켜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는것으로 하여 전투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기본열쇠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당위원회는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200일전투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도적인 경제선동대를 편성하고 그들을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파견하여 집중적인 경제선동을 벌리게 하였으며 선동원들에게 강습을 주어 그들이 매개 전투초소마다에서 전투적이며 호소적인 선동을 기동성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록영화 《우리는 빈터우에서 이렇게 자라났다》에 대한 실효모임을 조직하여 모두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세로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게 하였다. 또한 우리는 1211고지전투참가자들을 준비시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타는 고지와 전호속에서 피끓는 가슴에 충성의 맹세를 다지고 결사전에 떨쳐나서도록 전투원들을 불러일으켰던 화선정치사업의 그 본때대로 선전과 선동을 전투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앙양된 전투적 분위기로 들끓게 하였으며 광범한 군중이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 열의를 안고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경험은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 때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거대한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군중정치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일군들은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군중이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가지고 200일전투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이 앞장서고 모든 간부들이 다 한몫씩 맡아 선전선동활동을 벌리게 하여 어디서나 늘 대중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는것은 2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혁명적 열정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며 생산과 건설에서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신심을 가진 혁명가들, 승리를 락관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높이 발휘될수 있다. 신심을 잃고 락관을 가지지 못하면 시련앞에서 동요하게 되고 난관앞에서 주저앉게 된다. 적과의 피어린 결전에서나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든 승리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전도를 락관하는 혁명가들의 승리였으며 모든 패배는 일시적인 난관과 시련 앞에서 희망과 신심을 잃고 자기의 전도를 비관하는 비겁한 사람들의 패배였다. 승리의 신심과 락관만 있으면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고 불타는 강, 험한 진펄길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다.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은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과 자기 조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생겨나게 된다. 당이 위대하고 민족이 강하며 나라가 위력하여야 인민들이 언제나 자기의 힘과 위업의 불패성을 믿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당면하게는 200일전투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이 가장 위대하고 위력하며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우리 제도가 가장 좋다는것을 깊이 확신시켜 그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의 통일체로 굳게 결속된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있으며 그 어떤 방대한 건설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가 있는 한 200일전투의 승리는 락관적이며 확정적이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200일전투에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성과 강한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며 200일전투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성과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난관에 굴하지 않고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200일전투를 패기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그들모두가 200일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여야 한다.

군중정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각계각층 군중들을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 열의를 가지고 2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이다.

200일전투는 군중이 동원되여 벌리며 따라서 200일전투의 승패는 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잘하여야 하며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면서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진공적으로 벌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당일군들은 복잡한 군중들과 자주 접촉하고 주동적으로 만나 담화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문제를 풀어줄것을 요구하는가를 료해하여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진지하게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각계각층 군중에게 당적 신임을 안겨주는것은 그들이 불타는 충성심과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200일전투에 떨쳐나서게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사랑과 믿음은 보답의 길우에 충성을 꽃피우는 원천으로 되며 정치적 신임에는 충성심이 따르게 된다. 당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성은 당의 정치적 신임의 귀중함에 대한 높은 자각과 그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심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답이라는 의리심을 가지게 한다. 안겨지는 믿음이 크고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에 보답하려는 지향과 열정도 그만큼 뜨겁고 강렬해진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의 정치적 신임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힘을 주는것은 없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주게 될 때 어머니당의 믿음과 사랑이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게 할수 있으며 그들모두가 200일전투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고도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각계각층 군중에게 당의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어 그들이 우리 당을 열렬히 지지하고 신뢰하며 일편단심 당을 받들고 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충성심을 안고 더 열성적으로 일하게 하여야 한다.

군중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항일유격대식 군중정치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창조하시고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언제나 대원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연설과 해설담화도 하시고 학습과 연예공연 등도 조직지도하시면서 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중정치사업방법과 몸소 보여주신 실천적 모범을 본받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 정치공작원들은 대원들과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격식과 틀이 없이 해설담화도 하고 혁명가요도 보급하면서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군중정치사업의 위대한 모범과 고귀한 경험을 빛나게 계승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200일전투장들에서 군중정치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항일유격대식 군중정치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이다.

군중정치사업은 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진행된다. 대중과 떨어진 군중정치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일군들이 군중정치사업을 잘하자면 마땅히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야 한다. 대중이 살며 일하는곳에는 어디에나 당일군들이 내려가고 당일군들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군중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 전진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며 의도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정치공작원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정치공작을 한것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침식을 함께 하고 일도 같이하면서 군중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더 많은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이 진정으로 군중속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헤쳐보지 못하고서는 참말로 군중속에 들어갔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군중과 한데 어울리고 호흡을 같이하면서 서로 진정을 주고받아야 당일군들이 군중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으며 마음속 깊은 생각과 가슴속 깊은 사연까지 다 알아낸데 기초하여 군중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허물없이 어울려야 하며 소탈한 품성을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담화도 하면서 사람들을 실속있게 교양하여야 한다.

선전선동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정치사업을 벌리는것은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정치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옳게 설정되고 정치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이 다 동원되지 않고 옳은 형식과 방법이 적용되지 못할 때에는 정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를수 없다. 모든 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이 적용되여야 정치사업의 실효를 높일수 있으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원래 군중정치사업은 각계각층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이다. 정치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의지를 굳세게 하고 행동에 적극성을 부여하려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이 생동하고 실속있게 진행되여야 하며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어져야 한다.

당일군들은 결치레나 하고 회수나 채우며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로써 정치사업을 대치할것이 아니라 대상의 수준과 혁명임무의 특성, 주어진 조건과 조성된 정황, 군중의 동향과 심리에 맞는 생동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 참신한 방법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군중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은 대건설전투장들이 앙양된 전투적 분위기로 들끓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온 나라가 200일전투의 앙양된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망은 락관적이며 200일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군중정치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당일군은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박 병 춘

당일군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제일생명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투철하여야 하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기풍의 하나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늘 깊이 연구하며 착실하게 일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는것은 당정책에 담겨져있는 당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진지하게 탐구하며 일단 방법론이 선 다음에는 주저와 동요없이 일판을 크게 벌리고 사업을 기백있게 내밀어 끝까지 해제낀다는것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은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두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활동은 창조적 활동과정으로서 여기에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사물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능동적인 사고활동이다. 사람들은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해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을수 있다. 당일군들이 끊임없이 사색한다는것은 곧 당정책의 본질을 깊이 연구파악한데 기초하여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당정책관철의 방도, 묘술을 탐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색은 혁명실천의 전제로 되지만 그것만으로써는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은 인식활동과 함께 실천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사물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기 위하여 사색하는것은 구경은 제기된 문제를 풀고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려는데 있다. 당일군들이 대담하게 실천한다는것은 곧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여 포치하며 그것을 강의한 의지와 높은 열정을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끝까지 해제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활동에서 떼여낼수 없는 두측면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인 사업기풍으로 된다.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기풍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당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해나갈수 있게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영예로운 혁명적 본분이다.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당사업을 맡아하고있다. 당사업은 사람들을 대상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여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다. 당사업의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으며 당사업의 성과는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야 한다. 원래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은 곧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당의 모든 사업은 철두철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 집행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된다.

당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거기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

당의 정책적 요구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하는것은 당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작전하고 포치하며 전개해나가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 원칙을 옳게 구현해나가자면 사색을 깊이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이며 거기에는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깊이 사색하고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당정책의 본질과 거기에 담겨져있는 당의 의도를 환히 꿰들수 있다.

당정책을 해당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도 결코 쉽게 찾아낼수 없으며 그것은 일군들이 정력적인 탐구력을 가지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할 때만이 나오게 된다. 고심어린 탐구과정을 통하여 세밀히 따지고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낼수 있다.

당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해나가자면 또한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혁명투쟁과정, 당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은 난관과 애로를 뚫고나가는 과정이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에는 반드시 난관과 애로가 제기되기마련이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당일군들이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가져야 한다.

대담성이 없으면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겁을 먹고 주저하거나 동요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당정책관철이 중도반단되게 된다. 일군들은 언제나 대담하고 용감하여야 하며 그래야 일을 크게 제낄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저와 두려움을 모르고 투쟁하는 정신, 이러한 대담성이 있어야 난관과 애로가 제기되여도 그것을 용감히 맞받아나아가 이겨내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 기풍을 가지고 일할 때 당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해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영예로운 혁명적 본분을 다할수 있다.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기풍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당일군들이 사업에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높은 혁명성

과 전투력을 지녀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는것은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서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당일군들은 그 누구보다도 혁명성이 높아야 하며 전투력이 강해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수 있다. 항일혁명투쟁, 새 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등 준엄하고도 간고한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면 적과의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상상할수 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혁명성과 전투력은 중요하게는 일군들이 언제나 혁명적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일하는데서 나타난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며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의 일생이다. 혁명사업에서는 오직 전진, 전진, 투쟁 또 간진만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 열정과 왕성한 투지와 패기를 가지고 일하는 일군이 바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한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정력적인 사색과정에서 생겨나고 대담한 실천투쟁속에서 높이 발휘되게 된다. 당의 의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더 빨리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통이 큰 작전과 대담한 실천이 없이는 왕성한 사업의욕이 생길수 없고 기백있게 제기된 과업을 해제낄수 없다. 만일 사색이 중단되고 대담성이 결여되면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로쇠하여 아무런 창발성도 내지 못하고 앉아뭉개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성과 전투력이 마비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오직 당일군들이 열정적인 사색가, 대담한 실천가가 될 때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닌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다.

우리 태탄군당위원회는 실지사업과정에서 정열적으로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기풍을 가지고 일할 때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대동강물을 태탄땅에 끌어오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단시일내에 해제낀 사실 하나만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알곡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황해남도의 구체적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황해남도 경제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완성된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하며 그러자면 서해갑문이 완공된 조건에서 물길공사를 잘하여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 군에서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다.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우리 군의 농업생산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절실한 문제였다.

하천리와 목감리를 비롯한 군안의 일부 리들에서는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 힘있게 내밀자면 물문제부터 보다 원만히 풀어야 하였다.

물문제를 풀기 위한 저수지건설이 국가계획에 예견되여있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길공사를 잘하여 물문제를 풀데 대하여 하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해갑문의 완공으로 대동강물이 흘러드는 어천저수지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하고 해당 실무일군들을 데리고 현지를 밟으면서 그것을 확정하였다.

어천저수지물을 끌어오는것은 아름찬 일이였다. 그중에서도 탑평리에서 팔봉산중턱을 따라 공세리까지 15리구간에 물길을 째는것이 난공사였다. 그러나 이 공사만 하면 우리 군의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수 있었다. 우선 군의 농경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000여정보의 논밭들에 대동강물을 보충하여 더 충분히 대줄수 있었다. 그리고 해발 100메터가 넘는 팔봉산허리에 물길이 뻗어나가게 되여 공세리, 학천리, 목감리들에서는 양수기없이 자연수압에 의하여 분수식 밭관수를 할수 있고 200여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수 있었다. 이 물길공사만 하면 또한 국가계획에 예견되여있는 저수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가지고있는 30여개의 양수장이 필요없게 되여 많은 로력과 자금, 설비와 자재를 절약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군안의 여러 저수지들에도 물을 충분히 채워넣을수 있었다. 그리고 소형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전망도 열어놓을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것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과학적으로 확증한데 기초하여 탑평리와 공세리사이의 물길공사를 벌릴것을 군당집행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하였다.

이 방대한 공사를 우리는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여 단시일내에 해제낄 대담한 작전을 하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로력이 매우 긴장한 때였다. 그러나 우리는 물길공사와 영농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내밀었다.

우리는 리별로 공사구간을 분담하고 군당의 책임일군들을 매개 리의 전투장들에 내보내여 당조직들을 움직이고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힘있게 들이대게 하였다. 그리고 군안의 로동자, 사무원들도 모두 떨쳐나 공사를 지원하게 하였다.

물길공사는 우리들이 예견하였던것보다 힘들게 진행되였다. 원래 작업량이 많은데다가 굳은 땅을 뜯어낸다는것은 수월치 않았다. 게다가 암반과 차돌밭에 맞다들게 되여 공사속도를 좀처럼 높일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속에서 동요하고 주저앉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 공사를 짧은 기간에 도저히 할수 없으니 한해 농사나 다 짓고 보자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공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그리고 일단 시작한 공사인것만큼 끝장을 보아야 하며 그래야 농사를 안전하게 잘 지어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다는데 대하여 해설설복하면서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사업을 들이대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다시 일떠세웠다. 공사전투장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였으며 마침내 그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예견한 대로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꼈다.

우리는 물길공사를 단시일내에 끝낸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군안의 비생산부문의 로력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양수장건설을 비롯하여 남은 공사까지 말끔히 끝내고 통수식을 하였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 대담하게 밀고나갈 때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것이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우리는 이 경험을 살려 이미 이룩한 성과

에 자만하지 않고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짓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군을 더 잘 꾸리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경제림과 원료기지 조성사업,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전재기지를 꾸리는 사업 등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다그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로 들끓고있다.

매우 방대하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을 벌리고있는 200일전투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조금도 자만할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최후총돌격전을 벌려 방대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일군으로 될것을 바라고있다. 말로써는 방대한 200일전투과업을 현실로 전변시킬수 없고 당과 혁명에 진정으로 충실할수 없다.

우리 당일군들이 당이 바라는 창조적 사색가가 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색하는데 피타는 정력을 기울이는것이다.

사색은 그자체가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다. 정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사색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없다. 남보다 적게 쉬고 적게 자는 한이 있더라도 분초를 아껴가며 매일, 매시각을 정열적인 사색으로 이어나갈 때 기발한 착상도 떠오르고 합리적인 묘술도 찾아낼수 있으며 당이 준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일군들은 예술영화《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 차석빈처럼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며 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당정책관철을 놓고 사색하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러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이 사색을 깊이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늘 현실속에 들어가는것이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은 현실속에서 벌어지며 현실은 우리 당일군들의 사색의 원천이다. 현실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만큼 식견이 좁을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색을 잘할수 없다. 가장 의의있고 가치있는 혁신적인 대책과 과학적인 방법론은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실속에,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색할 때 찾을수 있다.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때 참으로 훌륭한 사색의 열매를 얻게 된다. 우리 당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군중을 교양하고 당정책집행을 위한 방도를 찾아내며 그 관철에로 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고 일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색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수준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람들은 아는것만큼 보고 받아들이며 판단하고 처리한다. 일군들이 정치적 식견과 기술실무적 자질이 높아야 당이 의도하는 높은 수준에서 옳게 사색하고 행동할수 있다.

아무리 당정책을 관철하려는 열성이 높고 분주히 뛰여다닌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딸리면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아낼수 없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정치적 식견을 넓히고 리론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자기가 지도하는 부문의 실무에 정통하며 경제관리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색이 있으면 실천이 있어야 한다. 실천을 떠난 사색은 아무리 해도 무의미하다. 끊임없는 사색에 대담한 실천이 안받침될 때라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정열적인 사색가가 될뿐아니라 대담한 실천가가 되여 200일전투과업수행에로 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담한 실천가가 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포치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담하게 달라붙어 판을 크게 벌려야지 오물쪼물하여서는 일자리를 내지 못합니다.》

대담한 실천은 언제나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데서 표현된다.

대담한 실천으로 큰일을 하려면 통이 크게 궁리하며 목표도 크고 높게 세워야 한다. 사업의 설계를 쩨쩨하게 하고 투쟁목표를 낮게 내걸면 큰일을 할수 없으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최소한의 력량으로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사업의 첫 시작부터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담한 실천가가 되기 위해서는 포치된 사업이 끝까지 집행되도록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대담한 실천은 사업을 어떻게 내미는가 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아무리 일을 크게 설계하고 포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공적으로 내밀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팡팡 내미는 일군,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대담한 실천가이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일군이다. 당일군들은 사업을 일단 포치한 다음에는 거기에 력량을 총동원하고 집중공세를 들이대여 끝장을 보는 일본새를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담하게 실천하자면 제힘을 믿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실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이다. 따라서 제힘을 믿어야 대담하게 실천할수 있다. 무슨 일에서나 자기가 주인이라는 립장,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나가려는 정신이 없이는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갈수 없다. 제힘을 믿지 않고 조건타발이나 하며 누가 도와줄것만 바란다면 좀처럼 일자리를 축낼수 없고 자그마한 난관이 제기되여도 주저앉고말게 된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제힘, 군중의 힘을 믿고 사업과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용기를 내고 군중을 발동하여 그것을 뚫고나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이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대중과 진지하게 토의하여 난관을 이겨낼 대책을 세우고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용감히 싸워나간다면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일군들을 믿고 중요한 혁명초소를 맡겨주었다. 우리 당일군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우리 당일군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우리는 이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앞으로도 자기 맡은 사업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내며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갈것이다.

전력은 현대공업의 기본동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

최 정 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강령적 교시들에서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태와 그 전망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전력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력공업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는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며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인민경제체계에서 전력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전력생산의 특성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전력공업정책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짧은 기간에 전력생산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전력공급계통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마련된 전력공업의 생산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그것을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력공업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급속히 확대강화되고있는 현대적인 자립적 공업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실현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개조와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원래 동력기지를 튼튼히 축성하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의 하나는 동력이며 생산력의 발전은 동력문제의 해결정도에 직접 의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열과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입니다. 동력이 없이는 공업과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움직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78페지)

전력은 현대적 생산의 기본동력으로서 그것이 보장됨이 없이는 공업과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제대로 움직일수 없다. 특히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같은 시각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있으므로 생산을 확대하자면 전력생산부터 늘여야 한다.

동력기지를 튼튼히 축성하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켜야만 경제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추진시키고 새로운 생산공정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공업생산의 기술적 토대를 비상히

강화할수 있다.

전력공업의 발전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앞세운다는것은 전력수요보다 더 많은 발전능력을 갖추는것이며 이것은 결국 예비용량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으로 된다. 전력의 예비는 그 생산기술적 특성으로부터 오직 발전시설물의 형태로만 조성될수 있으며 그것을 마련하는데는 많은 로력, 자재, 자금, 시간이 든다.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발전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미리미리 예견성있게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벅찬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전력공업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급속히 늘여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계단확장공사가 끝나게 되면 주체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된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일떠섬에 따라 공사용 전력을 충분히 보장하며 운영단계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발전능력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데뿐아니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사업에도 많은 전력이 요구된다.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푸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농사에 힘을 넣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 확고한 결심밑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나가고있다. 4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지방마다에서 여러가지 동력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전력에 대한 수요는 또한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더 많아지고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는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기제품들을 널리 리용하면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텔레비존, 랭동기, 세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기제품들을 널리 리용함에 따라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전력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전력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전력공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미 마련된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오늘 제3차 7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는데서 관

전적 의의를 가지는 발전소건설에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대건설행군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상반년에 여러 발전소건설을 끝낸 기세로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력, 화력, 풍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동력자원을 적극 리용하여 도처에 중소형 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용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전재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게 된 건설자재들을 계획에 예견된대로 생산보장하며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그것을 제때에 실어 날라다 주어야 한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 발전소건설이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발전설비들과 전기기구,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발전소건설을 맡고있는 단위들에서는 자재와 기계설비,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능률적인 건설설비들과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들에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력자원을 조사장악하고 자체의 내부예비와 모든 가능성들을 동원하여 중소형 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미 마련된 전력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이다.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이미 마련된 전력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새로운 발전소들을 건설하는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마련된 전력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되면 새 발전소건설에 비하여 국가적 투자를 적게 들이거나 들이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나갈수 있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발전소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만부하로 돌리며 그 리용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쳐 발전설비들과 송변전시설들을 현대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발전소들과 송변전부문에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일수록 전력 생산과 공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우리는 전력생산의 완전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실현하며 전력계통에 전자계산기와 원격조종장치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설비들의 관리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전력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그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송변전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전력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하며 송전능력을 높이고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없애야 한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절약하는것이다.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 전력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는데 있다.

새로운 발전소들을 건설하는데는 많은 로력, 자재, 자금이 들고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는것은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빠른 기간에 급속히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한다.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전력의 도중손실을 낮추고 력률을 높이게 되면 이미 있는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더 많은 전력수요를 보장할수 있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력랑비를 없애고 절약하는것은 전력계통에 그만한 전력예비를 조성하게 되며 그것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해결하는 중요

한 방도로 된다.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절약하는것은 결국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것과 같은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교차생산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드는것은 전력을 많이 생산할 때나 적게 생산할 때나 할것없이 경제조직사업에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교차생산조직을 잘하여야 생산단위와 전력계통에서 전력의 최대짐을 줄이고 부하곡선을 평탄하게 할수 있으며 주어진 전력으로 생산을 빨리 늘이면서도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 교차생산은 반드시 해당 단위에 맡겨진 생산계획과 전력소비한도량을 엄격히 지키는 원칙에서 교대별, 설비별로 원료, 자재 보장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구체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단위에서 교차생산규률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된다.

전력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낮추어야 한다. 특히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부문들에서는 기술공정의 요구대로 설비의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고 원료를 철저히 정선하여 쓰며 선진기술공정을 받아들여 제품 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기절약을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전기기계들의 효률과 력률을 높일수 있도록 품종을 더욱 개선하고 그 생산을 늘이며 전력을 많이 쓰는 공정을 전력을 적게 쓰거나 안쓰는 공정으로 바꾸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와 함께 송배전소들에서 정비보수사업을 잘하며 전력계통의 운영을 개선하고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여야 한다.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발명, 창의고안,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전기절약을 위한 투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는것은 전력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이다. 전기를 절약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늘이고 사회주의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이 사업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애국심의 높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기절약을 위한 사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공장과 일터, 거리와 가정들에서 한와트의 전력이라도 극력 아껴쓰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이 부문의 일군들이 맡겨진 의무를 얼마나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해당 단위의 생산과 건설을 책임지고있는 지휘관들이다.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일군들이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당의 의도에 맞게 대건설을 위한 거창하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대건설로 들끓는 전투현장에 늘 내려가 대중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끊임없이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조직사업을 기동적으로 따라세우고 걸린 고리를 제때에 찾아내어 풀어주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력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전력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최 복 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있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는 현시기 1,100만톤의 수산물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오늘 우리 수산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의 해양지리적 특성과 수산업의 발전전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입니다.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는 우리 나라는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이 매우 큽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36페지)

수산업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인민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에는 수산동식물자원이 풍부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찬물과 더운물이 합치는 조선동해에만 하여도 600여종에 달하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있으며 기슭바다의 이르는곳마다에는 다시마와 섭조개를 비롯한 바다나물과 조개류들이 많다.

가까운바다와 먼바다, 얕은바다와 깊은바다 할것없이 우리 나라의 바다에는 그 어디에나 정착성어족과 회유성어족, 바다가양식자원이 있다.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키면 철따라 밀려드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대량적으로 잡을수 있으며 바다나물과 조개류들을 많이 생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수산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우리 나라의 해양지리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가장 정확한 수산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수산업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해양지리적 조건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

에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고기배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내고 현대적인 어구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철저히 세우면 사철 많은 물고기를 잡아낼수 있으며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예견된 한해 300만톤이상의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다.

바다가양식을 잘하여도 바다나물과 조개류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된다. 다시마양식을 잘하면 정보당 다시마를 100톤이상 낼수 있으며 섭조개를 양식하는 경우에 정보당 400톤을 딴다고 하여도 조개살을 160톤이나 생산할수 있다. 웃층에서는 다시마와 섭을 혼합양식하고 밑층에서는 성게, 해삼, 밥조개를 양식하는 방법으로 바다를 립체적으로 리용하면 훨씬 더 많은 바다가양식물을 생산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바다에는 바다가양식에 유리한 수역이 많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다시마, 미역, 김을 비롯한 바다나물과 섭조개, 밥조개, 굴, 전복, 해삼 등의 바다가양식면적을 10만정보로 늘이면 그 생산량을 모두 800만톤에 이르게 할수 있다.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때 제3차 7개년계획의 수산물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처럼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수산업발전의 확고한 전망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 수산업의 발전전망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수산업의 위력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배무이기지와 배수리기지, 배부속품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으며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에 의거하여 현대화된 큰 고기배들과 여러가지 중소형 고기배들을 많이 무어내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변변한 배 한척 없던 우리 나라 수산업이 오늘은 1만톤짜리이상의 가공모선과 5,000톤짜리 랭장운반선, 3,750톤짜리 고기배를 비롯한 크고작은 여러가지 고기배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수산업으로 발전되였다.

고기배들이 늘어난것과 함께 이미 있던 어항들이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되고 새로운 어항들이 건설되였으며 튼튼한 어구생산기지들에 의거하여 현대적인 어구들과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동서바다가의 이르는곳마다에는 현대적인 고기배와 어구, 양식시설을 그쯘히 갖춘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 바다가양식사업소들이 있으며 중요한 어항들에 랭동공장, 통졸임공장, 물고기절임공장 등 물고기 저장시설과 가공시설들이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 수산업은 최근 시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된 기술장비와 과학적인 어로체계, 양식체계를 갖춘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위력한 수산업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대단하며 그것은 수산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수 있는 커다란 밑천으로 된다.

우리에게는 수산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와 함께 위력한 과학기술력량과 풍부한 경험도 있다.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도 과학연구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이 부문에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가 있다. 우리는 지난날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제시된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여 수산물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온 귀중한 경험

도 가지고있다.

이 모든 현실적 가능성을 옳게 동원리용하면 수산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이처럼 우리 나라 수산업의 확고한 전망과 현실적 가능성에 튼튼히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이 있으며 불패의 생활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면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대로 인민들의 생활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먹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함께 수산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경지면적이 많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늘여야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할수 있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때 대건설행군에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와 바다나물, 조개류들을 사철 떨구지 않고 더 많이 공급할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더 빨리 실현할수 있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여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이루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은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며 매개 경제부문들의 역할에 따라 전반적인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이 좌우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가 빨리 발전함에 따라 원료, 자재의 소비가 매우 많아지고 그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수산물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소비하는 중요한 원료의 하나이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록 식료가공공업과 화학공업, 제약공업에 수산물원료를 충분히 대주고 축산업에 요구되는 단백질, 광물질 먹이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수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은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모든것은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실증해주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현시기 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대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명백한 앞길을 밝혀주고있는 오늘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수산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혁명적 본분입니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 의사이며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수산업을 현대적인 수준에로 올려세운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오직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대로만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현시기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도 바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는데 있다.

수산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수산정책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정당하며 그것을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할 때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는 신념을 튼튼히 간직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이 한번 결심하고 정책적 과업으로 제시한것은 그 어느것이건 벌써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는것을 명심하며 승리에 대한 드팀없는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당의 수산정책 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끝까지 풀어나가야 한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산업은 사철 사나운 풍랑을 이겨내며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생산분야이다.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들은 가까운바다로부터 먼바다, 얕은바다로부터 깊은바다에 이르기까지의 매우 넓은 수역에서 서식한다. 수산업은 자연기후조건에 따라 농업에서와 같이 시기성도 가지고있다.

수산업의 이러한 특성은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과는 달리 생산준비와 생산, 생산물의 처리에서 복잡성을 가져오며 그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것을 요구한다.

현시기 수산부문의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고기배들의 출어일수를 더욱 높이는것이다.

우리 당은 수산부문에서 1년에 300일이상 출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었다. 당의 정책적 요구대로 출어일수를 늘이고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고기배들을 현대화, 대형화, 만능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수산부문 일군들이 연유와 어구, 부속품들을 어기에 앞세워 제때에 보장하며 배수리 20일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배들이 사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중심어장을 제때에 찾아내며 물고기잡이를 기동성있게 지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떤 물고기가 나타나도 놓치지 말고 더 많이 잡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산부문의 경제조직사업에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바다가양식에 큰 힘을 넣는것이다.

바다가양식에 힘을 넣는것은 수산물생산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그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바다가양식을 널리 벌려 다시마와 미역, 김, 섭조개 같은것을 많이 기르면 짧은 기간에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수산물생산에서 바다가양식이 차지하는 몫은 현저히 높아지고있으며 물고기잡이뿐아니라 바다가양식으로 수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

수산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큰 은을 낼수 있는 바다가양식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양식시설물들을 현대화하며 다시마와 섭조개를 비롯한 바다가양식물들의 씨붙임으로부터 비배관리와 수확, 가공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하여 양식공 한사람당 관리면적을 늘이며 가공처리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현시기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큰 예비는 수산부문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수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산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나라의 해양조건에 맞는 물고기잡이방법과 우리 식의 양식방법을 연구완성하며 배를 하나 무어도 우리 나라 바다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수산물도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게 가공해내도록 수산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고기배를 비롯한 수산장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 수산물가공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현대생물학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바다나물과 조개류들의 육종과 재배 기술을 개선하고 그 생산성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동식물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더욱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면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으로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 동서해안에는 어디서나 세소어업과 바다가양식을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져있다. 세소어업과 바다가양식은 국가적 투자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특히 바다가양식을 군중적으로 벌리는것은 짧은 기간에 수산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바다가의 이르는곳마다에 수산기지를 더 많이 꾸리고 세소어업과 바다가양식을 군중적으로 벌려 여러가지 수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수산업의 발전은 수산부문과 련관되여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힘있는 지원과 방조 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 수산물가공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영농물자와 같이 계획에 맞물려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수산부문에 대한 군중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산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 복 신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동원되여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대건설행군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는 한편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주체적인 대외무역정책을 제시하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었다. 특히 전례없이 방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주체적인 립장에서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에 맞게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당의 주체적인 대외무역정책을 높이 받들고 무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며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적 자립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고 실현되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정치경제적 위력을 강화해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들사이의 경제적 련계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대외무역, 대외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민족국가단위로 분화되여있으며 특히 매개 나라의 자연

경제적 및 사회력사적 조건들이 다른 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매개 나라는 그가 처한 자연경제적 조건이 다르며 소여단계에서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과학기술발전수준도 서로 같지 않다. 이러한 차이로 하여 매개 나라의 생산구조와 생산되는 제품의 품종과 량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이로부터 매개 나라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제품들가운데서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는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물론 매개 나라의 자연경제적 및 사회력사적 조건의 특성에서 오는 경제구조, 생산구조에서의 차이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과학과 기술,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수 있다. 그러나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다종다양한 제품을 보장하자면 필연적으로 자기에게 없거나 부족한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대외무역을 통하여 보충하게 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게 되면 우선 생산기술공정을 더욱 완비하는데 요구되는 최신기술장비들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경제부문 구조의 다면성을 보다 강화할수 있으며 자체로 생산할수 없는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공급하여 생산순환의 고리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킬수 있다. 대외무역의 발전은 이와 함께 기술수단들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과학기술발전에 요구되는 일부 원료, 자재, 기술설비들 그리고 제품생산에서 참고를 할수 있는 상품들을 들여오는 과정을 통하여 생산의 기술적 기초를 강화하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대외무역은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꾸리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앞선 기계기술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때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에 의거하는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창설하고 그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촉진할수 있으며 자연원료를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와의 대외무역, 대외경제사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정당하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와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할수 있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당한 정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무역이 활발해지고 대외경제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련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은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다종다양한 원료, 연료, 자재를 더 많이 보장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여 경제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면서 우리 나라에 없거나 모자라는것은 대외무역을 통하여 제때에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야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원료, 연료,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은 흔히 무역으로부터 시작되여 점차 정치적 관계까지 맺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무역은 나라의 대외관계발전에서 첫 공정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무역을 잘하여야 우리 나라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계평화애호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자체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통상교류를 널리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무역액을 3.2배로 늘일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는 대외무역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예견한것으로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대외무역발전에서 획기적 전진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오랜 세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세계시장밖에 놓여있던 우리 나라는 오늘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무역의 규모를 끊임없이 늘여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와 무역을 하려는 나라들은 날로 늘어나고 우리의 공명정대한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도 더욱 커지고있다. 대외무역발전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나라들사이의 상품류통인 대외무역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할 때에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을 완성한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오늘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농촌경리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완전히 실현하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철광석, 연, 아연, 마그네샤크링카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위력한 수출품생산기지를 마련하여놓고 수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우리는 종합적인 대화학공업기지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될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크게 진척시켰을뿐아니라 단천마그네샤공장 생산능력을 부쩍 늘였다. 그리고 단천제련소 1단계건설을 완공하였으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피복가공무역기지들을 새롭게 꾸려놓았다. 나라의 동서해안에는 바다가양식기지들이 훌륭히 마련되여 올해부터는 섭조개, 다시마를 비롯한 바다가양식물수출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와 세계시장의 수요에 맞게 무역을 더욱 확대할수 있는 확고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대외무역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역실무에 밝은 경제일군대렬이 튼튼히 꾸려져있으며 오랜 기간의 실천투쟁과정에 체득한 풍부한 무역활동경험이 있다.

참으로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대외무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에 들여와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5권, 335페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한다는것은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여러 나라의 각이한 대상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상품들을 교류한다는것을 말한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비상히 강화되고 나라의 대외경제관계가 날로 확대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경제활동에서 선차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과 경제기술적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는 무역과 대외경제 사업에서 사회주의시장을 계속 중시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하는 친선협조관계의 요구에 맞게 쏘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폭넓게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거래에서 합의한 계약상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여야 그 나라들과의 무역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킬수 있다.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과 무역을 널리 진행하며 빠른 시일안에 수출입물자의 가지수를 늘이고 무역액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 나라들의 식량문제해결과 자립경제건설을 적극 도우면서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가지 형태로 남남협조를 적극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남아세아 나라들과의 무역관계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폭넓게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과 경제기술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 합작, 합영을 발전시키는것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채취공업을 비롯한 공업의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합작, 합영을 널리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구체적 실정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합작과 합영 대상을 옳게 선택하고 경제계약을 맺으며 그것을 정확히 리행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대외무역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성격을 띤 대상들과 경제교류를 하게 되는것만큼 우리는 언제나 사회주의경제체계를 옹호고수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작, 합영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수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늘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는것은 대외무역발전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일관한 요구이다.

수출을 늘이는데서는 가공품의 비중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수출입구조를 개선하는것은 무역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자체의 튼튼한 생산기술

적 토대가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원료, 반제품의 수출로부터 점차 기계설비를 포함한 완제품의 비중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대외무역발전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가공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공품수출을 늘일수록 수출품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대외시장을 넓힐수 있으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거래를 확대할수 있다.

우리는 기계설비의 수출에 힘을 넣어 이미 팔고있는 공작기계뿐아니라 대외판로가 있는 새로운 품종의 현대적인 공작기계들과 중량화차, 선박, 전기기계, 농기계, 전자일용품 등 여러가지 제품들의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시장에 그대로 내보내던 유색금속, 마그네샤크링카도 앞으로는 그 가공품의 수출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경공업을 비롯한 다른 인민경제부문들에서도 가공품수출을 늘이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특히 피복가공제품, 신발류, 도자기류, 유리제품, 법랑철기, 수지일용품들을 많이 수출하며 남새와 과일, 수산물과 그 가공품들의 수출도 훨씬 늘여야 한다.

수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수출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수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다른 나라와 계약된 제품들을 제때에 실현하고 나라의 대외지불능력을 높일수 있다. 그래야 또한 무역대상국의 경제건설을 도와줄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수입물자들도 제때에 보장받을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출이자 곧 생산이고 생산이자 곧 수출이라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수출품생산에 힘을 넣음으로써 수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은 수출품생산계획을 바로세우고 련관된 단위들과 잘 맞물리며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수시로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하며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실태를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수출품생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우선권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협동생산조직과 자재보장, 수송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인기있고 값비싼 수출품들을 더 많이 제때에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대외수송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이미 유색금속, 세멘트, 마그네샤크링카, 압연강재를 비롯한 대규모수출품생산기지들이 그쯘히 마련되여있다. 그러나 발전하는 현실은 더욱 위력한 수출품생산기지를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대외시장의 수요와 세계적인 생산 및 과학기술발전의 추세를 깊이 조사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는 수출품생산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려야 한다. 특히 수출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과 직장을 더 많이 꾸리는 한편 수출품생산설비들을 보다 현대화하여야 한다.

수출품수송을 잘해야 수출을 늘이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날로 증대되는 수출품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자면 배수송과 철도수송, 항공수송을 적극 발전시키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무역화물수송을 다른 모든 화물수송에 앞세우는 한편 수출품수송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수송수단들을 보다 기계화, 현대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무역에서 신용을 얻기 위하여서는 계약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무역일군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무역거래에서 다른 나라와 [illegible]

의무대로 계약된 수출품전량을 약정한 품질조건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며 규정된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키는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무역에서 신용을 얻을수 있으며 나라의 대외적 위신도 높일수 있다. 수출품생산을 맡은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안뜰하고 깐지게 하며 자신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을 정상화, 전문화하며 제품검사제도를 강화하고 포장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 수출품의 질을 한계단 더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무역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조직진행하는 규률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대외무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 계획적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자본주의무역과 다른 사회주의대외무역의 근본특성이며 우월성이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관리하는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대외경제활동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무역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모든 무역활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 리익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다. 만일 무역활동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약화시키게 되면 대외무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국제적 친선의 뉴대를 확대강화하는데 옳게 복무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사업에 지장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역활동을 철저히 국가의 지도와 통제 밑에 진행하는 정연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대외무역사업에서 사소한 무규률성의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무역부문에서는 국가의 무역계획을 수행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하며 수출입활동에서 제기되는 경제실무적 문제들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풀어나가는것을 제도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 경제발전의 리익에 맞게 판로조건과 경제적 효과성을 잘 타산하여 무역사업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강화함으로써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보다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무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의 지도와 통제 밑에 지방무역, 변강무역도 적극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지방들에서 경공업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출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지방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더 잘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무역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여하에 달려있다.

무역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외무역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관철에서 진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무역활동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체적 립장에서 옳바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무역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진 조건에서 세계시장의 수요, 나라별 물가와 그 변동추이를 비롯한 국제경제관계실태를 환히 꿰들고 무역활동을 진공적으로, 능란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되는 200일전투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대외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기본임무

정 순 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혁신적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대건설행군과정에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200일전투에 떨쳐나서고있는 오늘 대건설행군을 다그치며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조직, 생산행정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498페지)

생산 조직과 지휘를 잘하는것은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높여 물질적 부의 생산을 늘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적 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로력과 기계설비, 원료, 연료, 자재와 같은 생산의 중요요소들이 원만히 보장되여야 하며 그것들이 재생산과정에서 량적으로나 능력상으로 옳게 결합되여야 한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이 갖추어지고 그것이 옳게 결합되여있는 경우에도 실지 생산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정황이 조성되므로 그에 맞게 기술경제적 대책들을 제때에 취해야 한다.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생산 조직과 지휘를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생산 조직과 지휘는 자연을 개조변혁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과학적으로 짜고드는 사업이다. 사회주의공업에서 생산 조직과 지휘는 공업생산물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기 위하여 로력, 설비, 자재와 같은 생산의 여러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며 변화되는 생산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대책들을 취하는 조직지도사업이다.

생산 조직과 지휘는 사회적 생산이 진행되는 모든곳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지만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발전된 분업과 현대적인 기계기술, 근로대중의 공동로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생산이다. 여기에서는 부문들사이, 부문 내부생산단위들사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생산기술적 련계가 맺어지게 되며 모든 생산이 고도로 조직화, 계획화된다. 그러므로 생산단위들을 편성하고 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요소들을 타산확보하며 생

산과제를 분담하고 그것이 공정별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생산에 들어가서는 그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조절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처리함으로써 모든 공정들을 계획에 예견된대로 추진시키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올바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은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 매 시기 제기되는 경제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경제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무엇보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과 관리, 기술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그들에게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 때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근로자들에게 마음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준다면 그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고 로동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며 모두가 진심전력하여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생산자들이 충분한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면서 꾸준히 일할수록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며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 건설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된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또한 설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있는 설비, 있는 생산면적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된다. 생산조직과 지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이다.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고 설비들사이의 능력상 균형을 제대로 보장하면 설비리용률을 높일수 있으며 설비를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생산면적의 리용률도 제고될수 있게 된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은 로동생산능률과 설비리용률을 높일뿐아니라 있는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할수록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꼭 필요한곳에 필요한 량만큼 쓰며 그것을 랑비하는것과 같은 비생산적인 소비를 극력 줄일수 있다.

이 모든것은 생산 조직과 지휘를 잘하는것이 로력과 설비, 자재와 같은 생산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은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매일 매 시각 새로운 기적과 기준을 창조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거대한 기대와 관심 속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만 하여도 최근에는 그전에 비하여 하루평균실적이 콩크리트치기는 207%, 강철구조물조립은 117%, 설비조립은 236.2%로 높아

졌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어제의 기록이 오늘에 와서는 낡은것으로 되며 오늘의 기적이 래일에는 평범한것으로 되게 된다.

200일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 대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원료, 자재,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는 더우더 높아가고있으며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기동적으로 충분히 보장한다면 사회주의대건설에서는 더 큰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부단히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조건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여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을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생산 조직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오늘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일어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은 같은 생산조건에서도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할 때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금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기동적으로 생산을 조직지휘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기계공업부 지도일군들은 200일전투가 벌어진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생산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협동생산을 짜고드는데 모를 박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부아래의 총회사, 총국, 련합기업소들에서 전투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아래 단위들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켜왔다.

당의 의도대로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듦으로써 우리 기계공업부문에서는 200일전투가 벌어진 이후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왔으며 특히 지난 4월, 5월에는 생산계획, 수출계획, 생활필수품계획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계획과제를 높은 수준에서 넘쳐수행할수 있었다.

조선기계총회사, 전기기계련합회사, 자동화공업총국, 운전기계총회사 일군들은 불꽃튀는 전투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생산을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함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전기기계련합회사에서는 138.6%, 자동화공업총국에서는 12[illegible].9%,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101.[illegible]%로 5월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5월계획을 넘쳐수행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국가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날에 날마다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갈 때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당의 의도대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 여기에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지도체계를 올바로 움직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과정이란 결국 기술공정입니다. 기술을 알지 못하고는 생산을 지도할수 없습니다. 생산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준비사업, 생산과정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 기술을 아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지도하는것이 필요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504~505페지)

내안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지도체계를

옳바로 움직이는것은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며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시면서 그 중요구성부분으로 참모부형태의 생산지도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공업생산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지휘할수 있는 가장 우월한 생산지도체계를 마련해주시였다.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고 생산과 직접 련관된 부서들로 참모부를 구성하고있는 참모부형태의 생산지도체계에서는 현대적 공업생산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틀어쥐고 생산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있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참모부형태의 생산지도체계를 세우고 생산계획의 작성, 생산조직과 생산공정의 관리, 기술지도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통일적 과정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생산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지휘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참모부형태의 생산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야 200일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우리는 생산지도체계를 옳바로 움직여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그것을 옳바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그리고 생산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리며 기술준비사업을 짜고들어 설계와 기술공정표를 비롯한 기술문건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술준비를 앞세워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설비들을 언제나 만가동하게 하여야 한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생산지령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생산지령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생산일정계획대로 생산을 추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생산지령사업을 강화하여야 생산자들에게 매일 생산과제를 제시해주며 그 집행정형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생산을 적극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생산지령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소안에 정연한 생산지령체계를 세우고 생산지도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현장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그것을 제때에 풀어야 한다.

특히 생산일정계획에 따라 날마다 생산지령을 정확히 내림으로써 생산자들이 매일, 매교대별로 작업과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넘쳐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게 해야 한다. 지금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로 하여 들끓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는 생산과 건설이 높은 속도로 추진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정황들이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일정의 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매일, 매교대별로 조성된 정황에 맞게 생산지령을 정확히 내리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그래야 모든 생산자들이 그날 과제를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며 생산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불균형을 제때에 바로 잡고 생산일정대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정무원 위원회, 부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 지령체계를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원료, 자재, 연료, 협동품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료, 연료, 자재, 협동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근로자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생산 조직과 지휘의

기본사명의 하나이며 이 고리를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료, 연료, 자재, 협동품을 제때에 대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규률을 엄격히 세워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있는 경제적 밑천을 가지고 생산을 얼마나 더 내는가 하는것은 생산을 조직지휘하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전투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며 그들에게 로동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인것은 언제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생산 조직과 지휘는 생산과 건설의 주인인 생산자대중을 옳게 움직여 자연을 개조변혁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지휘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데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생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할 때 그들은 생산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며 경제과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창조력을 발양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언제나 경제기술적타산에 앞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열의를 높이 발양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이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정황처리를 위한 결심을 채택해도 생산자대중을 먼저 보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만이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현장에 내려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적극 벌려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로력, 동력, 설비, 자재 조건을 잘 타산하여 가장 능률이 날수 있게 합리적으로 전투를 조직지휘하며 전반을 장악하고 앞질러가며 여러가지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세우고 걸린 문제들을 어깨를 들이밀어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생산조건을 충분히 마련하며 조성된 정황에 맞게 전투 조직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짜고듦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주어진 로동시간에 최대의 능률을 내여 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대적 생산공정은 기술공정이고 생산과정에 더 많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도입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자면 일군들이 현대과학기술과 경영활동에 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학습을 강화하여 우

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당정책의 요구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업관리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조직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데서 기본은 경제지도일군들이 200일전투 조직과 지휘를 잘하는것이다.

200일전투는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운동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위력을 시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200일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게 되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게 된다.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은 전투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200일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게 하는것으로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현실을 깊이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대담하게 사고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며 일감은 널어놓지 말고 모가 나게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제껴야 한다.

생산보장사업은 우리 일군들이 맡고있는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200일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협동생산 조직과 지휘를 잘하는것이다.

사회적 분업과 협업이 고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한대 생산하는데도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공동으로 참가하게 된다. 협동생산에 참가하고있는 여러 단위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한 단위라도 납입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제품을 완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가져올수 있다. 더우기 200일전투기간에 우리가 진행하고있는 중요대상건설에는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공동으로 참가하고있으며 협동품생산량도 전례없는 규모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품을 제때에 생산하는것은 200일전투계획에 예견된 중요대상건설과 제품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품을 먼저 생산하여 주제품생산 기업소에 보내는 원칙에서 협동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협동품의 소요량을 품종, 규격, 재질의 기술적 요구를 구체화하여 타산하며 협동품과 협동품생산용 자재를 제품생산에 앞세워 공급함으로써 협동품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특히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 계획과 계약대로 모든 제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전투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한다.

오늘 경제지도일군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우리는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기세에 맞게 그 어느때보다도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200일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장편소설 《아침해》에 대하여—

강 능 수

최근 우리 문학분야에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편소설 《아침해》(현승걸작)를 세상에 내놓았다.

장편소설 《아침해》의 출판으로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실생활에서처럼 친근하게 가까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혁명문학의 본성적 요구를 훌륭히 실현하게 되였다.

장편소설 《아침해》가 나옴으로써 우리 문학은 처음으로 장편소설과 같은 큰 형식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폭넓게, 예술적 품위가 있게 모실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위대성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제명부터가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일반적으로 아침해라고 할 때 그것은 새로운 활력과 약동하는 기상, 한없는 지향 등을 표상하게 한다. 세상만물은 그 맑고 생신하고 따사로운 아침해살을 젖줄기마냥 가닥가닥 묻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 키돋움하며 일떠서는것이다. 여기서는 사람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그처럼 커다란 활력과 생명력, 끝없는 지향을 안겨주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장편소설 《아침해》는 바로 이 원천을 작품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원만하게 해명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 성과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이 작품은 소설작품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바와 같은 그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생명의 활력과 그 무한한 성장의 힘을 주는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장엄한 송가이며 그처럼 자애로운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서사시이다.

소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6개년계획의 주공전선이였으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문이였던 채취공업부문, 특히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은률광산에서 기적과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신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우에 어떻게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와 서해안간석지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가 엮어지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장편소설 《아침해》는 탁월한 사상가, 걸출한 정치가로서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풍모의 위대성을 훌륭하게 형상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은 인민대중을 어떻게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동원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령도가 인민대중, 특히 일군들을 믿고 그들의 가슴속에 영웅의 넋을 심어주어 그들모두를 영웅이 되게 하는데 그 위대성과 특성이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가 그처럼 위대하고 힘있는것은 거기에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여기실뿐아니라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할수 있다고 믿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철저히 구현되여있기때문이다.

작품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군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탁월한 사상가, 걸출한 정치가로서의 풍모를 한몸에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그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작품에 그려진 주요인물의 하나인 금속공업부 부총국장 지승하의 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밝혀지고있다.

금속공업부문의 오랜 일군이며 광산운반계통의 권위자라고 하는 지승하는 서해지구의 굴지의 쇠돌생산기지인 은률광산을 책임지고 지도사업을 잘하지 못한탓으로 광산운영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다. 그는 광산을 전망적으로 꾸릴 대신 당면한 생산과제수행에만 몰두한 나머지 박토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수많은 버럭산을 쌓아놓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버럭을 처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좁은 울타리에서 쪼물짝하게 기술적인 《묘안》을 찾아내려고 모대기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승하에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과오를 씻을수 있는 옳바른 길을 거듭 가르쳐주시고 자신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전개하시는 무산광산의 250리 장거리정광수송관건설장에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현실을 체험하도록 이끄시는것이다. 시대의 숨결과 기상이 약동하는 무산광산의 거창한 장거리정광수송관건설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좁은 울타리에서 모대기던 지승하에게 어떠한 담력과 자세를 가지고 시대를 대하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산 학교였다. 여기에서 지승하는 자신의 과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심각히 뉘우치면서 시대의 맥박을 받아안은 영웅의 넋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그 대해같은 은덕에 눈물짓는것이며 우리 시대의 참다운 지도일군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것이다.

작품은 또한 우리 당의 령도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하고있으며 어버이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념원하시는 모든것을 하루빨리 이 땅우에 실현하려는 확고한 결심에 그 위대성과 특성이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이 크게 궁리하고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제기된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높은 목표는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비상한 속도는 하루빨리 그것을 현실로 펼쳐놓으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의 반영이다.

작품에는 6개년계획의 주공전선이였던 채취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이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장면이 그려져있다. 이 회의가 공업의 선행공정인 채취공업부문에서 대혁신의 돌파구를 여는가 못여는가 하는데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푸는 회의로 되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참석하시여 회의를 지도하시는것이였다.

회의는 결국 누가 책임지고 채취공업부문에서 대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놓겠는가 하는데 귀착되였다. 제기된 문제자체가 심각하고 또 아름찬 일이였기때문에 당일군들은 물론 채취공업부문의 한다하는 전문가들이나 경제부문의 경험많은 일군들속에서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때에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헤아려보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나서시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당조직과 당원들을 발동해서 채취공업을 추켜세우겠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말씀은 곧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대표하여 위대한 수령님앞에 다지는 우리 당의 엄숙한 맹세였으며 몸소 6개년계획의 주요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인민경제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주체조국의 명예를 온 천하에 떨치려는 드높은 결의였다.

작품은 이외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심원한 사색세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당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열정과 패기에 넘쳐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고 감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수는 없다. 우리앞에 조성된 정세와 방대한 혁명임무는 더욱 통이 크게 사업을 전격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 수령님께서 념원하시고 구상하시는 그 모든 거창한 세기적인 위업을 수령님대에 이 땅우에 실현해야 한다. 그것은 보통힘과 보통속도로써는 실현할수 없다.》

이러한 결심, 이러한 포부를 지니셨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시고 인민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시여 온 나라에 속도전의 세찬 불바람이 일게 하시는가 하면 친히 하늘과 땅을 주름잡으시며 주요전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는것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또한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감동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사랑과 믿음의 철학, 그것은 이 작품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크기와 깊이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 인간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지고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이 그처럼 공고한 비결이 어디에 있으며 오늘의 눈부신 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무엇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한 이야기로 되고있다.

사랑과 믿음의 철학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간직한 혁명의 걸출한 지도자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우러나온것이다.

작품에 제시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철학은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줄뿐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며 빛내여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해명되고있다.

작품에는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높은 간부의 직책에서 일하다가 엄중한 과오를 범한 지승하와 함께 비슷한 과오를 범한 은률광산 지배인 박영진이 등장하고있다.

그들의 과오는 실로 엄중하였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당조직에서는 그들을 자기 직무에서 해임시킬것을 제기하였으며 본인들자신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것을 결심한것이였다.

그러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당과 수령께 충성다해온 그들을 굳게 믿으시였다. 그렇기때문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직의 제의와 본인들의 의사를 비켜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해오던 사업을 통하여 과오를 시정하도록 배려하시는것이다.

지승하가 두번다시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며 전당적인 사업을 포

치하시는 마당에서나 중요회의에 참석하신 자리에서도 그가 거듭 범하게 된 과오의 원인과 극복방도에 대하여 생각하신다.

하나의 평범한 인군에 지나지 않는 지승하를 위하여 어찌면 그토록 극진히 마음을 쓰시는것인가? 그것은 말썽많은 자식일수록 더 걱정하고 더 마음을 쓰는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인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심정을 지니셨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중에도 장거리전화로 지승하를 찾으시여 안부도 물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가 하면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친히 그를 부르시여 달빛 흐르는 동해바다가의 백사장을 거니시면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형편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달리는 끝없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 준비와 자세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기도 하시는것이다.

작품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깊은 사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당이 가리키는 길로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에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서 멈춰서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 바로 이때문에 우리 당이 있는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을 손잡아이끌어주는것이 당이 아닌가. 그래서 괴로움도 당하고 마음놓을날도 없고 잔걱정 또한 많은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것이다.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그는 벌써 어머니가 아닌것이다.》

참말로 사람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는 끝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철학,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작가들과 시인들이 노래하였으며 또 노래하여도 다함이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의 철학인것이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은 어머니의 그것처럼 무한대할뿐아니라 또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것이다.

작품은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노래하면서 그것이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인품, 남다른 인간적 풍모에서만 발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길게 전개되지 않았지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리신 시절에 있었던 잊을수 없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있다. 그것은 어제날의 쌍지팡이를 짚은 영예군상자였으며 오늘은 어느 한 전기신개사업소 설계인군으로 일하는 중년부인인 로경숙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로경숙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 폭격만행으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몸이 되여 어느 한 병원에 누워있었다. 그는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전선에서 싸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소식 한장 보내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교원으로 일하는 언니의 간곡한 격려의 편지를 받고서야 그는 기우 자리에서 일어나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언니를 찾아왔던것이였다.

당시 산간지대의 이 학교를 다니시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두 자매의 눈물겨운 상봉을 목격하신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처녀의 불행을 가슴아파하시여 그에게 생의 의욕을 안겨주며 로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의 걸기련습을 도와주신다. 이런 뜨거운 정성에 떠받들려 처녀는 마침내 생의 의욕을 되찾고 조국의 대지를 제발로 걸을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잘라진 다리보다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입고 생사의 기로에서 모대기던 처녀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을 찾은 인간의 재생이였고 빛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였다.

받아안은 사랑과 은덕으로 말하면 로경숙이 천만번 다시 태여난대도 갚을길

이 없는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벌써 먼 과거로 된 일을 잊지 않으시고 로경숙과 그의 남편을 찾으시여 또다시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간고한 시기에 끼니때마다 차례지는 소박한 식사마저 송구스러워 드는척하다가 일어서군하던 로경숙의 그 갸륵한 마음씨를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당시의 음식까지 권하며 그때 로경숙이 자기의 고통을 용케 이겨냈다고,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하시니 그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것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것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것의 극치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한 오늘과 래일, 삶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은인이시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이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만이 아니라 무한한 소박성, 겸허성에 있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그려져있는바와 같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평범한 오랜 로동자와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광산의 형편이며 로동계급의 의사를 헤아리시는가 하면 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신뢰를 느끼시고는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것을 다짐하시는것이다. 실로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숭고한 품성을 지니셨기에 우리 인민들은 그 누구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은인으로 모시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간직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몸과 마음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이처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인민적 풍모를 잘 형상함으로써 오직 아침해와만 비길수 있는 그 위대성의 비결을 밝혀내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가 있으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인민적 풍모를 그대로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는 인식교양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형상적으로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가장 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하나의 사상과 의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뭉쳐진 불패의 통일단결에 그 바탕을 두고있는 남다른 사상감정의 표현이다.

작품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남다른 사상감정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맡아주신것으로 하여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에 기초하고있음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우리 인민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인물들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각이하게 표현하고있다.

은율광산의 오랜 로동계급의 한사람인 로장권은 오매에도 그리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접견을 받은 영광의 자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너무 상심마십시오. 우리 광산이 조선로동당의 하늘아래에 있는데 달리야 되겠습니까. 혁명을 하면서 보니 난관은 언제나 있는것이고 그걸 이겨내면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한걸음씩 전진하군하였습니다. 우리 광산일도 시간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광산을 추켜세우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꼭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씀올린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리는 로장권의 이 말은 우리 로동계급이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확신한 심장의 목소리이며 거기에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이 넘

쳐흐르고있다. 물론 이때 로장권에게 광산의 운명을 구원할 그 어떤 방도가 있은것은 아니였다.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한 반드시 광산의 운명이 바로잡혀질것이며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가 열리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은것이다. 여기에 로장권의 성격적 매력과 함께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우리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을 담보하는 비결이 밝혀져있는것이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은 비단 로장권과 같은 견실한 오랜 로동계급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색과 심리를 통하여서도 잘 밝혀지고있다.

지승하와 박영진에게서 공통적인 점은 엄중한 과오로 하여 비판도 받고 중요직책에서 해임될 처지에 있었으나 결코 자기의 운명을 두고 비관하지 않는것이다. 물론 그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명랑할수 없으며 우울한 기분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우울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서 오는것이지 결코 자신들의 전도에 대한 걱정에서 생긴것은 아니였다. 여기에 또한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사업하는 우리 일군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의 세계가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매혹적인것은 박영진의 형상이다. 그는 여러개의 산맥처럼 쌓인 버력때문에 회의에서 여러번 비판을 받고 해임문제가 일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럭을 그냥 두고서는 절대로 지배인자리에서 물러날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자기자신이 그 버럭을 처리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새로운 지배인은 물론 또 그 다음에 올 지배인도 자기와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리라는 위구심에서였다.

박영진의 주장에는 자신의 과오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자신이 씻고 지배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진심이 울리고있지만 한편으로는 철부지어린이의 생억지 같은것이 울리고있다. 그러나 그 생억지 같은 말이 밉지 않고 독자들에게 명랑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것은 거기에 우리 당을 어머니로 여기는 우리 일군들의 티없이 맑은 진정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또한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신성인것으로 하여 가장 뜨겁고 드팀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혁명적 수령관의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작품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인민의 충실성을 간석지건설총국장 장필수의 형상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장필수로 말하면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에서 간부로 자라나 수십년을 변심없이 성실하게 사업해오는 일군이다. 이제는 70고개를 넘어선 그에게 있어서 간석지건설과 같은 거창한 자연과의 투쟁이 힘에 부칠것이였지만 그는 오히려 패기와 정열에 넘쳐 동분서주하면서 간석지건설을 지도한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 다 바쳐 투쟁하며 그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보고올리는것이였다. 장필수가 간석지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눈송이처럼 흰 소금과 탐스러운 벼이삭을 그 무슨 보물처럼 안고와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보고올리는 감동적인 장면은 그의 충실성의 높이와 혁명적 인생관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장필수의 지난 시기의 생활을 펼쳐보이지 않았지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충실성을 통하여 그가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을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받들어 모시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게 한다.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되는 충실성이 주체형의 혁명가의 참다운 충실성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이처럼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휘황한 미래가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잘 밝히고있다.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이룩한 또하나의 중요한 성과가 있으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주요인물들처럼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지니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받들어 모시도록 이끌어주는 거대한 견인력이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하나의 완결된 예술작품으로서 자기의 독특한 형상적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 특성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작품의 중심에 모시면서도 일관하게 전개하여 보여준것이 아니라 주요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주로는 그들의 운명에서의 극적인 전환의 계기에서 모시고있는데 있다. 특히 은률광산에서의 대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는 정력적인 지도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면서 6개년계획의 주공전선이였던 채취공업, 나아가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방불하게 련상시키게 하고있다.

작품의 특성은 또한 모든것을 형상을 통하여, 특히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명하는 생활반영의 사실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한데 있다.

작품에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있으면서도 흔히 쓰는 《충심》, 《결의》, 《맹세》 등과 같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다. 작품은 인물들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충성의 열도와 드높은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이 잘 드러나게 형상함으로써 그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있다.

예술작품의 힘은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는데 있다.

작품은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탐구함으로써 풍부한 예술적 표상을 안겨주고있다. 작품은 앞부분에서 버럭산에 둥지를 튼 산비둘기가 자유로이 날아예는 모습을 그리고있다. 그것은 긴 설명없이도 버럭산이 얼마나 높으며 오랜 년간에 걸쳐 쌓여진것인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그런데 작품의 후반부에서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통이 큰 작전에 의하여 은률땅에 대형 벨트콘베아가 설치되면서 버럭산의 산비둘기가 둥지를 털고 숲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은률에서의 대혁신의 전모를 련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의의있는 세부들은 작품에 맥맥히 흐르는 서정적인 색채에 의하여 더욱 정서적으로 부각되고있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전면에 모시는것과 같은 영예롭고도 아름찬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들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여 전격적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문학에 대한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며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한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다할것이며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 시키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업

정 리 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열망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투쟁도 날을 따라 더욱 앙양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가 높아감에 따라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보다 더 위험한것은 없으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이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정면대결이 극점에 이른 오늘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절박한 민족적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 ⁂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5권, 339페지)

원래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에서 기본은 무력으로 전조선을 정복하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그곳을 군사적 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후에도 미국지배층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앞에서 무력으로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본래의 침략계획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두개 조선》 조작에로의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세아에서 미제의 식민지지배체계가 전면적인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닉슨도당은 남조선을 마지막 《군사적 지령점》으로 틀어쥐고 아세아에서의 옛지위를 회복하려는 흉계밑에 조선에 침략의 창끝을 돌리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본격적으로 매여달리게 되였던것이다.

닉슨도당이 들고나온 《두개 조선》 정책은 그 후임자들에 의하여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계속 견지되여왔으며 현 미국집권자들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되고있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력사적으로 통일국가로 존재하여 온 우리 나라와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을 영구히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저

들의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려는 민족분렬책동이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 나아가서 전아세아대륙을 정복하려는 침략책동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과 《교차승인》론을 들고나왔다.

미제가 들고나온 《유엔동시가입》안은 조선의 분렬을 유엔의 이름으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시켜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조선분렬안이다.

남북조선 《유엔동시가입》을 통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독립국가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계속 지배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들이 《유엔동시가입》안과 함께 남조선《단독가입》안을 내돌리고있는것은 그 진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에 조작된 《정권》은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는 괴뢰정권으로서 유엔에 들어갈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있다.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인 남조선의 《유엔가입》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자주적인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우롱으로 된다.

만일 남조선의 《유엔가입》이 허용된다면 남조선괴뢰정권은 합법적인 정권처럼 행세하게 되고 하나의 조선이 국제적으로 두개 국가로 공인되여 조선의 분렬을 영원히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유엔동시가입》안이 유엔의 이름으로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한것이라면 《교차승인》론은 《동서방》나라들이 조선의 북과 남을 《엇바꾸어 승인》하는 방법으로 《두개 조선》 조작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려는것이다.

《교차승인》론은 《유엔동시가입》안의 변종이다. 그것은 《유엔동시가입》안을 통하여 이루지 못한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이른바 《국제적인 조정》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미제가 형태를 바꾸어 들고나온 조선분렬안이다.

《교차승인》론을 통하여 미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나아가서 국가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고정시키고 《두개 조선》을 기정사실화하려는것이다.

미제가 《교차승인》론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조선의 영구분렬에만 있지 않다. 《교차승인》책동은 미제의 전쟁로선, 침략적 대조선군사전략과 세계전략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다른 진보적 나라들이 상대할 자주적인 정권이 못된다. 그것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의 도구이며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반인민적인 괴뢰정권이다. 이 《정권》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매국정권이며 인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파쑈정권이며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분렬주의정권이다.

미제가 《교차승인》론을 들고나온 자체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존중하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다른 진보적 나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만일 《교차승인》론이 실현되게 된다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합법화되고 조선의 분렬은 고착될것이며 우리 나라 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될것이다.

미제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의 가장 적극적인 공모자는 일본반동들이다.

일본은 미제의 《유엔동시가입》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그것을 성사시킬뿐아니라 《교차승인》론을 추진시키는 《선도

적 역할》을 놀것을 다짐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앞장에 나서고있다.

미제의 《교차승인》론의 선도자로 나선 일본반동들은 특히 남조선괴뢰들을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추진시키는 《다리역할》을 놀고있으며 유엔과 서방공업국수뇌자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와 아세아와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 미제의 《두개 조선》 각본을 들고다니면서 분렬주의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편승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더욱 깊이 뻗쳐 남조선을 미일공동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을 일본군국주의를 정치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외곽으로 삼으며 나아가서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계획을 추진시키는 발판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 범죄적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왔다. 그들은 최근 도발적인 반공화국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그 무슨 《려객기사건》을 조작하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 모든 책동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대한 공모결탁의 산물로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조일관계의 개선에도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두개 조선》 조작에 명줄을 걸고 그 집행을 위하여 분별없이 책동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량심도,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미제의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섰으며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였다.

현 남조선괴뢰정권도 선행 괴뢰정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나라의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분렬주의《정권》으로서 민족내부에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로태우일당은 선행자들이 들고나왔던 《두개 조선》을 법적으로 고정화하기 위한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골자로 하는 분렬안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반공, 반공화국 대결《정책》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지난날보다 《반공국시》를 더욱 고창하며 대결과 분렬 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이 분렬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날을 따라 급격히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통일지향을 억누르고 북남관계의 개선과 통일론의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경》이니, 《용공》이니 하면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로태우일당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따라 이미 거덜이 난 《유엔동시가입》안과 《교차승인》론의 낡은 보따리를 메고다니면서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 저들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구걸하고있다. 그들은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실현하기 위한 《3단계북방정책》을 추진하는것이 저들의 올해 《국정방향》이라고 하면서 각종 기회를 리용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래왕을 하려고 꾀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러한 《교차접촉》, 《교차교류》, 《교차왕래》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 마치 조선반도에 두개 국가가 있는것 같은 인상을 조성하며 《교차승인》을 이루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되는 로태우일당의 분렬주의책동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을 심화시키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미제는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성한 체육축전인 올림픽경기까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올림픽경기를 통하여 남조선괴뢰들을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하며 《래왕》하게 하여 남조선괴뢰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얻고 《교차승인》의 지반을 구축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이러한 범죄적 목적밑에 미제는 올림픽경기장소로 전혀 적당치 않은 남조선을 선정케 하였으며 지금 통일에 리로운 공동주최를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단독개최를 계속 고집하며 그 강행에로 남조선괴뢰들을 적극 부추기고있다. 그리고 일본반동들과 함께 올림픽경기의 보편적 성격에 빙자하여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이 경기에 《유도》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끝끝내 올림픽경기의 공동주최가 실현되지 못하고 단독개최가 강행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엄중히 저애하고 분렬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오늘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국토분단의 장벽은 더 높이 쌓여지고 우리 민족은 영구분렬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만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가 실현되게 되면 3천리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는 영구히 분렬되고 반만년의 력사를 이어 온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의 혈맥은 아에 끊어지고말것이며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있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은 언제 가도 가셔지지 않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은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여야 하며 절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된다.

오랜 력사를 통하여 통일된 국가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시기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할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는것입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오슬로보제니에〉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6페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조건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수 있으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군사적 대결상태와 긴장상태의 격화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저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서로 방대한 무력을 대치시켜놓고 민족적 참화를 가져올 전쟁요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도,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떻게 하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려는 념원으

로부터 출발하여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군사당국자회담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제안 등 일련의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화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것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기인하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은 분렬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분렬은 군사적 대결상태와 긴장상태의 격화에 의하여서만 유지될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의 격화는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주요구성부분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일환으로서 남조선에 더욱더 많은 저들의 침략무력을 집결시키고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군사적 책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른바 《힘의 균형》론을 들고나오고있다. 그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조선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힘의 균형》론에 의거하여 《북의 군사적 우세》와 《남침위협》을 떠들며 저들의 침략무력의 증강과 남조선괴뢰군의 《전력》강화에 주되는 힘을 넣어왔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군사적 도발을 일삼아왔다.

지금 로태우역도가 이른바 《국력우위》론을 들고나와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핵무기를 계속 끌어들이며 미제침략군과 함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는것도 미제의 《힘의 균형》론에 의거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산물이다.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은 최근 올림픽경기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금 미제는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급선무로 된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또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북과 남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하며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대화쌍방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분렬을 고착하기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되며 오직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공통된 립장과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림한다면 토의되는 문제들에서 손쉽게 합의를 이룩할수 있으며 실제적인 통일방안을 찾아낼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념원과 인류의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대화에 림하여서도 미국의 《두개 조선》 정책에 추종하고있는데 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대화와 량립될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화가 이루

어질수 없으며 설사 대화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1971년에 제시된 우리 당의 폭넓은 협상방침에 따라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7. 4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로의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러나 1973년 6월에 이르러 남조선괴뢰도당이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대화를 파탄에로 끌어간것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의 산물이였다.

1984년 가을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조치를 계기로 여러갈래의 북남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였으나 대화의 막뒤에서 다그쳐온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다시 깨여지고말았다.

지금 로태우일당이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제안과 각당, 각파, 각계층 대표들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제안을 거부하면서 분렬과 대결을 추구하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제의《두개 조선》 조작책동때문이다.

미제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통일대화를 진행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장애를 제거하는것으로 된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닉슨주의에 의하여《두개 조선》 정책이 선포된 이래 그것은 언제나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의 한 고리로 되여왔다. 오늘 《힘》으로 아세아나라들을 정복하려는 레간의 아세아, 태평양중시정책에서도 《두개 조선》 조작은 그 핵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전략수행에서 남조선의 지위를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기지로,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반대하는 거점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우리 공화국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의《두개 조선》 정책에 변화가 없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틀고앉아 침략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에 새 전쟁, 열핵전쟁의 근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아세아와 세계의 진보적 나라들은 항시적으로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미제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미제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그들의 내정간섭을 종식시켜야 하며 군사파쑈독재를 제거하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미제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는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창설하여야 하며 당면하여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북남련석회의제안과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또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자신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사회는 가장 반동적이며 부패한 사회

최 태 진

최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가리워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로태우일당은 말끝마다 자기 《정권》에 그 어떤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려 하면서 남조선에서 《민주정치》가 실현되고있는듯이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도 로태우《정권》의 출현을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승리》라고 하고있으며 《선거》를 통해 남조선인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대부분 획득했다》고 광고하고있다.

상전과 주구가 한짝이 되여 벌리고있는 이와 같은 선전소동은 다가오는 올림픽경기를 계기로 남조선을 독자성을 가진 《민주국가》로, 《발전》된 《선진국》으로 분장시킴으로써 안으로는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고 식민지군사독재《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며 밖으로는 《두개조선》 조작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미제와 로태우일당이 제아무리 선전소동을 악랄하고 철면피하게 벌려도 남조선의 엄연한 현실을 가리울수 없으며 세계의 공정한 여론을 기만할수 없다.

로태우《정권》이 출현한지 여러달이 지나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선전소동은 더욱 집요해지고있지만 남조선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남조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이며 부패한 사회 그대로 남아있다.

반동성과 부패성은 남조선사회의 성격과 면모를 특징지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표징이다.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라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선전하며 자신을 〈원조자〉로 묘사하고있으나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재적통치자는 바로 미국침략자들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54페지)

남조선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정치, 경제적 지배밑에 있는 완전한 식민지이다. 남조선《정권》이라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대사관을 비롯한 일련의 현지지배기구를 통하여 괴뢰정부를 철저히 틀어쥐고 그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감독통제하고있다. 남조선괴뢰대통령의 운명자체도 미제의 손아귀에 쥐여져있으며 괴뢰국무총리와 장관, 괴뢰군우두머리들의 임명과 갱질도 미제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있다.

남조선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남조선경제는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기형적이며 편파적인 구조를 가지고있으며 자금과 원자재, 기술도 미일독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남조선괴뢰군을 실제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괴뢰대통령이 아니라 남조선강점미군사령관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괴뢰국방부는 물론 괴뢰대통령까지도 미군

사령관의 승인이 없이는 괴뢰군부대를 움직일수 없으며 탄알 한발, 휘발유 한 방울조차 제마음대로 쓸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그런데 로태우역도는 자기가 《집권》함으로써 《민족자존의 시대》가 열리고 남조선이 《독립국가》로나 된듯이 줴치고 있다.

식민지예속과 민족자존은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민족자존이 보장되려면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예속이 청산되고 사회의 자주화가 실현되여야 한다.

로태우《정권》의 출현으로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이 조금이라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있다면 그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는것이다.

로태우《정권》도 남조선의 력대《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미제의 각본과 지휘에 따라 조작된 괴뢰정권이다.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친미반동분자인 리승만과 미중앙정보국의 오랜 특무인 박정희역도를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혔다가 쓸모없이 되자 제거한것도 미제이며 친미록등주구인 전두환을 올려앉혔던 《대통령》자리에 친미군사깡패인 로태우를 올려앉힌것도 다름아닌 미제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두환역도를 내세워 가지고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압살할수 없게 되자 식민지통치의 대리인으로 로태우역도를 지목하고 그의 《집권》을 조종하고 뒤받침해주었다. 레간도당은 로태우역도를 《대통령》후보로 지명케 한 다음 몸값을 올려주려고 그를 백악관에 불러들여 식민지하수인으로서의 그의 《쓸모》를 인정하고 《집권허가증》을 내주었다. 로태우《정권》의 출현은 바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산물이였다.

로태우역도는 《집권》하자마자 자주,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짓밟고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상품처리장으로, 자본투하지로 전면적으로 내맡기는 매국배족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로태우역도는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막대한 돈을 미군유지비로 섬겨바치고있으며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여전히 미군에게 내맡기고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인다고 하면서 양담배수입을 확대하고 농축산물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보험회사의 합작을 허용하는 등 미제의 시장개방요구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있다.

로태우역도가 말하는 《민족자존》이란 바로 사대매국행위인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국과 남조선은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에 있다》고 로태우일당을 규탄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이 미국의 둘도 없는 완전한 식민지이며 로태우일당이야말로 그 어느 선임괴뢰들보다 더 비굴하게 미국상전의 식민주의적 략탈정책을 집행하는 추악한 노복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은 또한 가장 포악한 군사파쑈정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군사파쑈독재는 제국주의나라들과 식민지나라들에서 반동적 군인들이 직접 정권을 틀어쥐고 형식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마저 짓밟아버리고 인민들을 총칼로써 통치하는 가장 횡포하고 공공연한 폭력적 통치형태이다. 더우기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그것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파쑈독재와 민주주의는 량립될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민주정권은 기존 군사파쑈정권을 청산한 기초우에서만 수립될수 있다.

지난해 12월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쑈독재체제하에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군부깡패인 로태우역도가 《집권》하게 됨으로써 인민

들의 머리우에는 여전히 군사파쑈독재가 군림하게 되였다.

그런데도 로태우역도는 뻔뻔스럽게도 자기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으로, 자기 《정권》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묘사하면서 《직선제》의 실시로 《독재와 정통성의 시비가 청산》되였다고 뇌까리고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은 로태우《정권》이 사상류례없는 부정협잡선거로 날조된 불법비법적인 《정권》이며 철두철미 군부파쑈독재《정권》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합법적인 정권이 되려면 선거가 반드시 공명선거로 되고 대통령이 최소한 투표자의 과반수지지로 선출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진행된 괴뢰대통령《선거》는 악명높은 리승만이나 마르코스의 부정선거를 훨씬 릉가하는 사상최악의 부정협잡선거였다. 그것은 선거라기보다 로태우역도의 《당선》날조를 위한 정치적 광대극이였으며 그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요식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의 야당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폭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로태우역도는 지난해 《선거》때에 최소한 400여만의 《지지표》를 부정협잡하였다. 투표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200만명의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침으로써 로태우역도는 선거에서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하고도 겨우 36%의 《지지표》밖에 조작할수 없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선거에서 36%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차지한 실례는 오직 로태우역도밖에 없다. 세상에 둘도 없는 《36%짜리 대통령》과 그 《정권》은 《합법성》과 《정통성》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불법, 비법적인 《정권》인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로태우역도가 《직선제》간판을 걸고 쿠데타를 감행하였다고 규탄하고있으며 이 정권강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는것이다.

로태우일당은 저들의 《정권》의 군사파쑈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하여 《민간정권》의 외피를 씌우려고 꾀하고있다.

정권이 민간정권인가 군사정권인가 하는것은 집권자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기초와 구성상태에 따라 규정된다.

선행군사파쑈《정권》을 그대로 이어받고 군부깡패들로 요직을 꾸린 로태우《정권》은 민간정권인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군사파쑈정권이다.

남조선의 현 《정권》의 우두머리인 로태우로 말하면 남조선에 군사독재《정권》을 내오는데서 주역을 놀아온 군사깡패이다.

로태우는 박정희역도의 《5. 16쿠데타》에 적극 관계했고 전두환역도와 함께 《12. 12숙군쿠데타》와 5. 17파쑈폭거, 광주대학살만행을 감행하여 남조선에 군부독재정권을 조작한 공범자이다. 전두환군사파쑈《정권》하에서 로태우역도는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으로서, 그후에는 괴뢰행정부와 《민정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군부독재를 유지연장하는데 앞장섰다. 로태우역도는 전두환역도와 꼭같은 군부깡패이며 따라서 로태우의 《집권》은 말그대로 군정연장인것이다.

로태우《정권》은 전두환군부파쑈체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군사깡패들로 요직을 꾸린 군부정권이다.

로태우역도는 군사파쑈독재체제의 중추를 이루는 《안전기획부》도 그대로 넘겨받고 《내무부》, 《치안본부》, 《법무부》, 《검찰청》 등도 모두 그대로 넘겨받았으며 전두환《정권》에 복무하던자들과 군부출신들을 《국방》, 《외무》, 《내무》 등 중요장관자리에 들여앉혔다.

모든 사실은 로태우《정권》이 인민들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강권과 협잡으로 조작된 군사파쑈《정권》이며 《정권교체》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정권의 군사파쑈적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사회가 가장 반동적이며 부패한 사회라는것은 또한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통치지반이 뒤흔들리고있는데 당황하여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반공대결소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을 요란스럽게 부르짖으면서 남조선사회를 항시적인 계엄상태에 두고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총칼로 억누르고있으며 수많은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가혹하게 처형하고 있습니다.》(《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9~10페지)

남조선에서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은 반인민적 사회제도와 군사파쑈정권의 필연적 산물이다.

그런데도 로태우역도는 《힘에 의한 통치》를 끝장내겠다고 하면서 《인권을 최대한 신장》하고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폭력없는 정치》를 실시할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떠들고있다.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중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초보적으로 파쑈악법을 철폐하고 파쑈폭압기구를 해체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할뿐아니라 힘에 의한 억압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광주에서 한꺼번에 수천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륙한 인간백정이며 군사파쑈독재자인 로태우역도가 《힘에 의한 통치》를 끝장내고 《폭력없는 정치》를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지금 로태우일당은 《올림픽의 성과적 보장》을 구실로 남조선사회를 더욱 군사파쑈화하는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로태우괴뢰도당은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파쑈악법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합리화하고있다. 더우기 괴뢰도당은 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을 비롯한 민주력량의 사소한 민주화요구와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물론 《도로교통법》, 《광물관리법》에까지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로태우괴뢰정권이 《사면, 복권》이요 뭐요하면서 감옥에서 내놓았다는것은 대부분이 일반형사범이고 《정치범》들을 내놓은것은 얼마 안된다. 그리고 뒤에서는 내놓은것보다 몇곱절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었다. 지난해에 있은 1차 《사면, 복권》때에 겨우 474명의 《시국사범》이 앞문으로 풀려난 대신 뒤문으로 1,00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투옥되였다. 올해 제2차 《사면, 복권》에서도 1,100여명의 《량심범》들이 《용공》의 딱지가 붙어 그 대상에서 제외되였으며 그나마도 석방되였다고 하는 사람들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금되였다.

폭압력량도 급속히 증가되고있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도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다.

《올림픽안전개최》라는 구실밑에 로태우일당은 무려 12만명의 《올림픽경비대》를 새로 조직하고 80여만명의 보조경찰무력을 편성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남조선사회를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그들의 파쑈적 폭압의 예봉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하는데 돌려지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비상계엄령》과 같은 폭압지령이 련발되고 최루탄탄압이 기승을 부리고있는 가운데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체포투옥되고 비참하게 살해되고있다.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의 인간백정의 추악한 본성은 얼마전 4,000여명의 폭동진압경찰과 특공대들을 내몰아 괴뢰서울 구로구청에서 빚어진 협잡선거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주민들의 롱성투쟁을 야수적으로 탄

압하였으며 무참하게 살해당한 주민들을 쓰레기차에 실어다버린 귀축같은 만행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실은 로태우군사파쑈도당이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이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릉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은 또한 부정부패가 성행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황금만능주의, 권세만능주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지배적 사조로 되고있으며 관권과 권력을 틀어쥔자들이 사기와 횡령, 부정과 부패, 강탈과 살인 등 온갖 악랄한짓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부정부패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이며 군사파쑈독재가 실시되고있는 남조선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며 그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런데도 로태우역도는 《깨끗한 정치》와 《부정부패일소》에 대하여 말하면서 부정부패와 재산의 부당한 축적, 사기협잡행위를 없앨것처럼 떠들고있다.

로태우역도는 제놈이 말하는것처럼 《청렴결백》한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원흉이며 이자가 집권한 다음 남조선에서는 부정부패가 더욱 판을 치고있다.

지난해에 있은 괴뢰대통령《선거》와 올해에 있은 《국회의원선거》는 사상류례없는 부정협잡선거였다.

폭로된데 의하면 로태우역도는 괴뢰대통령《선거》때 제놈의 《당선》을 날조하기 위하여 무려 4조 2,0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선거》협잡놀음에 탕진하였다. 이것은 박정희역도가 《선거》때에 쓴 《선거자금》 200—300억원보다 100배이상이나 더 많은 방대한 자금이다. 이 돈을 가지고 월 10만원을 받는 로동자 100만명에게 3년반동안의 로임을 줄수 있다. 그런데 로태우역도는 임금인상과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을 총칼로 탄압하면서 그 많은 돈을 《선거》협잡에 들이밀었던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국회의원선거》는 부정협잡선거의 극치를 이루었다.

로태우역도와 그의 《민정당》패거리들은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하여 관권과 금권을 총발동하여 저들이 내세운 《후보》들의 《당선》조작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그들은 《선거》를 계기로 남조선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른바 《선거사범단속》의 구실밑에 반대파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선풍을 일으켰으며 도처에서 야당인사들과 《선거》선전원들을 습격, 랍치하고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의 테로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로태우일당은 이러한 강압적 방법으로도 저들이 노리는 목표를 실현할 가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부재자투표를 통한 협잡과 공개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 계주식 투표, 투표함바꾸어치기 등 투개표협잡과 유권자들에게 돈봉투와 금품을 나누어주는 등 유권자매수에 공공연하게 매달렸다.

남조선신문들까지 이번 《선거》가 《사상류례없는 금권—관권—폭력—타락—불법선거로 표현되는 무서운 선거》, 《하늘아래 처음보는 선거타락》이였다고 하면서 그 양상이 《개탄을 넘어 경악할 지경》이였다고 폭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남조선사회의 부패성은 괴뢰정권이 사기와 횡령을 일삼는 모리배들의 소굴로 되고있는데서도 드러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의 우두머리들은 례외없이 수급부정축재자들이다. 그들은 각종형식의 물자배정 《특혜》와 재정금융 《특혜》를 통하여 매판자본가들에게 《소나기폭리》를 안겨주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뢰물을 받아먹었다.

전두환역도는 《10대재벌》들에게 최고 수억딸라에 이르기까지의 부정축재의 길을 열어주고는 그들을 리용하여 현금 150여억딸라, 각종 부동산 100여억딸라를 부정축재하였다. 전두환역도와 그 일가족속들이 감행한 부정축재액은 《부정축재의 마왕》으로 악명을 떨친 마르코스의 부정축재액 100억딸라를 2.5배

나 통가하였다.

로태우역도는 전두환역도를 무색케 하는 부정부패의 원흉이며 교활하고 음흉한 사기한이다.

로태우역도는 파쑈권력의 중추에서 전두환역도와 함께 《내무부장관》과 《체육부장관》, 《민정당대표위원》이라는 요직을 차지하고 명성그룹사건, 범양상선사건, 대주상호신용금고횡령사건, 중앙대학교 부정입학사건 등 대규모 권력형 부정사건들에 깊숙이 개입하여 벼락부자가 되였다.

《새 마을운동본부》부정사건에도 로태우역도는 깊이 관련되여있다. 로태우역도는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인 1983년에 《새 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금》을 1981년의 11배나 되는 44억원으로 늘이고 그것을 전경환과 함께 나누어먹었다. 특히 로태우역도는 지난해에 있은 피뢰대통령《선거》에서 《새 마을운동》성원들을 표모으기작전에 동원하고 여기에 쓴 돈을 《새 마을운동》금고에서 빼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태우역도는 인민들이 《새 마을운동본부》부정사건의 진범인과 관련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으나 그 진범인인 전두환역도를 처벌하지 않으며 관련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지껄이였다.

로태우역도가 《부정부패일소》와 《깨끗한 정치》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부정부패의 원흉인 제놈의 정체를 가리우고 집권의 명분을 세워보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태는 남조선사회야말로 가혹한 식민지군사파쑈독재가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며 온갖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가장 반동적이고 썩고 병든 사회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을 오늘과 같이 가장 반동적이고 썩어빠진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40여년동안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조작하고 부추겨 민주주의와 인권을 란폭하게 교살하고있으며 숭미, 공미 사상과 양키문화를 퍼뜨리고있다. 미제의 식민지 지배와 예속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가장 반동적이고 부패한 남조선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반미자주화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내정간섭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종식시키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자주, 민주의 새 사회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로태우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로태우일당을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없으며 그들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팔레스티나문제는 아랍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

김 용 섭

오늘 팔레스티나문제는 세계적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강점된 령토를 되찾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확대발전되고있으며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 련대성운동도 더욱 강화되고있다.

민족적 해방과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데 당황한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의의 위업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 밑에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다른 아랍나라들에 대한 팽창주의적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 책동과 강점한 아랍령토에 대한 강도적인 병합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근동지역의 정세는 더욱더 긴장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팔레스티나문제해결을 위한 길우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현시기 팔레스티나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것은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팔레스티나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적 정책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 책동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중근동지역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한편 유태복고주의자들을 팔레스티나땅에 끌어들여 아랍인과 유태인사이에 반목과 충돌을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고 악랄하게 획책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의 분산과 이동이 매우 심하였던 고대시기에 유태인들이 지금의 팔레스티나땅에서 얼마간 살았다는것을 구실로 유태복고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땅에 기여들어가 유태국가를 조작하도록 적극 부추기였다.

특히 이미 오래전부터 팔레스티나의 교통상 및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중근동의 풍부한 석유자원에 눈독을 들여온 미제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중근동지역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려는 목적밑에 교활하게도 팔레스티나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고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팔레스티나땅에 아랍인과 유태인의 《두개 국가》를 수립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미제의 비호와 사촉 밑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은 팔레스티나인민과 전체 아랍인민들의 한결같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티나땅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스라엘《국가》가 조작된 첫날부터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중근동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팽창주의적인 침략전쟁에로 부추기기 시작하였다.

팽창주의적 야망에 불타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저들의 《국가》를 조작한 다음날인 1948년 5월 15일에는 제1차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6,7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팔레스티나땅과 아랍땅을 강점하였다. 뒤이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1956년 10월에는 제2차 중동전쟁을, 1967년 6월에는 제3차 중동전쟁을, 1973년에는 제4차 중동전쟁을, 1982년 6월에는 제5차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팔레스티나의 전령토와 아랍나라들의 령토의 일부를 강점하였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거듭되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원래 유엔에서 결정된 저들의 《령토》의 4배나 되는 아랍나라들의 땅을 강탈하였으며 무려 340여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을 강제로 추방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티나인민은 자기의 정든 조국을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기고 해외에서 피눈물나는 망명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력사적 사실들은 팔레스티나문제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주의적 정책과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 책동에 의하여 산생되게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은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조국을 빼앗긴 첫날부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하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랜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용감한 팔레스티나인민은 사랑하는 조국땅이 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첫날부터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팔레스티나인민은 피눈물나는 실지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이 없으면 민족의 존엄도 영예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더없이 소중한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팔레스티나인민은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의 령도밑에 1965년 1월 1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개시하였으며 도처에서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1969년에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기 위한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와 팔레스티나무장투쟁련합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쟁투사들의 무장투쟁과 그것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와 팔레스티나무장투쟁련합사령부의 창설은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투쟁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력사적 사변이였다. 이것은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자기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적극 비호하고 부추겨온 미제에게 있어서 실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그후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의 령도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항쟁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해방조직산하의 유격부대들은 이스라엘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모든곳에서 대담한 전투작전을 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1981년 7월 팔레스티나인민의 무장력이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안긴 커다란 참패는 침략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오늘도 팔레스티나인민은 단결하여 투쟁하는 길만이 해방된 조국으로 하루빨리 돌아갈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의 두리에 굳게 결속하고있으며 무장투쟁과 함께 여러가지 대중투쟁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고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팔레스티나인민의 전인민적 봉기는 오늘 현재까지 굽임없이 계속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벌어지고있다. 팔레스티

나인민의 이 전인민적 봉기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그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이 더욱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팔레스티나문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팽창주의적 책동과 미제의 부당한 간섭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팔레스티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아랍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은 팔레스티나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소집제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아랍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제38차 유엔총회에서와 제41차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포함한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중동평화국제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도 이 중동평화국제회의의 소집을 지지하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중동평화국제회의소집을 한사코 반대해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중동평화국제회의소집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자기의 이른바 《중동평화제안》이라는 역제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이 《제안》에는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대에서 자치기구의 설립과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제한된 자치를 주는 문제는 언급되여있으나 그들이 민족적 자결권을 실현하며 자기의 령토에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울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해서는 제기조차 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티나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에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 대표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참가하는것을 완전히 배제하고있다. 또한 강점한 아랍령토들에서의 이스라엘침략군의 《철수》문제와 중근동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제기하였을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고있다. 미제가 내놓은 새 《중동평화제안》이란 사실상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적 자결권과 독립국가창설을 반대하는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흉악한 간계이며 중근동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을 유혹하여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외교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팔레스티나문제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요구와 아랍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팔레스티나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든지 반드시 팔레스티나인민의 요구와 전체 아랍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605페지)

팔레스티나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관한 문제이며 그들의 생사존망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같이 자기의 조국땅우에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체로 결정할수 있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신성한 권리이다.

팔레스티나인민은 독립국가건설과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가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유린되고있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견결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오늘 팔레스티나인민이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항쟁운동은 잃었던 조국을 되찾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티나문제는 어디까지나 귀국의 권리, 자결권, 독립국가창설을 포함한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요구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되여야 한다.

팔레스티나문제는 중근동문제의 핵이며 팔레스티나문제의 해결은 전체 아랍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서로 지지하며 도와주는 관계에 놓여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민족의 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강점된 령토를 되찾고 민족적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하나로 련결되여있으며 그것은 전체 아랍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팔레스티나인민이 자유롭지 못하면 아랍인민들이 자유로울수 없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적자결권이 실현되지 못하면 아랍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령토완정, 진보도 이룩될수 없다.

아랍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령토완정, 진보는 오직 팔레스티나인민이 조국으로 돌아갈 권리, 민족자결의 권리를 되찾고 자기의 조국땅우에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된 때만이 이룩될수 있으며 중근동지역에서의 평화도 보장되게 될것이다.

팔레스티나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려면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팔레스티나땅에서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유태복고주의는 인종주의, 식민주의의 한 형태이다. 인종주의, 식민주의가 존재하며 횡행하는곳에서는 나라와 민족들의 독립과 자주권이 가장 란폭하게 유린된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대유태제국》을 창설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와 아랍나라들을 강점하고 식민지정착화를 추구하면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감행하는 조건에서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적 자결권이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오직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강점한 팔레스티나와 아랍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침략행위를 끝장내야 비로소 독립국가창설의 권리를 비롯한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적 자결권이 실현될수 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고 강점한 팔레스티나와 아랍 령토에서 지체없이 물러갈데 대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정의의 위업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한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한 진리이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팽창주의적 야망을 계속 추구한다면 세계인민들의 더욱 큰 항의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궁극에 가서는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팔레스티나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부추기고 뒤받침해주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부추겨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며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고 저들의 세력권을 유지확장하려는것은 미제의 음흉한 수법이다.

팔레스티나문제도 역시 미제가 중근동지역을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팔레스티나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겨온 결과에 의하여 생겨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중근동지역을 지배하려는 야망이 없고 그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아랍

나라들을 반대하는데로 부추기고 뒤받침하지 않았더라면 팔레스티나문제란 생겨나지도 않았을것이며 이미 해결된지도 오랬을것이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악랄한 팽창주의적 책동을 적극 비호하고 뒤받침해주고있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뿐이다.

미제는 이스라엘《국가》가 조작된 1948년부터 1983년까지만 하여도 400억딸라의 원조를 주었으며 올해에 와서는 군사원조액을 무려 36억딸라로 늘이였다.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팽창주의적 침략책동을 절대로 감행할수 없다.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이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허장성세하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뒤받침이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팔레스티나문제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주고있는 정치, 외교적 지지와 군사경제적 원조를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팔레스티나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것은 팔레스티나문제가 팔레스티나인민의 요구와 전체 아랍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포괄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되려면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종식되여야 하며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팔레스티나와 아랍 령토에서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간섭과 침략 책동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의 령도밑에 귀국의 권리, 자결권, 독립국가창설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왔다.

오늘 우리는 팔레스티나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든지 팔레스티나인민의 요구와 아랍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우리는 중근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모든 당사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하루빨리 소집되여 팔레스티나문제가 공정하게 포괄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팔레스티나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낼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다.

정의의 위업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7호(루계 555호)

편 집 위 원 회

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8년 7월 1일 발 행•1988년 7월 3일
ㄱ—8512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8호(55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주체의 기치밑에 영웅적 위훈으로 수놓아진 우리 인민의 자랑찬 력사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는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력사적 시대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우리 당이 령도하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더없는 긍지로 여기고있다. 이 자랑, 이 긍지는 오늘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빛나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후세에 길이 전해질 위훈의 탑을 높이 쌓아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매개 민족은 자기가 걸어온 빛나는 력사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귀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삼는다. 기나긴 세월 이 땅에서 생을 누려온 우리 민족은 유구한 과거사에 수많은 위훈의 기록을 남겨놓았다. 우리는 대대로 전해지는 애국명장과 애국지사들의 충정과 무훈의 력사에서, 특히는 피압박, 피착취대중의 영웅적 봉기의 력사에서 민족적 긍지의 고상한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지난날의 력사가 아무리 소중한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로동당시대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쌓아올린 영웅적 위훈의 영광스러운 력사에는 비길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의 투쟁력사는 영웅적 위훈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력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대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상과 영웅적 위훈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화폭입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력사는 그들의 주동적 활동에 의하여 끊임없이 전진한다.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대중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벌리는 자주성을 위한 모든 투쟁은 인류력사에 고귀한 업적을 남긴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지난 60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행정에 불멸의 위훈을 창조한 영웅적 인민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웅적 위훈의 첫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숭고한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무비의 영웅주의로 빛나고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이룩하기 위한 첫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조선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자랑높이 시위한 위대한 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광복성전에서 불멸의 영웅적 위훈을 떨쳤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영웅적 위훈의 새로운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3년간에 걸친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들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혁명전쟁이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전쟁이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불타는 충성심과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조국의 영예와 혁명의 전취물을 빛나게 수호하였다. 우리의 영웅전사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전투에서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불사조와 같이 싸웠으며 조국과 혁명 앞에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영웅전사들과 전체 인민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 방침과 작전적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 승리가 이룩되였다.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불타버린 페허우에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건설하는 간고한 투쟁이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여나가는 보람찬 투쟁이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 인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무비의 담력과 투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영웅적 위훈을 떨쳤다.

오늘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보람찬 진군길에서 전체 인민이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 혁신자로 자라나고있으며 그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조국은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참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나가고있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이 벌린 혁명투쟁은 간고하고 준엄하였지만 그 길우에 쌓아올린 영웅적 위훈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영원히 빛날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위훈은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기 위한 투쟁행정에 이룩된것으로 하여 끝없이 고귀한것이다.

위대한 사상은 혁명실천의 위력한 향도적 기치이다. 옳바른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의의있는 실천도, 그 어떤 위훈도 창조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이 제시하는 혁명사상과 혁명적 로선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투쟁의 기치이며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행동지침으로 된다. 물론 력사의 흐름을 따라 세대가 바뀌여지는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세대가 바뀌우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다하여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굶임없이 계속되는것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내놓은 모든 혁명적인 전략적 로선들은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고수되고 견지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는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의 승리의 지도적 지침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무기이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 로선들은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주체위업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고수되여왔으며 또 그 과정에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영원히 빛내이는 위훈들이 창조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에 제시한 모든 전략적 로선들을 혁명반전의 순탄한 시기는 물론 안팎의 정세가 어렵고 복잡하

였던 때에도 드팀없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자기의 실천투쟁으로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마련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는데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들을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은 인류의 최고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동요없이 확고히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실로 우리 인민의 영웅적 위훈의 력사는 주체의 기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모든 혁명업적은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위대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것이다.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아로새겨진 우리 인민의 영웅적 위훈은 당과 수령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이룩된것으로 하여 한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사람들의 진가가 뚜렷이 나타나는것처럼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이룩된 위훈이야말로 참으로 영웅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공산주의혁명은 결코 순풍에 돛을 단듯이 탄탄한 길을 따라서만 전진하는것이 아니다.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주저앉게 되면 혁명의 락오자, 패배자로 되고 반대로 필승의 신념을 안고 대담하게 난국을 헤쳐나가면 혁명의 승리자, 시대의 영웅으로 되는것이다. 혁명의 시련을 뚫고 쌓아올린 업적처럼 고귀한것은 없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용기백배, 충천한 기세로 용감하게 뚫고나감으로써 전진도상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극복하고 자랑찬 위훈의 력사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간고하였던 항일혁명전쟁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승리한것이나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쓰디쓴 참패를 안긴것은 결코 우리가 군사장비에서 우월하였기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전후에 재더미우에서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진행하고 다시 일떠선것이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어려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것도 우리에게 그 무슨 큰 밑천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다. 혁명의 어려운 시기에 쌓아올린 영웅적 위훈은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려는 혁명적 신념을 지니고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걷는 혁명정신으로 그 어떤 간난신고도 뚫고나간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혁명의 난국을 헤치면서 쌓아올린 영웅서사시적 위훈의 기저에는 자기 운명을 당과 수령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오직 충성의 한길로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정신이 튼튼히 자리잡고있다. 이 숭고한 혁명정신을 지닌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조선혁명은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던 준엄한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영웅적 위훈은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과정에 마련된것으로 하여 영광찬란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의 창조자이며 사회의 상승적 발전의 담당자이다. 인민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계속혁신, 계속

전진할데 대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가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우리 인민은 높은 혁명적 기개와 기상을 가지고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굽임없는 혁신과 비약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졌던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왔던것만큼 자기 조국을 하루빨리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빨리 달려나가려는 강렬한 지향을 가지고있다. 남보다 빨리 나가려는 열망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령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였던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남들이 한세기 또는 수세기에 걸쳐·하였던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을 단 14년동안에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수 있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과정에 《70일전투속도》, 《80년대속도》가 창조되고 200일전투의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가 그 어떤 우여곡절도 모르고 굽임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전진의 력사, 승리의 력사라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건설의 이 위대한 력사의 창조자는 바로 우리의 영웅적 인민이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들이 쌓아올린 불멸의 위훈으로 하여 주체조선의 영예는 찬란히 빛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체 인민이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고 그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륭성과 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된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인민의 평범한 아들딸들을 간고한 시련과 보람 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혁명적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시였으며 가난하고 무력하던 우리 나라를 위력하고 존엄있는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전체 인민이 무비의 담력과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높은 혁명성과 견결성, 불굴의 영웅적 기개를 높이 떨쳐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으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위용을 긍지높이 떨칠수 있게 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운명을 같이하는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이 굽임없는 영웅적 위훈과 기적을 낳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영웅적 위훈으로 아로새겨진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는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재부로,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사상정신적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하지 말며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자기가 택한 혁명의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이미 자신이 택한 혁명의 길에서 조금도 물러설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하며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반세기전에 시작된 우리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선행단계에서 이룩된 업적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간다. 특히 혁명투쟁력사에서 간고한 시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 이룩된 업적과 위훈은 혁명의 전진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오늘의 조성된 안팎의 정세와 우리 혁명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전체 인민이 지난날의 영웅적 위훈의 력사를 더욱더 빛내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주체의 기치밑에 영웅적 위훈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력사를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업적에 대한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불멸의 업적을 기록하고있는 영광스러운 력사는 오늘의 위훈의 사상정신적 밑천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영웅적 위훈의 력사는 비길데없이 자랑찬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력사를 깊이 체득할 때 전체 인민을 영웅적 위훈에로 이끌어준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 영웅조선의 인민으로서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확고히 간직하게 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된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행복과 사랑의 감정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높은 영예이다.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한 사람만이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에 빛날 위훈을 창조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일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웅적 위훈의 력사를 빛내여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하는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목숨을 바칠지언정 혁명적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고결한 풍모를 가져야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조국의 번영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영웅적으로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위훈의 력사를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그들의 모범을 적극 본받도록 하는것이다.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것은 전체 인민이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 혁신자로 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시대가 낳은 영웅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빛나는 위훈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이며 그들의 사상수양과 실천활동의 구감으로 된다.

우리의 영웅들은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그들은 당과

수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영웅이라는 고귀한 이름은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하며 조국의 번영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영웅적으로 싸워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충실성과 영웅성의 빛나는 상징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영웅으로부터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대건설시기의 영웅으로, 오늘의 숨은 영웅으로 그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크나큰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은 영웅들을 많이 가지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영웅적 인민으로 자라나고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하며 강력한것이다.

당조직들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모범을 따라배우는 투쟁을 적극 벌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영웅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의 창조자, 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자라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영웅적 위훈과 관련한 생동한 자료들을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하며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위훈의 력사를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비할바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고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인민이 있으며 모든것을 제힘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다.

우리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류례없이 엄혹하였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적 대고조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던 지난날의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주체의 혁명정신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당의 요구이며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의무이다.

전체 인민은 견결한 당성과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영웅들처럼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당의 의도대로 오늘의 200일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야 한다.

당이 호소한 200일전투는 바야흐로 최후돌격선에로 육박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200일전투의 나날에 높이 발휘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이 전투야말로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일뿐아니라 당이 추켜든 주체의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200일전투를 통하여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계속 견지하고 대중적 영웅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강 희 원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미 큰걸음을 내디딘 대건설행군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류례없이 방대한 규모에서 벌어지는 대건설행군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인다는것은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의 혁명임무를 실행하지 못하는것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17~18페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인다는것은 그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전투적으로 투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는 주로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혁명사업에 이바지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당이 준 혁명임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수행해나가는가 하는 실천활동에 관한 문제이다.

높은 책임성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신의 힘으로 해내려는 책임성이 있어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해나갈수 있으며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야 제기된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다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옹호관철자이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혁명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직접 실현해나가는 책임적인 사업을 담당수행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을 믿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례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웠으며 그것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당의 크나큰 신임을 받으면서 혁명의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고있는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해나가자면 당이 제시한 웅대한 대건설전투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대건설과업들은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그 집행이 조직되고 포치되며 장악되고 지도된다. 당의 로선

과 징책이 정확하고 집행대색이 옳게 세워진 다음 그것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매개 단위, 매개 부문을 맡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얼마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이 제시한 대건설전투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사업을 떠나서 혁명가의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은 당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다 발휘하여 책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있다.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당과 수령이 제시한 대건설구상을 옳게 받들어나갈수 없으며 지도일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당의 전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각오와 결심이 확고한 일군은 빈말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힘을 다 바쳐 당정책을 책임적으로 관철해나가며 헌신적인 실천투쟁으로 대건설행군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간다. 말이나 걸치레로써가 아니라 높은 책임성과 적극적인 실천투쟁으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수령이 제시한 웅대한 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이며 책임성이 높은 일군이다.

참으로 일군들이 당의 전사로서의 숭고한 자각을 가지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이 제시한 웅대한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류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규모의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본건설에 힘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현 실태와 전망적인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척되고있는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대건설행군은 전례없이 큰 규모의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영예로운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조국의 무궁한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담겨져있으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 확고한 의지가 구현되여있다.

오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끝내는것과 함께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평양시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락원, 혁명의 수도로 꾸리는 사업을 현

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로동당시대를 더욱 빛내이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조선의 심장,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에 광복거리와 릉라도경기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대건설작전을 펼치시였다.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건설은 대건설행군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만경대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 규모와 폭, 수준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방대하고 거창한 건설사업이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령도력과 비상한 조직력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여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단련되고 세련된 영웅적 인민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오랜 기간 간고분투하여 마련하여놓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와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풍부한 경험도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전투를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게 하고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영웅적 위훈과 기적이 창조되게 할수 있다.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련이어 나서고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대건설행군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일군들로 하여금 책임성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한번 시작한 일을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가적 기풍의 하나이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해오는 력사적 행정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관철해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다 밝혀주었다. 그 하나하나의 정책들은 우리 인민들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혁명성이 강하고 책임성이 높은 일군들은 당에서 이 과업을 주어도 저 과업을 놓치는 일이 없으며 열가지, 백가지 과업을 주어도 그것을 어김없이 관철하는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어떤 혁명과업을 받고는 《5분열도》식으로 한동안 끓어올랐다가도 시간이 가면 열이 식고 맥이 진하여 주저앉거나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줴버리고 이 과업이 제기되면 저 과업을 그만두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해가지고서는 어떤 일에서나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대건설행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없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 그것이 다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있다.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전행정에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언제나 한본새로 일하는 사람, 조건이 달라지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혁명적 열의를 계속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일군이다. 한번 시작한 일은 시초의 그 높은 정열과 기백을 가지고 끝까지 해

나가며 당의 요구라면 열가지, 백가지 과업이라도 다같이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이 바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해나가는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투쟁기풍이며 일본새인것이다.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은 또한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원래 책임성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고있다. 높은 책임성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철저히 버릴것을 요구한다. 남을 믿는 일이 제대로 되는것이 없다. 의존심이 있으면 결코 책임성이 나올수 없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없다. 일군들은 예비도, 힘도 자기 단위에서 찾아야 하며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라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력갱생하려는 각오가 확고하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강한 혁명가는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난관에 굴하지 않는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이 조건타발이나 하고 남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가지고서는 난관을 뚫고 전진할수 없으며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다.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해결한다는 립장에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대건설전투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실천적 경험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해나가는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의 높이가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곳에서는 언제나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구상을 훌륭히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옳바른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는것은 책임성의 중요한 표현이다.

일군들의 책임성은 중요하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관철해나가기 위한 옳바른 대책과 정확한 방도를 찾아내도록 끊임없이 사색하고 정열적으로 탐구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무슨 일이건 깊이 연구하여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책임적으로 착실하게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아래에 되받아넘기고 눈가림식으로 하거나 제기된 문제를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발뺌할 생각이나 하여서는 어렵고 방대한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다. 때문에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방법론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면밀한 작전과 포치, 정확한 장악과 지도, 철저한 총화와 재포치에 이르는 전반사업과정에 대한 주도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묘술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과 묘술은 책임성이 높고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는 일군만이 찾아낼수 있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구상을 훌륭히 실현하기 위하여 사색에 사색을 거듭해나갈 때 당의 의도에 맞고 사업에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이 나오게 되며 방도가 탐구되게 된다.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여 세운 방법론과 대책은 별생각없이 형식주의적으로 세운 대책과 방법론에 비한바없이 좋은 결실을

가져다준다.

당의 요구를 지상의 과업으로,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여기고 자나깨나 오직 그 실현을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뛰고 또 뛰면서 방법론과 묘술을 찾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이 되는 바로 여기에 지도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으며 대전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대전설행군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성과적으로 결속하여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점령하여야 할 투쟁목표가 높고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방대하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대전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해당 단위, 해당 부문의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는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무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을 가지는것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은 자기 운명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사상적 각오와 결심이며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려는 높은 각오와 확고한 결심에 기초하고있다.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일본새는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의 직접적 발현이다.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그들이 높은 혁명성과 강한 전투력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혁명투쟁과정에서 발현되는 사람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그들이 지닌 혁명성과 전투력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어떤 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혁명성과 전투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도 혁명성에서 발현되며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나가는 철석같은 신념도 혁명성과 전투력에 바탕을 두고있다. 혁명성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혁명성과 전투력만 있으면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고 화도 복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 특히 그 규모와 내용, 전진속도에 있어서 류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대전설행군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인도 바로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는데 있다.

우리의 앞길이 락관적이고 휘황찬란한것만큼 모든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계속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대전설행군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며 책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전투의 승패가 사령관의 령군술에 달려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대건설행군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업능력, 지휘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아는것이 힘이며 지식은 곧 창조적 능력이다. 알아야 주견도 생기고 신심도 가질수 있다. 실력이 있는 일군은 어떤 과업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주저하지 않으며 확고한 주견과 만만한 투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고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일군이란 바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사상적 각오가 높고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도 능숙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휘관을 말한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심화발전하고있다. 일군들이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열정에 경제관리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안받침하지 않고서는 발언권을 가질수 없고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지도할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정치리론수준을 가지고있어야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 선에서 옳게 가려볼수 있으며 당에서 새로운 정책적 과업을 내놓아도 그 의도와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낼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학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들, 당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한 일군,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다방면적인 자질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형식주의는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겉치레만 하며 일을 헐하게 되는대로 하려는 낡은 사업태도의 표현이며 요령주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발라맞추기를 좋아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릇된 사업태도의 표현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하게, 실속있게 일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말이나 겉치레로써가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투쟁으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자신의 혁명적 신념과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책임이 두려워 허물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하여 요술을 피우며 눈치놀음을 하거나 일이 잘되지 않는 책임을 우에 밀고 아래에 밀면서 빠질 구멍만 찾는 요령주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일본새의 사소한 표현도 결코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책임지는것이 두려워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하거나 보신주의를 부리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일본새가 아니다.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하게 되면 겉으로는 일을 하는것 같지만 실속이 없고 남는것이 없다.

일군들속에서 책임적으로 일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자면 형식주의적이며 요령주의적인 낡은 사업태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온갖 그릇된 일본새를 철저히 없애고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관건적 문제이다.

모든 일군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강화발전되여 온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

김 기 선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에 있으며 통일단결된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당은 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적극 강화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대한 혁명적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 빛나게 실현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투쟁행정에서 하나의 사상의지적 통일체로 비상히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으며 조국땅우에 세기적 변혁과 위대한 창조의 력사를 펼쳐올수 있었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업적, 일심단결의 위대한 전취물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지키고 끝없이 빛내임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 *

우리 당의 력사는 준엄한 시련속에서 대렬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온 위대한 투쟁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627페지)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한사람같이 굳게 결속될 때 그 전투력과 령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의 원천인 통일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만 튼튼히 다져진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안팎의 계급적 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과 반혁명분자들의 파괴책동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다. 계급적 원쑤들은 사회가 전진하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한다. 또한 공산주의운동에는 공산주의의식이 높은 선진분자들과 함께 아직 계급의식이 높지 못한 사람들도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당내 반영인 반당적 조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굽임없이 강화하지 않고서는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없다.

우리 당은 창건과 자기 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첫걸음부터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달리 간고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데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 요소를 반대하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리고 그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는 전당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조직적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대렬의 조직적 단결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분파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종파주의는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혁명운동을 파괴하는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들로서 당안에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대렬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당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열된 조직적 골간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정확한 방침이였으며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현명한 조치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당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않고 종파행동을 계속하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엄중하게 방해하였다. 종파분자들은 특히 우리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닥쳐올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섰다. 이자들은 저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적들과 결탁하여 반혁명의 길로 나갔으며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는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과 온갖 분파적 요소들을 청산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하며 조금도 미룰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흉악한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것을 적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종파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시였으며 그와 함께 종파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와 전후시기에 있은 1956년 8월전원회의 그리고 1958년 3월 당대표자회는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회의들이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반당반혁명간첩도당이 적발숙청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8월전원회의와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당에 도전해나섰던 종파의 마지막잔당이 청산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대렬의 조직사상적 단결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었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는것으로 끝날수 없었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통일단결을 위한 당의 력사적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특히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이 비상히 강화되고 그 전투적 위력과 령도력이 한층 높아졌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으며 특히 전후시기에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일관한 투쟁에 의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

져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개성시당조직들은 신해방지역에서 사업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반종파투쟁을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간첩도당들을 적발숙청하는 투쟁과 결합하여 날카롭게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와 1956년 8월전원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당내 투쟁과정에서 우리 시당조직안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폭로분쇄되고 그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대렬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 요소들과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이 없이는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당대렬의 통일이 이룩된 조건에서도 적대적 사상의 침습과 낡은 사상 요소를 반대하는 투쟁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특히 분계연선지역에서 사업하는 조건에서 언제나 높은 당적,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을 예리하게 살피며 당원들속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할데 대한 요구는 혁명이 심화되고 당앞에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된다. 당이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지 않으면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한수 없다.

우리 당 건설과 발전에서 1970년대는 당의 통일단결이 숭고한 높이에 이른 력사적 년대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을 더욱 전망성있게 건설하며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충성의 전투적 부대로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구상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길에서 더욱 빛나게 실현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사업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의 통일단결은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일심단결이 가장 빛나게 실현된 사상의지의 순결체로,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력사적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불멸의 이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혈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그처럼 공고하고 위력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한결같이 굳게 결속되여있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공고한것으로 된다. 세상만물이 해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운동발전하는것처럼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도 해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는 통일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통일단결의 중심은 바로 혁명의 령도자, 수령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여하는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결속되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당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굳게 결속된 당만이 강위력한 혁명적 당으로 될수 있다. 비록 력사가 오랜 당이라고 하여도 단결의 중심에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은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위력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계급의 전위조직으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통일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령도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받들어옴으로써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대렬의 공고한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당의 일심단결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비상히 높은 수준에서 더욱 굳게 다져졌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 대렬의 위력은 불패이며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결코 허물수 없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의 기저에는 혁명의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불변의 신념, 자기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과 신뢰가 놓여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변함없는 혁명적 신념, 끝없는 신뢰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의지적인것이다.

당과 수령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에서 충성다하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간직하고있는 드팀없는 신조이고 의지이며 그들의 고결한 풍모이다. 이러한 풍모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령도자로 모시고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였던 그 불굴의 혁명정신에 뿌리를 두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이 반세기가 넘는 오늘에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살아 그대로 고동치고있으며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처럼 숭고하고 공고한것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하나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의 근본원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같은 사상을 가진 사회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계급의 전위부대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진정한 통일단결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로 되여야 한다.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단합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오래 가지 못한다.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는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불패의것으로 된다.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떠나서는 사상의지적 통일체로서의 당의 존재와 활동, 그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전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쳐야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통일체를 이룰수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의 확고한 신념으로,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드팀없는 신조로, 세계관으로 삼고 투쟁하고있으며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차넘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력한 전일적인 유기체로, 그 어떤 난관도 대담하게 뚫고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백전백승의 전투적 조직으로 되고있다.

실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 중심의 확고성과 사상적 기초의 공고성, 순결성에 있어서 공산주의운동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일심단결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념원하던 그러한 위대한 통일단결,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은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주되는 력사적 총화이다. 바로 이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위대하며 우리 혁명의 전도가 양양한것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다.

혁명의 끊임없는 전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심화발전은 단결의 공고성, 단결의 계승을 요구한다. 위대한 창조적 위훈과 시대를 전진시키는 거창한 변혁의 기치에는 그것을 설계하고 진두에서 이끄는 위대한 당의 통일단결이 있다.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서고있는 류례없이 방대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은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할수 없으며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소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강화되고 정세가 복잡하며 우리 혁명이 앞으로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금도 소홀히 할수 없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날수 있으며 동상이몽하면서 혁명의 길에서 리탈하는자들이 나올수 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며 혁명의 앞길에 난관이 있는 조건에서 당안에 개별적인 동요분자들과 이색적인 사상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경험이며 교훈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대렬을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앞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천리제방도 개미굴로 하여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대렬안에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사소한 낡은 사상의 발현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대오안에서 준엄한 계급투쟁과 반종파투쟁을 체험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6페지)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고수하고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주체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도록 하

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 대렬의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이며 그 위력의 근본원천이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당대렬의 사상적 일색화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으며 당의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를 확고히 다져나갈수 있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투철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는 견결한 투쟁의 기수로 되게 할수 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주체적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불건전한 잡사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튼튼히 고수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우리식대로 풀어나가며 통일단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고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과 교훈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종파를 반대하여온 간고한 투쟁의 력사이다. 우리 당은 형형색색의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종파의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예리한 당적,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비당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성새가 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은 사상의지적 통일과 함께 행동상 일치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결속되였다 해도 행동상 일치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단결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상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의 조직규률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령도자의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규률이다.

당조직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규률과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것은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전당에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안에 제정된 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당이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이룩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는 엄혹한 투쟁의 길에서 굳게 다져진 불패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감으로써 당의 위업,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삶의 요구

장 병 규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언제나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여온 결과이다.

우리 당의 모든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은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이 확증해준 진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앞에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련이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의 의도를 받들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당면한 200일전투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9월의 대축전을 빛내이기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정책을 받아들이며 관철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접수하고 관철하는데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져야 할 관점과 립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4페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삶의 요구로 내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생을 혁명을 위하여 보람있게 싸워나가게 하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있고 보람있게 살것을 지향한다. 삶의 가치와 보람은 사람들이 삶의 요구를 어떻게 내세우고 투쟁하는가에 달려있으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삶의 요구는 자기 수령의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당정책관철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여긴다는것은 그것을 자기 운명개척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당정책관철을 떠나서는 살수도 투쟁할수도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고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만 삶의 보람과 혁명가의 영예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을 관철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정책관철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가의 값높은 삶은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영원히 걸어나가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최고뇌수이다. 수령은 또한 혁명전사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인생의 은인이다. 혁명가들이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그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이기 위한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따라서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한것으로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명이며 생명가운데서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며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살아갈 때만이 가장 값높은 삶을 향유할수 있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자면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는 수령에게 충실하여야 하며 수령께 대한 충실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수령이 제시한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가의 삶과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된다. 혁명가들이 당정책관철을 떠나서는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일수도 없고 보람찬 삶의 길을 걸어나갈수도 없다.

그러므로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언제나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게 되며 여기서 자기의 숭고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것이다.

당정책관철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여기고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한몸바쳐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사업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한생을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것은 없다.

사람이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며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산다면 그것은 사실상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동물의 생활이나 다름이 없는것이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물질적 욕망의 충족만 생각하면서 인민대중이 겪고있는 곤난과 고충은 외면하고 그저 자기만 잘살려는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 오래 산다고 해도 사람값에 가지 못하는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의 보람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재부나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데 있

해서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값높은 삶을 누리는가 못누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것을 척도로 하여 평가된다.

공산주의혁명가는 원래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한몸바쳐 투쟁하는데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혁명하는 길에 영광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된 인생관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에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값높은 삶에 대한 요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성취되게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지도적 지침이며 전략전술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바랄수 없으며 숭고한 삶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것은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창조적 힘에 의하여 실현해나가는 사람의 활동이며 생활이기때문이다.

이처럼 당정책관철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여기고 투쟁하는것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한몸 바쳐나가게 함으로써 공산주의혁명가들이 한생을 값있게 살아나갈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의 하나로 된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아들이고 관철하는것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한 혁명가의 삶은 더없이 고귀한것으로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혁명가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

지난날 김책, 최현, 정준택, 강영창동지들을 비롯한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였던 사람들은 례외없이 누구나 다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을 주시여도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았다. 그것은 그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필승불패의 무기이며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 자신들의 삶의 보람도, 우리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한데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업을 받아안으면 그것이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였으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하였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한생은 언제나 별처럼 빛나는것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 로정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혁명의 길에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할 때 극복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혁명이 헤아릴수 없이 간고한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과 같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옳은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기때문이며 당에 충직한 우리 인민이 그것을 뜨거운 심장으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해왔기때문이다.

지난날 준엄한 두 차례의 혁명전쟁에

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그리고 오늘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수많이 일떠세우고있는것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자신의 제일생명으로, 삶의 요구로 내세우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높이 발휘한데 있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혁명가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고 오늘의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근본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여기고 투쟁하는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 기풍은 무엇보다도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본성적 요구이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그것은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닌 혁명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강의한 혁명적 의지와 왕성한 사업의욕, 혁명적 열정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이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만 가지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수 있고 아무리 방대한 당정책적 과업도 제힘으로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는 일이 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숭고한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있는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특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어느것이나 다 우리 인민을 굳게 믿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혁명적 립장과 의지가 구현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제힘으로 혁명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어야 그것을 견결히 옹호관철할수 있는것이다.

당에서 과업을 주면 자체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면서 조건을 갖추어주기만을 기다리는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당정책을 관철하려는 자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한다는 립장에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거나 난관앞에 주저하며 동요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 우리 혁명의 시련의 시기에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불타는 강도 건느고 진펄길도 걷던 그 정신, 그 투지로 전진도상에 있을수 있는 난관들을 완강하게 뚫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면하게는 당이 제시한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한 200일전투과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혁명

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여기고 투쟁하는 우리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또한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목표를 담고있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완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같이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에서나 시작할 때나 과업을 받을 때에만 벅적 떠들어서는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을 접수하는 순간으로부터 그것을 관철하는 전행정에서 한결같은 혁명적 열정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업에서 꾸준한 맛이 없이 한두번의 혁신으로 만족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의가 식고 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업태도, 일본새와는 인연이 없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계속 기백있게 일해나감으로써 당의 모든 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근기있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서는 한가지 과업만이 아니라 두가지, 세가지 과업을 함께 받아안을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이것을 당과 국가의 두터운 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하나의 과업, 어느 하나의 당의 결정이라도 그것을 관철하는데서는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사업에서는 선후차가 있을수 있지만 당정책관철에서는 어느 하나라도 중도반단해서는 안된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어느 하나라도 힘을 넣지 못하면 그만큼 그 부문, 그 단위 사업에서는 물론 나아가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과 국가의 결정들을 다같이 틀어쥐고 끝장을 볼때까지 근기있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본질과 내용, 그 정당성과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아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그것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무장하는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결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없다. 당정책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며 지침이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을 받드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모든것을 당정책을 자로 하여 재여보고 그에 맞게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사람만이 당과 함께 숨쉬고 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립장과 자세가 투철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의 본질과 진수, 그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여 자기의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되게 하는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참다운 삶을 빛내이는데서 선차적 요구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당정책학습과 당결정서학

습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귀중히 여기고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혁명적 의리를 지니는것은 당정책관철을 삶의 요구로 내세우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의 어길수 없는 혁명적 의리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 특질은 령도자의 신임과 배려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 은덕에 보답하는것을 숭고한 의리로, 혁명적 본분으로 여기는데 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삶의 요구로 여기고 발휘하게 되는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은 바로 이러한 사상정신적 특질로부터 우러나온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투사들이며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 서게 된 혁명전사들이다. 어머니당의 품을 떠나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선봉투사로 자라난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기를 혁명가로 키워주고 당과 국가, 경제 기관의 어엿한 일군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의 의리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전사의 숭고한 의리를 지녀야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접수하고 관철하는데서 옳바른 립장과 자세를 가질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관철을 삶의 요구로 여기고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또한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진다는것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락천적으로 대하는 관점을 지닌다는것을 말한다.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는것은 인간생활에서나 혁명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한생을 값있게 살자고 해도 승리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하고 애로와 난관을 뚫고 자기의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언제나 필승의 신심을 잃지 말고 락관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여기고 견결한 투쟁기풍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질 때만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삶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지녀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관철을 삶의 요구로 여기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것은 그들이 한생을 빛나게 살며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영예를 굽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일군들은 당성과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김 영 섭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혁명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지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견결히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참다운 혁명가가 되자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09페지)

당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풍모이다. 일군들은 높은 당성, 인민성을 지녀야 당과 수령,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성은 당의 지위와 역할, 사명과 임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인민성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서의 당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인 인민성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 당, 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줌으로써 그들이 수령과 당, 대중에 대한 가장 투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당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가장 높이 발현된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이 생명체의 최고뇌수, 그 중심은 인민의 수령이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도 가질수 없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당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과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며 집행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

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명이다. 생명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 육체적 생명은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있는 생명이며 그것은 생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죽어버린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과 결합되여야만 가질수 있는 사회적 인간의 값높은 생명이며 사회적 집단과 함께 영생하는 생명이다.

우리 일군들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값높은 삶을 누리자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바로 여기에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값높은 삶을 누리는 참된 길이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신성,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인 당성, 인민성은 일군들로 하여금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게 하는 생명력의 근본원천이다.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 일군들이 지니게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체에 대한 충실성이기때문이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모체이다. 개별적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자면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자기의 육체적 생명의 요구나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없으며 당과 수령, 대중에게 충실하지 않고 수령, 당, 대중과 떨어져 사는 생활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배치되는 값없는 생활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며 그길에서 영생하게 된다. 만약 사람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 당성, 인민성이 확고하지 못하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살수 없는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한몫의 가치도 가질수 없게 된다.

일군들은 오직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당과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일수 있으며 수령, 당, 대중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보람있게 살수 있다.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야 하는것은 또한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조성된 복잡한 정세의 요구이다.

혁명은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으며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한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는 혁명앞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수많이 제기되게 된다. 우리 혁명은 오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과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웅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강령인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도

성취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과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높이 지녀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 지칠줄 모르는 패기와 열정으로 전진하는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다.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인 미제는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올림픽안전》을 구실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증강배치해놓고 새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의 로골화되고있는 이러한 새 전쟁 도발책동과 주변의 복잡한 정세는 우리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고 투쟁과 삶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시켜나가야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더욱 굳게 통일단결시킬수 있으며 이 불패의 통일단결의 힘으로 놈들의 그 어떤 전쟁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이처럼 일군들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발전하는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의 당성, 인민성은 투쟁과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일군들이 지니고있는 당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서 나타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척도입니다.》

당성, 인민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투쟁에서 표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혁명투쟁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며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완강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할 때 혁명과 건설이 다그쳐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꽃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당성, 인민성은 바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이 준 혁명임무를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성, 인민성이 높은 일군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친다.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강선의 영웅적 로동계급들과 일군들은 강재 1만톤을 더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희생적인 투쟁을 벌려 6만톤 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건설부문 일군들은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무조건 받아들여 7천세대분의 자재를 가지고 2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리해할수 없는 이러한 기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하려는 그들의 높은 당성, 인민성의 발현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이 발휘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도 당성, 인민성을 지닐 때 더욱 높이 발휘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을수 있다. 만약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이 높지 못하면 이러한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에다 손을 내밀고 앉아뭉개면서 일자리를 내지 못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여도 그것을 어느 하나도 일관하게 관철할수 없으며 인민생활도 높일수 없다.

오직 당에서 열가지, 백가지 과업을 맡겨주어도 그것을 다같이 틀어쥐고 우에서 대주면 좋고 대주지 않아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만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일군이 바로 우리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따르는 당성, 인민성이 높은 일군이다.

일군들이 지니고있는 당성, 인민성은 또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은 오늘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혁명하게 이끌고있다.

일군들이 지니고있는 당성, 인민성은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당성, 인민성이 높은 일군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알아내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높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며 거기에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써 일하지 않으며 군중을 깔보면서 특세를 쓰고 특혜를 요구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우리 일군들에게 고유한 인민적 풍모와는 인연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착취사회에 고유한 관료풍으로서 착취계급의 반인민적 통치방법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언제나 고상한 인민적 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충직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지니고있는 당성, 인민성은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해나가는데서도 표현된다.

우리 일군들은 오늘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속에서 전진하며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은 투쟁의 길에 나선 일군들에게 사소한 안일과 해이, 순간의 답보와 침체도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살며 일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의 당성, 인민성은 바로 시대와 혁명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혁명적 열정과 패기에 넘쳐 긴장하게 일하며 전투적으로 생활하는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당성, 인민성이 높은 일군은 언제나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모르고 청춘의 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게 전개해나가며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 당의 숨결과 기백으로 생활해나간다. 그리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배우고 그들이 살며 일하는 본새대로 일해나간다.

일군들이 만약 당성, 인민성을 높이 지니지 못하면 사업에서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을 가질수 없으며 될수록 편안히 지내려 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고 창발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사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생활을 검박하고 전투적으로 한 대신 안일해이하게 한다. 이러한 일본새와 사업태도는 당성,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당성, 인민성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일생동안 변함없이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다.

이처럼 당성, 인민성은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가 하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게 된다.

우리 온천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일군들속에서 당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수행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얼마나 높은 당성, 인민성을 지니고 어떠한 투쟁기풍으로 일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자기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애로와 난관도 이겨내고 당의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지난 기간 군자체의 력량으로 2,600여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 잘 말하여준다.

외부의 지원을 받음이 없이 군자체의 힘으로 수천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사업은 참으로 어려운 투쟁이였다. 우리에게는 자재와 로력도 부족했으며 설비와 기술자도 모자랐다. 거기에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신심을 잃고 주저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을 발동하여 이 공사가 단순히 간석지 몇정보 얻어내기 위한 사업인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한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는것을 거듭 해설해주면서 그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군당위원회와 군급 기관,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군들이 높은 당성, 인민성을 가지고 투쟁의 앞장에 서서 정치사업도 하고 돌파구도 열어나가는 과정에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극복되고 공사는 성과적으로 완공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2,600여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였다는 충성의 보고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영광을 지니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수식 발관개용 세멘트관생산기지도 꾸렸으며 서해갑문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20리물길공사도 단시일안에 해제낄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당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철도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 군의 실정에서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자면 일군들이 높은 당성, 인민성을 가지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야 하였다. 우리는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였으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3,000톤 능력의 세멘트공장을 일떠세우고 군소재지에 수십동의 다층문화주택을 건설하였으며 8,000여세대의 농촌살림집을 현대적으로 꾸리였다. 그리고 군에 있는 온천의 더운물을 리용하여 창광원식 목욕탕도 훌륭히 건설하였으며 군려관과 군급 기관, 기업소들을 중앙난방화하고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우리는 일군들이 높은 당성, 인민성을 지니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일군들이 한번 결심품고 나선 혁명의 길에서 인생동안 전진하는 혁명대오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는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여 혁명적 세계관,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당성, 인민성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는것만큼 일군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하여 혁명적 세계관,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주체사상학습을 꾸준히 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 당, 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똑똑히 인식함으로써 당과 수령, 인민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지녀야 한다.

일군들이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방도는 당생활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는것이다. 일군들은 누구나 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고 수령, 당, 대중과 함께 생사를 같이해나가자면 당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갈 때 수령과 당, 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여 발전하는 혁명과 복잡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당조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당조직생활에 어김없이 참가하며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고 대중이 살며 투쟁하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것은 당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의 높은 당성, 인민성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과 함께 당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낡은 경험주의사업방법을 버리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군중을 조직발동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당사업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리 성 린

오늘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위대한 공적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는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혈연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이 증대되고 사람들의 의식성이 비할바없이 높아진 현실적 요구에 맞게 우리 당 사업은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섰으며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련이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권위와 위신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으며 당사업이 심화되고 여러가지 방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는 현실은 모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철저히 일관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으로 시작되고 사람과의 사업으로 끝나는것이 당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업이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비롯한 모든 당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며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을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켜야 당자체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 사업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사업도 다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사업을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문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기초하고있다.

당사업을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킨다는것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키며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 무어진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정치적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많은 사람들로 무어진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혁명적 본성에 맞게 건설되고 활동하려면 반드시 모든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 복종되고 지향되여야 하며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의 기본방식이며 그 성과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온 사회에 대한 당의 정치적 령도는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사업을 떠난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에 대한 당의 정치적 령도는 그 어느것이나 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며 사람을 움직이고 발동하는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의 역할을 높일수록 당의 사회적 지위와 령도적 기능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도 보다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때문에 당사업이 당을 구성하고있는 간부들과 당원들, 당의 지반을 이루고있는 군중과의 사업으로 일관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령도해나갈수 있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는것은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집권당은 권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잘못하면 당사업을 행정실무화하려는 편향이 나타날수 있고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나올수 있다.

만일 당이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지 않고 기술실무화하거나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혁명의 참모부,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당은 오직 당사업의 기본내용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고 모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본성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는것은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은 당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본신임무로 하고있는 정치활동가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일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은 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원래 당일군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임무가 바로 당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당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책임적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 군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람들은 사상정신적 량식을 주면서 꾸준하게 교양하고 옳게 이끌어주어야 빨리 발전하게 되며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행정적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고 그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울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혁명화하는 사업은 오직 꾸준히 해설하고 설복하며 인내성있게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광범한 군중속에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수령과 인민, 당과 대중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본분에 맞게 당사업을 하여야 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말려들지 말고 일군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 다시말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말단지도단위, 집행단위에서 사업하고있는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더욱 절실한것으로 나서게 된다. 만일 당일군들이 여러가지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이 제기된다고 하여 그것을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수행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당권을 리용하여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게 되면 결국 당사업도 잘 안되고 행정경제사업도 제대로 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 복종시키고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지도하고 떠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들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하시여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밝히시고 우리 당 사업과 활동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주었으며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비롯한 모든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사상적 각오가 비상히 높아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것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시고 현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우리 당의 적극적인 조치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람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던 편향들이 극복되고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모든 당사업이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일관되게 되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그것이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당으로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조직되고 세련된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여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체로 튼튼히 다져놓은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빛나고

있다.

평남도당위원회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도당위원회는 조직부, 선전부를 비롯한 당위원회안의 모든 부서들이 자기의 직능에 맞게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일관시키도록 엄격히 지도통제하였으며 행정대행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투쟁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평원군당위원회와 개천군당위원회에서 당위원회안의 부서들이 지도일군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면서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하여 행정경제사업을 당적으로 밀어주고 정치사업으로 안받침하는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 적극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이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게 되였으며 당의 결정지시들이 철저히 집행되여 석탄전선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실천적 경험은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대로 당사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는 바로 여기에 당사업도 잘해나가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먼저 당사업에서 행정화를 없애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료해파악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과업이다.

사람에 대한 료해는 사람과의 사업의 출발점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에 대한 료해로부터 시작된다. 당일군들이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사람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할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늘 접촉하는것이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말과 같이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만나보고 지내보아야 그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와 성격과 취미는 어떠하며 지향과 요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알수 있으며 매 사람과의 사업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바로 찾아낼수 있다.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정상적으로 담화도 하고 일도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깊이 료해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정확히 료해파악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볼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해부학적으로 갈라보는것이다.

현상은 본질의 발현형식이다.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정은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파악하며 덜 깊은 본질로부터 더 깊은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료해하는데서도 현상적인것만 보고 속단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본질을 보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상과 감정은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지만 한마디의 말, 한번의 행동이 모두 그의 본심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속단하여서는 안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더 말할것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표현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이 자기

의사를 똑바로 알도록 말을 못할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리유로 하여 자기의 본심과는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료해파악하는데서 나타난 현상과 여러가지 요인들을 밀접히 련관시켜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면서 로출된 현상에서 은폐된 본질을 캐여볼줄 알아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파악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사람에 대한 료해에 기초하여 옳은 교양대책을 세우고 그들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군중의 심리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것은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 사업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있으며 맡고있는 혁명과업도 서로 같지 않다. 또한 성격과 취미도 사람마다 다르며 생활감정과 사업조건도 동일하지 않다. 사람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키며 행동에 적극성을 부여하려면 사람과의 사업이 생동하고 실속있게 진행되여야 하며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어져야 한다.

당일군들은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로써 사람과의 사업을 대치하지 말고 대상의 수준과 혁명임무의 특성, 주어진 조건과 조성된 정황, 군중의 동향과 심리에 맞는 생동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 참신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나가는데서 각이한 군중의 사상동향과 심리상태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군중속에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오래동안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영웅들과 공로자들이 많다.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우리 당의 핵심들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영웅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우리 당의 핵심진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천수만의 영웅이 나오고 모두가 영웅적 위훈과 기적의 창조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영웅들과 국가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우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계속 꽃을 피울수 있도록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자면 당일군들이 방법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원만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도록 하여야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신중하고 로숙하게 하는것은 당일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이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있는것만큼 사람문제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루고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를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거나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즉흥은 실수의 전제이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충격적인 자극으로 즉흥에 사로잡혀 사람과의 사업을

되는대로 하거나 제기된 문제를 망탕 처리하면 실패를 면할수 없다. 때문에 당일군들은 사람문제처리에서는 언제나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정치적 생명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자리에서 이래라저래라 결론해버리거나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묵살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다 들어보고 옳은 의견은 지지해주고 명백치 못한것은 더 연구해보고 해답해주어야 하며 잘못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그가 깨닫도록 잘 일깨워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하게 처신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일군들에게는 세도나 관료주의가 결코 허용될수 없다.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만일 당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내리먹이거나 호령질을 하면 겉으로는 받아무는척하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며 그런 당일군을 믿고 따르지도 않게 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자면 겸손하고 소탈하여야 하며 절대로 관료주의를 부리거나 세도를 쓰지 말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탈하게 군중을 대하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품고있는 남모를 고충과 말 못한 사연도 먼저 헤아리고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풀어주게 될 때 사람들모두가 기뻐도 먼저 찾고 슬퍼도 먼저 찾는 어머니품처럼 당조직을 대하고 당일군을 따르게 되며 정다운 마음으로 아무때나 찾아오게 된다. 당일군들은 어느때 누구든지 허물없이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과 마음속 생각까지 다 이야기할수 있도록 당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며 울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웃으면서 당위원회의 문을 나서도록 사람들을 뜨겁고 친절하게, 겸손하고 소탈하게 대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고 수완있게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과의 사업이 얼마나 심도있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맡아하는 일군들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당일군이라는 간판만 있으면 사람과의 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사람과의 사업의 무기는 간판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며 그 관철에로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능력이다. 따라서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제대로 하자면 지도능력이 있어야 하고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머리에 든것이 없고 아는것이 적으면 실력을 가지고 남을 교양하는것이 아니라 직위와 간판을 가지고 남을 교양하려 하게 된다. 아는것이 많고 수준이 높은 일군만이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양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알수 있고 사람과의 사업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능숙하고 수완있게 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은 깊은 지식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다방면적인 지식은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만이 체득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자만과 답보를 모르는 혁명가답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리고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실력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오늘 당과 혁명 발전에서는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당사업은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일관시켜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것은 당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새

박 윤 호

우리 당은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체득하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오늘 우리의 당일군들이 설 자리는 사회주의건설로 들끓는 전투현장이다. 이 벅찬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것은 우리 당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새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에 나가서 사업하는것은 우리 당일군들의 고유한 품성으로 되여야 합니다.》

당일군은 인민대중과 동떨어져서 대중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나왔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이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맡아하는 직업적 혁명가,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일군의 사명과 임무는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 있다. 당일군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려면 당정책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사업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며 당경제정책이 실제로 관철되는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생산현장이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있으며 바로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경제정책이 관철된다. 그러므로 당사업은 언제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진행되며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들어가 당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는것은 당일군의 기본활동방식으로 된다.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은 당사업을 그 특성에 맞게 조직전개하는 당일군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도 서로 다르다. 당사업은 대상이 다양할뿐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된다. 당사업의 이러한 특성은 당일군들이 언제나 사람들의 수준과 준비정도,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게 당사업을 창조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한다.

당사업을 다양한 대상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조직전개하자면 당일군들이 사무실적 사업작풍을 철저히 배격하고 아래에 내려가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하고 대상에 맞게 참신하게 일하여야 한다. 땅을 잘 알아야 그에 맞는 종자를 심을수 있고 착실한 수확을 거둘수 있듯이 당일군들이 생산과 건설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여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고 군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것이다.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경축하며 방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이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상하가 합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로력적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은 곧 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상하가 합심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정책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원래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군중을 가르치고 군중에게서 배우며 아래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걸린 문제들을 풀고 그들이 일을 더 잘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있다. 아래에 내려간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강조와 지시나 하고 보고나 받아가지고서는 현실속에 들어가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나라의 경제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적 련계가 복잡하고 밀접해진 오늘 현실에서는 지난 시기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실속있게 사업하여야 생산자대중에게 의거하여 아래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수 있으며 실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론을 세울수 있다.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면 또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아래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을 더 잘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수 있으며 그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이 상하가 합심하여 실천에서 걸린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웅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은 현시기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며 우리앞에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은 먼길 전진하여왔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며 혁명의 앞길은 의연히 간고하고 험난하다. 우리는 정세가 극도로 긴장한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을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도당을 대결과 분렬에로 부추기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위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는 과정을

통하여 강화된다.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고있는 문제의 하나는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이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인 정치일군들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일군들을 통하여 당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당과 굳은 뉴대를 가진다. 그러므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자면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을 교양하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적인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일군들은 군중이 일하며 생활하는 곳에는 그 어디에나 다 들어가야 하며 당일군들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더욱 높여 혁명의 주체를 계속 강화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전개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간고하고 험난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늘 산하 부대와 혁명조직들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료해한데 기초하여 아래일군들과 혁명군중을 따뜻이 가르쳐주고 도와주시는 혁명적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에도 새 조국 건설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대중에게 의거하여 실천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 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본받아 일해나가는것을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립장과 자세로 규정하시고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유격근거지에나 적통치구역에나 다 배낭을 지고나가서 로동자, 농민들을 묶어세우고 혁명에로 불러일으켰던것처럼 모든 당일군들이 정상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당안에서는 재래식 사업방법,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당사업을 패기있고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혁명적 기풍이 세워졌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으신 뜻을 구현해나가는 수많은 당일군들은 생산적 앙양으로 들끓는 기대앞과 포전들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있다.

문덕군당위원회는 최근년간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일군들속에서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사업하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조직정치사업을 개선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문덕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이다. 룡림리와 립석리, 남이리와

동림리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이 영광의 사적지로 되고있는 우리 군에서 당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으신 뜻을 꽃피워나가는것은 군당위원회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군에 주신 과업을 관철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일군들이 현실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모든 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곡창지대의 하나인 열두삼천리벌에 자리잡고있는 문덕군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위대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의 농업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근년간 문덕군당위원회는 모든 당일군들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특히 군당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농촌에 내려가 협동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의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들이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원래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한다는것은 행정대행을 한다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당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 농업기술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이 제발로 걸어나가면서 패기있게 일하도록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모를 박았으며 집체적 토의를 거쳐 행정적으로 일단 포치한 과업은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당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또한 당이 제시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밑에 협동농장원들이 농사일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창조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군당위원회가 이처럼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떠밀어줌으로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기술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있으며 룡림리, 립석리, 동림리, 룡오리, 상팔리를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성과적으로 지어나가는 훌륭한 모범들을 창조하였다.

최근년간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문덕군당위원회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린것이다.

지방공업의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우리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기지를 강화하여야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를 포착한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견직공장 직포직장을 개건하는 사업부터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켰으며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개조하며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이 과정에 도자기공장에서는 새로운 소성법을 받아들여 생산을 훨씬 늘이면서도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철제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능력을 늘이는데서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우리는 현실속에 들어가 실정을 료해한 다음에는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부침땅면적을 늘이고 지방공업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군에 주신 과업대로 룡오섬을 개간하는 공사와 서호리에서 해변가까지 수로를 째여 지방공업의 원료기지를 꾸리는 공사는 방대한 로력과 자재를 들여 자연을 개조하는 힘든 공사였다. 그러나 군당위원회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군안의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는 한편 책임일군들이 현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패기있게 일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준 결과 추운 겨울철에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단 5일동안에 룡오섬까지 3백여메터의 동뚝을 쌓고 관개수를 보내는 공사를 끝낼수 있었으며 서호리에서 해변가까지의 긴 구간에 수로를 째고 수십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는 공사도 단 1주일사이에 완공할수 있었다.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군중의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이다.

우리 문덕군에 있는 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은 철길을 사이에 두고 살림집들과 떨어져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시기에 지방산업공장 종업원들은 건늠길이 있는데까지 멀리 에돌아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었다. 철도역과 공장들에 나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는 과정에 로동자들의 이러한 애로를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들은 대중의 애로를 풀어주는데서는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사이에 네일내일이 따로 있을수 없다는 립장에 서서 곧 해당 일군협의회를 열고 짧은 기간에 공중건늠다리를 건설할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필요한 자재와 로력은 대중적 운동으로 해결할것을 결심하고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에게 호소하였다. 군중이 애로를 느끼던 문제이고 군당책임일군들이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사업이다보니 예상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130여메터의 공중건늠다리가 완공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당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해설선전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높은 혁명적 자각을 가지고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실속있게 사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생산현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아래단위의 실태를 깊이 료해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지도를 할수 있으며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도와주고 가르쳐줄수 있다.

우리 당안에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오늘 이 사업체계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하자면 당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자기 사업의 첫공정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내세우고 들끓는 현실에 일상적으로 침투하여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당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

획과 설계를 가지고 주동적으로 아래에 내려가야 하며 아래에 내려가서는 로동자, 농민들 속에 몸을 푹 잠그고 그들과 생활도 같이하고 일도 같이하면서 당조직사상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의 몸에서 늘 기름내가 나고 흙내가 날 때 군중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게 되며 이렇게 되여야 현실속에 들어가 진행하는 당사업의 실효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한 정형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그들을 재무장시키고 재작전하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당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사업할수 있도록 조건을 잘 보장해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일군들속에서 혁명적 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군중의 친근한 벗이 되고 혁명동지가 되여 군중을 아량있게 대해주고 군중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군중의 오늘의 생활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봐주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상적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당책임일군들이 여기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이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당책임일군들이 직접 현실속에 들어가야 보다 높은 정책적 안목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할수 있으며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한 정형과 아래의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게 지도를 심화시킬수 있다. 당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실천적 모범은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당책임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전반사업을 틀어쥐고나가면서도 정상적으로 아래단위에 내려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심어주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처럼 생산자대중이 일하는 전투현장에서 대중과 심금을 털어놓고 담화도 하며 당이 제시한 전투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당책임일군들은 계획적으로 아래일군들을 데리고나가 한 단위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는 방법도 배워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오늘 새로운 과업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우며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일하기마련이다. 일군들이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수준이 어리면 군중속에 들어간다 하여도 지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세울수 없으며 사업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다.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이 나타나는것은 많은 경우에 그들의 수준이 높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당일군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정력적인 독학가가 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당정책을 다 환하게 통달하고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사업을 하나 설계해도 내용이 깊게 하고 조직사업을 해도 현실에 맞게 빈틈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일군의 참다운 삶의 보람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혁명의 한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 있다. 우리의 당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살며 사업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것이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

전 제 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의 하나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경제건설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크게 련관되여있다.

과학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2~483페지)

오늘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은 많은 로력과 방대한 규모의 물질적 및 재정적 지출을 요구하는 매우 거창한 투쟁과업이다. 이 방대한 과업은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개조하여야만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바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으로 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무엇보다도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추를 이루는 부문을 비롯한 중요과학기술부문들을 다같이 발전시킨데 대한 방대한 계획이다.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인 경제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리용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이다. 따라서 경제건설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과학기

술도 그 연구분야가 대단히 넓다.

다양한 과학연구분야에는 경제건설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보다 중요한 부문, 해당 시기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문들이 있다. 이러한 부문들이 해당 시기 과학기술발전의 중추를 이루는 부문으로 된다.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추를 이루는 부문은 전자공학과 생물학, 열공학 부문들이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을 발전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하고있다.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한 과학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열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는 전자공학부문에서 전자재료와 전자요소, 전자계산기, 수치조종공작기계, 자동화장치, 로보트들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연구개발하여 인민경제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적극 실현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여있다. 여기에는 또한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생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고 미생물공학을 적극 발전시켜 단백질먹이문제를 해결하며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려 수산물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할데 대한 과업들도 반영되여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저열탄을 많이 리용하고 지방도시와 농촌의 난방화, 가스화를 실현하며 태양열,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열동력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과업들도 밝혀져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는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발전시키는 문제뿐아니라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채취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며 수학,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과학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의 과업이 다 제시되여있다.

이처럼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현대과학기술의 중추를 이루는 부문들을 비롯한 중요과학기술부문들을 다같이 발전시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방대한 계획이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또한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과학기술을 인민경제발전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게 하는 전망적인 계획이다.

과학기술연구사업은 자연의 발전법칙을 밝혀내고 그것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리용하기 위한 방도들을 찾아내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과학기술을 그 사명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려면 그것을 짧은 기간에 빨리 발전시켜 경제발전에 앞세우며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과학기술이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제건설에 앞세우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현대적인 생산에서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모두가 다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그것이 제때에 생산실천에 도입된 결과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3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걷는 기백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최첨단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완성해냄으로써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에 계속 앞세워나가려는것이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예견성있게 해결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한 전제를 원만히 마련할수 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그 폭에 있어서 현대과학발전의 중추를 이루는 부문을 비롯한 중요과학기술부문들을 다 포괄하며 그 높이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에로 끌어올리며 그 속도에 있어서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계획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수행되면 몇해사이에 주체적인 극소형 전자기술과 전자계산기, 빛통신 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생산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될것이며 현대생물학에 기초하여 농업과 축산업, 바다가양식이 높은 과학적 토대우에 올라서고 순천과 사리원의 대화학공업기지에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이 생산되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열을 리용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열동력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될것이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는 보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라서게 될것이고 그 주체성이 더욱 강화될것이다.

이렇듯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 위력은 더욱 강화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무려 130여만명이나 되는 위력한 인테리의 대부대가 마련되여있으며 현대적인 연구 시설과 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수백개의 과학연구기관과 연구기지들이 튼튼히 꾸리져있다.

우리에게는 지난 시기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도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의 경제건설과업들을 제시한 때마다 그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같이 철저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발전계획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자랑찬 성과와 귀중한 경험들이 이룩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군하였다.

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잘 리용하고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한다면 능히 3년동안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울수 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섬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서는 최단기간안에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울것을 결심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사상화된 과학자, 기술자로 튼튼히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 담당자들이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질적으로 수행되는가 하는것은 그 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수행에서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유일한 신념으로 삼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현시기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을 빨리 수행하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사상화된 과학자, 기술자로 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과학연구사업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여기에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두가 다 혁명가들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개인의 리익보다도 혁명의 리익이 더 귀중하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것이 가장 빛나는 삶으로 된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적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책을 하나 써도 개인의 명예와 공명이 아니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옳바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은 현대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역경은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과학연구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기본임무는 과학과 기술, 지식으로 혁명에 이바지하는것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과학연구사업의 실천적 성과에서 표현되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면 반드시 충실성에 실력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실력이 없는 과학자, 기술자는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과학자, 기술자라고 말할수 없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우리 시대는 모든 사람들, 특히 과학과 기술, 지식으로써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높은 자질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전공부문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정통하며 그 분야의 세계적 추세를 환히 알고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선진 과학과 기술을 정상적으로 연구하고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도록 외국어학습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실력가, 박식가가 될 때 나라의 과학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기술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과학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한 계획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의가 높고 그들의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 짜고들지 않고 연구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못하면 세워진 계획을 현실로 전환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연구과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바로 정하고 그에 대한 분담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과학연구과제를 준 다음에는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며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원칙적 립장에서 정확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우리는 과학연구기관들사이, 과학연구기관들과 고등교육기관들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풀어나가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연구사업에서 본위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며 과학력량을 분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교류사업을 강화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중요한 목적은 과학연구성과를 받아들여 생산의 빠른 장성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당면한 생산을 내밀면서도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행정지도사업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과학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당의 방침대로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원칙에서 계획을 바로세우고 그대로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며 최신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전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과업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에서 주체가 튼튼히 서고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물론 크고 귀중하지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 특히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는 대학들에서 전공학과들을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주요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실험실습교육과 설계교육을 강화하며 그 물질기술적 토대를 잘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을 유능한 과학기술일군으로 키워내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자

박 린 숙

지금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창한 규모의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로동행정사업은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로동력을 가진 사람은 생산과 건설에서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이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적극 발양시키고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이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되며 그것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더우기 오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전례없는 거창한 규모에서 높은 속도로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그것이 로동력에 대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에 따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 건설 그리고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온 나라 도처에서 힘있게 일떠서고있는 중요대상들을 움직이는데는 많은 기능공, 숙련공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능로력을 예견성있게 마련하여야 건설이 끝난 다음 인차 공장, 기업소들을 돌릴수

있다.

더우기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많은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거나 새로 개발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자면 이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청장년로력을 대주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이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로동행정사업을 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개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력예비를 적극 찾아내는 등 모든 로력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해야 대건설의 주공전선에 로력을 우선적으로 대주면서 전반적 인민경제발전에 요구되는 로력들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그리고 대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변화되는 새로운 정황에 맞게 로력에 대한 인민경제 부문별, 중요대상별, 지역별 수요를 옳게 타산하고 제때에 보충조절하는 사업을 잘하면 사회주의대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힘있게 다그치는데 필요한 로력을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모든 근로자들을 자기 능력을 다 내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함으로써 맡겨진 계획과제를 넘쳐수행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모든 사회주의건설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하는것은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경제계획은 그자체가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시간안에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긴장하게 일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세운 계획이다. 더우기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과제는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로동시간안에 긴장하게 일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적 집단로동의 결과의 크기는 비단 로동에 참가한 로력자수뿐아니라 그들이 가지고있는 로동능력의 발휘정도에도 의존하게 된다.

아무리 많은 수의 로력이 사회적 로동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로동능력이 높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단로동의 생산결과는 크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대건설에 참가한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완수 및 초과완수할수 있으며 전반적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게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맡겨진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대건설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다그쳐지게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행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로동행정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551

폐지)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나라의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이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은 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으로서 로동행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사회주의대건설의 중요대상에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필요한 로력도 원만히 대주어 대건설의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생산과 건설 과정은 로동수단과 로동대상 그리고 로동력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대건설의 빠른 속도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가지 요소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사이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며 그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결합이 보장되여야 한다.

더우기 생산과 건설의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인 로동력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여야 그것이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수단과 옳게 결합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로력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터에서 능력껏 일할수 있게 하여야 근로자들의 로동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중요대상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지역 및 대상들의 로력에 대한 량적 및 질적 수요를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로력원천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호상 정확히 맞물린 조건에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찾아낼수 있는 로력원천이 적지 않다. 각급 학교졸업생들과 제대군인들뿐아니라 비생산부문과 간접부문 로력을 적극 줄이고 로동정량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갱신하며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개선한다면 많은 로력을 동원할수 있다. 찾아낸 로력예비가운데서 청장년로력들을 주요대상건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단위들에 로력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대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경제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이 체계적으로 높아지는데 맞게 로력배치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로력의 여유가 생기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로력보충 및 조절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로력을 원만히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일터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 계속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력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로력을 절약한다는것은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출되는 로동을 줄인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로동조직과 로력관리, 생산조직 등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로력랑비를 없애고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로력을 절약하여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로동행정사업에서 풀어야 할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업이다.

로력을 절약하여야 생산과 건설을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갈수 있으며 큰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다.

생산과 건설은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가 있어야 이루어질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로력이다. 일정한 수의 로력이 정상적으로 보장되고 가동하여야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기계설비나 원료, 자재가 충분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도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로력이 일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랑비되면 생산과 건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며 그 파동성을 면할수 없다.

로력을 절약하며 있는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로력에 대한 대건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을 계속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특히 오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는 여러 건설사업소들은 물론 인민군군인들과 지원돌격대들이 참가하여 충성의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으며 수많은 로력이 한 작업장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진행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전투조직을 세밀히 짜고들지 않거나 작업조건을 미리 마련하여놓지 않으며 로력관리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많은 로력의 랑비를 가져올수 있으며 건설의 속도도 높일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요대상건설은 물론 사회주의대건설과업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로력을 절약하며 있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주되는 사업의 하나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로력을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정치사업, 로동선전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모두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력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출퇴근규률, 로동시간리용규률, 작업교대규률을 비롯한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며 로력조직사업을 잘하고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로동시간을 랑비하지 않고 로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이다.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 앙양에로 끊임없이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정량을 바로 제정하여야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전투과제를 똑똑히 줄수 있고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명백히 주고 일한 결과를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여야 그들이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로동정량을 바로 제정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자료를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480분 로동시간리용기준, 작업속도기준, 제품거둠률, 효률기준을 정확히 규정하며 광범한 대중토의를 거쳐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단위로동시간에 생산하여야 할 제품량 또는 단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로동시간의 소비기준인것만큼 고정불변할수 없으며 끊임없이 갱신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정량을 현

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그것은 로동정량사업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그리고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로동정량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빨리 변화발전한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은 그에 맞게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낡은 로동정량을 제때에 새로 다시 제정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낡은 로동정량을 선진적인것으로 갱신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정량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정량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의 변화상태와 그것이 로동정량수준에 주는 영향정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로동정량을 과학적이며 동원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결과를 대중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로동보수가 정확히 차례지도록 여러가지 로동보수형태를 잘 적용하며 기본로동보수와 추가적 로동보수를 합리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비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림으로써 계속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선진적인 경험을 찾아내여 일반화하며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가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적 로동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으로부터 근로자들에게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에 이르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담고있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폭넓은 문제들을 포괄하고있는 로동행정사업은 준비정도가 다르고 사업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일군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집행되는것만큼 실천에서는 여러가지 유익한 경험들이 창조되는 반면에 이러저러한 편향들도 나타나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런것만큼 경제지도일군들은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로동행정사업실태를 늘 료해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웃단위일군들은 아래단위와 생산현장에 직접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로동행정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긍정적인 모범들을 적극 찾아내여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로력배치와 로력관리, 로동정량사업과 사회주의로동보수제의 실시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가도록 함으로써 로동행정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그것이 당의 의도에 맞게 정확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중요과업

리 영 균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과 함께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농업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다.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실현하는것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고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34페지)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최신과학의 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훨씬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이 풍족하여야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더우기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조건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야만 농산물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농업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자면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화학수단들을 농업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종자를 개량하고 영농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그래야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고 농작물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으며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 리치에 맞게 진행할수 있다. 또한 농업생산을 최신과학성과에 토대하여 발전시키면 소출이 높고 일찍 여무는 우량품종을 제때에 받아들이며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 단위면적당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게 된다.

특히 한랭전선의 영향이 농업생산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고있는 오늘 농업생

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불리한 자연기후적 영향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농업로동은 공업로동에 비하여 기술장비가 뒤떨어진것으로 하여 아직 손로동이 적지 않고 품이 많이 들며 로동생산능률이 일반적으로 낮다.

농업로동의 기술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농업생산력을 장성시키며 농민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는 모든 농사일을 전기와 기계, 화학의 힘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공업에서와 같이 농업생산을 고도로 발전되고 현대화된 생산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기술장비와 생산조직, 생산방법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고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에서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앨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사이의 실제적인 평등을 보장하며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증대시킬수 있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는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주의사회에 전인민적 소유와 함께 협동적 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낮고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공업보다 약한데 있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뿌리깊은 유물인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으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그냥두고서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수 없다.

협동적 소유는 그 주인인 농민들자신이 집단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성실히 일하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여 농업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전인민적 소유로 넘어갈수 있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과학화함으로써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는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풀어야 한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져 공업

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가 강화될수 있다. 또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이 실현되여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이 성과적으로 다그쳐질수 있다.

이처럼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 리치에 맞게 진행하는것을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근본 원칙과 방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화, 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되고 기계화와 화학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뜨락또르는 100정보당 평지대에서는 7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에서는 6대에 이르렀고 화학비료시비량은 정보당 2톤이라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됨으로써 우리 당이 내놓은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다그치도록 하시는 한편 새로운 과학농법이며 집약농법인 주체농법을 창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지도로 하여 우리 나라 농업은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가고있다.

우리 혁명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오늘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이며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6페지)

우리 당은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를 10~12대에 이르게 하고 모내는 기계, 모뜨는 기계, 가을하는 기계, 이동식 탈곡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보내주어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도록 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2.5톤이상에 이르게 하고 미량원소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넉넉히 생산공급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

와 함께 살초제와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수단들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늘여 기계로 할수 없는 농사일을 모두 화학의 힘으로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치는 한편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를 실현하고 보다 현대적인 관개체계를 세워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며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것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빨리 실현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쌀공급에서부터 먼저 공산주의적 분배를 실시하려는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더 원만히 해결하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하루빨리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농업의 과학기술적 수준은 농촌경리의 기술장비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농업에서 전기, 기계,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진행하도록 농촌경리부문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화학수단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화학수단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뜨락또르, 모뜨는 기계, 모내는 기계, 이동식 탈곡기 등 기계수단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도처에서 기술을 혁신하여 능률높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살초제, 살충제 생산을 늘여 기술공정에 앞서 제때에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업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은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때만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뜨락또르를 비롯한 기술수단들의 리용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리정비사업을 잘하여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다. 주체농법에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 및 지대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모기르기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며 논밭갈이, 비료치기, 물관리,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의 매 공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여기에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농업생산의 직접적 담당자

인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야 농업과학과 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 리치에 맞게 해나갈수 있다.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매개 협동농장과 작업반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 농업과학기술도서들과 잡지들, 선진영농경험자료와 과학실험자료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그 운영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소출을 낼수 있게 종자를 개량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없다. 그런것만큼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요구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오늘 과학연구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육종사업을 잘하며 새로운 재배방법을 빨리 완성하는것이다.

농업부문의 과학자들은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생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을 더 많이 육성하며 과학적 시비체계를 세우고 작물과 품종 배치, 땅다루기, 물다루기를 개선하는 등 작물재배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특히 벼와 강냉이의 새로운 재배방법을 빨리 연구완성하여야 하며 지력을 높이고 완전가시비체계를 세우며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농산업과 함께 축산업, 과수업, 잠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은 농업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야 하며 비료와 농약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성장자극제의 적용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이미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기술통보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은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울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

김 철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때로부터 서른돐이 된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우리 나라에서 승리적으로 진행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지난 30년동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전일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제도를 반석같이 다지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는것을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는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사회경제활동과정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사회관계로서 사회주의적 생산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일정한 관계로 결합된 집단속에서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산활동을 진행한다. 생산과정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매개 생산단위안의 생산자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 사회적 집단과 계급들사이에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맺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다름아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인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는 생산관계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생산과정에서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로동으로 창조한 물질적 부를 평등하게 향유하면서 보람찬 생활을 누려나가는 문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는데 상응하게 공고발전되여야 사회주의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우선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생산과 생산물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게 하는 사회경제적 기초인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여야 근로인민

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투쟁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적 소유,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더우기 사회주의적 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국영경리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협동경리에는 다같이 집단로동과 동지적 관계, 사회주의적 분배관계가 지배하는 공통성이 있다. 사회적 소유의 두 형태사이에 공통성이 있는 반면에 생산수단의 사회화수준과 소유권대상, 생산물의 처리, 로력보수지불 등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를 보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갈 때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국가 및 협동단체소유의 모든 재산이 보호되고 끊임없이 확대강화되며 그것이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옳바로 리용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킬 때 협동경리를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고 물질기술적으로 강화하며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또한 전인민적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전인민적 소유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적 생산에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며 그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생산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의 하나는 생산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집단의 처지와 그들의 호상관계이다. 생산관계가 적대적 성격을 띠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람들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그들이 생산과정에서 서로 협조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사회와 집단, 생산자들자신을 위하여 진행되며 생산과정에서 사람들사이에는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강화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화하여야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화하여야 또한 로동의 결과가 사회와 집단, 생산자들의 리익에 맞게 옳바로 분배리용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한다

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근본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켜야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해나갈수 있으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다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리익은 전사회적 리익을 대표하며 로동계급의 리해관계는 전사회적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적 생산을 진행하는데서 언제나 로동계급의 리해관계를 철저히 옹호해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는 유일한 생산관계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착취사회들에 존재해온 여러가지 생산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근로인민대중이 참된 주인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생산관계인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킬수록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게 전인민적 소유가 더욱 강화되고 전반적 사회경제생활에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이 높아지며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이 다그쳐지게 된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약화시킬 때에는 그것이 점차 침식되여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 기초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인민적 소유의 생산수단들이 인민경제의 전반적 발전과 사회 전체 성원들의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없게 되며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자유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약화시킬 때에는 협동적 소유의 경제적 기초도 침식되게 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그것을 전인민적 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협동적 소유를 조직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만약 협동적 소유가 약화될 때에는 그것이 점차 사회주의적 성격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자본주의적인것으로 변질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해나가야 사회의 모든 공동소유를 전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리익과 요구에 맞게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생산력을 적극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그것이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며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며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발전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되게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며 사회적 생산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질수록 집단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강화되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공동소유를 의미하며 거기에 망라된 전체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와 요구, 전국가적인 리익을 실현하는 소유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생산과 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국가와 집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하여야 경제관리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면 경제관리운영을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집단주의를 확고히 구현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와 전사회적 리익보다도 개별적인 생산단위들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제관리에서 집단주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게 되면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포함한 많은 생산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되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사이의 협조와 동지호상관계를 흐리게 하며 나아가서 사회성원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켜 모든 경제활동에서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생산수단을 빼앗아 국유화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개인농민경리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이룩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특히 우리 당은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왔으며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을 공업의 선진적인 관리운영수준에 접근시켜왔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유가 끊임없이 확대강화되고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사회주의

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에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적 소유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과 그에 따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 로동의 차이,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문제는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3대혁명을 통하여서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우리는 우선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은 경제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세우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확립해놓았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보호하고 그것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여기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협동적 소유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는 협동경리를 조직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한편 협동농장의 토지와 농기계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들이 국가적인 리익과 협동농장원들의 공통적인 의사와 요구에 맞게 철저히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적 소유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인민적 소유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국가소유 생산수단들이 개별적인 생산단위들의 리해관계만을 추구하는데 리용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경리들을 철저히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다.

사회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사이에는 떼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일정

한 사회경제제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방법이 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은 마땅히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한다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 집단의 리익을 기본으로 한다는것, 다시 말하여 개인의 리익과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집단의 리익과 요구를 더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며 매개 경제단위들의 리익을 보장하면서도 전사회적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첫자리에 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한다는것은 곧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하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적 방법, 집단주의적 방법은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관리운영방법이다. 이 방법을 옳게 구현하여야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갈수 있다.

경제관리방법은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제되는 동시에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소유관계에 관리방법이 작용하는것만큼 그에 맞는 경제관리방법을 적용하여야 소유의 성격과 그 기능이 강화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관리운영한다면 사회주의적 소유의 성격이 달라지며 점차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혁명적 구호밑에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리익, 집단의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야 한다.

공업분야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그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잘 실시하며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협동적 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길수 있는 전제를 충분히 갖추는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기초하고있는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는 다같은 사회적 소유이기는 하지만 사회화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 소유는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높은 형태인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여야 한다.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전인민적 소유의 단일한 경리에 망라되여 일할 때 생산과정에서 사람들의 처지와 그들의 호상관계는 같아지며 분배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이 원만히 구현될수 있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모든 농민들을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하여 농업에서 손로동을 훨씬 줄이고 기본적인 농업로동을 다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

리　　택　　묵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적 요구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고 그것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다같이 밀고나감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을 공산주의사상과 깊은 과학기술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왔다.

발전하는 현실은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더 훌륭히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가 교육부문앞에 제시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고상한 사상도덕적 풍모를 갖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 당이 교육사업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혁명적 방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야 청소년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고상한 품격을 갖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습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10～11페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한다는것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며 공산주의적 도덕풍모를 갖추기 위한 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교육사업에서 정치사상교육에 기본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이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개조는 사상개조를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그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기본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 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하여 보다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정치사상교육은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고상한 품격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은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교육내용과 세워진 교육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할 때라야만 청소년학생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도덕적 풍모를 훌륭히 갖춘 혁명인재로 더 잘 준비될수 있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로 하여금 풍부한 과학기술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더 잘 갖출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적인 사상과 함께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과학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 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세계를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세대들이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장한 체력은 인간의 지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 담보이다. 건장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원만히 할수 없다. 인간은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으며 용감성과 대담성, 강의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타개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풍부한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가 지녀야 할 필수적 자질이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자질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의 높은 공산주의사상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공고화된다.

일반적으로 사상은 사람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사상은 사람들의 의식에서 핵을 이루며 모든 의식현상의 근저에 놓여있다. 사상은 의식현상전반을 제약하며 의식수준은 사상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상에 의하여 사유와 사고활동의 방향이 규정되며 지식이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것도 결국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더 잘 겸비해나갈수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할 때 공부도 잘하고 배운 지식을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써먹을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학습하며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바로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게 함으로써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의 성과를 튼튼히 담보하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지적 및 육체적 자질을 더 잘 갖출수 있게 한다. 여기에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참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에서 정치사상교육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데서 기본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는것이라는 탁월한 사상을 밝히시고 유격근거지의 아동단학교들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훌륭히 키우시였으며 그 과정에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을 위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이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사회주의교육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며 초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교육사업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에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세우시고 교육사업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시기 특히 전후시기에 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 선을 철저히 세우고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주체의 교육 사상과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교육총서로서 사람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공산주의적 교육강령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기본원리로 규정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갈 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심화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육사업에서 특히 정치사상교육을 중시하고 그것을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근본특징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모든 학교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주체사상과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으로 학생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 과정으로 다같이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청소년학생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자라났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우리 당의 주체교육에 의하여 양성된 인테리가 무려 130여만명이나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문화기관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은 우리 당이 키워낸 인테리들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이것은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뚜렷한 징표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 교육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지난 기간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심화되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하고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77페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심화시키는것은 정치사상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며 청소년학생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더 잘 키울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상과목교육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정치사상과목교육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학생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할수 있다. 학생들은 정치사상과목교육을 통하여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옳바른 관점을 가지며 그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된다.

정치사상과목교육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력사과목교육과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이다. 혁명력사과목교육과 혁명전통교양은 학생들에게 우리 혁명의 근본을 똑똑히 알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중요한 교육교양이다. 혁명력사과목교육과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킬수 있다.

정치사상과목교육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정책교양을 잘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다. 당정책교양을 잘하여야 청소년학생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똑똑히 깨닫고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당정책교양을 잘하여 그들이 당정책의 일관성과 계승성,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며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는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업적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높이 발휘한 충실성의 산 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은 정치사상교육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높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구감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풍모의 높이를 재는 기준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충실성의 산 모범으로 학생들을 교양하여야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의 참된 친위대, 돌격대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생들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원리교육에 힘을 넣어 그들을 주체사상과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주체사상과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학생들에게 세계의 인식과 개조변혁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 문제들을 주체적 립장과 관점에서 보고 대하는 옳은 방법론을 세워주기 위한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사고와 실천, 인식활동의 주체는 사람들자신이다. 학생들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주체사상과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사람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력사관을 확립할수 있다.

사람들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청소년시기에 세계관의 기초가 닦아지고 확립되여나간다.

그러므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시기에 주체철학과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으로 학생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주체사상과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으로 학생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체철학과 주체의 정치경제학 과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철학과 주체의 정치경제학 과목교육을 강화하여야 학생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주체적 립장에서 분석판단할수 있는 옳은 방법론을 소유할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철학과 주체의 정치경제학 과목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과 리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주체적 립장에서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분석판단할수 있는 옳은 방법론을 세워주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심화시키는데

서 중요한것은 또한 교육환경을 당의 유일사상 교양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교육교양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이다.

학교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과 지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그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사상혁명, 문화혁명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잘 꾸려야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워주고 혁명적 세계관을 바로세워줄수 있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음으로 학생들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우리 혁명은 장기성을 띠고있다. 혁명의 전도와 조성된 정세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오늘 우리 혁명의 역군으로 등장하고있다. 따라서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세워주고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심어주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세워주고 높은 혁명의식을 키워주며 그들이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미워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향토를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공산주의혁명자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란 다름아닌 참다운 애국자이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란 있을수 없으며 애국주의를 떠난 공산주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살며 배우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향토를 사랑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 기풍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과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사회는 가장 고상한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는 도덕적 풍모에서도 완성된 사람이다.

공산주의도덕교양과 준법교양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의리와 인민적 례절을 지키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법규범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하게 한다. 그러므로 학교들에서는 공산주의도덕교양과 준법교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또한 학생들에게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주는것이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특질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의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은 강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키워지고 공고화된다. 학생들속에서 사로청, 소년단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하는 시대의 청소년답게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교육일군들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교육방침을 심장으로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워야 할것이다.

총서《불멸의 력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문화적 재보

박 춘 택

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장편소설 15권이 전부 창작발표된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총서《불멸의 력사》는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의 새 시원이 열리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준엄하고 간고한 시련을 헤치며 조국광복의 위업이 성취되던 혁명투쟁의 뜻깊은 년대들과 사변들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투쟁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불멸의 예술적 화폭인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업적에 대한 전인민적 송가이며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혁명의 교과서이며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오른 우리 문학의 혁명적 면모와 혁신적 성과를 과시하는 기념비적 대작들이다.

참으로 총서《불멸의 력사》(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창작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문학건설에서 수령의 형상문제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폭넓고 심오하게 해결한 획기적 사변으로 되며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안겨준 크나큰 경사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으로 반영한 총서《불멸의 력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문화적 재보이다.

문학작품의 참다운 가치는 시대의 본질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 그리고 인민대중의 지향을 얼마나 심오하게 구현하였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총서《불멸의 력사》는 바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영웅서사시적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영광스러운 문화적 재보로 되고있다.

총서《불멸의 력사》(항일혁명투쟁시기편)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문화적 재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수난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한데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의 숭고한 사명이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면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혁명업적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

한 풍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로동계급문학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풍모를 훌륭히 형상한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며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빛나게 구현할수 있는 심오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은 혁명실천속에서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신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리론가적 풍모를 심오하게 밝힌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이 민족과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사정과 당시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 주체사상의 이 두가지 출발점을 발견하시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풍모와 심오한 사색의 세계는 이 작품뿐아니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자주성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출발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의 일단을 그린 장편소설 《닻은 올랐다》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종주국 로동계급의 지원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는 리론이 보편적인것으로 인정되고있던 시기에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의 위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밝히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편소설 《은하수》에서도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함께 탁월한 정치가의 령도풍모를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주체의 기치밑에 개척된 조선혁명의 발전과정과 그 승리의 요인을 가장 정확하게 밝힐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바로 조선혁명의 발전과정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전진해온 과정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슬기와 힘에 대한 확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불러일으키시며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시는것은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령도풍모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러한 위대한 령도풍모를 감명깊은 예술적 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진출과 백두산동북부지대에서의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일제는 20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최종적인 《결판》을 내기 위하

여 가장 악랄한 대《토벌》공세를 감행하였다. 조선혁명앞에는 일대 위기가 닥쳐왔다. 조성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으로 적의 전략전술적 기도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놈들의 《토벌》공세를 분쇄할수 있는 새로운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제시하신다.

작품은 대부대선회작전의 력사적 로정을 따라 일제의 20만대군을 격멸소탕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면서 그 승리의 기본요인이 항일유격대원들에게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 위대한 힘을 보시고 그들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주의식,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북돋아주시고 가렬한 전투와 동기군정학습을 통하여 그들을 무적의 장수들로 키워주시였으며 령활한 령군술과 대담무쌍한 유격전법으로 적을 때려부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시련의 고비들과 조선혁명의 운명이 구원되느냐, 아니면 영영 쓰러지느냐 하는 엄혹한 국면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그 위기를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구원하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혈로》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5.30폭동의 후과로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였을 때에도, 반일부대와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종파사대주의자들과 배타주의자들이 유격대원들과 혁명적 인민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마구 학살할 때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그 난국들을 헤쳐나가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헌신성에 의하여 주체의 기치가 튼튼히 고수되고 조선혁명이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들이다.

이 작품들과 함께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압록강》, 《두만강지구》 등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적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유격전술로 항일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력사는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의 빛나는 력사인 동시에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사랑의 력사이다.

총서의 모든 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 인간애와 혁명적 동지애, 위대한 인간적 풍모를 감동적으로 보여준 빛나는 예술적 화폭이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적 망동에 의하여 억울한 루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겪고있는 《민생단》혐의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결연히 그 저주로운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지르시고 그들을 혁명대오의 골간으로 받아들이시는 크나큰 사랑, 마안산의 헐벗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돈 20원을 내놓으시는 뜨거운 육친적 사랑, 이런 숭고한 사랑과 믿음, 대해같은 포용력을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에게까지 《민생단》의 루명을 씌워 박해하는자들의 죄악을 두고 의분을 참지 못하신다.

《〈당신도 인간이요?!〉…

〈당신도 공산주의자요?〉…

〈…조금이라도 인간다운데가 있고 혁명가다운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만들진 않았을것이요.〉》

정치주임에게 하시는 이 준절한 말씀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숭

고한 공산주의적 인간애와 혁명적 의리가 얼마나 가슴뜨겁게 울리고있는가!

이렇듯 총서《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형상한것으로하여 사람들에게 수령님의 위대성을 력사적으로 깊이있게 체험시키며 그들을 혁명적 세계관과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게 되였다.

총서《불멸의 력사》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문화적 재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심오히 담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혁명이 억년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력사적 뿌리인 불멸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운명은 전적으로 탁월한 수령을 모시였는가 모시지 못하였는가에 달려있다.

총서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향도의 별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을 격정에 넘쳐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총서작품들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와 그리고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오중흡, 리철범, 한태혁, 마동희, 김주현 등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천명하고있을뿐아니라 수령님을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혁명동지들! 우리의 귀중한 전우들! …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김성주를 철저히 보위하라!

력사는 다시금 우리에게 그런 령수를 보내주지 않는다.

그를 힘있게 옹위하고 전진하라!》

장편소설《은하수》에서의 청년공산주의자 채경의 이 옥중유서는 비단 그 혼자만의 절규가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체득한 모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혁명적 의지를 대변한 심장의 목소리였던것이다.

총서의 장편소설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뿐아니라《대통령감》권학식, 개업의사 최인관, 민족주의운동자 리갑무, 지방유지 김정보, 천도교도정 박인진 그리고 변태익 등 사상과 정견, 신앙과 생활처지가 다른 각계각층 인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혁명투쟁의 도도한 흐름에 합류되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전통과 혁명적 수령관의 력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면면히 이어져왔는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과 공산주의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총서작품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적 인민들의 숭고한 성격과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를 통하여 수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 등을 격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총서작품들에는 또한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준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과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키우기 위한 대중정치사업방법을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펼쳐보인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등에서와 같이 당, 정권, 대중단체, 혁명무력 건설과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이 풍부하고 심오하게 형상되여있다.

이렇듯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있고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문화적 재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 장편소설들이 심오한 철학성과 높은 예술적 풍격을 가진 혁명적 대작으로 완성된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작의 본질적특징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인 심오성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중요한 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심도있게 풀어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큰 도움을 주는 작품이라야 대작이라고 할수 있다.》 (《영화예술론》, 62폐지)

철학적 심오성은 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것만큼 철학적 깊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그 작품이 문화적 재보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총서의 장편소설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작품의 중심에 형상하고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예술적 해답을 줌으로써 철학적으로 심오한 혁명적 대작으로 되였다.

총서작품들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조선혁명의 힘의 원천,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깊이있게 천명하고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 인간의 힘과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자라나는 인민대중의 위력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는 1938—1939년 겨울의 그 류례없이 간고한 100여일간의 고난의 행군과정이 그려져있다.

당시 적들은 군사기술적 우세를 떠벌이며 조선인민혁명군을 겹겹이 포위하고 련속 《공격》을 들이대면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인것만큼 항일유격대도 생존할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면 스스로 사멸하거나 투항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사멸하지도 않았고 투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놈들의 《토벌》공세를 짓부시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소설에 묘사되여있는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과정은 가장 위대한 인간정신의 발현과정이였으며 우주의 온갖 요인에 비한 인간의 제1차성과 그 찬란한 승리의 과정이였다.

작품은 40도의 혹한과 사나운 눈보라를 뚫고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놈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쳐물리친 조선인민혁명군의 그 위대한 힘은 바로 인간과 그들의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자기 힘을 자각한 혁명전사들의 백절불굴의 공산주의 혁명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에 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

총서작품들의 철학적 심오성은 또한 력사적 사실에 충실히 의거하여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일반화한데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에 수놓아진 력사적 사실들은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것이라고 하여도 거기에는 심오한 의미와 불멸의 력사적 의의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력사적 사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창작원칙으로 된다.

총서에 수록된 장편소설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주요인물들의 생활을 바로 이 원칙에서 형상함으로써 그 모든 작품들이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진실하게 반영한 력사문헌적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문학작품으로 되였을뿐아니라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일반화한 철학적으로 심오한 작품으로 되였다.

인간세계를 파고들어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작품으로 하여금 철학적으로 심오한 혁명적 대작,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인간관계를 격식화하거나 인간세계를 그리지 않는다면 로동계급의 수령을 위대한 인간으로 형상할수 없으며 작품의 인간학적 품위도 보장할수 없다.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수령님의 소박하고 겸허하신 인민적 성품과 다정다감하신 인정미를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위대한 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밝혀주었다.

장편소설 《1932년》에 그려져있는 소사하집장면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극치의 예술적 화폭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이대로 떠나갈것인가? 며칠 더 어머님의 병세를 지내볼것인가?

…

어떻게 하면 좋을가? 어머님께서는 이제 더는 삯바느질도 할수 없으실것이나. 좁쌀 한말이 가면 며칠가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끝없이 갈마드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두리를 몇바퀴나 돌고 도신다.

혁명을 위하여 한시바삐 떠나야 한다는것을 생각하시면서도 병에 시달리시는 어머님을 생각하여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시다가 어머님의 엄하신 말씀을 받고서야 떠나시는 장군님, 바로 여기에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어머님에 대한 효성이 결합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가적 풍모와 아름다운 인정세계가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심오한 철학성과 높은 예술적 풍격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으로 형상한것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60여성상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전로정을 어떤 형식에 담는가 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그 풍부하고 방대한 내용을 몇편의 장편소설로써는 다 담을수 없다. 그 영웅서사시적 내용은 오직 수십편의 장편소설들의 묶음으로 되는 새로운 문학형식인 총서형식에 의해서만 빛나게 형상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은 각기 독자적 의의를 가지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통일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총서의 유기적 구성부분으로 되게 되었다.

총서형식이 탐구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 력사적 과제가 빛나게 수행될수 있는 길이 열리였으며 바로 이 새로운 형식으로 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는 그처럼 심오한 철학성과 높은 예술적 풍격을 지니게 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업적을 형상한 총서《불멸의 력사》(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장편소설들이 창작된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문학예술발전에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총서작품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 가장 힘있는 사상정신적 량식을 가지게 되였다는데 있다.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고착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 체험으로 받아안게 한뿐아니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문화적 재보이다.

총서작품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함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의 전형적 성격과 혁명적 수령관을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가도록 고무하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였다.

그 의의는 다음으로 총서작품들이 수령형상창조의 력사적 과제를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과 인류의 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는데 있다.

문학예술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문학예술로 되자면 수령의 숭고한 풍모와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하는 력사적 과업은 총서《불멸의 력사》의 창작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였다. 그러므로 총서《불멸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우리 시대 혁명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문학예술의 당성은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얼마나 잘 형상하였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총서《불멸의 력사》는 수령형상의 력사적 과제를 수행하여 문학의 당성구현문제를 높은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의 혁명력사를 영웅서사시적 화폭에 담은 문학총서의 탄생은 인류문화사에 특기할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문화적 재보인 총서《불멸의 력사》의 창작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수령형상리론과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 역할과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문학의 사명을 심오히 통찰하시고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그 창작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총서《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장편소설창작이 성과적으로 결속되게 된것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불멸의 혁명력사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감명깊게 형상한 총서《불멸의 력사》와 같은 귀중한 문화적 재보를 가지게 된것을 더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총서《불멸의 력사》(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살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계속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것이다.

반공은 대결과 분렬, 전쟁의 리념

류 호 준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안전개최》를 운운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반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자들은 우리가 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도발》을 일으킬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함부로 걸고들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연습을 벌리며 무분별한 군사적 광란을 일삼고있다.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치고 반공책동에 매여달리지 않은자들이 없었지만 현통치배들은 그 어느 선행자들보다 더 악랄하게 반공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로태우일당이 벌리고있는 반공책동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며 민족앞에 저지른 저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반역자들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울수 없으며 반공광신자들치고 멸망하지 않은자들은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엄연한 현실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 *

남조선에서의 반공은 괴뢰도당자신이 고안해낸 그 어떤 리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미제가 쥐여준 침략과 예속의 교리이다.

원래 반공은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예속, 식민지적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무기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반공의 구호밑에 자기 나라를 파쑈화하였을뿐아니라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예속시켜 식민지통치를 감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더욱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반공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도구로 리용함으로써 그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쥐려 하였다.

미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에 무제한한 지지를 부여》하는것을 제놈들의 대외정책의 기초로 삼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에 대하여 반공을 호상관계의 기초로 강요하면서 반공을 위한 《원조》니, 《군사정치적 동맹》이니 하는 간판밑에 그들을 반공에로 내몰고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책동은 남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통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군사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남조선괴뢰정부를 친미반공분자들로 꾸리고 그들을 내세워 저들의 반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을 반공보루로 만들었다.

오늘 남조선괴뢰들이 실시하고있는 반공《정책》은 미제가 쥐여준것이며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놈들의 반공책동은 가장 악랄하고 반민족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반공의 악랄성과 반민족성은 우선 반공이 《국시》로 되고있는데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반공을 저들의 대내외 《정책》의 정치사상적 기초로 삼고있으며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고 있다. 이자들은 반공을 인민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저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력대남조선괴뢰들은 반공의 구호밑에 매국행위를 공공연하게 감행하여왔다. 반공을 위하여서는 미국과의 《뉴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선행한 괴뢰들이 이미 조작한 예속적이며 매국적인 문건들을 실천에 옮겨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철저히 전변시켜놓았다. 그리고 남조선괴뢰들은 반공의 구호밑에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하고 미제의 침략적인 《원조》를 정당화하면서 놈들에게 정치, 군사, 경제적 명맥을 팔아넘겼다. 지어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의 구호밑에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해온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결탁을 강화하는 매국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결국 제국주의침략도구로서의 반공의 귀결점은 예속이며 반공분자들의 본색은 다름아닌 매국배족인것이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반공의 악랄성과 반민족성은 또한 그것이 공화국북반부와 북의 공산주의자들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소멸》하는것을 반공의 최대의 목표로 내세우고있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반공이라 할 때 공산주의 일반을 반대하는것으로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의 반공은 공산주의 일반을 반대하는것보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 더 집중되고있다.

최근에 남조선괴뢰들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공산권》과의 그 무슨 관계를 어쩌다고 하면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해서는 추파를 던지면서도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더욱 적대감을 품고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놈들이 떠드는 반공이 다름아닌 동족인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반대하는데 돌려지고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 존엄을 헐뜯고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괴뢰들은 반공을 구실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여러가지 모략사건을 날조하여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도발적인 반공화국소동을 체계적으로 벌리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되는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반공소동은 필연적으로 민족내부에 대결과 분렬, 적대감을 고취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해독적 작용을 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공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를 거부하는 대결과 분렬의 리념이며 전쟁의 리념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9권, 491페지)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책동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며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있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반공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는 대결과 분렬의 리념이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대결과 분렬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한다는것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민족적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통치배들은 반공의 구호밑에 조국통일을 서로 먹고 먹히우는 문제로 보면서 북에 저들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며 북의 사상과 제도를 소멸하는 방법으로 《통일》할것을 꿈꾸고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미수복지대》라고 하면서 《실지회복》에 대하여 떠들고있으며 《멸공자세》를 가다듬고 《힘》으로 북을 《제압》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조국통일문제를 서로 먹고 먹히우는 문제로 설정하여서는 언제 가도 대결을 해소하고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분렬을 막고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민족의 단합과 대결이 어울릴수 없는것처럼 조국통일과 반공은 량립될수 없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반공을 표방하는것은 민족내부에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더우기 공화국북반부에서 현 시대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공산주의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여있고 전체 인민이 이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서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북반부를 《힘》으로 누르고 《통일》하겠다는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며 그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다름이 없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손잡고 같이 수행하여야 할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보고 《타승》하거나 《소멸》하고 《통일》하겠다는 남조선괴뢰들의 《승공통일》론이나 《멸공통일》론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필수적 요구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구호이며 조국통일 그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통일론이다.

반공의 립장에서 통일을 거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남조선통치배들의 반민족적 행위는 그들이 북남대화에 림하는 자세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반공을 전면에 내걸고 《국력의 우위》가 대화의 《밑바탕》이며 대화를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대화부정적이며 통일부정적인 립장과 태도를 일관하게 취하여왔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러한 대화부정적이며 통일부정적인 반공책동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의 대화도, 1980년대의 대화도 아무런 결실없이 중단되였으며 많은 시간과 정력만을 소비하게 되였다.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들을 파탄시킨 남조선괴뢰도당의 진의도는 그들이 《평화통일은 결코 우리가 공산주의와 손잡는것이 아니다.》, 《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를 타도해야 비로소 달성된다.》고 하면서 1980년대를 《남북간의 정면대결의 시대》, 《남북경쟁심화시대》로 규정하고 《통일은 기반이 구축》된 다음 2천년대에 가서 하는것이 저들의 《백년대계》이며 《목표》라고 공공연히 선포한데서 더욱더 명백히 드러났다.

남조선통치배들의 이러한 반공적 립장과 자세로 말미암아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들이 중단된채 다시 이어지지 못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반목과 대결만이 격화되고있다.

조성된 긴박한 정세를 완화에로 돌려세우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대화와 협상에로 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 그러자면 우리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북남련석회의제안을 집요하게 거부하는 조건에서

북남련석회의가 소집되기전이라도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대표들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협상방침은 격페상태가 지속되고 대결상태가 극도에 이른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도이다.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창구의 일원화》를 고집하며 들고 나온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북남련석회의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형식으로 할수 있을것이라고 천명한 우리의 원칙적 립장은 어떻게 하나 북과 남사이의 협상을 마련하고 민족공동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해나가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상대방의 의사를 너그럽게 포용해나가는 아량의 표시이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대화에 어떤 립장과 자세로 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만일 그들이 반공대결자세를 계속 취하면서 《대화》와 《통일》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가짜이며 거짓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게 될것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적대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대립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반공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대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사상적 독소로 되고있다.

반공이 대결과 분렬의 리념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을 억제하고 민족적 대단결을 방해하는 반동적 리념이라는데 있다.

반공은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와 량립될수 없는 반동사상으로서 거기에는 파쑈가 동반되기마련이다.

남조선에서의 반공은 북이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시도한다는 《폭력혁명》설을 퍼뜨리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인민들을 우리와 련결시켜 파쑈적으로 탄압하는데 그 엄중성의 다른 한 측면이 있다.

반공의 구호를 들고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사촉》에 의한 《폭도들의 란동》이라고 하면서 류혈적으로 탄압한 주범인 로태우일당은 오늘에 와서도 그 무슨 《사건》을 련이어 날조하여 《대남침투》니, 《도발》이니 하면서 우리와 관련시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처형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민족대단결을 방해하고 있다. 《반공국시》를 반대하고 《통일국시》를 주장한 야당출신 《국회의원》의 《국회발언》도, 불의와 독재를 배격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한 종교인들의 종교활동도 《용공리적 행위》로 몰아 체포, 처형한 남조선파쑈분자들은 요즘에 와서는 《북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거나 《북이 쓰는 용어》를 써도 《용공분자》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테로를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민족자체를 부정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이러한 반민족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올림픽공동주최를 반대하고 대결과 분렬, 《두개 조선》 조작에 악용될 단독개최를 고집하며 공동주최를 주장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6.10남북학생회담을 발기하고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소행을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북을 도와주는 불법행위》라느니 하면서 6만여명의 완전무장한 피쇠경찰을 출동시켜 총칼로 막아나섰으며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체포투옥하였다.

로태우일당의 이러한 반민족적 행위는 저들의 파쑈적 《체제수호》론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그것은 결국 대결과 분렬을 심화시킴으로써 《집권안보》를 이루어보려는데 귀착된다. 이것은 로태우역도가 지난 5월 30일 제13대 괴뢰국회 《개원식》에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헐뜯는 한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폭력란동분자》로 몰

고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를 위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탄압할 흉심을 드러내놓은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우리와 관련시켜 탄압하며 파쑈체제를 《수호》하려는 남조선통치배들의 반공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은 그 어떤 외부의 《침투》에 의한것이 아니라 날로 첨예화되는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의 발현으로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그들자신의 자주적 투쟁이며 이 투쟁을 탄압하는 파쑈체제는 반민족적인 반동체제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의 반공이 민족내부에 불화와 대결을 조장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며 민족적 대단결을 저애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적인 대결과 분렬의 리념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반공은 또한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리념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반공의 목적은 힘으로 공산주의를 소멸하자는데 있으며 그 주되는 수단은 전쟁이다.

지난날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하여 첫 사회주의국가 쏘련이 탄생하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이 반공의 구호를 들고 집단적 무력간섭을 감행하였으며 그후 나치스 독일과 파쑈 이딸리아, 군국주의일본이 《방공협정》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반동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급격히 장성하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반제자주력량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반공정책에 매여달려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미제는 이 과정에 조선전쟁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련이어 도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에 와서도 남조선을 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대륙을 제패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침략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남침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4만여명의 침략군대를 주둔시키고 남조선전역을 핵기지로 뒤덮어놓았다. 그들이 이미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비한 남조선에 새로운 핵무기를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리고있는 사실은 그들의 《남침위협》설의 진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미제가 지금 제24차 올림픽의 《안전개최》를 구실로 남조선과 그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숱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고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을 《출동태세》에 두고있으며 사상 최대규모의 미, 일 해상합동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더욱더 깊숙이 끌어가려는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반공의 구호밑에 남조선에 미군이 남아있고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도 항시적인 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제의 전쟁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충실한 돌격대는 남조선괴뢰도당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미제가 쥐여준 반공의 구호를 들고 저들의 《최대의 정치는 남북대결》이며 《북과는 오로지 군사전쟁이 있을뿐》이라고 하면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 남조선을 미제의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내맡기고있으며 미제의 핵전쟁전략실현을 위한 반공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놈들은 미제의 핵우산밑에서 《북의 군사적 우세》와 《남침위협》으로부터의 《안보》를 떠들며 우리와 대결하기 위하여 미국상전으로부터 최신형 무기와 전쟁수단들을 넘겨받아 괴뢰군 《현대화계획》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며 미제침략군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우리는 남침하지 않는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공화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러한 립장은 력사적 사실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이 《남침위협》을 떠들며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는것은 우리와의 대결과 전쟁의 구실을 찾기 위한 서툰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반공책동을 그처럼 집요하게 벌리는것은 무너져가는 저들의 통치를 수습하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소멸》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전조선에 확대하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허황한 꿈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때까지 공산주의의 악명높은 원쑤들이 공산주의를 소멸하여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누구도 공산주의를 소멸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소멸되지 않았을뿐아니라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287페지)

력사는 반공광신자들은 자멸을 면치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공산주의를 소멸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히틀러, 무쏠리니, 도죠가 저들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불속에서 타죽은것처럼 오늘 《공산주의를 력사의 재더미로 만들겠다.》고 입에 칼을 물고 전쟁도발책동에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운명도 달리 될수 없다.

남조선에서도 반공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북벌을 고창하다가 망한 리승만역도와 반공을 《지상의 명령》으로 삼고 《승공》을 부르짖다가 죽은 박정희역도 그리고 반공을 《생존리념》으로 삼고 멸공을 떠벌이다가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전두환역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는 로태우역도도 결코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현 남조선통치배들은 선행반공광신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처신을 분별있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통치배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억누를수 없는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공에 걸어 탄압할것이 아니라 련공으로 나와 우리가 이미 제기한 북남련석회의를 비롯한 통일방안들과 평화제안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길만이 시대의 추세에 맞게 살아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반공은 망국의 길이며 련공은 애국의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공책동을 짓부시고 련공애국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당면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내정간섭을 저지시키고 놈들을 몰아내며 괴뢰당국자들의 통일대화의 독점을 배격하고 북과 남사이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야 할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거족적인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미구국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간다면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공책동은 산산조각이 날것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남부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위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 룡 영

오늘 아프리카인민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이미 쟁취한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지난날 《식민지대륙》,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가 지금은 자유와 해방의 광명으로 빛나는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대륙의 남부에는 이미 오래전에 매장되였어야 할 인종주의제도가 의연히 존재하고있으며 인민들이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인류가 21세기를 내다보는 력사적 전환기에 놓여있는 때에 아직도 지구우에 인종주의제도가 남아있는것은 자주성의 시대에 용납될수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남부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남아프리카에 존재하고있는 인종주의와 인종격리제도는 식민주의의 가장 잔인한 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는 식민주의의 가장 잔인한 형태이며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비식민지화과정을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장애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36페지)

인종주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고유한 속성이다.

인종주의는 인간의 외부적 표징에 따라 인종과 민족들사이의 《자연적 불평등》을 꾸며내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적 불평등, 착취와 억압,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반동적인 사상이다. 이 반동사상은 백인만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종이며 유색인들은 백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론리로 일관되여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그런것만큼 사람은 그 누구의 지배와 예속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평등하게 살아나갈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인종주의는 사람의 고유한 본질적 속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외적 표징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 책동을 합리화하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남부아프리카에서 력사상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와 인종격리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주의와 인종격리제도는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는 구식민주의적 폭압방법과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신식민주의적 수법이 결합된 가장 악랄한 통치형태이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야만적인 구식민주의적 폭압으로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구식민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이 아직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이 높지 못하였던 지난날 다른 나라들을 강점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가장 폭압적이고 중세기적인 통치방법이다. 구식민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로골적으로 강점하고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까지도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여왔다.

오늘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시하고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남부아프리카전선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1948년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조작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은 그 첫날부터 《인종격리》를 국가정책으로 선포하고 《종족격리법》, 《통행증법》, 《예방구금법》, 《증명서법》, 《공산주의진압법》 등 530여종의 파쑈악법들을 만들어놓고 인종격리제도에 대한 사소한 불만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매일과 같이 체포, 투옥, 학살당하고있으며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다.

인종주의도당의 파쑈적 폭압책동은 나미비아에 대한 저들의 식민주의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가 140만명밖에 안되는 이 나라에 무려 10여만명의 침략군을 항시적으로 배치해놓고 그들을 인민탄압에로 내몰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놈들은 땅크와 장갑차로 촌락과 학교들을 마구 짓뭉개면서 수많은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고있다.

인종주의도당은 저들의 인종주의적 통치를 주변나라들에까지 확대해보려고 로골적인 무장간섭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에만도 남부아프리카전선국가들을 반대하는 큰 규모의 군사작전을 40여차례나 감행하였다. 1986년 5월과 9월에는 공군과 《특공대》를 동원하여 모잠비끄의 마뿌또, 짐바브웨의 하라레, 보쯔와나의 가보로네, 잠비아의 루사카, 앙골라의 나미베항에 대한 야만적인 국가테로행위를 감행하여 이 나라들에 커다란 인적, 물적 손실을 주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이와 같은 구식민주의적 책동은 남부아프리카지역을 중세기적인 폭압지대로 만들어놓음으로써 인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투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또한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신식민주의적 수법을 적용하여 날로 강화되고있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무마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신식민주의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나라들에 형식상 《독립》을 주고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식민지통치방법이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은 인종주의와 인종격리제도를 반대하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써만 탄압할수 없게 되자 그 무슨 《자치》와 《독립》에 대하여 떠들면서 인민들을 회유기만하고있다.

인종주의도당은 남아프리카에서는 흑인거주지역들에 《자치》와 《독립》을 주며 《자기 본토에서 매개 종족들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반투스탄화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나미비아에서는 저들의 앞잡이들로 《림시정부》라는것을 조작하고는 그것이 나미비아인민을 대표하는 《독립국가》라도 되는듯이 미화분식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종주의도당은 앙골라와 모잠비끄 등 주변 나라들의 반혁명분자들을 규합하여 테로조직을 뭇고 그들을 이 나라들의 합법적 정부를 반대하는데로 적극 부추기고있다. 이것은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반인종주의, 반식민주의 투쟁을 가로막으며 아프리카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저들의 인종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통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인것이다.

모든 사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이 완고하게 실시하고있는 인종주의와 인종격리제도가 식민주의의 가장 잔인한 형태이며 민족적 독립과 해방, 진보를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장애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부아프리카에 식민주의의 가장 잔인한 형태인 인종주의와 인종격리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미친듯이 날뛰고있는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이 있기때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적극 비호하면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데로 부추기고있는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실현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프리카대륙에 대한 지배를 실현해보려는것은 미제가 오래전부터 추구하여온 변함없는 야망이다.

미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하는 한편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아프리카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그들에 대한 정치적 및 군사경제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겉으로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인종격리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으나 실제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남아프리카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언제나 앞장에 나서서 인종주의도당을 비호해나서고있다. 최근에도 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에 제재를 가할것을 요구하여 뽈럭불가담나라들이 내놓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것이 채택되지 못하게 하였다. 얼마전에는 미국무성도 인종주의도당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제재를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자로서의 미제의 진면모를 다시금 드러내보였다.

미제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비호해주고있을뿐아니라 군사경제적으로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다.

미제는 이미 오래전에 남아프리카에 원자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기술설비들과 원자재들을 제공해주었으며 해마다 수억딸라분의 각종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넘겨주어 인종주의도당을 27만여명의 병력과 400여대의 전투기, 4,800여대의 땅크와 장갑차, 수많은 미싸일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까지 가진 극악한 살인집단으로 만들어놓았다. 이와 함께 미제는 인종주의도당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고있다. 1986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남아프리카와 미국사이의 무역액이 무려 36억딸라에 달한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뒤받침에 의하여 자기의 잔명을 유지해나가고있으며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을 반대하는 인종주의자들의 책동도 바로 미제의 아프리카침략계획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멸망하여가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구원할수 없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망도 결코 실현할수 없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인종주의의 마지막 아성을 짓부셔버리고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아프리카대륙에는 마침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될것입니다.》

현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의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시대이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자주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 있다. 아프리카인민들도 이 력사적 흐름과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손

에 튼튼히 틀어쥐고 식민주의, 인종주의가 없는 새롭고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인민들, 전선국가 인민들을 비롯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정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세력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인민대중의 투쟁이 정의의 투쟁이라고 하여 결코 그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투쟁은 오직 옳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된 힘으로 전개될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

오늘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인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지 대중투쟁을 옳게 결합해나가는것이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인종격리제도와 식민주의적 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남아프리카인민은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의 지도밑에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화하고있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는 다민족적인 조직으로서 10여만명의 조직성원과 8,000여명의 전투원들을 망라하고있다. 절대다수의 남아프리카인민들은 이 조직을 자기들의 유일한 대표로 간주하고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의 두리에 굳게 결속하고있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는 올해를 《인종주의를 반대하는데서 보다 결정적인 해》로 선포하고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보사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남아프리카인민무장력의 적극적인 공세로 지난 1년 남짓한 사이에만도 보사도당은 군사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당하였으며 그들이 조직하였던 《자치기관》들이 해산되고 《가두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일어났던 30여만명의 광산부문 로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하여 파업, 시위, 집회, 수업거부 등 남아프리카인민들의 반인종주의투쟁은 보사도당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나미비아에서도 날로 앙양되고있다.

나미비아인민은 자기의 전위조직인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1966년부터 인종주의도당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왔다.

나미비아인민해방군은 지금 나라의 도처에서 남아프리카침략군에 대한 대담한 공격작전을 단행하여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지난 한해사이에만도 나미비아인민해방군은 7대의 군용기를 격추하였고 675전의 습격활동을 벌렸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지난 3개월동안에 3대의 군용기와 300여명의 남아프리카침략군을 소멸함으로써 인종주의도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였다.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인민들의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강력한 대중투쟁에 의하여 남아프리카백인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와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회담에 나오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남아프리카인민들과 나미비아인민들이 거둔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전체 아프리카나라들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은 아프리카인민들은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자기들의 위업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아프리카인민들은 아프리카통일기구 창립 25돐이 되는 올해를 남아프리카에서 인종격리제도를 끝장내며 나미비아의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련대성의 해로 결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들을 적극 진행하고있다. 특히 남아프리카에서의 소웨토폭동 12돐을 계기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규탄하며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제23차, 제24차 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에서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인종주의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싸우는 남아프리카인민들과 나미비아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원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줄것을 결정하였다.

남부아프리카나라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침략과 간섭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공동으로 방위하며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에 남부아프리카전선국가를 결성하고 국가수반들이 매해 2차례이상 한자리에 모여 투쟁대책을 토의하고있다.

지난 3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진행된 전선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오직 군사력을 강화하는것만이 남부아프리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나미비아에 독립을 가져다줄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데 대하여 토의하고 남아프리카침략군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간섭과 그들의 사촉을 받는 반동세력의 파괴책동으로부터 모잠비끄를 공동으로 보위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짐바브웨와 탄자니아는 지원병을 파견하여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잠비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이와 함께 전선국가들은 남아프리카문제해결에서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나미비아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결의 제435호를 무조건 즉시 리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부아프리카전선국가 인민들을 비롯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적극적이고 단결된 투쟁에 의하여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그들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적 통치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의 지지와 성원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종국적 승리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된다.

오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 정견과 신앙, 언어와 피부색에 관계없이 자주와 진보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광범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 실시되고있는 인종주의적 통치와 식민주의적 지배를 반대배격하는 시위와 집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있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도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규탄배격하고있으며 싸우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련속 취해지고있다. 1973년 유엔총회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10년간의 행동강령을 선포하였으며 1974년에는 모든 국제기구들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축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매해 진행되는 유엔총회회의에서는 수많은 나라 대표들이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극악한 인종격리정책과 식민주의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쫓겨나고있으며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로부터 더욱더 고립당하고있다. 지어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지원하여주던 일부 서구라파나라들까지도 그들에 대하여 외면하고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고있다.

시대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은 그 어떠한 발악적 책동과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더러운 운명을 더는 유지할수도, 구원할수도 없다.

이 모든것은 남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식민주의, 인종주의의 마지막아성을 청산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싸우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이며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지구우에서 제국주의식민지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아프리카인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범죄적인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책동을 견결히 규탄배격하여왔으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언제나 굳은 련대성을 보내였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민들이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 사회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커다란 성과들에 대하여 자기의 성과처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언제나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앞으로도 남부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실현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는 아프리카, 평화롭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침략과 간섭의 손을 떼야 하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은 인민탄압만행과 주변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남부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반동성

김 주 철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반동사상을 인민대중속에 널리 퍼뜨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부르죠아반동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은 그의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놓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40페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반동성과 비과학성, 그 해독성을 철저히 폭로하는것이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과 남조선을 비롯한 제국주의식민지들에는 사회력사에 대한 관념론적, 형이상학적 견해를 퍼뜨리는 각종 부르죠아《사회철학》들이 류포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좀먹고있다.

제국주의어용학자들은 《사회철학》을 통하여 관념론적인 사회력사관을 퍼뜨림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알지 못하게 하고 혁명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또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거부하고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적 방법에 매여달림으로써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은 주로 주관관념론에 기초하고있다. 물론 신비적인 존재를 사회력사의 주체로, 력사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객관관념론들도 있다. 그러나 현대부르죠아철학전반에서 주류를 이루는것은 주관관념론이기때문에 《사회철학》에서도 우세를 차지하는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내세우는 주관관념론적 경향이다. 현대주관관념론의 두개의 기본계렬가운데서 《과학주의》보다 《인간학주의》계렬의 주관관념론이 《사회철학》의 주되는 출발적 기초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은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적 요인을 중요시하는듯이 꾸미며 《인도주의》를 표방하는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어용학자들이 설교하는 《사회철학》은 참다운 인간중심의 사회력사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것으로서 그것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에 교묘하게 편승하여 그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가장 반동적인 사상독소이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현대반동《사회철학》에는 수많은 조류와 학파가 있지만 그것들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진리를 거부하고있다.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력사관의 기초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력사관의 과학성과 비과학성, 진보성과 반동성이 규정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력사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착취계급은 력사의 전

진을 멈춰세우고 되돌려세우려고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6~17페지)

사회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다.

사회력사적 운동은 물질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체인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이다. 사회력사적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도 인간에게 있고 이 운동을 추동하는 힘도 인간에게 있다.

사회력사적 운동이 주체인 인간의 운동이라고 할 때 그 주체는 착취계급이거나 거기에 속한 어느 한 개인인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 손으로 사회의 모든 물질, 문화적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키는 주체이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사회력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것은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회력사적 운동을 주체인 인간의 운동으로 보고 근로인민대중을 이 운동의 주체로 보며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의 역할을 응당하게 평가하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는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외곡하는 부르죠아지들의 온갖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를 폭로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로 된다.

오늘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잡다한 조류와 학파들은 사회력사의 주체문제를 외곡하는 여러가지 비과학적 리론을 퍼뜨리고있다.

원래 력대 착취계급의 반동사상가들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자각을 가지는것을 두려워하는데로부터 대중을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그 어떤 신비한 존재나 착취계급의 개인을 력사의 창조자로 내세우는 반동리론을 설교하여왔다. 객관관념론자들은 력사의 발전을 좌우하는것이 신이나 《절대리념》과 같은 신비한 리념이라고 설교하였으며 인간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신비한 《리념》과 《의지》를 체현한 통치자나 《걸출한 영웅》이 력사를 창조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듯이 주장하였다. 주관관념론자들은 그 어떤 특수한 본능이나 《권력의지》를 소유한 《초인》이 사회력사를 좌우하는 전능한 존재이며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에서 아무런 창조적 역할도 할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 《피의 과잉의 오작품》이라고 하였다.

현대부르죠아반동사상가들은 선행자들의 이러한 반동리론을 개악하여 더욱 반동적인 사회력사관을 내놓았다.

영국의 반동학자 토인비는 종교적 객관관념론과 주관관념론자 베르그송의 직관주의 그리고 심리주의사회학자 따르드의 《모방론》, 행동주의심리학 등을 절충도입하여 력사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거부하는 반동리론을 꾸며내였다.

세계사를 서로 고립적으로 발생하였다가 몰락한 지역문명의 합계로 본 그는 매개 문명이 거치게 되는 발생, 성장, 쇠퇴, 와해의 4개 단계에서 《자극 및 반응의 법칙》과 《모방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극》이란 문명발생의 《요구》로서 그것은 《절대적 실재성》인 신으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문명과 력사를 발생,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자극은 《초인간적 인격》인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감수되며 이 《소수》는 자극을 받고 《생의 충동》을 느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이 바로 새 문명, 새 사회를 창조하는 력사창조행위라고 하였다.

토인비는 《비창조적 대중》이 《창조적 소수》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명이 이룩되고 사회력사가 발전하는듯이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중이 《창조적 소수》를 모방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에 의해 움직이게 될 때 문명의 쇠퇴기와 와해기가 도래

한다고 하였다. 그는 세계도처에서 자주적인 사상에 의해 각성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는 20세기 현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력사의 쇠퇴, 몰락의 시기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야만적인 군사집단을 형성한 외적 프로레타리아트》라고 모독하였다.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를 력사의 주체로 보고 신비스러운 《자극》과 《창조적 소수》의 내적 《충동》을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설교하였다면 《경제성장단계론》의 제창자인 미국의 반동학자 로스토우는 돈벌이에 환장이 된 부르조아지를 력사의 창조자로, 그들의 기업심, 모험심, 권력욕, 민족배타주의적 감정 등의 《심리적 동기》를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인디안을 멸족시키고 자국내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여 치부한 미국독점부르조아계급의 비인간적 죄행과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침략행위를 사회력사발전을 추동하는 행위로 미화분식하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하는 관념론적 견해는 미국의 반동학자 쏘로킨에 의해서도 제창되였다. 그는 사회력사를 물질적 생산과 동떨어진 《사회문화체계》, 《초체계》의 력사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소수의 《문화창조자》가 사회발전을 좌우하며 인민대중은 력사에서 아무러한 창조적 역할도 하지 못하는듯이 주장하였다.

1960～1970년대의 과학기술《혁명》의 흐름을 타고 번성하여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지고있는 《기술만능주의》의 제창자들은 기술이 사회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소수를 차지하는 전문가집단, 《정신적 엘리뜨(정수분자)》만이 력사발전에서 창조적 역할을 하는것처럼 설교하고 있다.

제국주의어용학자들은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을 거부하기 위하여 각종 심리주의적, 생물학주의적 주장을 내놓고있다.

사회심리주의자들은 사회발전과 문명의 진보에서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성본능》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다. 그들은 인간의 사회정치적 자유와 해방에 관한 문제까지도 《성해방》, 《성혁명》에 관한 문제로 비속화하고있으며 본능적인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것을 민족해방운동과 학생운동의 기본추동력으로까지 묘사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 중엽이후 198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지고있는 《사회생물학》의 제창자들은 최근년간에 급격히 발전된 진화생물학과 현대유전학의 성과를 악용하여 제반 사회관계와 사회현상들의 근본원인을 인간유기체의 그 어떤 유전자에서 찾으려는 황당한 시도를 하고있다. 이 거짓과학을 조작한 윌슨은 1975년에 낸 책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과 1978년에 낸 론문 《인간본성의 본질》에서 사회생물학은 《모든 사회적 행위의 생물학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안에서 유전자의 변화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유전학과 문화의 진보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해명하는것이 이 학문의 과업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계급사회에서 계급적 차이의 유전적 기초를 찾아낸다고 소동을 피우고있다. 지어 사람들의 사상의식까지도 그에 상응한 유전자가 있는듯이 설교하면서 도킨스란자는 《리기주의적 유전자》라는 책까지 냈다.

온갖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유전자로 설명하려는 이들의 주장은 사회현상의 근본원인을 생물학주의적으로 외곡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불상용적인 계급대립을 모호하게 하며 사회발전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

상의식이 노는 추동적 역할을 거부하는 반동리론이다.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외곡하고 그들을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는 모든 반동적 《사회철학》의 리론들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며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악독한 사상독소이다. 인민대중이 이러한 사상독소에 물젖게 되면 자신을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게 되여 자기 운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질수 없게 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설수 없게 된다. 여기에 바로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해독성이 있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은 또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사회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발전한다는 진리를 부인하는것은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보려는 반동계급의 고유한 특징이다. 자기 시대를 다 산 력대의 반동계급이 그러했듯이 현대제국주의자들도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필연성이 사회력사에 작용한다는것을 거부함으로써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처지를 구원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반동적인 사회철학자들은 자연의 객관적 법칙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회력사발전과 사회현상에는 일정한 객관적 합법칙성이 없다는 주관주의적 견해를 고집하고있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는 인간으로 이루어져있고 사회발전과 사회현상은 개인의 주관적 자의와 충동에 의해 규정되는것이므로 이 령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일반적 법칙은 있을수 없고 우연의 집적만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반동학자 피셰르는 력사에는 《우연하고 예견할수 없는 힘의 회롱만이 있을뿐》이라고 하였으며 실라이는 사회력사과정을 아무런 합법칙성도 없는 《비합리적 흐름》으로 보았다.

쏘로킨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의 개념인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력사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면서 사회력사에 일정한 합법칙성이 작용한다는것을 부인하였다. 그는 사회를 이루는 인간의 운동이 《창조적 운동》이라는 구실밑에 력사발전을 규정하는 일정한 합법칙성이 있을수 없다는것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견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력설하였다. 그는《인류력사의 창조적 운동은 중요한 사건의 예견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썼다.

사회력사에 대한 주관관념론적 관점으로부터 사회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부인하는 반동리론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철학》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선행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객관주의적 결함》을 극복한 《신맑스주의》라고 자처하는 이 학파의 대표자들은 《주체의 자유로운 적극성》이 사회력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사회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거부하고 사회력사에 대한 주관관념론적인 《인간학적》견해를 제창하고있다.

마르쿠제는 《력사적 유물론의 현상학에 대한 보고》에서 주위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는 사회적 존재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황》에 의해 규정된다고 썼다. 그가 말하는 《정황》이란 감성적인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의식적인 력사적 인간》의 《급진적 활동》이다. 사회력사령역에서는 인간의 지위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체》인 인간의 《급진적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력사는 그 어떤 내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의 적극성의 흐름》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마르쿠제는 《공상의 종말》이라는 론문에서 사회령역에는 객관적 법칙이 있을수 없다는 자기의 주관관념론적 주장을 더욱 로골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력사령역은 객관필연성이 지배하지 않는 《자의》의 령역이기때문에 여기서는 실현 못할 주관적 공상이란 없으며 오직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계획만이 공상이라는것이다.

사회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거부하는 마르쿠제의 이러한 주관주의적 《사회철학》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분주의적인 《신좌익》학생운동의 사상적 기치로 되였으며 그 실패를 가져온 근본원인으로 되였다.

이 학파의 다른 한 대표자인 호르크하이메르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활동인 실천의 개념을 순수 주관적인것으로 그릇되게 해석한데 기초하여 인간의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력사령역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사회력사에서 주체의 적극적 활동의 의의를 주관관념론적 인간학의 립장에서 확대과장하던 나머지 자유롭게 활동하는 개체들은 력사와 력사법칙을 자의대로 만들어내는 《조물주》라고 선언하는데 이르렀다.

니체의 주의설을 자기의 《사회철학》의 사상적 원천으로 공공연히 선포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다른 대표자인 슈미트도 《새로운 인간학적 존재론》이라는것을 조작해가지고 경제법칙을 포함한 모든 사회법칙의 객관성을 부인하는 주관관념론적 리론을 들고나왔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철학》의 이러한 허황한 주장은 오늘날 이 학파의 제2세대인 하베르마스와 《청년세대》인 크랄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사회력사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부정하는 주관관념론적 리론은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에 들어와 부르죠아철학계에서 주도적인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 《철학적 해석학》에서 극단한 형태를 띠고있다. 이 학파의 대표자들은 한가지 력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각이한 립장을 가진 력사가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서술할수 있는데 이때 어느 해석이 진리인가 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는 극단한 상대주의적, 주관주의적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립장을 가진 력사가들은 저마다 지난날의 력사적 사실자체를 각이하게 《창조》한다는 주장에 이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력사발전법칙의 객관성뿐아니라 력사적 사실의 객관성까지도 부인하는 극단한 주관관념론인것이다.

사회력사적 운동이 인간의 운동이라는데로부터 사회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거부하는 현대부르죠아 《사회철학》의 모든 주장들은 그릇된 비과학적 견해들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회력사적 운동은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주체의 운동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운동에 일정한 객관적 합법칙성이 작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적 운동에는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작용하며 물질세계의 일반적 법칙도 작용한다. 사회는 인간으로 이루어져있고 사회력사적 운동은 주체인 인간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객관적 합법칙성이 엄연히 작용한다. 인간은 객관세계를 대상하고있는 주체인 동시에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다. 사회는 주체인 인간으로 이루어진것인 동시에 객관세계의 2대분야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를 주체와 그 객관적 환경과의 통일의 견지에서 옳게 리해하지 않고 주관관념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데로부터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거부하고 사회령역에서는 모든것이 개인의 자의대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주장이 나오게 된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거부하는 반동리론을 퍼뜨림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혁명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는것과 함께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잘 알아야 한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명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없게 한다. 이 반동철학은 인민들이 과학적인 혁명리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없게 하며 올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주관적 자의에 따라 맹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투쟁에서 실패를 면치 못하게 하려는 반동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다른 하나의 해독성이 있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터무니없이 헐뜯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제국주의어용학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를 인류사회의 《최고단계》인 《대중소비사회》라고 외곡하면서 여기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물질적 《풍요》가 보장되는듯이 설교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자들은 착취사회에서 기술이 노는 역할을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마치도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기술발전으로 다 잘살게 되고 계급대립도 해소되여 《복지사회》가 이룩되였다는 궤변을 퍼뜨리고있다.

최근 일부 부르죠아사회철학자들은 20세기초에 《기독교 신교륜리와 자본주의정신》이라는 책을 낸 독일의 사회철학자 막스 웨베르의 《리론》을 다시 들고나와 현대자본주의사회를 《경제적 합리성》, 《효률성》이 가장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로 묘사하면서 여기에 기독교륜리만 세우면 더할나위없는 《리상사회》가 이룩될수 있다는 허황한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비판적 합리주의》의 대표자들도 자본주의사회가 《정확성》, 《정밀성》, 《효률성》 등의 《합리성》을 구현한 사회라고 하면서 이 사회의 일부 《시행착오》만 고치면 《만민복지》의 사회가 된다고 떠벌이고있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도구로 되고있다.

부르죠아사회철학자들은 례외없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비방중상하는 궤변을 저들의 거짓학문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키고있다.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을 설교한 어느 한 책의 부제목이 《반공산당선언》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부패한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 현대부르죠아사회철학자들의 허황한 리론은 그들이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노복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근로자 1988년 제8호(루계 556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8년 8월 1일 발 행·1988년 8월 3일
ㄱ—85133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 1동 값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9호(55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 정 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오늘 혁명의 전반적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지금 벌어지고있는 제반사태를 분석하여보면 비단 우리 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할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앞에는 현정세에 대하여 옳바른 견해를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며 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정세를 옳게 평가하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파쑈독일과 일본, 이딸리아 같은 전패국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것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련합국측의 자본주의렬강들도 전패국들에 못지 않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자본주의는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득을 보았으며 급격히 비대해졌습니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국내 산업이 파괴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공업생산이 2배이상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전쟁기간에 미국은 련합국들에 대한 무기와 군수물자의 공급자로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잉여상품을 비싼 값으로 실현하여 막대한 폭리를 얻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계기로 하여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로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본주의세계에서 압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의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독점자본가들앞에는 엄청나게 확장된 군수산업을 어떻게 유지할것인가 또한 막대한 잉여자본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확장된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었으며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간판밑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랭전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름아닌 《트루맨주의》였습니다. 다른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공황을 모면하고 잉여자본을 처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파괴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원조》라는 미명밑에 구라파의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 자본을 투자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를 틀어쥐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샬안》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이와 같이 하여 자본주의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통제밑에 넣게 되였으며 장성하는 사회주의력량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정책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였습니다.

미국독점자본은 발전된 기술과 우세한 경제력에 의거하여 자본의 대외진출을 강화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 새끼회사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다국적기업체들이 많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다국적기업체들이 자본주의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체들을 통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나라들의 호상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전에는 자본주의렬강들이 상품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치렬한 경쟁을 벌렸으며 그것은 파괴적인 무장충돌과 전쟁으로까지 번져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도 자본주의렬강들의 격화된 모순과 대립의 폭발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의렬강들은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결탁하게 되였습니다. 자본주의렬강들이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꺼꾸러뜨리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소모하였다면 이때부터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게 되였습니다. 자본주의렬강들사이의 관계가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에로 넘어간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 모순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현시기 그 모순은 부차적인것으로 되고 오히려 결탁관계가 주되는것으로 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동안에 170여차의 크고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도리여 군사블럭을 통하여 자본주의렬강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세계제국주의가 결탁하는 방향에서 재조직화됨으로써 파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는 되살아나게 되였으며 경제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 결탁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통치수법과 략탈방법도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현대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력량의 급격한 장성과 로동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앙양에서 커다란 위협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로동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무마하기 위하여 보다 교활한 새로운 통치수법과 략탈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였습니다.

국내에서 로동운동을 와해시키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제도자체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제국주의자들은 로동귀족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자본주의적 착취를 은폐하고 실업과 빈궁으로 인한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를 략탈하는 방법도 바꾸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를 착취하며 략탈하는데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

전의 결과 민족해방운동이 전례없이 앙양되고 식민지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제국주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기 위하여 교활한 신식민주의적 방법에 매달리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강압적 방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략탈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해주고 이른바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습니다.

신식민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쉽게 침투할수 있는 방법으로 되였습니다. 제국주의렬강들이 지난날에는 식민지를 둘러싸고 치렬한 싸움을 벌렸으나 신식민주의에 의거하면서부터는 공모결탁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하게 되고 특히 《원조》를 미끼로 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시킴으로써 손쉽게 상품시장과 원료자원을 차지할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결탁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방대한 시장과 원료자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생산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는 제국주의대변자들에게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해결되고 자본주의가 더는 죽어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장성하고 번영하는 자본주의라고 떠벌일수 있는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결코 해결된것이 아니며 제국주의의 략탈적 본성이 변화된것도 아닙니다. 자본은 아무리 국제화되여도 자본외의 다른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다국적기업체는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대독점자본의 존재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화된것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략탈 방법이 보다 교활해진것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국내적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로 더욱 확대된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착취로 말미암아 지난 시기에는 매개 자본주의나라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지배하였다면 이제와서는 세계가 부유한 자본주의나라들과 가난한 발전도상나라들로 갈라져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민족산업은 더욱더 몰락되고 인민들의 빈궁화가 한층 심화되였으며 이 나라들의 대

외채무는 날을 따라 늘어나게 되였습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줄어들고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능력이 약화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을 희생시켜 살찌온 제국주의렬강들에게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발전도상나라들이 상품시장과 자본투하지로서 한계에 부닥치게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잉여상품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였으며 이 나라들에 대한 차관을 점점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뿐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을 서로 제한하도록 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생산을 제한하다보니 실업자대렬이 늘어나고 통화가 팽창하는것을 막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오늘 구라파의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실업률이 12～13%에 이르고있으며 통화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의 처지가 날로 더욱 어렵게 되여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자본주의렬강들이 직면하고있는 공통된 위기를 겪고있을뿐아니라 자본주의세계에서 차지하여온 지배적 지위를 점차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곤경에 빠지고있습니다.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일본의 경제가 발전되여 미국의 경제적 지배권이 약화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며 팽창된 대군수독점체들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예산의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대외채무가 늘어나게 되였으며 마침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로부터 최대의 채무국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수독점체들이 군수산업을 계속 확장하여 더 많은 리윤을 짜내려고 하는 조건에서 경제의 군사화를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핵무기축감을 위한 협상에 응하고있지만 이것은 결코 미국독점체들이 군수산업을 확장하려는 요구를 포기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군수독점체들은 이미 생산하여 판매한 핵무기를 축감하는데는 직접적인 리해관계가 없을수 있지만 핵무기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것은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핵무

기축감을 위한 협상에 응하면서도 수만억딸라의 방대한 군사비가 든다고 하는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을 계속 추진시키고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늘어나는 방대한 군사비부담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미국의 예산적자와 대외채무는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이끌어가게 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올바른 출로는 무엇보다도 발전도상나라들을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착취하고 략탈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 이 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방대한 자연부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가 발전하여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시장문제가 풀릴수 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살아나갈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착취적 본성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에 계속 매달리면서 자멸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앞으로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격화될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이 저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결탁하고있지만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그들사이에 리해관계가 대립되고 모순이 격화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먹을것이 적어지면 승냥이들끼리 서로 물고뜯기마련입니다.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멸망에서 벗어날수 없는 자체의 심각한 내부모순을 안고있습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한것 같지만 안으로는 날로 우심해지는 모순으로 하여 썩어가고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상품판로가 점점 더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여가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르죠아변호론자들까지도 고칠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의 고질이라고 개탄하고있습니다.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 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이 류포되여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고있으며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여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 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정신생활이 더욱더 빈궁화되여가고있습니다.

자본가계급은 날로 위태롭게 되여가는 저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회유, 기만하고 매수하는 교활한 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반동적 통치기구를 파쑈화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이것이 바로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풍부한 정신생활을 누리며 정신문화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풍족하게 살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서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을 발전시키려면 물질생활이 유족해지는데 맞게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과 정치생활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사람들이 부패한 물질생활과 돈의 노예로 될것을 요구하기때문에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정신문화적 발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쓰고있습니다. 또한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것이 저들의 정치적 지배권을 위태롭게 하기때문에 근로자들의 정치생활발전을 극력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돈과 물건의 노예로 되여가고있으며 정치적 생명을 억압당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없앨수 없을뿐아니라 높아지는

물질생활과 빈궁하여지는 정신문화생활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장성하는 자주적 요구와 악화되여가는 정치생활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과 불균형을 없애고 근로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 정치생활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자본주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뿐아니라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배치되게 점점 더 반동화되여가고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자본주의는 파멸의 길로 줄달음치고있습니다.

현대제국주의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있으며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은 평화와 진보의 성새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으로는 핵무기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날라리춤을 추고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굴복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있습니다.

원래 제국주의는 위기에 처할수록 그 반동성과 침략성이 강화되고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하는 법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의 표현인것이 아니라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반동화되여 발악할수록 인민대중은 혁명적으로 각성될것이며 제국주의의 멸망의 날은 더욱 가까와올것입니다.

현대제국주의가 림종에 가까와가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적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것

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특히 혁명의 전위부대인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혁명력량을 강화하려면 사회계급구성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옳게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계급구성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추진됨에 따라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들이 수적으로 근로자대렬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인테리대렬이 늘어나는것은 합법칙적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대렬이 급속히 늘어나면 근로자들속에서 소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커질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혁명적 교양을 체계적으로 받을수 없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많은 인테리들이 부르죠아사상과 소부르죠아사상에 물젖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것이 어려운 문제로 나섭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계급구성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가 공산당, 로동당들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되였다는것을 의미하거나 사회주의혁명에 불리한 조건으로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기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건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건 그들은 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육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과 기술문화수준에서나 로동조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임금을 받고 살아나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공통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종래 의미에서의 로동자대중과 새로 늘어난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합하면 자본가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수가 전체 직업주민의 80~9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공산당, 로동당들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사회계급구성이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공산당, 로동당들이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화하며 쟁취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근로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에 나서는것은 아닙니다. 로동계급도 계급적으로 각성되여야 혁명에 나설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은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오늘의 로동계급은 지난날과 같은 무산계급이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이 무산계급이 아닌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로동계급도 선행고전가들이 잃을것이란 철쇄밖에 없다고 한 지난날의 무산자들과는 다릅니다. 혁명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무산자인가 유산자인가 하는데만 달려있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아와 빈궁에 못이겨서만 혁명에 나선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려는것은 자주적 인간의 근본요구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이 짓밟히는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 혁명투쟁이 있는 법입니다.

해방전 일본제국주의통치밑에서 우리 나라 인테리들도 일반로동자들에 비하면 높은 대우를 받으며 비교적 유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지 인테리로서 민족적 차별을 받았기때문에 반제적인 혁명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비록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는것만큼 자본주의제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있으며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는것은 곧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본주의나라 인테리로서 한때 사회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계속 투쟁해나가지 못하는것은 사회계급적 처지의 제한성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사상적으로 옳게 교양하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습니다.

근로대중을 혁명화하며 쟁취하는데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로동계급의 당입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사업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으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없습니다.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혁명의 성과를 기대하는것은 마치 나무를 가꾸지 않고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는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당을 건설하여야 하며 당이 인테리들을 포함한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를 박

고 그들을 혁명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변화된 현실에 맞게 혁명리론을 발전시켜야 하며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할수 있고 쟁취할수 있으며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앞두고 허장성세하며 발악하는 현대제국주의의 정체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정세를 옳게 평가하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려면 또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후의 력사발전과정을 사회주의의 승리의 력사로 보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독일과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쏘련이 승리한것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이것은 제국주의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새로 출현하여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견인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가 발전하여온 과정은 물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것의 탄생과 승리는 언제나 진통을 겪는 법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일련의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변혁입니다. 사회주의는 몇천년동안 쌓이고쌓인 온갖 력사적 오물을 청산하기 위한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우기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내외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원래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할수 없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앞에는 무엇보다도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심각한 사회적 변혁을 실현하며 반혁명으로부터 혁명을 수호하는것이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습니다. 첫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놓고보더라도 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벌렸으며 련이어 제2차 세계대전의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되였습니다. 쏘련은 전후에도 제국주의자들의 랭전정책에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봉쇄 책동에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세계혁명운동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데도 큰 힘을 돌려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정치생활과 사상문화생활 분야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첫 사회주의나라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사회주의나라들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몇백년이 걸려도 도달할수 없는 경제적,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바없는 커다란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이미 력사적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실증되였습니다.

인민대중이 다같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생활과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여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생활을 대비하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볼줄 모르는 사람은 자본주의사상에 물젖어 인간의 리성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회주의가 더 깊이 뿌리내리고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창조적 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주의제도는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될것이며 멀지 않은 앞날에 경제기술적 면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훨씬 릉가하게 되리라는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지난 시기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리용하였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새 사회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좌우경적인 편향도 범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과정에도 편향이 나타났지만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해나갈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력사적 조건이 서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 호상간의 관계문제를 처리하는데서도 일련의 엄중한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향들은 결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는 인연이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원만히 준비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투쟁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입니다.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어길수 없는 법칙입니다. 새것의 승리가 우여곡절을 겪을수는 있지만 결코 력사의 이 법칙이 달라질수는 없습니다.

인류력사발전과정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력사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바로 새것이며 반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억제하는것은 낡은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봉건적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부르죠아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봉건주의에 비하여 새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봉건적 예속에서뿐아니라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에서까지 벗어나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억압함으로써 력사발전에 역행하는 낡은것으로 되였습니다. 리윤을 추구하지 않는 자본가가 있을수 없는것처럼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있을수 없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길은 사회주의길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그것을 아무리 미화분식하여도 착취사회의 낡은 테두리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본성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 사회입니다.

낡은것이 새것의 탈을 쓸수도 있고 죽어가는것이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것 같이 보일수도 있으나 낡은것은 사멸해가는 존재이므로 전도가 없습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새것과 낡은것을 똑바로 갈라보아야 하며 새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고 문화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인테리대렬이 훨썬 늘어났습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접근할수록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가 줄어들고 온 사회가 인테리화되는것은 합법칙적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변화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변화발전과정은 계급적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는 과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은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강화됩니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입니다.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는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이러한 요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공동의 념원과 일치합니다.

사회주의사회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인것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당의 령도를 약화시킬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할수 없고 사회주의의 고유한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당의 령도를 강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수준을 높여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당이 발전하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낡은 리론과 방법을 답습할 때에는 교조주의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되며 변화된 현실을 구실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저버린 때에는 수정주의, 개량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당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입니다.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것도 사람인것만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습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야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도 막아낼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을 튼튼히 단련한 사람은 밖으로부터 병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책동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면 수정주의, 개량주의가 머리를 쳐들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승패의 근본요인을 객관적 조건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주체에서 찾아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도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찾아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 핵심력량이며 령도적 력량인 당부터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이 사상적으로 건전하여야 대중이 사상적으로 건전할수 있고 당이 사상적으로 병들면 대중도 사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당이 단결되여야 대중이 단결될수 있고 당이 분렬되면 대중도 분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사상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당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려면 또한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여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는

데 맞게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공백이 생겨 부르죠아사상이 침습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혁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주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통일적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에 따라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데서 대중의 자각성과 헌신성을 불러일으키는외에 다른 길이 있을수 없습니다. 이밖에 다른데서 그 어떤 묘술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인연이 없는 자본주의적 방법에 매달리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이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시종일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왔기때문입니다.

세계제국주의원흉인 미제국주의가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인민은 자주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두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이중삼중의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언제나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있는것은 바로 우리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져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력사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현실에 맞게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운동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우리 시대의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당건설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 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수 있는 정확한 길이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아무런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반제투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가장 큰 동맹자인 일본과 린접해있고 아세아대륙의 요충지에 자리잡고있는 남조선의 전략적 의의를 중시하면서 남조선을 핵군사기지로 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뿐아니라 일본제국주의를 비롯한 세계반동들을 그러모아 남조선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경제적, 정치적 기지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자본주의의 《우위성》을 시위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발악적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여기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고있습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의 련합된 세력과 맞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면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있는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결코 제국주의에 유리한 시대인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멸망이 가까와오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이 사회주의의 길,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력사적 전환의 시대입니다.

현시대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멸망을 앞두고 발악하는 제국주의를 결정적으

로 타승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오늘 세계 혁명적 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

매개 나라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주체는 그 나라 인민이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 쁠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옹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력량입니다.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비할바없는 큰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문제는 반제자주력량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단결이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는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반대해나서고있는 조건에서 세계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반제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며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고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는 동지적 관계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현대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원쑤일뿐아니라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입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분렬, 리간책동을 짓부시고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세계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자주화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자주성을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궁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동시에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계속 견결히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략탈하였으며 오늘도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주적인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순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 새 생활이 우리 혁명선렬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것처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할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제투쟁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빛나는 40년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40년의 력사가 흘러갔다.

유구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40년이란 세월은 매우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국땅우에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놓았다.

경사스러운 국경절을 맞는 오늘 우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륭성번영의 력사적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된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정권건설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해방후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주독립국가의 기발을 높이 들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자주적 인민의 새로운 출현이였으며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지난 40년동안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가까이 바라보는 높은 령마루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발전된 나라로 전변시켰다. 공화국이 걸어온 40년은 승리와 영광의 40년이며 창조와 변혁의 40년이다.

주체의 혁명적 기치밑에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찬란한 력사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 자주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5권, 331～332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공화국정부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되였으며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 주체의 기치는 우리 국가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주체사상은 국가건설의 출발점이며 공화국의 강화발전의 기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되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공고발전되였다. 공화국의 사명과 임무도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주체의 기치는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향도적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것을 요구한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는 우리 혁명의 지도원칙이다. 공화국정부는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주체의 혁명적 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해나가는 여기에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사명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우리 공화국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창건된 첫날부터 그 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주체위업은 멀리 전진하였다.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화국정부의 투쟁력사는 무엇보다도 매우 짧은 기간에 계급해방위업을 완수하고 인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빛난다.

사회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민족해방위업을 수행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혁명을 계속하여 착취제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온갖 계급적 대립을 없앰으로써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변혁의 하나인 사회주의혁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혁명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하여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력사적 과업을 훌륭히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전후시기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을 령도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은 과거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능히 완수할수 있다는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은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고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생산력과 기술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그것을 맡아수행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농업협동화를 지체없이 실현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독창적인 방침과 적극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과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였으며 몇해밖에 안되는 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을 혁명적으로 추진시키는 한편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락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과 경제생활 령역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

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실현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착취와 압박의 모든 근원이 칭산되고 계급해방위업이 성취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수립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는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받을뿐아니라 래일의 보다 휘황한 생활의 전망까지도 확고히 가질수 있게 되였다. 인류력사가 시작된 이래 사회제도의 교체과정이 거듭되여왔으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처럼 그토록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제도는 일찌기 없었다.

실로 계급해방위업의 완성과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낡은 사회제도를 칭산하고 사람들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세울데 대한 인민대중의 력사적 숙원의 빛나는 실현으로 된다. 이것은 주체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이다.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화국정부의 투쟁력사는 계급해방에 뒤이어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빛나는 력사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하나의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혁명투쟁의 련속적 과정을 통해서만 완전히 실현될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남아있게 되는 낡은 유물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의 실현은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장구한 로정에서 볼 때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과 그의 생활환경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사람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구속,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야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이 빛나게 완수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은 계급해방위업이 수행된 조건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서만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를 극복할수 있으며 낡은 착취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갔으며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정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데서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는 사업,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선차성을 부여하여

왔다.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인민은 결코 혁명과 건설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공화국정부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사상의 멍에로부터의 사상적 해방을 이룩하고 인민들을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는 력사적 위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 이것이 우리 인민의 자랑찬 사상정신적 풍모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모습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며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여 혁명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례는 일찌기 없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의 창조자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전후에 령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였던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남들이 한세기 또는 수세기에 걸쳐 하였던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을 단 14년동안에 빛나게 수행하고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변변한 농쟁기 하나 만들지 못하던 우리 경제가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생산하는 위력한 사회주의자립경제로 발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는 결코 한자리에서 답보할수 없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징이며 우월성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과정에 《70일전투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우리 인민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이끌어왔으며 특히 서해갑문을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는 위대한 모범을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이 호소한 200일전투를 힘차게 벌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인민들의 복리가 계통적으로 증진하는 나라, 세상에서 제일먼저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는 높은 발전단계에 가까이 접근해가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천리마의 나라, 속도전의 나라이며 지난날 세기적 침체

로 하여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마련된 사회주의는 오늘 진보와 번영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40년사는 또한 민족적 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하고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빛나는 로정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오늘 로동계급의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에만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여야 하는 동시에 이미 쟁취한 나라의 독립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

공화국정부는 창건 첫날부터 미제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있게 대하여왔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무력침공을 일으키자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성전에로 전체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였다.

공화국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단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절박한 혁명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한 문제이다. 조선인민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외부세력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없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할 때에만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끝장내는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이 제의들은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괴뢰도당은 공화국정부의 평화노력을 외면하고 대결과 전쟁로선을 계속 추구하여왔으며 《두개 조선》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민족분렬을 고정화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

도밑에 공화국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으며 온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려면 현존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외관계에서 철저히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 모든 진보적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40년은 실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념원과 지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길에서 력사적 전환을 이룩한 자랑찬 년대기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영예롭게 고수하고 빛내인 영광의 행로였다. 그것은 또한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뒤떨어진것으로부터 선진적인것에로 끊임없이 비약해온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력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단결의 힘에 의하여 백전백승하여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공화국의 40년의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으로 빛나는 위대한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로서의 우리 인민이 있을수 있으며 강력한 자주적 주체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이 있고 공화국에 대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위한 경제와 문화, 끝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우리 인민의 생활이 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쌓아올린 업적과 공화국에서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은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악랄하고 음흉한 책동을 짓부시면서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견결히 고수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따사로운 사랑과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다.

반세기전에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선행단계에서 이룩된 업적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간다.

오늘의 조성된 안팎의 정세와 우리 혁명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공화국의 륭성번영의 력사를 더욱더 빛내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속에서 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인민정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6페지)

우리 공화국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벌린 모든 투쟁은 간고하고 준엄하였지만 그 길우에 쌓아올린 혁명업적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야 할 위대한 전취물이다.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는것이다.

공화국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 로선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기에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

공화국정부는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담보할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모든 전략적 로선들을 혁명발전의 순탄한 시기는 물론 안팎의 정세가 어렵고 복잡한 때에도 드팀없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자기의 실천투쟁으로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더욱더 빛내여야 한다.

공화국의 륭성번영의 력사를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비할바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자기가 맡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전진속도는 지금보다 더욱더 빨리 다그쳐질수 있다. 이것은 200일전투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200일전투를 통하여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계속 견지하고 대중적 영웅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력사와 함께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수위에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높은 혁명적 자부심과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이 위대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운명을 같이하는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실로 양양하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며 사회주의건설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 앙양을 계속 이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다그쳐야 할것이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

박 성 칠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승리와 영광, 륭성과 번영의 한길을 걸어온 공화국의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기의 주권을 전취하고 지키며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워왔으며 이 과정에 피도 많이 흘리였다. 참으로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하고 목숨으로 지켰으며 헌신적인 투쟁과 창조적 로동으로 강화발전시켜온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간고한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조국과 공화국정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가를 심장깊이 느끼고있는 우리 인민은 이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영원히 고수할 철석같은 의지에 넘쳐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벌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떠세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194페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조국은 20세기초에 이르러 가장 포악한 군사봉건적 제국주의였던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은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으며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우리 인민에게는 나서 자란 나라나 고향은 있었으나 참된 삶과 행복,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는 진정한 조국은 없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참다운 주권을 가지려는것보다 더 절절한 념원은 없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정권을 가지고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나 떳떳이 살기 위하여 항거의 길에 나섰으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만 거듭하고 헛된 피만 흘렸다.

력사는 지금까지 어느 한 계급도, 어떤 인민도 혁명의 수령을 내세우지 못하

였을 때에는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수난이 절정에 달하였던 암담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방대한 파쑈적 폭압기구와 침략무력을 가진 일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이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개척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은 그 장기성과 간고성에 있어서 류례가 없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국가적인 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불리한 조건과 수십만 대군의 포위와 자연의 엄혹한 광란을 헤쳐나가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걸음마다 사선과 혈로를 헤치며 치렬한 결전을 벌려야 하였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조선혁명의 명맥이 끊기우느냐 아니면 다시 이어지느냐 하는 준엄한 시련과 엄혹한 난관이 닥쳐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그때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선혁명의 승리가 있고 광복된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조국광복의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웠다.

실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그 길에는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지휘관도 있었으며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기관총화구를 막아 유격대의 진격로를 개척한 항일의 영웅도 있었다. 그 길에는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 광복의 새날이 보인다는 심장의 웨침으로 강도 일제를 전률케 한 불굴의 전사도 있었으며 혁명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혀까지 끊고 광복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투사도 있었다.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참다운 주권을 위한 항일의 혈전에서 수많은 혁명가들,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과 인민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사에는 백두밀림에서 희생은 무릅쓰고 일제침략자들과 결사적으로 싸운 수많은 혁명선렬들의 영웅적 투쟁의 기록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오랜 기간 강대한 일제침략자들과 맞서 싸워 놈들을 타승함으로써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고 새 제도, 새 생활창조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약소국가인민이 민족주체적 력량에 의거하여 포악한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한 세계사적인 기적이며 사변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은 혁명전통에 의하여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져야 자체의 깊은 뿌리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할수 있으며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국가의 혁명전통은 그 나라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며 주권전취를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과 근로인민의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인민정권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정권건설로선을 바로 규정하는것은 주권전취와 정권건설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정권건설로선을 정확히 밝혀야 근

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대표하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정권을 세울수 있으며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과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유격근거지들에 독창적인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다.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해나가는 과정은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온갖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고수하고 관철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의 악랄한 《토벌》공세속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사수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이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장차 우리 나라에 수립될 인민정권의 원형이 창조되고 인민정권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이 이룩되였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수많은 혁명적 골간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근로인민대중의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혁명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전망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권의 새로운 원형을 마련하신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주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주권전취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 강령으로 되였으며 해방후에도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힘차게 일떠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가장 고귀한 혁명적 재부로, 만년초석으로 되였다.

해방직후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우리 조국의 분렬과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은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주권문제해결에 많은 난관을 조성한 반동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으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구현하고 유격근거지들에 조직되였던 인민혁명정부를 계승하여 제때에 인민정권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마침내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고 그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벌린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로동자, 농민의 진정한 국가주권을 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세워진 영광스러운 정권이며 우리 인민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탁월한 사상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로동계급의 정권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불패의 혁명정권을 일떠세우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력사,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목숨으로 사수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주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준 우리 당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22폐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수호하는것은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신성한 권리이며 정당한 투쟁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자기의 혁명정권과 선진적인 사회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여야만 나라와 주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수 있었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조국방위전쟁이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자기의 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남조선괴뢰군, 15개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명의 방대한 병력과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동원하여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은 일대 시련을 겪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또다시 제국주의《강적》을 상대로 준엄한 혁명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나마 인민정권의 혜택아래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 과정을 통하여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지난날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때로부터 비로소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워주시고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여주심으로써 땅과 공장의 주인으로,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되였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여 사람다운 생활과 참다운 행복을 체험한 우리 인민들은 조국이야말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바쳐 보답하는것이 응당한 도리라는것을 가슴깊이 자각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무기나 군사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 군대의 정치사상적 힘이다. 인민대중, 군대의 역할을 높이고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전쟁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시환경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정신,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보

위자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였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는 남반부지역을 해방하는 반공격의 가렬한 전투속에서도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의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재진격과 진지방어의 치렬한 전투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신심드높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원쑤들을 맞받아나가 용감히 싸웠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주체전법들을 적용하여 전투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가는곳마다에서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의 하나하나의 고지,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켰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로 받들고 따랐으며 인민군용사들은 싸움터마다에서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쓰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의 땅크와 군함을 까부시였으며 애젊은 나이에 적의 화구를 막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조국은 곧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중대성원전원이 조국의 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사전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월미도의 용사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제낀 영웅전사들, 조국의 한치의 땅을 사수하기 위하여, 인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청춘을 바친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은 우리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는 실로 우리 인민군대의 정신도덕적 풍모가 얼마나 높고 숭고한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닌 영웅전사들이 있었기에 그처럼 가렬처절한 전쟁의 시련속에서도 우리는 걸음마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최후승리를 마련할수 있었다.

혁명전쟁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전쟁의 승패는 결국 전당, 전군, 전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전쟁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보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시환경의 요구에 맞게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더욱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후방을 공고히 하는것은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을 하나의 군사적 력량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짧은 기간에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전선에서뿐아니라 후방에서도 힘차게 벌어졌다. 후방인민들은 후방도 전선이라고 하면서 남녀로소할것없이 모두가 떨쳐나서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직접 손에 총을 잡고 향토를 지키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 싸움으로써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였다. 우리 인민의 승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엄한 전쟁의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워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목숨으로 지키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 공고발전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31폐지)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을 굳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령도밑에 근로인민대중은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전취한 자기의 혁명정권을 굳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전후 우리 인민앞에는 피로써 쟁취하고 목숨으로 지켜낸 공화국을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공고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 과업은 주권을 전취하고 지키기 위한 투쟁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간고한 투쟁이였다.

미제에 의한 국토의 분렬과 전쟁으로 인한 혹심한 파괴는 우리 혁명발전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조성하였다. 전쟁의 상처를 아직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강재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우리 당이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남조선괴뢰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북진나발을 불어대고 당내 종파분자들은 외부의 불건전한자들과 결탁하여 우리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섰다. 조성된 난국은 엄중하였으며 뚫고나가야 할 시련은 준엄하였다.

그러나 영웅적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면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았으며 심각한 계급투쟁과 창조적 로력투쟁으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며 튼튼히 다지는것은 그것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못지 않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데 머무르고 굳임없이 공고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그 제도자체를 수호할수 없으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잃어버릴수 있다. 제국주의와 온갖 반

동들과의 침예하고 피어린 투쟁속에서 그리고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제도가 고수되며 공고화된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간고하고 험난하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시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어느 한때도 진정한 평화가 깃든적이 없었다. 이러한 긴장한 정세속에서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면서 헌신적인 로력투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굳건히 다져지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발전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더욱 공고한 정치적 지반과 튼튼한 경제적 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에 의하여 그 공고성이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당의 자위적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놓았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일심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고 위력한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에 기초하고있으며 불패의 자위적 국방력에 의거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의 튼튼한 담보가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요인이 있다.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공화국정권을 위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가진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우리 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공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철저히 옹호고수되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정권으로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인민정권기관들의 활동과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는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근본요인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이룩하시고 모든 사상교양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으로 일관시켜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공화국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들과 제반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가장 우월하고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창건자,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 *

우리 인민이 자기의 참다운 정권을 전취하고 지키며 고수발전시켜온 전로정은 헤아릴수 없이 간고하고 준엄하였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을 벌려야 하였으며 페허우에서 새 생활, 새 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추호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그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헤치며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해올수 있었다.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의연히 멀고 험난하다.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사업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고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고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누구나 다 높은 계급의식과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을 지니고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튼튼히 지키며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난다.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우리 인민이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것도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싸운것도 전후 재더미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며 투쟁한것도 바로 자기 조국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때문이였다.

우리 공화국의 람홍색기발에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참다운 자기 조국을 가지고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념원이 깃들어 있다.

실로 우리 공화국은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찾고 목숨으로 지키였으며 피어린 투쟁과 창조적인 로동으로 강화발전시켜온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번영하는 공화국이 얼마나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는가를 언제나 잊지 말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은 언제나 튼튼히 고수되고 빛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홍 성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지난 40년동안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일대 전성기에 놓여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으며 공화국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금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륭성하고 온 누리에 위용을 떨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자기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건설로선을 옳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정확한 국가건설로선에 기초하여서만 자기 조국땅우에 독립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우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 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48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한 주체적인 국가건설로선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를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선결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가 명확히 밝혀져야 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국가건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국가건설로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다.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이 기본징표에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주체사상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자주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는것과 같이 자주권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첫째가는 요구이다.

나라의 자주독립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주성을 전제로 하며 자주독립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정치적 자주성에 의하여 담보되게 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실현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데서 독자성을 견지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있다.

만일 정치에서 자주성을 잃게 되면 그러한 국가는 남의 나라의 로선과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며 정책 작성과 집행에서 일관성과 원칙성을 고수할수 없게 된다. 오직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국가만이 자신의 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관철할수 있으며 따라서 나라의 번영과 완전독립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정치분야에서 보장될뿐아니라 경제, 군사적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은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경제적 자립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자립은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모든 나라는 오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으며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지니고 빛내일수 있다.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는것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가 전쟁의 항시적 근원으로 되고있으며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로골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며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자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려면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은 이렇듯 주체사상을 국가건설분야에 구현하여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주체적인 국가건설로선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은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국가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

한 무기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옳바른 자기의 활동원칙을 가져야 한다.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사회주의국가가 자기 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그것은 이 로선이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혁명력량과 그것을 짓밟는 반혁명세력사이의 힘의 대결이며 반혁명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특히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력량을 이루는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을 다같이 강화하여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여기에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결정적 담보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참다운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국가활동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위력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전행정에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하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내세우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407페지)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40년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40년이며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이 관철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영광의 40년이다.

국가 건설과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훌륭히 구현된 결과 공화국의 정치적 자주성이 공고히 되고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군사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 온 세상에 자랑떨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대내외정책과 로선을 규정하는데서 철저히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왔다.

공화국은 전후시기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리론이나 공식,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리하여 전쟁으로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켜야 할 어려운 과업들을 동시에 훌륭히 해결하였다.

공화국은 사회주의기초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던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문제, 특히 농업협동화문제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농업협동화의 실현조건과 소농경리에 비한 공동경리의 우월성, 우리 인민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공화국은 전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위력한 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규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정권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다 우리 식대로 하고있으며 경제관리도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농촌문제도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밝혀준 길을 따라 풀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발전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한 문화, 강유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그 관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 결과이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공화국은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것은 매국배족행위라고 인정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국가의 자주성은 대외관계에서 뚜렷이 표현되게 된다. 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고있다. 그리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반제투쟁도 공화국정부는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대외정책실현에서

철저한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지키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공화국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실현해나가는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우리 공화국은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하고있는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경제적 자립을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며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국가관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설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다. 또한 경제부문 호상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설정하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자립적 민족경제를 가장 빨리,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었다. 공화국이 건설하여놓은 자립적 민족경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모든 경제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루고있다.

우선 공업부문의 경제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였다. 우리의 중공업은 갖출것을 기본적으로 다 갖춘 완비된 중공업으로 발전되고 강력한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특히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대형뜨락또르, 대형자동차, 대형선박, 대형변압기, 대형 산소분리기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모든 기계설비들을 훌륭히 생산보장하고있다. 또한 야금공장설비, 세멘트공장설비, 화학공장과 경공업공장 설비를 비롯한 현대적 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해내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종합적 대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경금속생산기지인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하여 방대한 중요대상건설을 위한 대건설행군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와 설비로 힘차게 다그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기계공업부문과 함께 전력공업,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기간적 중공업부문들도 훌륭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중공업토대는 공업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자체의 튼튼한 경공업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중앙경공업공장들과 함께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고 그 물질기술적 토대도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방직공업,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경공업부문들이 다 갖추어져있으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고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천과 일용품, 식료가공품 등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현대화된 농촌경리로 전변되였다. 특히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수리화체계가 세워지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게 되였으며 주체농법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여 해마다 풍년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문화혁명에 큰 힘을 넣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130여만의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를 키워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그들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튼튼히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인민경제 전반적 부문들이 다같이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공업의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7년-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 걸쳐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그리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단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6개년계획도 공업생산액적으로 4년 8개월에 완수되였으며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이 2.2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공화국정권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새 전망계획 기간에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 건설된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는 공화국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과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가짐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관계를 맺고있으며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면서 국제혁명위업에 더욱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체계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비상히 높이였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공화국은 존엄있는 사회주의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고있으며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그 국제적 위신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 지위는 이렇듯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하여 튼튼히 담보되고있으며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갖춘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이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는것이다. 현대전은 립체전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이다. 따라서 일단 유사시에는 전군, 전민, 전국이 하나와 같이 일떠서서 적들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강력한 방위체계를 세워야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적들의 그 어떠한 침략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으며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위사상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놓았다.

공화국은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의 간부화, 현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특히 당의 전군주체사상화, 전군혁명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은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또한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일단 유사시에는 로력투쟁으로 전선을 지원할뿐아니라 손에 직접 무장을 잡고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와 함께 그 어떤 침략자들도 물리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곳마다에 철벽의 방어시설들이 튼튼히 쌓아졌으며 그리하여 온 강토가 말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공으로부터도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방위력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는 자체의 자립적 국방공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으며 그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여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강력한 자립적 국방공업에 의거하여 인민군대의 무장력은 끊임없이 현대화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모든 군사시설들과 요새화된 진지들은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하여 불패의것으로 되고있다.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일편단심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이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은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의 원천이며 그 공고성의 기초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강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고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가장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전체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신이 직접 선거하고 운영하는 우리의 인민정권, 공화국정권을 끝없이 신뢰하고 공화국정권의 시책들을 철저히 집행하며 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전면적으로 마련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국가사회제도

현 무 광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유구한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지위가 높은 경지에 오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조국이 지닌 높은 영예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공화국 국가사회제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다.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전면적으로 마련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 우리 인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당이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전면적으로 마련하여준다는것은 정치생활, 물질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시켜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려는것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의 일치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이 요구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국가사회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제도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지배계급이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움직여나가기 위하여 세운 체제와 질서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 맺게 되는 이러한 사회관계는 계급사회에서 정치적 지배권을 틀어쥔 계급이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규정해놓은 관계이다. 정치적 지배권을 틀어쥔 계급은 사회를 움직여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사회관계를 규정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성원들이 지켜야 할 일정한 체제와 질서를 확립한다. 바로 이것이 해당 사회의 국가사회제도로 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지배계급이 세운 국가사회제도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자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을 이룬다.

정치생활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

은 국가주권의 소유관계를 위주로 규제하는 정치제도에 의하여 보장되며 경제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규제하는 국가의 경제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함에 있어서 국가의 정치제도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적 지배권의 공고한 체계인것으로 하여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규제하는 국가의 경제제도에 비하여 보다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자면 주권을 틀어쥐고 국가정치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국가의 경제제도를 확립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 요인을 이룬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자면 선진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참다운 국가사회제도를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갖은 천대와 멸시, 예속과 굴종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민족수난이 겹쌓였던 그 엄혹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국가사회제도를 가질것을 절박하게 념원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 력사적인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세우시였던 인민혁명정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고있는 가장 공고한 국가사회제도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발전됨으로써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한 정치적 지반과 튼튼한 경제적 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굽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실제적 담보를 전면적으로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12페지)

국가사회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그것이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 집단의 리익을 구현하고있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선진적이며 우월한 국가사회제도는 로동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 제도이다. 로동계급은 모든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운명을 같이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한 사회가 다름아닌 사회주의국가제도이다. 이 국가사회제도만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게 살며 발전할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아무리 생산력이 발전하고 물질적 재부가 늘어나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될수 없으며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을 누릴수 없다. 오직 로동계급의 참다운 국가사회제도하에서만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실현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주적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속되여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의 전도를 활짝 꽃피우면서 살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지향은 자주적 권리를 가질 때 실현되게 된다.

자주적 권리는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에게 자주적 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있을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 권리를 가질 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자주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자주적 권리는 사람들이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실현되게 된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성격과 내용은 국가주권이 실시하는 정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어떤 사회에서나 사람의 모든 사회생활은 결국 국가정치가 규정한 방향과 질서에 따라 진행되며 그 통제밑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자면 먼저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주권의 실현과 국가관리 등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질 때 사람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 국가사회제도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정권의 주인으로서 국가사업과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에게 있다. 공화국정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대표로 구성되고있으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주권행사에 참가할수 있는 온갖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주권행사에 참가하는 기본형식은 선거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국가주권행사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할수 있도록 담보하여주는 이 권리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인민들이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실제적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

국가기관들의 사업방법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국가관리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데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국가관리활동은 국가관리기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자기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한것으로

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없이는 결코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국가관리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면 반드시 이 사업에 근로인민대중을 참가시킬수 있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이 철저히 확립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가장 우월하고 독창적인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등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관리에 광범히 참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모든 면에서 자주적 권리를 철저히 행사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국가사회제도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우월한 제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적극 보장해주는 참다운 제도이다.

창조적 활동은 부단히 높아지는 자주적인 삶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며 사람들이 보다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있게 살려는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는 부단히 높아지며 그것은 창조적 활동을 끊임없이 높일 때만이 실현되게 된다. 사람들은 창조적 활동을 높일데 대한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생활하여야 보람있는 삶을 향유할수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자주적인 삶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은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의 발현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 활동을 벌리게 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의 내용과 수준은 그들의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규정되며 창조적 능력은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될 때 높이 발휘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 위력은 조직과 단결에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창조적 활동, 창조적 위력의 원천인 근로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는 그들이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들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할 때만이 실현되게 된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정치조직에 망라시켜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게 하는 참다운 제도이다. 또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그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협조관계를 날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이 우월한 국가사회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로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숭고한 혁명적 의리를 바탕으로 굳게 결합되여 가장 숭고하고 생활력있는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이 이룩되였다.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통일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에서는 자주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 활동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는것이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물질문화적으로도 철저히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것과 함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정치에서뿐아니라 물질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때에만 높아질수 있다.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수 없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응당한 삶을 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로동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 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모든 물질적 부의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물질적 부의 향유자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국가사회제도하에서만 비로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줌으로써 국가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를 물질문화적 측면에서 튼튼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에게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준다.

로동은 모든 물질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것도 사람들의 로동에 의하여 수행되며 로동과정에서 사람자체도 개조되여나가게 된다. 로동능력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가져야 자기의 로동으로 사회의 재부를 늘일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일자리에서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중등 또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그들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일자리에 배치하며 특히 녀성근로자들에게는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로동의 권리뿐아니라 휴식의 권리도 보장하여준다. 휴식은 로동을 계속하며 정치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휴식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뿐아니라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휴식형태들과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 특히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유급산전산후휴가가 더 차례지고있으며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이 누리고있는 이러한 권리와 특전들은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도록 고무추동하여준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에서는 국가가

인민대중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모든 조건도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다.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은 물질문화생활의 중요내용이다.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여야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철따라 옷을 공급해주고있다. 그리고 국가가 로동자, 사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쌀값은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공급해주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살림집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것이 하나의 제도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인민들은 조세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또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병을 치료받고있으며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병치료걱정, 자식들 공부시킬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가의 반인민적 시책과 반동적 지배계급의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과 고역, 주택난과 직업병 등으로 생활상 고통을 겪고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빈부의 차이는 커가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민적 시책이 끊임없이 취해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과 간석지건설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웅대한 작전을 펼치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인민적 시책이 끊임없이 취해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날로 격화되는 엄중한 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증시로 된다.

현실은 인민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위대한 당과 위대한 수령이 령도하는 우월한 국가사회제도하에서만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물질문화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줄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보호하여주는 우월한 제도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고 침해하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게 되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되며 그 사회경제적 지반도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은 의연히 남아있게 되며 놈들은 빼앗긴 저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복

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게 되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그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놈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그 앞잡이로 되기때문에 놈들의 반항과 파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무력침공과 파괴책동,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동들을 부추겨 선진적인 국가사회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키려고 책동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마치도 내부의 적대적 요소가 없어지고 계급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처럼 여기면서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고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있다. 또한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믿음직하게 보호할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으며 놈들의 침략과 파괴암해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들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튼튼히 보호하여주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된다.

참으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제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 국가사회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이 우월한 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숭고한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국가사회제도는 이 제도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제도이다. 인민정권은 국가사회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키며 내외원쑤들의 침략과 준동으로부터 그것을 옹호보위하는 정치적 무기이다.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도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철저히 보장하여

주며 공화국 국가사회제도를 그 본성에 맞게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정권이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것을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할 때 인민정권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또한 자기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지도하고 관리운영하는것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인민정권기관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사이에는 떼수 없는 관계가 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은 응당 사회주의경제제도에 맞게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그 정당성과 우월성,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비롯한 집단주의적 방법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또한 국가의 모든 사업을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규범법과 규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것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감독통제 기능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사업과 근로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법규범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공화국은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

성 준 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지난 40년간 그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주체위업은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더욱 심화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주체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오는 과정에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만방에 찬연히 빛나게 되였으며 짓밟히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인 공화국이 있기에 우리 인민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이 꽃펴난 어제와 오늘이 있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가 이룩될 희망찬 래일이 담보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진정한 혁명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주체적인 혁명정권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70페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힘있게 전진하며 완성되게 된다.

국가주권은 정치적 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국가주권에 의하여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며 자주성실현의 물질경제적 조건도 결정되게 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주체적인 혁명정권이다.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혁명위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은 그들이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

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자연과 사회, 사람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주체위업실현의 주되는 내용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이며 조건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떠나서 살며 발전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사람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결국 주체위업은 사람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종국적 승리가 이룩되게 된다.

공화국이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내세우는것은 그 계급적 본질과 혁명적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원래 국가활동의 목적과 사명은 국가주권이 어느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어떤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국가주권은 정치적 지배권인것만큼 지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사상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내세운다.

착취계급의 국가는 국가권력을 틀어쥔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인것만큼 착취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로동계급의 국가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있으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정치적 무기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국가는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삼게 된다.

우리 공화국은 바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주체적인 정권이다.

공화국의 사명으로 되고있는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종국적으로 완수된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사람중심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고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공화국은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활동함으로써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간다.

공화국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며 국가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을 규정하고 견지할뿐아니라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방법을 확립하고 혁명위업을 전진시킨다.

국가의 로선과 정책은 지도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다.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중심

으로 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반동하여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킨다. 공화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로선으로부터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행하여야 할 전략전술적 과업들을 비롯하여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들을 언제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규정하며 그것을 관철하는데서도 주체사상이 밝힌 방법론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다.

공화국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할뿐아니라 국가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들을 규정하고 견지함으로써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킨다.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정확히 규정하고 관철하여야 로동계급의 국가가 자기 활동에서 독자성과 일관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남의 풍에 놀지 않고 제 정신을 가지고 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공화국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관철함으로써 아무런 편향과 곡절도 없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영예로운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간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활동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위업을 전진시키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나서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비록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이 서있고 활동의 정확한 원칙이 확립되여있어도 옳바른 방식과 방법에 의거하여 활동하지 못하면 로동계급의 국가가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민주주의를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며 정권기관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공화국은 이처럼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내세우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주체적인 정권인것으로 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위력한 정치적 무기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자면 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가져야 한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그것은 일정한 형태의 정치조직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며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에서 정치조직은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진정한 정치조직을 가지고 그 기치밑에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그쳐 주체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킨다.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사람의 자주성은 그들이 사회적 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실현된다. 주체위업을 완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자연과 사회, 사람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주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창조적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만든다.

사람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것은 사회발전의 근본전제이며 주체위업실현의 가장 선차적인 요구이다.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사람들을 참다운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능력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힘있는 혁명의 주체로 키워야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자주적 권리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은 자주적 권리를 가져야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줌으로써 그들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되게 한다.

인민대중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되게 하자면 그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통일단결시켜야 한다. 주체위업은 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에 의하여 종국적 승리에 도달하게 된다.

인민대중을 혁명사상과 과학지식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로 통일단결시키는 사업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공화국정권에 의하여 수행된다.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고있는 공화국은 자기의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높여 사람들을 교육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창조력을 지닌 힘있는 혁명의 주체로 만든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는것만큼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공화국은 자기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통하여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

자연개조사업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은 그들의 사상정신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2대분야를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상정신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의 두 분야에서 다같이 실현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위업은 결국 그들의 사상정신생활뿐아니라 물질문화생활을 참답게 보장해주어야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경제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통하여 나라의 모든 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장악지도하여 생산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하여준다.

공화국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개조를 다그쳐나가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간다.

사회개조사업은 사회적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해나가는 사업이다. 사회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가야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문화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참다운 사회적 평등을 이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공화국은 자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간다. 공화국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

전시키며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개조사업을 적극 다그친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전진하며 승리한다. 주체위업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위업인것만큼 그 개척기로부터 종국적 승리에 이르는 전기간 언제나 계급적 원쑤들과 반동적인 사상과의 치렬한 대결을 동반하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계급투쟁의 무기인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할수 없으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공화국은 바로 우리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믿음직한 보호자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러한 기능으로 하여 내외의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은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를 다그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이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로 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굳임없이 공고발전하여왔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창립된 첫날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왔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52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위업수행에서 국가주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주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인민정권의 고귀한 력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그 빛나는 전통에 토대하여 해방후 가장 우월한 혁명정권인 인민정권을 창립하고 공화국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국가주권을 튼튼히 틀어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몸소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오시였다.

해방후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새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였다.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새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은 전인미답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고 북반부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신데 기초하여 인민정권을 지체없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길로 이끄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에서 나서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주체적 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공화국북반부에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세기적으로 내려오던 인간

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공화국정권이 이룩한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공화국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은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이라는것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공화국정권을 힘있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수행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중요성으로부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히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된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3대혁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혁명적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일군들의 사업 작풍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국가기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국가기관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정권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더욱 굳게 결속되였다.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고 우리 당의 민족문화건설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여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다. 오늘 주체위업은 공화국의 혁명적 기치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에서 주체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인민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희망찬 래일을 내다보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 *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지난 4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고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그러나 주체위업은 아직 종국적으로 완수되지 않았으며 공화국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는 곧 자주성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치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3대혁명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기의 모든 활동

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켜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경제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것과 함께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며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공화국정권기관들이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이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사명을 다하자면 자기 활동에서 계급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 일군들은 국가사회생활이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건전한 로동계급적 생활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주체위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런것만큼 국가정권은 자기 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이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하며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또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은 조직화된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규률있고 질서있게 행동하도록 하여야 사람들의 조직적인 공동행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가행정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을 성실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정권기관들은 전반적인 국가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인민정권이 자기앞에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자면 정권기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모든 정권활동을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진행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정권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공화국은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진정한 조국

허　　담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오늘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40년의 력사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낸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그것은 또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기어이 우리 세대에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1)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며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9페지)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있으며 북과 남은 서로 상반되는 길을 걷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보장되고있지만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정부앞에는 조국의 절반땅인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국통일이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매개 민족국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민족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권리 즉 자주독립권이다.

민족적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매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

다. 모든 민족은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때에만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주인으로 되며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그리고 자주권을 가진 민족만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다.

그런데 뗄래야 떼여낼수 없는 우리나라의 한 부분인 남조선은 미제의 강점밑에 있으며 거기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본래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미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채 40여년이나 자주권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더는 참을수 없는 민족적 치욕이다. 우리 민족은 오직 오늘의 민족분렬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함으로써만 전국적인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다.

조국통일이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되기때문이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는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고만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40여년동안이나 미제의 식민지예속밑에서 자주성을 빼앗기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하여왔다. 조선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남조선인민들이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불행한 현실을 강건너 불보듯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는것이다.

조국통일이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조국통일이 온 민족의 힘을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초미의 과제로 되기때문이다.

민족의 장구한 분렬은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륭성번영을 저애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바로 분렬때문에 나라의 부원과 민족의 지혜와 재능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하지 못하고있으며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더욱더 커가고있고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성마저 사라져가고있다. 오직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민족의 슬기와 재능, 풍부한 자연부원을 다 동원리용하여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성을 유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가장 숭고한 임무로,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로 되고있는것이다.

(2)

우리 공화국은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참다운 조국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0페지)

공화국이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으로 되는것은 공화국이 민족적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는 철저한 자주적인 국가이기때문이다.

공화국은 민족적 자주권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

기의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은 우선 그 국가가 의거하고있는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가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을 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세우고 관철할수 있으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성과 일관성, 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온갖 예속과 지배, 사회적 불평등을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옹호하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모든 민족은 자주적이며 매개 민족에게는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갈 힘이 있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민족문제가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고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 번영을 이룩하는 문제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민족이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공화국은 바로 이러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철저한 자주독립국가로 되는것이다.

공화국정권은 또한 항일혁명의 혈전속에서 탄생된 민족자주정권인 인민혁명정부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있는 가장 자주적인 정권이다.

어떤 정권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국가건설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온 민족의 민족적리익을 옹호고수하는 참다운 자주적 정권을 세워야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키고 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망국노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 참다운 자주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새형의 인민정권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자주적인 인민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이 로선을 구현하시여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들에 새로운 류형의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그 활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자주적인 정권의 력사적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공화국정권은 바로 이 력사적 뿌리에서 솟아난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철저히 자주적인 정권으로서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공화국은 또한 민족적 자주권을 옹호하는 치렬한 반제, 반외세 투쟁속에서 탄생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속에서 강화발전된 자주적인 국가이다.

제국주의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모든 민족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주되는 대상으로 된다.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하고 치렬한 반제, 반외세 투쟁속에서 자주적인 국가로 창건되고 강화발전된 혁명의 전취물이다. 공화국은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대하고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조작하여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분렬하기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는 투쟁속에서 탄생하였다. 또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말살하려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가렬한 3년간의 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는 투쟁속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행정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였다.

참으로 공화국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항일혁명의 력사적 뿌리에서 솟아났으며 반제, 반외세 투쟁속에서 탄생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

되여온 철저한 자주적인 국가이다.

공화국이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공화국이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온 민족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이 제시한 통일정책은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통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7.4남북공동성명의 기초로 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통일의 밝은 전망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다.

북과 남 쌍방이 다같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위업이 실현될 때까지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공화국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 있다.

주변국가들의 리해관계와 민족내부의 대립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우기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정치체제가 오래동안 존속되고있는 현실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큰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그러나 통일은 기어코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민족사적 과제이며 온 민족의 숙원인것만큼 북과 남이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통일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우리 나라를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뿔럭불가담적인 국가로 만들자는것이다. 이 방안에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구성과 기능 및 역할, 통일국가의 국호와 대외적 지위, 련방국가의 시정방침 등 통일국가 창립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통일국가이며 그 구성과 기능 및 역할, 대외관계 등에서 철두철미 민족자주권을 행사하는 자주적인 통일국가이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여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도 있는것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데 있어서 우리 민족의 공동의 전략으로 채택하여야 할 유일한 통일방도는 오직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길뿐이다.

공화국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여 조국통일의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었을 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공화국은 나라가 분렬된 이래 수많은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최근 몇해사이에만 하여도 공화국은 3자회담제안, 북남국회회담제안, 북남군사당국자회담제안,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제안,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단계별무력축감제안 그리고 북남련석회의제안과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대표들 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질데 대한 폭넓은 협상제안, 북남국회련석회의제안 등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온 민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자기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지난 40년동안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모두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 공화국은 완전한 정치적 자주권과 튼튼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강력한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날을 따라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는 공화국의 위력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의 날로 강화되고있는 위력과 정당한 통일정책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최근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전례없는 가혹한 군사파쑈적 폭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나라를 통일할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반공국시》를 《통일국시》로 바꾸고 《국가보안법》을 철페하며 《전국민적인 통일론의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미제의·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제라는것을 깊이 깨닫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은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우리 조국을 갈라놓고있는 양키를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정면에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자》, 《남북학생회담을 성사시켜 통일을 앞당기자》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은 반미자주화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높은 단계에서 매우 세차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통일운동의 정

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온 민족의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으로 되고있다.

(3)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공화국정부앞에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여야 할 당면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것은 통일에로 가는 리정표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조국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90페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이 땅우에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처럼 쌍방의 방대한 군사력이 맞서있는 조건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은 어떻게 하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없애며 서로 침략하지 않을데 대하여 확약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래야 북과 남사이에 신뢰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자면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북과 남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며 비방중상하는 조건에서는 아무리 통일대화를 하여도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통일문제는 어느때가서도 해결할수 없다. 분렬이 아니라 통일하려는 근본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여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것은 대화와 협상,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여전히 《두개 조선》 정책만을 추구하면서 공화국의 평화적 발기와 거듭되는 협상제의를 외면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올림픽안전》이란 구실밑에 반공화국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그들은 사실상의 《비상사태》를 선포해놓고 남조선전역을 파쑈적 폭압속에 몰아넣고있으며 가장 포악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이른바 《남북관계와 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대화와 통일》의 너울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을 억제하고 대중적 통일운동을 가로막으며 88올림픽을 무난히 넘길 목적밑에 회유기만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른바 《특별선언》은 사실상 통일방안도, 평화제안도 아닌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분렬안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특별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같은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의 길에서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긴장상태해소와 전쟁위험을 가시는 절박한 문제조차 외면하고있으며 《두개 조선》을 위한 《단계론》으로 관통되고 《교차접촉》으로 일관된 철두철미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방안이다. 따라서 《특별선언》은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로 있는 한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똑똑한 통일정책도 내놓을수 없으며 《두개 조선》정책에 매달리게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자면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여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 다시말하여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본래 나라의 통일운동은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의 운동이거나 어느 특정한 계급, 당파들의 운동이 아니라 통일을 원하는 우리 민족전체가 체제와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신앙과 정견, 당파의 소속여하에 관계없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위업에 거족적으로 참가해야 할 운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정당한 제안이다.

북남련석회의를 열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 군축회담을 마련하는 문제, 올림픽의 공동주최문제, 호상비방중상을 그만둘데 대한 문제 등 당면한 초미의 문제들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은 북과 남이 당면하게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격으로 보나 제기된 문제들의 절박성과 그 해결방도의 합리성으로 보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애국적 발기이다. 비극적인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조국의 력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을 중대한 사명과 임무가 북과 남의 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지워져있다. 남조선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북남련석회의를 마련하는 길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설 때 엄중한 지경에 이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북남련석회의소집제안을 당장 받아들일수 없다면 북남련석회의가 소집되기전이라도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대표들 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져야 한다.

공화국은 남조선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대화에 참여할것을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그들에게 언제나 차별없이 문을 열어놓고있다. 그리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남조선의 어느 정당, 단체, 당파나 계급계층의 대표들과도 만나 의견을 나누며 청년학생들이나 평범한 근로자들이라도 평양에 오는것을 환영할것이다.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대표들 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질데 대한 공화국의 폭넓은 협상방침은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를 열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도를 명시한 구국대책이다.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며 통일을 원하는 남조선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은 구국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공화국의 새로운 협상방침에 호응하여나서야 한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의 완화와 평화를 위한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지난 7월 20일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명의로 북남사이의 불가침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국회련석회의를 가질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상설회의는 불가침문제의 토의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의 기초로 될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편지를 통하여 남조선《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련석회의를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진행할데 대한 운영방식과 문제토의방

법, 의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의하였다.

북남국회련석회의가 소집되여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북남관계를 비롯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획기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북남국회련석회의의 소집은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사이의 다각적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놓게 할뿐아니라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다. 또한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오가면서 련석회의를 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교류도 저절로 실현되고 각계 인사들의 래왕도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며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의 길도 트이게 될것이다.

남조선《국회의원》들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한다면 완화와 평화와 통일을 기약하여주는 북남국회련석회의마당에 흔연히 나와야 한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와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북남련석회의제안을 비롯하여 폭넓은 협상제안 그리고 북남국회련석회의제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는 장본인이다.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나라안에 그대로 두고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할수 없을뿐아니라 조국통일의 유리한 전제조건도 마련할수 없다.

지난 기간의 력사적 경험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배후조종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대화와 접촉이 실현된다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으며 통일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가는 조건에서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더는 가로막지 말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이것이 완화와 평화를 위한 대세의 흐름에 맞고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처신하는 길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 *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여전히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확고한 통일의지를 지니고 헌신분투할 때 뚫지 못할 장벽이란 있을수 없다. 온 민족이 하나로 단합하여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한 조국통일의 전망은 확고하다.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도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특히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위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공화국은 기어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여 3천리조국땅우에 통일되고 륭성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김 영 남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자기 발전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창조와 변혁,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투쟁과 전진,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이 행정에서 조국과 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힘있게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자라났으며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우리 조국이 오늘처럼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고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인류해방위업에 무게있는 영향력을 미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조국은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 그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고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이룩한 불멸의 세기적 업적을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에 가득차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적 로정은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한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은 그 정치경제적 위력과 옳바른 대내외정책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정치, 경제적인 위력과 옳바른 대내외정책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담보할수 없으며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해나갈수 없다.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고있는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조선은 뒤떨어졌던탓으로 식민지렬강들의 흥정판에서 롱락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전락되여 수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은 세계지도에서 이름조차 찾아볼수 없었고 온 강산에는 나라잃은 인민들의 설음만이 차고넘치였다.

그러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세기적 변혁을 이룩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영예를 떨치는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것은 참으로 세계사적인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변혁에 대하여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으며 그것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령도적 권위이다.

조국이 얼마나 높은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며 위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수령의 위대성, 수령의 령도적 권위와 잇닿아있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개척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심으로 하여 높은 국제적 권위를 지니고계신다. 오늘 세계의 관심이 조선에 쏠리고 우리 조국이 《주체사상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절대적인 령도적 권위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체시대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페지)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시대와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사상리론의 뇌수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곧 사상리론의 위대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혁명적 변혁과정에 거대한 전변을 가져온 불멸의 공적으로 되며 세계혁명위업에 이바지한 력사적 업적으로 된다.

사상의 혁명성과 위대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근본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모든 인민들에게 온갖 계급적 착취와 억압, 민족적 및 사회적 예속과 불평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공인된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사람들에게 주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받아안고 투쟁과 승리의 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로 싸우는 인민들은 자기 운명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온갖 낡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로 수천년동안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억누르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로부터의 사상해방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열쇠가 마련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세계적 사조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요구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우리 시대 인민대중에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참된 길을 밝혀

준 지도적 지침》,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라고 하면서 높이 칭송하고있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근본징표이며 그 무궁무진한 힘과 불패의 생활력의 근본원천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 기치따라 전진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 원칙성, 일관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여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진과 승리의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떠나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투쟁력사에 대하여, 우리 조국이 누리고있는 높은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이 높은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고있는것은 또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여 공산주의운동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불멸의 기여를 하고있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될뿐아니라 세계혁명위업에 대한 귀중한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혁명의 승리는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잘되고 사회주의진지가 튼튼해질 때 전반적 사회주의의 위력이 강화되고 세계혁명의 승리가 촉진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369페지)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매개 로동계급의 국가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성원이다. 매개 나라와 인민의 혁명투쟁은 국제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발전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매개 로동계급의 국가와 인민들은 자기의 구체적인 혁명투쟁을 통하여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으며 그 행정에서 세계혁명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이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투쟁경험과 업적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에서 마련된것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후 최근 수십년동안 혁명과 반혁명이 날카롭게 대치하고있는 지역의 하나이며 조선혁명은 기성의 리론과 경험으로는 풀수 없는 아세아의 뒤떨어진 식민지나라의 혁명으로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함으로써 식민지예속국가들의 해방운동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는 각이한 발전단계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귀중한 경험과 본보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을 그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덤벼들었던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세계사적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이 위대한 승리로 하여 우리 공화국과 인민은 제국

주의자들의 새 세계대전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사회주의동방초소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계기로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급속히 무너지게 되였다.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타승하여 세계인민들을 격동시킨 세계사적사변은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체의 힘을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싸운다면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확대재생산문제를 가장 훌륭히 풀어나가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적 개조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는 력사적 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나라들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독창적인 길, 사회주의혁명을 순조롭게 수행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위대한 사상리론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공산주의의 두 요새인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전략적 목표를 향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밑에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변을 가져왔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지름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재부를 창조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받들고 철저히 관철한 결과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적 진군을 통하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우리 혁명의 주체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꾸려졌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창조적 변혁과 위훈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과시하고있으며 세계 수억만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견인력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불멸의 업적들은 실로 전반적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세기에 빛날 위대한 기여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고있다.

옳바른 대외정책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나라와 민족의 권위와 존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공화국은 대외정책분야에서 자주, 친선, 평화의 기본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그것은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하고있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인류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특히 세계혁명의 강력한 보루인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 형제들인 사회주의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계급적 형제들과의 친선단결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할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는 단결을 위한 부채질만 하였지 단결에 해를 주는 부채질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형제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호상신뢰와 동지적 협조의 정신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는 매우 높은 단계에서 날로 더욱더 좋게 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올해와 최근년간에 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형제나라들에 대한 방문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려는 숭고한 념원을 지니시고 형제나라들을 방문하시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불멸의 기여를 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력사를 힘있게 추동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이다. 이 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세계혁명위업의 승리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안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고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이 운동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성원국으로서 이 운동의 근본원칙과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

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과 그 확대발전을 위하여 독창적으로 밝히신 제반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들을 확고히 틀어쥐고 적극 활동함으로써 이 운동을 강화하고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있다. 우리 나라는 피압박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성의껏 도와주고있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계급적 해방을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로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있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이며 인류의 공동의 념원이다. 인민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바라고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다.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엄숙한 과제이다.

공화국정부는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현시기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막으며 여러가지 핵무기를 축감하며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다.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있으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이 내놓고있는 여러가지 평화적 제안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그 이름을 온 세계에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기치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철의 의지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당의 령도밑에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고있는 우리 인민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

계 웅 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커다란 관심 속에서 전국영웅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구하고 간고한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공화국의 창건 40돐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승리 35돐을 계기로 진행된 전국영웅대회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영웅적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고있는 이 력사적 시기를 맞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를 비롯한 계급적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낸데 대하여서와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 로동으로 이 땅우에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새로운 투쟁 결의를 다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된 긍지높은 인민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력사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발전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거대한 창조적 힘을 가지고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스스로 발휘되는것은 아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여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착취계급사회에서 그들은 력사밖에 서있었으며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었다. 착취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된다는것은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자각하고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으며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될수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이다.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 때라야만 인민대중은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로 될수 있다.

지나온 우리 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피눈물나는 민족수난의 력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살기띤 죽음의 생지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애국적 인민들의 붉은 피가 흐르고있었다. 비분에 찬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항거의 거리에 떨쳐나섰으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그 애국충정을 값있게 바칠수 없었으며 가슴아픈 희생을 남기고 실패를 거듭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민족의 갈망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갈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의 장막속에서 헤매이던 조선인민은 조국광복과 민족재생의 서광을 맞이하게 되였으며 불타는 애국충정을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값있게 바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혁명투쟁의 매 단계마다에서 우리 인민을 영웅적 투쟁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였으며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시고 그들을 항일혁명투쟁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이룩하기 위한 첫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자랑높이 시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준엄한 나날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무비의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조국광복성전에서 불멸의 영웅적 위훈을 떨치였다. 혈전만리 불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영웅적, 위훈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나라 영웅들의 첫 세대로 자라났다.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대강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해방된 조선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당시 조선인민은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고있었으나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인민들에게 새 조국건설의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고 그들을 옳게 이끌어나가는것은 해방된 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애국적 열의를 새 조국 건설에 바치게 하는데서 관건적 문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조선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한데 기초하여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전체 조선인민으로 하

여금 부강한 새 조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건당, 건국, 건군의 3대혁명과업의 제시는 해방된 조선인민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방된 조국에서 당, 국가 및 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로선은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힌 휘황한 등대였으며 부강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의 기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대강에서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게 되였으며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새 조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빛나는 위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를 반대하는 3년간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들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혁명전쟁이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전쟁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군사 전략과 전술, 전법들을 제시하시고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인민군군인들로 하여금 미제를 무찌르는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 대중적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영웅전사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빛나는 위훈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영웅조선으로, 우리 인민은 영웅적 인민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로서의 우리 인민의 영예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굽임없이 간직되고 더욱 높이 떨치게 되였다.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페허우에서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건설하는 간고한 투쟁이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어려운 투쟁이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을 영웅으로 되게 하시고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이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나라를 더 훌륭하고 더 웅장하게 일떠세우는 거창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전후복구건설의 력사적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와 빈궁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영웅적 위훈을 세웠다.

오늘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보람찬 진군길에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혁신자로 굽임없이 자라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

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산주의건설의 투쟁강령으로 제시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인민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정확한 전략전술적 방침들과 투쟁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시고 우리 인민을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 구호의 제시는 인민대중의 혁명성과 전투력, 창조적 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앞에 제시하신 이 전투적 구호들은 그 혁명성과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굽임없는 혁신과 비약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기적의 창조자, 위훈의 창조자로 되게 하시였다.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끌어나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직접 투쟁과업으로 전면에 제기하고 실현해나가는 대중적 진군운동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인간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들은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로, 숨은 영웅으로 훌륭히 자라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류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게 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그들의 심장에 무비의 담력과 강의한 투지를 심어주고 속도전을 사회주의건설의 전투형식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힘찬 진군이 벌어지게 하시였다. 이 장엄한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들의 담이 커지고 투지가 강해졌으며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가 불살라지고 기적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들이 수풀처럼 자라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영웅적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떨칠수 있었으며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남달리 크고 자랑스러운것이다.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으로 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류달리 간고한 혁명의 시련을 헤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전진시켜온데 대한 끝없는 자랑이다.

걸어온 길이 순탄하고 해놓은 일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투쟁의 위훈이 빛날수 없고 긍지와 자부심이 클수 없다. 류달리 간고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굴함없이 싸워 승리의 상상봉에 오른 사람만이 한없는 자부를 느끼게 되며 혁명을 위해 바친 그들의 위훈이 력사에 길이 빛나게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수많은 희생을 동반한 준엄한 길이였으며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한 험난한 길이였다.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이 어렵지 않을수 없지만

우리 혁명은 류달리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맨주먹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무찔러야 하였던 항일혁명투쟁과 해방된지 5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인민이 세계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였던 조국해방전쟁, 재가루만 휼날리는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행하여야 하였던 전후복구건설 그리고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걸으면서 사회적 변혁을 이룩하여야 하였던 사회주의혁명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준엄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면서 멀고도 험한 혁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을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게 하였다. 이것은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뚫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 대한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되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에 대한 자랑이다.

혁명하는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해놓은 고귀한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에 기초하여 간직되게 되는 사상감정이다. 인민이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과 이룩해놓은 재부들은 그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낳게 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들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해놓은 천대를 두고 만대를 두고 노래할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과 재부에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되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크고 값높은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다.

지난날 단결의 구심점이 없어 사분오렬되여 방황하던 우리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운명을 같이하는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인민이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에 있던 이 땅우에 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는 참으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자랑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무적의 힘을 가진 인민으로, 막강한 나라 인민으로서의 그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와 함께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여놓은 자랑높은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식으로 건설하여놓은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에서 크나큰 자부를 느끼고있다. 경제도 문화도 우리 식으로 건설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을 하는 크나큰

자랑이 있다.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고있는 우리 인민의 궁지와 자부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시대와 혁명을 앞당겨나가는데 대한 끝없는 자랑이다.

기적의 창조자들, 영웅들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은 력사를 주름잡고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에도 있다. 이것은 쉼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시대 혁명의 근본요구를 현실로 만드는데 대한 영예이며 영웅적 인민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는데 대한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던 페허에서 불사조와 같이 다시 일떠섰고 남들이 한세기 또는 수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도 단 14년동안에 완수하는 천리마대진군의 영웅서사시도 창조하였으며 흐르는 물도 거꾸로 돌려세워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차넘치게 하고 락후와 가난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아세아의 동방일각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의 삶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선 도시와 마을, 거리와 건축물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려 이룩해놓은 위대한 창조물이다. 최근 몇해사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지펴준 속도전의 세찬 불바람속에서 천리마거리와 문수거리, 창광거리가 일떠서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등이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키돋움하며 솟아났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상은 서해갑문 건설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일떠세운 서해갑문은 20리 날바다우에 현대적인 대구조물을 단 5년동안에 일떠세운 기적과 비약의 결정체이다.

오늘 광복거리와 릉라도경기장 건설장,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태천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80년대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궁지와 자부심은 참으로 큰것이다.

정녕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력사적 로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인민을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의 영웅으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고있는 끝없는 영예와 궁지를 계속 빛내여나가야 한다.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서의 우리 인민의 궁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길에서만이 깊이 간직되고 더욱 빛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온갖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무한한 헌신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비겁성과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영웅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일관성있게 관철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다.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영웅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특질

황 순 희

주체혁명위업의 성스러운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나라는 《영웅의 나라》로, 우리 인민은 《영웅적 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기나긴 로정에서 항일의 영웅들과 공화국영웅들, 로력영웅들과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여 그 대오는 대부대로 자라났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예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웅의 대부대를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모두를 영웅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뜻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서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불멸의 위훈을 세운 영웅들을 따라배워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처럼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려는 각오와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번영,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의 영웅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 위훈을 세운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영웅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들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와 그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전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종국적으로 완성된다.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전사는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최고령도자이며 전사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몸바쳐나선 자각적인 투사이다. 혁명전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였을 때 숭고한 리상과 목적을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의 수령은 충실한 전사들이 많아야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수령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전사들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스승이다. 혁명전사들은 누구나 다 수령의 손길밑에서 혁명의 진리를 배우고 투사로, 영웅으로 자라나게 되며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전사는 자기 운명을 건져주고 인생을 키워주었으며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령에게 충성다하며 수령이 창건하고 이끄는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는것을 혁명적 본분으로, 최대의 사명으로 여기게 된다.

충실한 전사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특질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데 있다. 공산주의혁명가의 값높은 삶과 투쟁, 모든 영예와 행복은 당의 전사, 인민의 충복으로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

바쳐 싸워나가는데 있다. 충성의 일편단심으로 혁명의 수령을 받들고 영웅적인 투쟁으로 당과 공화국을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의 충실한 전사, 조국과 인민의 진정한 아들딸들인 우리 영웅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특질이 있다.

우리의 영웅들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열렬한 혁명가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제일생명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것으로 하여 혁명전사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며 당과 수령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게 된다.

우리 영웅들의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가장 높은 존경과 흠모의 정신으로 일관된 충실성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해나가는 충실성이다. 이것은 우리 영웅들이 지니고있는 충실성의 진실성과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영웅적 위훈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충실성의 높이와 숭고성은 그 진실성과 공고성에 있다. 당과 수령을 성새가 되여 받들자면 충실성이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그것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여야 한다.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여야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변심이 없이 순결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실수 있으며 굽히지 않는 강의한 혁명적 의지로 당과 수령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갈수 있다.

진실하고 공고한 충실성,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충실성은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체험한데 기초하여 형성된다. 사람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체득할 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게 된다.

우리 영웅들의 충실성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형성된 가장 숭고한 충실성이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체현하시고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최고의 높이에서 보여주신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영웅들이 지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절절히 체험한데 기초하여 형성된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혁명전사의 의리로 간직된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충실성으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충실성으로 된다.

우리 영웅들의 충실성은 또한 혁명위업을 개척한 수령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변함없는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충실성,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인것으로 하여 혁명전사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충실성의 구감으로 되고있다.

충실성이 참다운것으로 되자면 혁명

의 길울 개척한 수령과 함께 수령의 위업을 이어나가는 수령의 후계자를 변함없는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실성,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계승되는 충실성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한 충실성만이 가장 공고하고 영원불변한 충실성으로 될수 있다.

우리의 영웅들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지닌 혁명가들이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린 우리 영웅들의 충실성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는데서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우리의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모든 운명을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우리 영웅들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영웅들은 이렇듯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기초하여 변함없이 계승되는 충실성을 지님으로써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 모시는것이다.

우리의 영웅들은 또한 조국애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조국의 운명속에 인민의 운명이 있고 조국의 번영속에 매 개인의 참된 삶과 행복이 있다. 누구나 그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고 행복할수 없는것이 바로 조국이다.

애국심은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사랑, 부모처자와 친척, 친우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애국심이 강한 사람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선다.

력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애국명장들과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을 수많이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우리의 영웅들처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진정한 애국자들은 없다.

우리 영웅들의 애국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조국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이며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다. 이것은 애국심에서 근본핵으로 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만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민의 나라를 세울수 있다.

참다운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강토나 고향이 아니다. 진정한 조국은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고 나서자란 정든곳일뿐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여있는곳이여야 한다. 비록 나서자라기는 하였으나 참된 삶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조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에게는 진정한 조국이 없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빼앗긴 나라를 찾고 그 터전우에 인민의 참다운 조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의 언덕을 혁명적 락관으로 넘나들며 참기 어려운 고통도 견디면서 영웅적으로 싸울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바로 조국의 품이며 그 품속에서만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어머니조국이 태여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이였다. 이러한 확신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의 운명으로 목숨바쳐 모시였던것이다. 이것은 우리 영웅들의 애국심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그처럼 강렬하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여기에 우리 영웅들이 참다운 애국자로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다.

우리 영웅들의 애국심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애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만이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때문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높은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이 결합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다.

우리 영웅들이 간직한 조국애는 바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혁명주권이 있고 자립적 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 국방력이 튼튼히 마련되여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으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영웅들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면서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이룩한 영웅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며 인민들은 그들을 참다운 애국자라고 칭송하는것이다.

항일의 영웅들과 공화국영웅들, 로력영웅들과 숨은 영웅들은 이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닌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우리의 영웅들은 자기들이 지닌 이러한 숭고한 사상정신적 특질로 하여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고있는것이다.

당과 공화국을 창건하고 수호하며 강화발전시켜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불패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영웅적 투쟁으로 당과 수령, 조국을 받들어온 우리 영웅들의 충성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인민이 낳은 영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과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다.

김혁, 차광수 동지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었던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어 열혈청년들과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하였다. 그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신것은 그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니며 앞날에 차례질 명예나 공명을 생각해서 한것도 아니였다. 곡절많은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피의 교훈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은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령도자로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에만 조국을 광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드팀없는 확신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목숨으로 헤치나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그 길에서 자

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과감한 실천활동은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당과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가르쳐준 산 모범으로 된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영웅적으로 살며 싸웠다. 사령부로 가장하여 적들을 유인소탕함으로써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보위한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념원은 오직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안녕이였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광복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본것이였다. 이렇듯 고결한 혁명정신을 지님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식량도 피복도 무장도 투쟁으로 갖추고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나들면서 강도 일제와 싸우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충성의 맹세를 지켜 영웅적으로 싸웠던것이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이 끊임없이 자라나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왔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세계반동들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혁명전쟁이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전쟁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의 싸움이였으나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계심으로써 전쟁을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드높이 대중적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은 수적으로 대비할수 없이 우세한 미제침략사들과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하게 싸웠으며 1211고지 방위자들은 적들의 포화에 바위가 부서져 내려앉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조국의 고지를 끝내 지켜냈다. 리수복, 김창걸 영웅을 비롯한 공화국영웅들은 전투의 어려운 순간에 불뿜는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속에 뛰여들어가 원쑤들을 소멸하였다. 전투영웅들의 빛나는 위훈은 인민군장병들을 무한히 고무하였을뿐아니라 후방인민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 로력투쟁에로 힘있게 궐기시켰다.

이처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의 영웅들과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불패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당과 공화국을 지켜 싸움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튼튼히 고수하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페허우에서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건설하는 간고한 투쟁이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이였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나섰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영웅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면서 당과 수령의 권위를 튼튼히 옹호보위하였다. 강철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한 강선의 로동계급, 위대한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당과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든 태성할머니, 이런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충성심을 지니였기에 우리의 영웅들과 영웅적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소극과 보수를 짓부시면서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높이 받들고 그것을 실현해나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들은 모두가 우리 당을 높이 받들고 옹호보위하는 거창한 시대의 흐름에 충성의 마음을 합치고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항일혁명의 불길속을 헤쳐온 로혁명가들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락동강을 건느면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운 영웅전사들도 다같이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옹호보위하고 받드는 불패의 성새가 되고있으며 로동당시대에 태여난 새 세대들도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충성다하고있다.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20리 날바다우에 거창하게 일떠선 서해갑문, 새로 방대한 규모로 일떠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광복거리 등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은 우리 당을 받들어나가는 우리의 영웅들과 전체 인민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높고 숭고한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 영웅들과 숨은 영웅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영웅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전체 인민이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어나가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0여성상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면서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인민의 평범한 아들딸들을 간고한 시련과 보람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혁명적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지난날 가난하고 무력하던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속에서 《영웅의 나라》로 높이 칭송받는 위력하고 존엄있는 나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전체 인민이 무비의 담력과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높은 혁명성과 견결성, 불굴의 영웅적 기개를 떨쳐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으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위용을 공지높이 떨치게 하여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영웅으로부터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대건설 시기의 영웅으로, 오늘의 숨은 영웅들로 그 대오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은 영웅들을 많이 가지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영웅적 인민으로 자라나고 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하며 륭성번영하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력사적 시기에 우리 당은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영웅들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구호를 들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여 받들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자

박 남 기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전국영웅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국영웅대회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소한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영웅적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전국영웅대회는 특히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그 기백으로, 200일전투를 벌리던 그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를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면서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결정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이 보람찬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988년, 단행본, 3~4페지)

200일전투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며 나아가서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장엄한 전투였다.

우리 혁명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력사적 시기에 벌어진 200일전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그 첫 시작부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

20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진척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는 전례없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와 평양시 중요대상 건설이 적극 추진되였다. 그리고 철도의 전기화, 중량화를 실현하며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은 보다 튼튼히 다져지고 그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200일전투를 통하여 경제건설에서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였을뿐아니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모두가 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튼튼히 가지

게 되였다.

200일전투에서 이룩된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과이다. 그것은 또한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성, 전투력이 낳은 자랑찬 열매이다.

200일전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렇듯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200일전투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 인민이 200일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는 대단히 크고 자랑스러운것이다. 우리는 이 커다란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계속 빛내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아직 전진도상에 있으며 우리에게는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한 일들이 더 많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며 갈길은 아직 멀다.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기 위하여 200일전투의 기세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당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혁명투사들과 영웅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고있는것도 바로 200일전투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그 투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것은 원래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을 빨리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끊임없이 전진해나가야 한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도취되여 투쟁을 약화시키거나 전진속도를 늦추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정신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에게는 침체와 답보, 자만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부단한 투쟁과 전진, 창조와 혁신만 있을뿐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언제나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전투적 기백으로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왔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해왔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오늘과 함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작전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펼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혁명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할수 있은 비결의 하나는 바로 우리 당이 계속전진, 계속혁신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해왔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자본주의나라들이 응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과업을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이 련이어 나섬에 따라 1974년의 력사적인 70일전투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전투를 벌렸으며 이 전투들에서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전진함으로써 방대한 6개년계획과 제2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이렇듯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우리 당이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해온 자랑찬 로정으로 빛나고 있다.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적 투쟁기풍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난관에 굴하지 않고 성과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영웅적 인민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 혁명적 투쟁기풍은 남보다 빨리 달려나가려는 지향과 념원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남보다 더 어렵게 살았고 남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혁명을 해왔기때문에 매우 근면하고 강의하며 혁명성이 특별히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언제나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걷는 기세로 한시도 멈춰서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려고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적 기백으로 투쟁함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왔다.

현시기 200일전투의 기세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것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켜야 한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맡겨진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완수 및 초과완수하며 생산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야만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다.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200일전투의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선행단계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단계의 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일전투에서 이룩된 성과도 어데까지나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며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밑천으로 된다.

200일전투에서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여 투쟁기세를 늦춘다면 애써 전투를 벌려온 보람이 없어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없게 된다. 혁명사업을 어느 한때 잘한다 하여 그 종국적 승리가 이룩될수 없는것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도 어느 한 시기에만 잘하여서는 큰 은을 나타낼수 없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수많은 유명, 무명의 영웅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혁명적인

투쟁기풍으로, 200일전투를 벌리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우리앞에 나선 당면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새 전망계획의 수행을 위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국영웅대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서 발휘하였던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을 계속 견지하며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고야말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투쟁할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200일전투의 기세를 견지할데 대한 전국영웅대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는것만큼 절대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8페지)

200일전투의 기세로 끊임없이 진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거기에 담겨져있는 당의 의도를 옳게 인식하는것은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고 여러가지 난관들이 앞을 막아나설수 있다.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담겨져있는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아무리 큰 성과에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견지하며 200일전투가 2000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하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전국영웅대회를 열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진의도이다. 우리 당의 이 의도에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위대한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이 반영되여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200일전투의 기세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려는 당의 의도를 옳게 인식하며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요구이며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큰 힘을 넣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0일전투에서 다시한번 확증된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기만 하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빨리 축성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현시기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도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생산정상화에 계속 큰 힘을 넣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준비와 설비관리, 자재보장과 로동조직, 자금보장을 비롯한 기업소내부생산조직과 관련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공장, 기업소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주어진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창발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생산이 정상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소내부생산조직사업을 잘할뿐아니라 석탄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중요공업부문에 힘을 넣어 석탄과 전기, 강재, 세멘트와 같은 중요제품생산을 늘여야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기본건설도 잘해나갈수 있다.

중요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협동생산, 수송조직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협동생산, 수송조직은 자재보장과 함께 생산정상화의 기본요인이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기본고리이다. 인민경제의 지도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협동생산을 더욱 개선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듦으로써 전반적인 인민경제적 범위에서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생산과정을 튼튼히 틀어쥐고 달라지는 정황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진행하여 수출품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우리 시대에 와서 지나온 여러 세기들과는 비할바없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200일전투의 기세로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 계속혁신할수 없으며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행정지도사업을 따라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세부적으로 맞물려주고 필요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과학지도일군들은 과학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바로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기관들사이, 과학연구기관들과 고등교육기관들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은 혁명과 건설을 계속 전진시키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없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수 없으며 패배주의에 빠져 혁명과 건설을 망칠수 있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맨몸까지 무장한 일제와 싸워이기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던것은 그들모두가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였기때문이였다.

우리앞에 제3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내외의 정세가 매우 긴장하고 복잡한 오늘 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래야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200일전투의 기세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의 일군들은 무슨 일이든지 통이 크게 결심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해내는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특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 기풍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온갖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감으로써 20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열정, 그 투지를 계속 견지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벌려온 영웅적 투쟁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와 결부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몸소 앞장에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을 따라배워 오늘의 전인민적인 영웅적 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함으로써 온갖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무한한 헌신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비겁성과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영웅적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200일전투의 기세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조선문제는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

리 기 섭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가까와오고있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는 첨예한 정치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으며 세계는 전쟁의 문어구에 이르는 위험한 국면을 겪기도 하였다. 진보적 인류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국제정치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오늘 국제관계는 완화의 추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완화에로 지향하는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의연히 긴장성이 지속되고있으며 전쟁의 검은 구름이 가셔지지 않고있다.

인류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며 세계 선량한 인민들을 괴롭히는 전쟁의 위험이 조선반도에서 제거되지 않고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는것은 도저히 참을수 없는 일이다.

조선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국제정치무대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다.

*　　*

조선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조선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여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60페지)

조선문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의하여 산생된 심각한 정치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군대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밑에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을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놓았다.

원래 조선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도 아니며 패전국도 아니다.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밑에 있다가 해방을 이룩한 나라이다. 해방된 조선은 응당 하나의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하여야 할것이였다. 우리 나라는 분렬될 아무런 리유와 조건도 없었다.

조선의 분렬과 조선문제의 발생은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세계제패전략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의 지위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들은 조선반도를 《대륙교두보》, 《대륙관문》으로 보고 《미국이 아세아를 손에 넣지 못하면 세계를 잃어버리며 조선이라는 단검을 틀어쥐여야 아세아대륙을 마음대로 베여먹을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곳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지배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아세아대륙을 제패하려고 광분하였다.

조선에서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돌가구를 열리는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민족해방력량과 제국주의지배세력, 사회주의력량과 제국주의세력, 평화애호력량과 침략전쟁세력사이의 대

결의 결절점의 하나로 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의 운명과 관련되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미제야말로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하는 흉악한 침략자이며 조선문제를 첨예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오늘 핵우세로써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으며 인류는 핵참화의 위험에 직면하고있다. 핵전쟁을 방지하지 못하면 인류는 돌이킬수 없는 재난과 참화를 겪게 될것이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와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방대한 핵무기저장고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지금 남조선에는 중성자탄을 비롯하여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배치되여있다. 남조선에 반입전개된 핵무기는 미국이 아세아지상전체에 배비한 핵무기총량의 절반을 훨씬 넘으며 남조선은 핵무기배치밀도에서 나토지역보다 4배나 더 높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것으로써도 부족하여 최근에 1,500개의 핵탄두와 핵운반수단들로 장비된 제7함대의 작전수역중심을 조선동해에로 옮겼으며 《퍼싱2》중거리핵미싸일과 지상발사순항미싸일의 남조선배치를 결정하고 그 전개를 위한 부대시설들을 반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종 핵무기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 해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미제가 해마다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단순한 《년례훈련》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이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에 《올림픽안전》이라는 구실밑에 반공화국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미제는 《팀 스피리트 88》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되였던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침략무력을 계속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배치하고있을뿐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주둔 미군비행대와 침략무력까지 항시적인 《긴급출동태세》를 갖추게 하였으며 올림픽경기기간에 일본《자위대》무력을 끌어들여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체육경기대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 임의의 시각에 공격하기 위한것이다.

미제에 의한 남조선의 핵전초기지화와 남조선에서의 핵전쟁준비는 우리 공화국뿐아니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것이다. 남조선에 배치되여있는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은 파괴력으로 보나 사정거리로 보아 공화국북반부를 훨씬 벗어나 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공격대상으로 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하다. 남조선에 배비되여있는 이러한 무기들은 결코 그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각에 모험적인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것이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세계적인 전쟁,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으며 세계인민들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가져다줄수 있다.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위협하는 핵전쟁은 어떻게 하나 방지되여야 하며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지구우에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오늘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자면 그 발원지들을 제거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핵전쟁의 발원지들을 두고서는 핵전쟁의 실제적인 위험성을 가실수 없으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인류를 핵참화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할수 없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초미의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9페지)

지난 40여년동안 미제는 조선에서 분렬과 긴장, 전쟁의 길로 나갔지만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전체 인민이 평화롭게 사는 통일된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는 평화애호적인 인민이다. 막대한 재부가 대결에 소모되고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불안한 정세가 한정없이 계속되는것을 우리는 결코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온 강토와 민족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이미이마한 사태가 조국땅우에 빚어지는것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미제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인한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과 인내성의 결과인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감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1984년에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1987년에는 대규모적인 단계별 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기하고 10만명의 조선인민군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들어와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련석회의가 소집되기전이라도 북과 남의 각 당, 각 파, 각계층 대표들 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협상방침을 제기하였다.

만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제안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였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긴장한 정세가 이미 완화되고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였을것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큰걸음을 내디디였을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외면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로선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의 구실을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침략》에서 찾고있다.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남침위협》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북침위협만이 있다. 침략의

위협은 언제나 제국주의로부터 오는것이지 결코 사회주의로부터 오는것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표명하지 않았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러한 립장은 공화국정부의 수많은 평화제안들에 의하여 명백히 담보되여있으며 지난 수십년동안의 력사적 사실에 의하여 이미 그 진실성이 확인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저들의 무력증강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격화의 일로를 걷고 전쟁의 위협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이른바 《북으로부터의 침략》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제의 북침위협, 새 전쟁 도발책동에 있다. 우리는 온 강토를 일촉즉발의 긴장한 상태에 몰아넣은 정세가 조성된 때에도 결코 대결과 전쟁의 길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평화의 길로 나갔다. 이것은 세계의 공정한 사회계가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철수시키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위협을 조성하는 근본요인이며 조선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모두 끌어내가야 하며 미국군대가 철수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외국군대들이 철수하는것이 국제적으로 일정에 오르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고 미국안에서도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주장이 대두하고있는 오늘 미국이 계속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두어둘 그 어떤 구실도 있을수 없다.

더우기 미국은 비핵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치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만들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남조선에 배비된 핵무기들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것이라면 미국은 쏘련과 핵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조건에서 응당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대결과 전쟁의 길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가야 하며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제기한 북남국회련석회의소집방안과 조미국회회담방안은 조선의 평화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중대한 발기로 된다. 북남국회련석회의와 조미국회회담이 열리고 여기에서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이 협의발표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서 조미국회들이 협력할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이 협의해결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한 장애로 되는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은 조선의 북과 남을 서로 다른 두개 나라로 영구히 갈라놓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려는 극악한 분렬정책이며 남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아세아대륙을 제패하려는 모험적인 전쟁정책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국토분단의 장벽은 더 높이 쌓이고 단일민족인 우리 조선인민은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하여있다. 오늘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보다 더 위험한것은 없으며 이것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허용할수 없다.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지고말것이고 남조선은 계속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남아있게 될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가셔지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족의 근본리익을 위해서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서도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여야 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저지파탄되여야 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면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과 《교차접촉》, 《교차승인》안을 비롯한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은 결코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의 군사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경제적 예속밑에 있는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정권》은 독자적인 《정권》이 아니라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이다.

남조선의 현 《정권》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상류례없는 부정협잡선거에 의하여 조작된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군사독재《정권》으로서 독립국가들이 상종한 대상이 못된다.

로태우일당은 미제의 사촉밑에 이른바 《7.7선언》이라는것을 내놓고 대내적으로는 북과 남사이에 교류나 하고 장사나 하면서 껄렁껄렁 세월을 보내여 분렬을 고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북과 남의 《우방국》들과 각기 교차접촉관계를 실현하여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올림픽경기를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교섭하며 래왕하여 저들에 대한 《인정》을 얻고 《교차승인》의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뒤받침밑에 남조선괴뢰들이 《북방외교》와 《비동맹국외교》를 고창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에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국토분단과 민족분렬을 고정화하려는 매국적 책동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북방외교》와 《비동맹국외교》를 통하여 저들의 몸값을 올리고 국제적 고립을 면하며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사이의 친선단결에 금이 가게 할것을 꾀하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음모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고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공동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협조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조선문제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의 한 고리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조선문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정책을 존중하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

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지난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시종일관하게 지지성원하여주었다.

그들은 오늘도 전투적 련대성과 혁명적 의리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은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사촉밑에 자기 나라들에 침투하여 《교차접촉》과 《교차승인》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남조선괴뢰들의 시도를 반대배격하고있으며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남조선괴뢰들과는 그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 자기들의 원칙적 립장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고 남조선괴뢰들을 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한 일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제안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 련대성운동도 날을 따라 더욱더 확대발전되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심중한 타격으로 된다.

전조선을 지배하고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시대착오적인 침략야망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고 새 전쟁, 열핵전쟁을 도발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9호 (루계 557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8년 9월 6일 발 행• 1988년 9월 7일

ㄱ—85149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10호 (55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 일 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 보고대회에서 한 보고 1988년 9월 8일)

동지들!

존경하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외국의 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외래제국주의지배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사회주의조국의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국적 열성을 다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이자리에는 우리의 국경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대표단들과 외국의 친근한 벗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당과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이자리에 참석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친선의 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모든 친선적인 나라 정부와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항일투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자기의 고귀한 생애를 바쳤습니다. 나는 이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이래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활짝 꽃펴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서 날로 더욱 륭성번영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1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위한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깊은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났습니다.

항일혁명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세움으로써 조국해방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것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는 류례없이 엄혹한 조건에서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와 싸웠을뿐아니라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종파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어려운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종파사대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렸으며 우리 혁명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하였습니다.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준엄한 환경에서도 혁명대오를 굽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갈수 있었으며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새 조국 건설에서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였으나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창조된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지체없이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과 정규무력을 건설할수 있었으며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해방후 우리 인민의 창조적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민주건설의 빛나는 성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의 튼튼한 기초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보루로 거연히 솟아오른것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 밑에서 신음하는 아세아와 세계 피압박인민들을 해방투쟁에로 고무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력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40년동안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뚫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세계제국주의원흉인 미제의 침략과 굽임없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공화국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나라가 분렬되고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어려운 조건에서 자력갱

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거창한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인민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힘있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주적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으며 혁명적 의리와 동지적 사랑으로 굳게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이 내세운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투쟁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물질문화적 조건과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창조하였고 자주적 인간의 가치와 삶의 참된 보람을 누리는 오늘의 생활에 대하여 끝없는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있으며 후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창조적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생활이야말로 온갖 사회악을 모르는 참다운 사회주의적 생활이며 그것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수 없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입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의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참다운 어머니품이고 행복의 요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이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은것은 언제나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계속혁명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였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기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근본립장은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입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며 조선혁명의 임무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옳바른 길은 오직 우리 인민자신이 조선혁명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길은 험난하고 복잡하였으며 우리앞에는 기존공식으로는 풀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과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일관성있게 견지한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혁명과 건설을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승리적으로 이끌어올수 있은 근본요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하여온것은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원대한 력사적 위업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련이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혁명을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합니다. 계속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려는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주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실현하며 동시에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원칙에서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민경제가 전면적으로 파괴된 특수한 조건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한 조건에서도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였을 때에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혁명적 변혁을 능히 실현할수 있으며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도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 우월성에 의거할 때 더 빨리 추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어떻게 개척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중한 문제였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위대한 력사적 변혁으로 되지만 그것으로 혁명이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과도적 사회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전진할수 있었으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우리가 언제나 선차적 힘을 넣은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것이였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운동입니다. 혁명의 승패는 그 주체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의식화, 조직화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우리가 체득한 혁명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사상생활을 하며 누구나 다 일정한 형태의 교육체계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높은 혁명성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되게 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일관하게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국가활동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였습니다.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력량으로 다져놓은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40년의 력사는 참으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내외원쑤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자주적 인민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보람찬 삶이 약동하고 혁명적 기상이 나래치는 사회주의 새 생활을 꽃피워온 위대한 창조의 력사입니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혀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륭성번영하는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된 오늘 우리는 지난 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혁명적 립장과 자주적 로선에 대하여,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력사의 새 길을 창조적으로 개척하여온 보람찬 투쟁과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으며 떳떳이 자랑할수 있습니다.

2

동지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력사적 사명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된 인류의 리상사회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야 하며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의 3대분야이며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으로 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방도입니다. 자연과 사람과 사회관계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찌기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공식을 내놓았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 우리는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에 따라 자연과 사람과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대중의 사회주의경제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자연개조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창조적 활동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자연개조사업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유족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공화국정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은 인민들

의 식의주문제를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는것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물질생활과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로동생활은 인민들의 경제생활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며 그에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끝임없이 높아집니다.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풀고 로동조건을 개선해나가는 원칙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됩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인민생활을 높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입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중요제품생산에서 거대한 량적 장성이 이루어지게 될뿐아니라 인민생활을 높이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서 새로운 질적 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현시기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것은 농업을 발전시키는것이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켜야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업을 공업화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높이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강령입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기계화, 화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가까운 년간에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농촌기술혁명의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빨리 높이며 축산업, 과수업, 잠업을 비롯하여 농촌경리를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과 경공업,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에 의거하는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경공업의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좋은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어 물고기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경제적 효과성이 높고 발전전망이 큰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현대적인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며 도시뿐아니라 농촌마을도

중앙난방화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기간공업과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며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를 중량화, 현대화하고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발전시키며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가 이미 마련하여놓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커다란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세계 선진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력사적인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대중적 혁신운동을 계속 힘차게 벌려 제3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나라가 세계 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들어서려면 먼저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원칙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생산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고 농업과 수산업을 현대생물학의 성과에 토대하여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의 연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열동력문제를 원만히 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본위주의를 없애고 과학연구기관과 생산기업소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활발히 하여 나라의 과학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는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계획경제입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를 높여 인민대중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이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대표하는 최고정치조직으로서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경제정책을 세우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의 정치적 지도밑에 국가경제기관들은 객관적 경제법칙과 정확한 경제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를 과학기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여야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과학성과 효과성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운영될수 있으며 전반적 경제 부문과 단위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개별적 단위들이 서로 실정이 다르고 특성이 있는것만큼 그에 맞게 매개 단위들의 창발성을 발양시켜야 예비와 잠재력을 널리 동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매개 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발양시키며 경제를 조화롭고 활력있게 발전시키는 가장 옳바른 길입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를 옳게 결합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므로 대중의 요구와 집체적 의사가 구현되도록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켜야 하며 동시에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지휘를 유일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지휘를 유일적으로 하여야 관

료주의와 주관주의를 없애고 근로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으며 무규률성을 없애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능률적으로 해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정치도덕적 요구와 물질적 요구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얼마나 높이 빈양시키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이 두가지 요구를 어떻게 자극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만큼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합니다.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입니다.

우리 당이 창조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사회주의적 사상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워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입니다. 사회발전과정은 본질상 인간의 발전과정이며 사회발전수준은 결국 인간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인간의 활동이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지만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것도 사람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것도 사람인것만큼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임무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것입니다.

사회적 인간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것만큼 인간개조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기자신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결합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수 있으며 원대한 리상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자주사상이며 인류의 완전한 해방과 세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를 주는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적 원칙과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지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굳은 확신과 신심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자주적 립장에서 조선혁명을 수행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장기성을 띠고 혁명의 세대가 끊임없이 바뀌는 조건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 량식을 끊임없이 섭취하여야 하며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성과 조직성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데서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민족의 문명정도와 나라의 발전수준도 결국은 과학과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현시기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자들의 역할을 높여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발양시키며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켜 당의 온 사회 인테리화방침을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을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도록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개화발전하고있는 문학예술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과 참된 인간의 고상한 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을 형상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린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광범한 대중이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건장한 체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이 무병장수하며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개조사업을 다그쳐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정치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 활동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의 발전정도에 맞게 개조되여야 하며 사회개조사업은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업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야 하며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문화제도를 계속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를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사회개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제도를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정치의 기능을 높여야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제도와 문화제도를 개조하는 사업도 잘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정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체현하고있는 정치적 참모부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게 활동할수 있습니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정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당정책의 집행자라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활동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이 행정대행을 없애고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관리체계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전반적인 국가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권한과 인민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의무를 지닌 나라의 호주입니다.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바로하여야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을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인민의 정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이 혁명의 보위자, 사회의 관리자로서의 기능과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인민정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법은 인민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모든 사람들이 의

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공동의 행동규범입니다. 국가의 법과 규범들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하고 완성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경제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이며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정치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본방도로 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전체 인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접대성하여 정책을 세우고 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며 사회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회공동의 리익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원만히 보장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적극 옹호하며 그들의 창조적 의견을 존중하고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로선은 정확하며 목표는 뚜렷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빨리 달려나갈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여있고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고 보다 큰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게 될것입니다.

3

동지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수천년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인민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져야 할 내적 필연성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렬된것도 오늘까지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도 다 외래제국주의의 간섭과 방해 책동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우리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위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선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고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민들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입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고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을 위한것이며 따라서 개별적 계급과 계층의 리익은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길만이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전민족

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옳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제의 대조선정책은 미국의 아세아, 태평양전략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남조선을 틀어쥐고 미국, 일본, 남조선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전략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습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론의하는것은 기만적인 공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기간 민족적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1960년의 4월인민봉기와 1980년의 광주인민봉기 그리고 지난해에 있은 6월인민항쟁은 그 어떤 포악한 원쑤들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조선민족의 강의한 자주정신과 기개를 보여준 영웅적 투쟁이였으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력사적 계기로 되였습니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각성된 남조선인민들은 공격의 화살을 점차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로 돌리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숭미, 공미 사상에서 벗어나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였으며 투쟁의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보다 조직화된 대중적인 투쟁에로 나아가게 된것은 그들의 해방투쟁사에서 중요한 전환으로 됩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민족해방의 옳바른 궤도를 따라 나아가고있습니다.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그들의 용감한 투쟁은 내외의 관심과 성원속에서 날로 더욱 발전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인민들을 기

만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저들의 파쑈적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온 민족이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때에 통일의 기치밑에 일떠선 순진한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자들은 마땅히 민족반역의 무리로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탄압과 모략 책동을 짓부시고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필수적인 조건으로 됩니다.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배치하고있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전쟁위험이 커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제기한 조미간의 평화협상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립장과 관련되여있습니다.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남조선강점의 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선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조미협상에 응해나서야 할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민족은 그자신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미국인민의 커다란 수치로 되며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은 미국인민에게 있어서 막대한 부담으로 될뿐아니라 파국적인 재난의 근원으로 됩니다. 미국의 선량한 인민들과 앞을 내다볼줄 아는 리성적인 정치가들은 마땅히 미제의 침략정책이 가져오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할것이며 미국의 침략적인 대

조선정책과 세계제패전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질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는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통일은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립장이며 분렬은 외세의존, 매국배족의 립장입니다. 통일을 갈망하는 전민족의 의사를 배반하고 외세에 추종하여 분렬을 고정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의 마당을 리용하려 하는것은 허용될수 없습니다.

북남대화에서는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통일의 근본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군사문제를 회피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전면에 들고나오는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시간을 끌어 통일을 방해하려는 분렬주의적 책동으로서 규탄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는 전민족의 요구와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대화는 당국자들이나 개별적 당파의 독점물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대화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뿐아니라 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인 접촉과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의 최고위급 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일찌기 우리가 발기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북남최고위급 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그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련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같은것을 창설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해결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평양에 찾아오는데 대해서는 환영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문제를 독자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할수 있는 권능도 없이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시키기 위한 문제나 론의하려 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만나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이 실현되여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에 합류해나서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자체가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4

동지들!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의 시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붕괴되여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출현함으로써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의 자주력량이 장성강화되는데 따라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습니다. 오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자주성을 반대하는 국제반동들사이의 대립과 투쟁은 시대적 흐름의 기본내용으로 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

자주성은 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일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나아가서 인류공동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자주성이 보장되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여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려면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오늘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따라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은 매개 나라 인민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어떤 사상과 제도에 의거하여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 인민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인류공동의 운명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인류사회가 발전할수록 국제적 련관관계는 더욱 밀접하여집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온 세계가 자주화될 때 모든 나라 인민들은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기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습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인답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되는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세력입니다.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여 련합된 세력으로 재편성된 현대제국주의는 자주화의 시대적 흐름을 가로막고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여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의 정의로운 위업을 방해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려 세계평화를 위협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는 그 침략적, 략탈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날로 더욱 교활해지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를 퍼뜨리면서 다른 나라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건전한 사상문화적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 이것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리념이며 활동원칙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자주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지난 40년동안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참으로 복잡하였으며 국제정세에서는 예견치 않았던 격동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습니다. 첨예하고 복잡다단한 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가 확대발전되였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 련대성이 끊임없이 강화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친선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줍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계속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입니다.

자주적 립장은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그것은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관계의 기초로 됩니다.

우리는 대외관계에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주권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을 척도로 하여 평가하고 처리하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됩니다. 전쟁은 약육강식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며 평화는 동지적 단결과 협조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은 한결같이 전쟁을 반대하고있으며 평화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고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현시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핵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군대와 침략적 군사기지들을 철수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와 아세아지역에서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며 세계평화애호력량과 단결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핵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라들의 건설적인 발기와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여러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간섭 책동을 견결히 규탄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가장 위력한 력량입니다. 우리는 자주성과 동지적 협조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반제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구현하고있는 정의로운 국제적 운동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일치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이 나아가는 길은 곧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으로서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단결하며 이 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리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는데 복무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날로 심화되는 빈부의 차이를 없앨수 없으며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적 자립과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가 남아있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방해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경제분야에서뿐아니라 정치와 사상문화 분야에서도 남남협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에서 벗어나 공동의 번영을 누리려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심으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관계가 없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오늘 자주, 평화, 친선은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으로, 생활적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온 세계 자주화의 길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며 오히려 저들의 멸망을 촉진시킬뿐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마치도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수 있는듯이 허장성세하지만 현대제국주의위기는 날로 더욱 심화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으로 련합된

독점자본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면 할수록,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에 매달려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자주와 평화를 요구하는 세계 인민들의 더 큰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자체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침략과 략탈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위기에서 벗어날 출로가 없으며 제국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책동을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불패의 혁명적 당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여온 당창건위업을 완성한 력사적 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위대한 전투부대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 기초를 쌓은 백전백승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들에게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고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는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으며 당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변함없는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것은 우리 당과 사회의 자랑스러운 혁명적 풍모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 뉴대의 공고성과 그 불패의 위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 뉴대의 위대한 혁명적 풍모를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 *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 원천이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수령을 최고뇌수로 하고 당을 중추로 하는 이 사회정치적 집단에서 당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믿고 사랑하며 그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한다. 그리고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간다. 수령, 당, 대중 사이에는 고락을 같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 숭고한 혁명적 뉴대가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을 지닐 때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인 수령과 그 중추인 당을 충성으로 받들고 운명을 같이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확고한 군중적 지반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당이 튼튼한 군중적 지반을 가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존망, 혁명위업의 승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군중과의 련계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한 당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으며 하나의 공중루각과 같은 존재로밖에 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확고히 쟁취하는것을 당사업,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투쟁함으로써 대중과의 혈연적 뉴대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뉴대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전취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중과의 사업이 끊임없이 개선강화되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이 철저히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됨으로써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는 그 어느때보다도 깊어졌으며 당과 대중의 혈연적 뉴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을 지니고있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전사회적인 풍모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 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291페지)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드팀없는 신념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을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다해나가는데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간직하고있는 불변의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혁명적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사활적 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기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서 충성다해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풍모는 무엇보다도 당을 견결히 옹호하며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발현되고있다.

당을 옹호하고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안에서 수령과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적 인간의 가장 고상한 풍모이다.

사람들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혁명과 건설에서 당과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가질 때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지니고 개인의 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그 중추를 이루는 당의 령도를 절대화하고 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이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담보되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있어야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빛날수 있는것만큼 당을 옹호보위하고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

는것은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혁명적 본분으로 된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을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당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고상한 풍모를 지닌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신뢰의 숭고한 풍모를 지니였기에 엄혹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당을 받들어나가는데서 무비의 영웅적 위훈을 발휘하였다.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필승의 신념을 다지였으며 불타는 고지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던 어려운 나날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옹호보위하는데서 말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였다.

당을 옹호보위하고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풍모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난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용감히 싸워온 로투사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불타는 조국의 고지들을 지켜 영웅하게 투쟁한 영웅전사들, 로동당시대에 태여난 새 세대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걸어갈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고 당을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는 또한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사회정치적 집단은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뭉친 조직사상적 통일체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는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인간의 생존방식이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조건이다.

사람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결속됨으로써 사회정치적 집단과 자기자신을 결합시킬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집단과 자기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기저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가 놓여있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자기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해서만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 이룩될수 있다. 절대적인 신뢰는 단결을 낳으며 혁명대오를 하나로 굳게 결속시키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참다운 일심단결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당과 대중의 혈연적인 뉴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당을 절대적으로 끝없이 신뢰하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자기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지키고 끝없이 다져나가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이 불패의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확신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영웅적 위훈과 변혁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올수 있었다.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풍모는 또한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 방침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마음속으로부터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실천적 발현으로 된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이 없이는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질수 없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내놓는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이 어려운 과업을 어떻게 훌륭히 완수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이 당에 대한 신뢰의 사상감정이 얼마나 투철한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에 대한 신뢰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당의 령도적 권위를 절대화하고 당의 령도따라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있기때문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을 혁명적 본분으로, 더없는 영예로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지니고있기에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200일전투기간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일어난 위대한 변혁들 그리고 오늘 전국영웅대회의 호소를 받들고 온 나라의 대건설장들에서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온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숭고한 풍모는 이렇듯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투쟁하며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되여있는데서 나타나는 위대한 풍모이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이 그처럼 순결하고 공고한것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체험과 당의 인민적 정책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험한데로부터 형성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험한 사람일수록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깊이 간직하게 된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조국과 민족, 자기자신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혁명하게 이끄시여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여

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인민을 높은 자주정신과 자부심을 가진 긍지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경탄하여마지 않는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고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자랑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력사적 로정은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민족의 일대 개화기,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온 자랑스러운 년대들로 빛나고있으며 이 행정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고결한 사상감정이 드놀줄 모르는 신념으로 굳게 자리잡게 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은 그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요구와 뗄수 없이 련결된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깊은 신뢰심은 이와 함께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바치는 우리 당의 인민적 정치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였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0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인민의 지향과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속에서 높은 령도적 권위를 지니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우리 당은 어떤 정책을 하나 채택하여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고려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고있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은 공장을 하나 세워도 먼저 인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문제와 철저히 결부시키고있다. 우리 당이 실시한 모든 정책은 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였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사람들에게 가장 값높은 정치적 믿음을 안겨주고 삶의 참다운 보람을 누리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믿음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숭고한 신뢰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당과 수령의 믿음속에서만 사람들은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보호해주고있으며 그들이 영웅이 되여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아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고있다. 모든 사람들을 믿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믿음은 사람들속에 신뢰의 사상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인민은 한없이 고결한 인품, 숭고한 인간애의 성품을 지닌 우리 당을 마음속으로부터 어머니당이라고 부

르며 따사로운 당의 품에 안겨사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는 령도자와 혁명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숭고한 관계를 가장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이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사상감정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풍모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풍모는 일정한 력사적 계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떤 전통을 이어받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의 형성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풍모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은 나라와 혁명, 자기자신의 운명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으며 시련의 고비를 넘고넘으며 용감히 싸웠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계시는 한 그 어떤 엄혹한 난국도 뚫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과 철의 의지를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갔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풍모는 바로 이 위대한 전통을 력사적 뿌리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으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우리 당과 사회의 면모에서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심이 전례없이 높아짐으로써 당과 대중의 혈연적뉴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당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당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인민들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이것이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면모이며 화폭이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에 기초한 필승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길에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위훈탑을 수많이 쌓아올릴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에는 한계가 없으며 시대가 전진하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그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다.

빨리 전진하는 우리 혁명과 안팎의 정세는 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풍모를 전사회적 풍모로 더욱 공고히 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튼튼히 다지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는 인민대중의 풍모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사람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고상한 풍모를 지니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할 때 사람들은 당에 충성다하려는 사상과 관점, 다시말하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사상감정과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사상적

각오와 의지를 가지게 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신뢰심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결속되게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당의 구상에 따라 군중사업방침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 면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전사회적 기풍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군중사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이 위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는것은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의 사상감정을 더욱 두터이하고 당과 대중과의 뗄래야 뗄수 없는 혈연적 뉴대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공산주의혁명가는 인민에게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 본분으로 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 고매한 인민적 품성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당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고 꽃피워나가는 길이 있으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끊임없이 두터이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오는 길에서 우리 당만이 자기들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빛내여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가져다줄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험하였으며 그것을 드틸수 없는 철의 의지로 간직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

우 달 호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오는 과정에 우리 당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완전히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 당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더욱 철석같이 다져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민족의 휘황한 장래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인민들이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신념을 깊이 간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인 동시에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하자면 반드시 령도자를 받드는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혁명적 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어떤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굴함이 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마음의 기둥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령도자에 대한 신념이다. 다시 말하여 혁명적 신념은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을 위하여,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려는 굳은 각오와 확고한 결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며 전진해나가는 수령의 위업, 령도자의 위업이다. 그런것만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자면 령도자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령도자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야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혁명의 한길에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백전백승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신념을 확고히 지닌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이 혁명적 신념은 령도자를 모시고 투쟁하는 과정에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생겨나고 굳어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드팀없는 신념으로써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우리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297페지)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우리 당밖에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대를 이어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가장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사상감정, 혁명적 신념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드놀지 않는 절대적인것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승리의 앞길을 개척해나간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뿌리를 두고있다.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절대적인 신념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들에 의하여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갔다. 그들은 지난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수난과 곡절을 겪던 피어린 투쟁속에서 주체의 기치높이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믿고 따라가야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처음부터 순결하고 열화같은것이였다. 령도자를 믿고 혁명을 해나가겠다는 신념은 이때로부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선으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되였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은 일찌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그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고 계승된것으로 하여 그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에서 추호의 동요없이 억세게 전진하며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걸음마다 백전백승하여올수 있게 한 강력한 사상정신적 원동력으로 되였으며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이 가장 정당한 위업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데 기초하여 형성된것이다.

혁명적 신념은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생활적으로 체험한데 기초하여 간직된 확고한 믿음이다. 그런것만큼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신념을 깊이 간직하자면 실생활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우리 당의 위업은 가장 숭고하고 정당한 위업이다.

혁명위업의 정당성은 중요하게 그 내용과 투쟁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온갖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당이 령도하는 조선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것을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주체혁명위업, 당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고 항일혁명투쟁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설수 있었다.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벗어나 력사상 처음으로 당당한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자주적인 인민으로,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위업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거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실천은 주체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받들어나가는것을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또한 당의 위대성과 은덕을 심장깊이 체득한데로부터 우러나오고있는 신념이다.

당의 위대성과 은덕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당의 령도와 그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생활과 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은덕,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당의 령도와 그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드는 혁명적 신념이 확고부동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끎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당의 위대성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사소한 편향이나 곡절도 없이 승리적으로 령도해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올바른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 서서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언제나 혁명의 진두에 우리 당이 서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아무리 정세가 복잡하고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여도 동요와 주저도 모르고 신심과 투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비상히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한번 하자고 결심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전격적으로 내밀도록 이끎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 진군을 개시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이 쌓아올린 업적들은 더욱더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우리 당이야만로 공산주의미래의 개척자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할수 있게 하였으며 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직할 철석같은 혁명적 신념을 깊이 간직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닌 우리 당은 또한 우리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여 그들이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도록 따뜻이 이끌어주고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오직 당의 품속에서만 순결하게 보존되고 영원히 빛난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들모두의 정치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정치적 생명에 자그마한 흠집이라

도 생길세라 세심히 돌봐주고있다.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살피고 빛내여주는 우리 당의 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사상정신적 로쇠를 모르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살며 일해나가도록 할뿐아니라 일시 혁명의 길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재생의 길을 열어주는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어머니품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품을 일생동안 끝까지 의거하여 살아나가야 할 혁명의 품으로 굳게 확신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오로지 당만을 굳게 믿고 당에 끝까지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우리 당은 우리 인민들에게 오늘의 삶의 보람과 행복뿐아니라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에로 그들을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거기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며 인민생활이 높아질수록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다 높은 목표와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간다.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진두에 우리 당이 서있음으로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으며 온 나라에는 그야말로 류례없는 혁명적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튼튼한 터전이 마련되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가 더욱 앞당겨짐으로써 우리 조국을 더욱 륭성번영하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나가고있다. 날로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이러한 찬란한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당에 대한 신념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며 당의 령도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 나가는 여기에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이처럼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산 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과 한없이 고마운 은덕을 심장깊이 체득한데로부터 우러나오는것으로 하여 가장 투철하고 공고한것으로 된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오늘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로 발현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심단결의 기치밑에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혁명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치는것이다. 혁명은 자기 령도자를 믿고 따르려는 인민대중이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단결된 힘에 의하여 승리해나간다. 때문에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될 때 혁명위업수행에서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이러한 통일단결의 위력은 그 중심인 령도자에 대한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신념의 확고성에 있다. 령도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혁명대오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될수 있다.

조선혁명이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은 반

드시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를 모셔야만 승리한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였다. 일찌기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간고한 혁명투쟁로정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이 통일단결된 위력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온 자랑찬 투쟁행로였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있고 대를 이어 계속해야 할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가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우리 인민은 투쟁속에서 찾고 력사적으로 형성된 이 위대한 신념으로부터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고있는것은 혁명의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랜 세대나 새로 자라난 세대나 한것없이 전체 인민이 이 하나의 지향과 의지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조직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고 싸워나가고 있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굳건히 이어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것이다.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 일심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 큰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고 있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서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당의 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곧 당의 의도와 결정지시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인민들의 혁명적 신념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당의 구상과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는 어떤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한치의 드팀도 없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더없는 기쁨과 보람으로 되고있으며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하는것이 최대의 영예와 행복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풍모이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숭고한 풍모는 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진행한 지난 200일전투에서 남김없이 발양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어렵고 방대한 전투적 과업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날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서해갑문을 건설한 영웅적 인민이기에 200일전투기간에도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광복거리 건설 등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참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험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를 자기의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그리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나가는 인민들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하

여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어떤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또한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며 일해나가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한다는 것은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청춘도 후대들의 행복도 완전히 령도자에게 맡긴다는것이다.

인민들이 자기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하며 모든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신념의 집중적 표현으로 된다. 이것은 전체 인민이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을 지녔을 때 높이 발양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과 혁명의 전도,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도 전적으로 우리 당에 달려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나가는것을 최고의 영예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으며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 당이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당을 먼저 생각하며 일편단심 당만을 믿고 살며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 인민의 이 신념은 그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함이 없이 확고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아무리 어려운 혁명초소에서도 당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며 일편단심 당을 우러러 충성다해나가고있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이처럼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우리 앞에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련이어 나서고있다.

우리는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 어머니품

문 성 술

오늘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 풍모와 대중의 높은 정치적 자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위력은 최근에 전국영웅대회와 공화국창건 40돐대축전에서 다시금 힘있게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높은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여올수 있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적극성을 발휘하여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높일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고 당안에 인민적 품성, 어머니다운 품성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계속 강화발전시키며 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며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여 나가도록 이끌어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늘 세심하게 보살펴주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의 품을 진심으로 어머니품으로 여기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13페지)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다. 어머니당, 이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을 안겨주는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의 높은 칭송이다.

세상에는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다정하고 친근하며 자애에 넘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없다. 아들딸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은 한없이 깊고 따사롭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고 은혜로운것을 어머니와 결부시켜 부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친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당, 인민의 어머니당으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원래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의 견결한 옹호자이며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령도자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과 임무는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청산하고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가 실현된 리상사회, 전체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원만히 실현하자면 인민대중의 어머니당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시대에 와서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당의 믿음직한 지반을 이루고있으며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이란 생각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관철할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당, 인민대중의 어머니당으로 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머니당의 근본표징은 아들딸들을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키우는 친어머니와 같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데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관심사는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문제이다. 운명문제란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개척되고 유지되며 끝을 맺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과 후대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걸을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주고 보살펴주는 품에 안기는것을 제일 큰 행복으로 여기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어머니당으로 되려면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전체 인민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그들의 모든 생활과 전도에 대하여 따뜻이 보살피고 돌봐주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핀다는것은 중요하게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며 빛내여준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값있고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담보하여주는것도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보통의 생명체들과는 달리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있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곧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담보하여준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자주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란 곧 그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하

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한계를 가지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 사람들이 흔히 길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하는것은 곧 육체적 생명이 한계를 가진다는것을 표현하는것이다. 육체적 생명은 개인들의 육체와 운명을 같이하기때문에 한계를 가질뿐아니라 그자체가 결코 긴것도 아니다. 유구한 인류력사에 비하여볼 때 개별적 사람들의 일생은 사실상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 집단과 운명을 같이하기때문에 인류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며 끝없이 빛나게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육체적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혁명가들의 삶과 투쟁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인민대중의 찬양을 받으면서 영원히 빛나며 후세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이것은 곧 사회정치적 생명이 길지 않은 한생을 가장 값있고 보람있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소원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게 담보하여주면서 영생하는 생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 안겨주며 그것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것은 어머니당인 로동계급의 당이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불멸의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킨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혁명가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유일한 정신적 량식이다. 수령은 또한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거기에 혁명군중을 묶어세우며 그들의 사회정치활동을 조직령도한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조직의 한 성원이 되여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섬으로써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혁명가로 된다. 부모가 없이 사람의 육체적 생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수령의 품을 떠나서는 혁명가들의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 생명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고 영원히 빛나게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정치적으로 굳게 결합된 사회적 집단,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이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는 수령이며 로동계급의 당은 그의 중추를 이룬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모두가 가장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일수 있게 한다.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정치생활을 직접 조직지도하며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에 자그마한 흠집도 생기지 않게 어머니의 손길로 따뜻이 돌봐주고 이끌어준다.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바로 이처럼 따뜻이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품이 없다보니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값없이 피를 흘리고 보람없이 한생을 보내는 일이 많았던것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안았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한길에서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

시하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들을 무으시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을 키우시였다. 우리 인민이 낳은 영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움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멸의 공헌을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그리고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지름길을 개척하는 거창한 실천속에서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키워주시고 온 사회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집단으로, 가장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보살피심에 의하여 지난날 가혹한 민족적 멸시와 천대, 정치적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우리 인민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오늘 우리 당의 품속에서 철저히 보호되고있으며 날을 따라 더욱 빛나고있다. 우리 당의 품은 전체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존엄있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 어머니품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하는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전체 인민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키워나가고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듯이 어머니당인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뿐아니라 협동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고 인민들의 운명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사람들의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영원히 빛나도록 정치사상생활을 세심히 돌보아주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에서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을 보살펴주는 정치적 생명의 기사가 될것을 강조하고있으며 그들이 어머니당의 일군답게 사람과의 사업을 로숙하고 깊이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계속 꽃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오늘 전체 인민은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심을 담아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끝까지 나갈 결의에 불타고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며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의 로정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여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항일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의 이름과 위훈은 오늘도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계속 빛나고있다.

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 주민의 사회적 구성이 매우 복잡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도 각계각층의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당당한 혁명가로,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날수 있었다. 하기에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한결같이 어머니당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이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만 억세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야말로 우리 당을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며 영원히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킨 결정적 요인이며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비상히 높인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우리 당을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으로 계속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안팎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으며 우리의 전망 또한 광활하다. 전국영웅대회와 공화국창건 40돐 대경사축전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세대가 력사와 민족앞에 지니고있는 성스러운 임무인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 기세를 계속 견지하여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면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을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 되는것은 당일군들의 혁명적 본분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듯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세심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참된 어머니당으로 될수 있으며 군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어머니당이라는것은 당일군들이 대중의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일군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당일군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는 대중의 앞장에 서는 투쟁의 기수, 유능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되여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부모는 육체적 생명의 보호자이지만 당일군은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이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우리 당을 참된 어머니당으로 계속 강화발전시킬수 있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오늘 우리의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당의 의도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하며 인민적 품성을 철저히 소유하여야 한다.

당사업은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

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을 맡아하는 정치일군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는 당사업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당일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은 다름아닌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준다.

당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는 당사업에서 행정식 방법의 자그마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당사업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식 방법이 아니라 설복하고 교양하는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람과의 사업자체가 곧 정치사업이다. 당일군들은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에 맞게 행정식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언제나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일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책임적으로 보살피고 이끌어주자면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아량있게 대하여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량있게 대해주어야 그들이 언제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당조직에 허물없이 다 털어놓게 되고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실정을 깊이 알고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고 아량있게 대한다는것은 당적, 로동계급적 립장을 튼튼히 지키면서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편협하거나 옹졸하게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로숙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아들딸들을 따뜻이 돌보듯이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며 누구보다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대중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결이 아니라 안속을 볼줄 알며 매사를 심사숙고하면서 로숙하게 처리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러해야 하지만 특히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는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여러 측면에서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본 다음에 처리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관계속에서 생활하는 자주적 존재인 사람은 하루에 밥을 한두끼 건느는것은 참고견디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손상당하고 차별당하는것은 참지 못한다. 당일군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 현재 일을 잘하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하며 아무리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따돌리는 일이 없이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모두가 다 삶의 보람을 안고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풍을 세우는것은 곧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며 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정치적 생명을 계속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조직관념을 높여나가야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자기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은 당풍을 세우는 사업을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 사업의 중요한 한 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자기자신부터 당풍을 세우는데서 앞장서나가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을 깜빠니야적으로 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원대중이 여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당의 의도에 맞게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확고히 세울수 있고 당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당원들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이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사

회정치적 생명을 계속 빛내여나가자면 혁명적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단련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온실에서 가꾼 꽃보다 들에서 핀 꽃이 더 굳세고 아름다운것처럼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도 혁명적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여야 그 어떤 환경에도 끄떡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빛을 뿌릴수 있다.

오늘 혁명적 실천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단련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모두가 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것이다. 우리 당은 누구나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영생하는 길이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를 배격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으로 그들을 힘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전체 인민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영웅적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모두가 다 이 거창한 투쟁속에서 자기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도록 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언제나 겸손하고 검박하여야 한다. 겸손성과 검박성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어께를 낮추고 소탈하게 행동하며 생활을 검소하게 해나가는 인민적 품성이다. 겸손하고 검박한 당일군이라야 대중의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틀을 차리거나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며 건방지게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무한히 겸손하고 소탈하여야 한다. 만일 당일군들이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군중우에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세도를 쓰며 관료주의를 부린다면 자신이 맡은 사람과의 사업을 제대로 해나갈수 없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당일군들은 착취사회의 반동관료배들에게만 고유한 세도와 관료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겸손하고 검박한 인민적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군중의 친근한 벗으로, 혁명동지로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생활에서 청렴하며 특전과 특혜를 바라지 않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참다운 교양자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당일군들로 하여금 어머니당의 일군다운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 당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늘 교양하는 한편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참으로 크고 무겁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옳게 이끌어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가야 할것이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

김 재 성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하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하여 당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에서 계급교양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인 력량입니다. 로동계급의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일심단결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3페지)

계급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사상교양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계급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로 되는것은 계급교양사업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교양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계급교양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계급교양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다시말하여 사람들속에서 지주, 자본가계급을 미워하고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하는 계급적 의식과 자각을 높이는 사상교양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그 내용에서 크게 두 측면을 포함한다. 그 하나는 계급적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대한 철저한 옹호정신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 본질에 있어서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

기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철저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 가장 철저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인것만큼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자체를 보다 더 자주적인 계급으로 되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원래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체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이 가장 높은 핵심적인 력량으로 되고있다.

로동계급은 근로대중가운데서 자주성이 제일 높은 선진계급이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려는 로동계급의 자주적 요구는 근로인민대중에 속하는 이여의 계급, 계층이 가지는 요구와 비할바없이 높은것이다.

로동계급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혁명적 능력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계급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하는 계급은 다 창조성을 가진다. 남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나간다는것자체가 근로하는 계급의 창조성을 표현한다.

로동계급이 인민대중가운데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제일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것은 그가 처한 사회계급적 처지와 관련된다.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발전하면서 개인적인 생활 수단과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긴 무산자들의 집단으로 생겨난 계급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살아갈수 없고 발전할수 없는 집단적인 존재이며 동인과 단결을 자기의 생존과 운명개척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을수밖에 없는 계급이였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가장 가혹한 착취를 받으면서 집단적인 로동에 종사하여왔으며 생산의 발전과 함께 더욱더 대규모적이고 현대적인 생산과 련결되여 일하고 생활하는 계급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자기자신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려는 자주적 지향이 가장 강한 계급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가진 계급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로동계급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각계각층 근로대중을 령도하는 계급으로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력량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계급을 이루고있는 모든 성원들이 언제나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되고 의식화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이여의 계급, 계층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개별적 로동자들은 비로동계급적인 사상의 영향속에서 살고있으며 로동계급의 대오는 이여의 계급, 계층들에 의하여 부단히 보충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출신성분을 가졌다고 하여 저절로 자기 계급의 사상을 소유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은 오늘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의 로동계급은 지난날의 무산계급이라고만 볼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이 무산계급이 아닌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로동계급도 선행고전가들이 읽을것이란 철쇄밖에 없다고 한 지난날의 무산자들과는 다르다. 혁명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무산자인가 유산자인가 하는데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얼마나 각성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자체를 혁명적인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계급적 자각을 부단히 높이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며 그렇게 할 때라야만 그들은 자기의 계급적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 그리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보다 의식화, 조

식화할수 있다.

계급교양사업은 바로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 력량인 로동계급을 보다 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계급교양은 또한 혁명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더욱더 의식화, 조직화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자면 그매개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식화는 조직화의 선결조건이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좀먹고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없게 하는것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이다. 소자산계급,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에 비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의 면에서 뒤떨어져있다. 특히 그들의 머리속에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뿌리깊이 박힌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다. 이 낡은 사상 잔재는 아스팔트짬에 있는 풀처럼 짬만 있으면 되살아나며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좀먹고 자주성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낡은 사상 잔재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을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의 진공상태란 있을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사상교양의 약화는 곧 부르죠아사상의 강화를 조장시킨다. 모든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자면 가장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비로동계급적인 사상요소를 뿌리빼고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무장시킬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보다 더 의식화되고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바로 여기에 계급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우리는 계급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계급적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이란 로동계급의 계급적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계급적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 력량인 로동계급의 작용을 높이는 동시에 혁명대오를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보다 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투쟁과정은 필연적으로 반동세력의 필사적인 항거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계급투쟁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는 물론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계속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있는 매개 성원들이 적아를 옳게 식별하고 원쑤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적 원칙과 립장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로동계급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만약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만족하면서 계급교양을 홀시한다면 사람들은 계급적 안목이 무디게 되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계급투쟁을 포기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해나갈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게 될것이다.

더우기 혁명이 장기성을 띰에 따라 혁명대오안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요구를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날수 없는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위업이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 세대들이 대를 이어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으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혁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대교체가 일어나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난날 착취와 압박을 당해보지 못하였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생활체험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계급의식을 깊이 체득하고 단련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들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 자본가, 지주 등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수 없으며 계급투쟁, 혁명투쟁을 개념으로써만 알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급교양을 홀시한다면 새 세대들은 지주, 자본가도 모르게 되고 원쑤에 대한 증오심도 잊어버리게 되며 투쟁하기를 싫어하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각오도 가지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계급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새 세대들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영광의 대오에 서서 혁명의 계주봉을 끝까지 틀어쥐고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다.

계급교양을 강화해야 하는것은 또한 현시기 조성된 혁명정세의 복잡성과도 관련된다.

오늘 혁명의 전반적 정세는 매우 복잡하다. 국제적 규모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이 치렬하게 진행되고있다. 사회주의와 세계평화애호력량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이 투쟁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현대제국주의는 오늘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은 평화와 진보의 성새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으로는 핵무기를 휘두르고 다른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날라리춤을 추고있다.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굴복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있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

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여가고있는것이 오늘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있다.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 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을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불패의 성벽으로 날로 강화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와해시키보려고 일본반동들과 세계제국주의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감행하는 한편 반공화국선전과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계급적 자각을 더욱 높이고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계급교양은 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으로 보나 조성된 혁명정세의 복잡성으로 보나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 혁명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관점, 혁명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로동계급적 관점, 혁명적 세계관이 똑바로 서야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계급적 립장에서 정확히 보고 옳고그른것을 식별할수 있으며 언제나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수 있다.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것이다.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첫째가는 투쟁대상은 제국주의이다. 자주성을 억제하는 기본대상인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가져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하자면 그 침략성과 반인민적 본질, 부패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정신을 높여주어 그들이 놈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처럼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놈들의 썩어빠진 반인민적 통치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똑똑히 알게 하는것은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사상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착취제도,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성과 대비하여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라는데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만이 가질수 있는 결정적 우월성이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인식할 때라야만 사람들은 이 제도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으며 그것을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투쟁정신을 지닐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우월성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고 그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교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의 견지에서 사회주의제도에 대할줄 모르고 다만 목전의 물질생활에만 관심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게 살며 발전할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이 제도의 룡성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과 퇴페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 퇴페적인 생활양식은 건전한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패타락하게 만드는 마약이다.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와 퇴페적인 생활양식을 반대하지 않고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일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에 불건전한 생활풍조가 만연되게 하고 혁명과 건설을 말아먹게 할수 있다. 력사적 경험은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홀시하면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부르죠아사조와 퇴페적인 생활양식이 침투되고 날로 조장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과 그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것이 우리 내부에 조금도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은 그 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계급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계급투쟁, 혁명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리론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소유할수 있다.

우리는 계급교양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로 틀어쥐고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혁명적 세계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

현 철 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대중지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 하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당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은 당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혁명적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형식과 방법에 관한 문제이며 인민적 사업작풍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립장과 태도, 정신도덕적 품성에 관한 문제이다.

혁명적 사업방법은 인민적 사업작풍을 전제로 하며 인민적 사업작풍은 혁명적 사업방법에 의하여 담보된다. 일군들이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질 때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있으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일할 때 인민적인 사업작풍도 튼튼히 세울수 있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을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당의 위력과 전투력은 당대렬의 조직사상적 공고성과 함께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방식이다. 생명체없이 단백체가 존재할수 없듯이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떠나서 당자체가 존재할수 없다. 인민대중을 지반으로 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튼튼한 대중적 지반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할수 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공고성은 당이 인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지와 신뢰를 받는가 하는데 따라 담보된다.

사람들속에서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신념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 령도의 현명성과 업적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생겨나고 공고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그것은 일군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며 어떤 풍모와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광범한 군중은 바로 우리 일군들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아안게 되고 당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된다. 일상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군중과 긴밀되여 있는 일군들의 일거일동은 곧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사업과 직접 잇닿아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니고 모든 사업을 원만히 해나가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수령과 인민, 당과 대중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는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만일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으로 일하지 않고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게 되면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게 되며 나아가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게 할수 없으며 명령하고 지시하며 호령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방법과 작풍에 매달려가지고서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수 없다.

일군들이 원만한 방법과 소박한 작풍을 가지고 사업하고 활동하며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주게 될 때 사람들은 당일군의 풍모와 작풍에서 당의 정다운 숨결을 느끼게 되고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니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원만히 실현하여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원래 령도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힘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당의 령도적 역할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얼마나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그 주인이며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이며 그것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혁명과 건설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당이 인민대중을 어떻게 령도하며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당이 령도하고 인민대중이 담당수행한다. 당은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인민대중은 혁명의 담당자이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자기 생명과 같은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당의 령도가 인민대중속에서 철저히 실현될수 없다.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것과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데서 뗄수 없는 두 측면을 이루게 된다.

당의 령도가 대중에게 접근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능력과 결합되여야 그것이 참다운 령도로 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나갈 때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대중지도를 직접 실현하는 일군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일군들의 지도는 사업 방법과 작풍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보장된다.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도이다. 당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도 지도일군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가지지 못하면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대중을 움직이고 불러일으키며 이끌어나가는 능숙한 방법과 묘술, 로숙한 수완과 작풍이 있어야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지도하는 일군들과 지도를 받는 대중과의 련계와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일군들이 능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사업할 때 더 잘 실현된다. 때문에 일군들이 올바른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사업하고 활동하여야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당앞에는 더욱더 복잡하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의식성과 자각성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당정책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신념으로부터 당정책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헌신성과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철저히 옹호관철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인민대중의 의식성과 자각성이 높아질수록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 역할은 더욱 높아져야 하며 그러자면 당의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일군들의 지도방법과 지도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중의 열성이 높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지 못하면 당의 로선과 방침을 옳게 관철할수 없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할수 없다.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발전하는 현실과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당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있다. 전체 인민이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전당에 주체적인 당풍, 혁명적인 당생활기풍과 사업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관념이 철저히 서가고있다.

대중속에서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당조직관념이 서갈수록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당의 높은 권위와 철저한 당조직관념은 결코 그 어떤 개별적인 당일군의 권위나 당일군에 대한 태도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군들이 당의 높은 권위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려는 조직관념을 악용하여 행세를 하고 망탕 내리먹이려 한다면 그것은 관료주의이고 당세도이다. 당세도와 관료주의는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하고 순탄하게 자라난 일부 준비되지 못한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다.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당 건설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당일군들의 대렬에는 당사업 실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되지 못한 새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였다.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군중우에 군림하여 군중을 다스리려는 관료화의 경향이 나올수 있으며 명령하고 지시하려는 행정화의 편향이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조

진에서 당일군들이 원만한 방법과 로숙한 작풍을 가지고 사업하고 활동하여야 당의 권위를 더욱 높일수 있고 당조직관념을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집권당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의 경향과 행정화의 편향도 막을수 있다.

이처럼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방법,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현지지도를 통하여 대중지도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대중에 대한 당적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일군들속에서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일신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당안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고 일군들속에서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을 불패의 위력과 높은 령도력을 가진 전투적 부대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커다란 성과이며 바로 여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의 하나가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더욱 개선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오늘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무거운 임무에 비추어볼 때에도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행정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뿐아니라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영원히 지침으로 삼고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공산주의적 대중지도 사상과 방법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거창한 혁명실천과정에 창조하신것으로 하여 주체의 사업방법에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되여있으며 우리 일군들이 대중지도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 방법과 작풍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사업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빛나게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내용들로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시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은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위대한 모범이며 빛나는 구감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의 사업방법,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그대로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대중은 아래에 내려간 일군들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더 잘 받아안게 되고 일군들의 활동에서 당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

군중이 있는곳에는 어디에나 지도일군들이 내려가고 일군들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며 의도이다.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침식을 함께 하고 일도 같이하며 애로도 찾아내고 걸린 고리도 풀어주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며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정신도덕적 기질과 습성으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품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품성은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방법과 작풍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일군들의 품성은 어떤 기질과 일본새를 가지고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는가 하는것을 통하여 사업방법에 영향을 주게 되며 어떤 태도와 기풍을 가지고 군중을 대하고 이끌어나가는가 하는것을 통하여 사업작풍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군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니였을 때에는 대중에 의거하여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고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제기된 과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지게 된다.

인민적 사업작풍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원칙성과 로숙성, 어머니다운 품성, 겸손성과 소박성과 같은 인민적 품성도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정신도덕적 풍모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 여기에 옳바른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요인이 있으며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닌 일군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원만한 방법과 로숙한 작풍을 가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방도는 실력을 높이는것이다.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은 일군들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되며 일군들의 역할은

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면 지도능력이 있어
야 하며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지도일
군이라는 간판만 있으면 남을 지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대중지
도의 무기는 간판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며 그 관철에
로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
는 능력이다. 아는것이 힘이고 알아야
남을 지도할수 있으며 사업권위도 세울
수 있다.

일군들이 머리에 든것이 없고 실력이
딸리면 자연히 직위나 간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 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내려먹이려 하게 된다. 일군들이 방법
이 서툴고 작풍이 거칠며 큰소리를 치
면서 관료주의적으로 내려먹이려고 하
는것은 그들의 수준이 낮은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대중지도를 능숙하고 수
완있게 할 지식과 능력이 있고 실력이 높
으면 관료주의를 부릴 필요도 없고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쓸 필요도 없을것이다.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가지는것은 시
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열
성 하나만 가지고 일하던 때는 이미 지
나갔다.

실력 이것은 충실성의 기본담보
이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려면 능숙
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 풍부
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완성된 혁명가도 없으며 타고난 실력가
도 없다. 풍부한 지식과 높은 실력은 꾸
준한 탐구와 정열적인 노력의 열매이다.

모든 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일군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수준을 높이지 않
고서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신임에 높
은 사업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할수 없
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시간을 짜내고
분초를 아껴가며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
히 배워야 한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을 깊이있게 학습하며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당사업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
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기술학습도 꾸
준히 하여 전문과학기술지식과 경제관
리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는것은 일군
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
한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군
중이 진심으로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고 부르도록 만드는것은 우리 당 건설
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되며 우리 혁명
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모든 군중이 진심으로 우리 당을 어
머니당이라고 부르게 하자면 당의 로선
과 정책이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여
야 할뿐아니라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양하고 이끌
어주어야 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
피고 생각하듯이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
하듯이 대중이 당일군을 믿고 따르며
의거하게 될 때 당일군들이 대중의 진
정한 어머니가 될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대
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자면 누구나
다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중이 생활하는대로 소박
하게 생활하고 대중이 행동하는대로 평
범하고 소탈하게 행동하며 대중의 진실
하고 소박한 감정을 리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수
있고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
다. 또한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가슴속
에 품고있는 남모를 아픔과 말 못할 사
연도 먼저 헤아리고 그것을 뜨거운 어
머니사랑으로 풀어주어야 사람들이 기
뻐도 먼저 찾고 슬퍼도 먼저 찾는 어머
니품처럼 당조직을 대하고 당일군을 따
르게 되며 어머니가 앉아있는 방문을
주저없이 열듯이 당위원회의 문을 스스
럼없이 열고 정다운 마음으로 아무때나
찾아오게 된다.

당일군들은 어느때 누구든지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과 마음속 깊은 사연까
지 다 이야기할수 있도록 당위원회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아야 하며 울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웃으면서 당위원회의
문을 나서도록 사람들을 뜨겁고 친절하

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이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있는것만큼 사람문제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거나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즉흥은 실수의 전제이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충격적인 자극으로 즉흥에 사로잡혀 사람과의 사업을 되는대로 하거나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망탕 처리하면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수 있고 정치적 생명에 흠집이 가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아들딸을 두고 늘 걱정하며 생각이 많듯이 사람들을 옳게 이끌어주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해주고 빛내여주기 위하여 늘 걱정하고 생각이 많아야 하며 사람문제처리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야 한다.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않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일군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기풍이다. 일군들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명예와 공명을 바라거나 보수와 대가에 대한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사심이 없고 량심적이여야 한다. 일군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가나 리해관계에 대한 타산을 앞세우면서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대하고 그런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발벗고나서서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멀리하고 랭대하는것과 같은 량면적이고 위선적인 자그마한 요소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자식을 차별하는 어머니가 없듯이 우리 일군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업을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중요한 과업은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이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는 그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기술실무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업능력이나 감정, 기분, 습관과 같은 성격상의 문제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은 철저히 사상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사상의식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군들이 어떠한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업 방법과 작풍은 일군들의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사상의 종합적 표현으로 되며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은 낡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그러므로 관료주의와 당세도,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버리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강한 전투력과 높은 령도력을 가진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굽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리 재 일

당결정서학습은 당정책관철에서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 내용과 요구를 환히 꿰들고 있어야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굽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특히 새로운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야 할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자면 반드시 당결정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야 합니다.

당결정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당회의에서 채택된 중요한 당적 문건이다. 여기에는 전체 당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담겨져있으며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결정서를 학습한다는것은 곧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체득한다는것을 말하며 당정책을 학습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진심으로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 당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과 함께 반드시 당결정서를 실속있게 학습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정책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결정과 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 의사이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 조국의 진보와 번영을 담보하는 투쟁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여기에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가 달려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틀어쥐고 관철해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이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 요구들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자면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당정책에 대한 깊은 파악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모르

고서는 그 관철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더우기 어렵고 방대한 대전설전투를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지도일군들이 당정책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하며 그 수행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명확한 방도를 알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과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당정책관철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 그 구현인 당정책은 매 시기 제시되는 당결정서들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당의 중요한 회의들을 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결정서들을 채택하였다. 당결정서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여있으며 그 관철에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모든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따라서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결정서학습을 잘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들을 더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도 똑똑히 알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결정서를 깊이 학습할 때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집행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확고한 신심과 똑똑한 주견을 가지고 제시된 당정책적 과업들을 옳바른 방법론에 기초하여 제때에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만일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결정서를 학습하고 그 요구들을 관철하는 사업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과 동떨어진 문제로 보면서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당과 수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일해나갈수 없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결정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야만 당정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질수 있으며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그것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전당이 하나의 기준과 질서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게 될 때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당결정서는 당원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의하여 토의결정되는 당적 문건이다. 그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대표하며 전당의 조직적 의사이다. 당결정서는 모든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행동규범으로 되며 당정책관철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된다. 그런것만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결정서에 명시되여있는 내용들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그 관철에서 높은 헌신성과 자각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당원대중의 일치한 행동으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당결정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야 한다.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집행해나간다는것이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당원들은 당에서 열가지, 백가지 과업을 주어도 어느것 하나 놓침이 없이 모든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간다. 이런 당원들에게서는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줴버리고 저것을 하라면 이것을 놓쳐버리는것과 같은 그러한 일본새를 찾아볼수 없다.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해나가는 일군들은

조건이 달라지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전행정에서 불타는 열정과 완강한 의지를 높이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따라서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다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할수 있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사업은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보다 더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당결정서에는 우리 당 정책들이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그 어느것이나 다 철저한 일관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서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어려워도 로선과 정책을 변함없이 옹호고수하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이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적인 문제들과 로선과 정책들은 그 어느것이나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인민정권건설로선과 혁명적 군중로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과 같은 로선과 정책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토대가 마련된것이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이나 3대혁명로선 같은 것들은 이미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오늘까지 일관하게 견지되여오는 로선들이다.

이러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반영하여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당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채택되는 당결정서도 철저히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담고있는 당결정서에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전술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과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다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혁명의 전망적 과업과 함께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따라 당면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도 모두 반영되여있다.

때문에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결정서 학습을 잘하여야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 가운데서 집행한것은 무엇이고 못한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때에 알수 있으며 수행하지 못한 과업들에 대하여서는 대책을 세우고 재포치하며 총화하는 사업을 부단히 반복해나감으로써 모든 정책적 과업들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다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또한 당면하게 제기되는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해나가야 할 정책적 문제들을 놓치는 편향도 능히 극복할수 있다.

만일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잘하지 못하여 당의 결정을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중도반단하게 되면 그 부문, 그 단위에서는 그만큼 뒤떨어지게 되며 나아가서는 혁명과 건설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다.

더우기 오늘 간부대렬속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여 젊은 일군들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해나가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제시된 당결정서들을 잘 알고있어야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일군들이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국영웅대회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미 승리한 200일전투의 계주봉을 그대로 이어쥐고 새로운 200일전투를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할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당이 준 과업들을 제때에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해나가자면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결정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함께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결정서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결정서를 얼마나 깊이 학습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높은 정열과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결정서를 학습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사업도 일군들과 당원들이 옳바른 관점을 가져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결정서가 곧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이고 당정책이라는 확고한 견해와 립장을 가진 사람은 그에 대한 학습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데서 뗄수 없는 한 부분으로 보고 대하게 되며 언제나 그것을 학습하고 그대로 일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게 된다. 그러나 당결정서를 당회의에서 의례히 채택하게 되는 공식적인 문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하거나 전달할 때에나 한번 적어두는것으로 그치고 다른 때에는 덮어두고 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에서 어떤 결정과 지시들이 제시되였는지, 자기의 사업이 당정책적 요구, 당결정들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지 안되는지조차 판단할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정확히 알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반드시 당결정서를 학습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신문을 보듯이 자주 펼쳐보면서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그것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히 학습하도록 하는것이다.

당결정서를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것은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편향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당결정서를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선전자이며 그 관철의 직접적 조직자이다. 당이 제시한 모든 정책들은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그 집행이 조직되고 포치되며 장악되고 지도된다. 그런것만큼 지도일군들이 어느 부문, 어떤 분야에 대한 당결정이라도 그것이 어느때 어느 회의에서 토의결정되였고 그 집행은 어떻게 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항상 알고있어야 사업과 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당이 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의 과정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새로운 200일전투를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제시된 당결정서를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정책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며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최근에 제시된 당결정서를 제때에 연구학습하는것과 함께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당이 토의결정한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꾸준히 학습하여 그것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자기 부문에 제시된 당결정서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 대책들이 제시되여있는 당결정서에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과업들이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의 요구에 맞게 뚜렷이 밝혀져있다. 때문에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된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야 모든 문제를 발전적 견지에서 고찰할수 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워 자기 부문앞에 제시된 당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기 부문에 제시된 당결정서들을 깊이 알고 그것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결정서학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그것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말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것이다.

당결정서를 학습하는 목적은 력사적으로 제시된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알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고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게 하자는데 있다.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결과는 응당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에 의하여 평가되여야 한다. 당결정서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거나 홍정하는것은 자유주의의 표현이며 당풍이 서지 못한 행동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 당의 결정과 지시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결정서가 언제 어느 회의에서 채택되였는데 거기에서 집행한것은 무엇이고 집행하지 못한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집행중에 있는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집행정형에 대하여 늘 총화해보아야 하며 수행하지 못한것은 어느때 계획에 반영하여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잡도리를 단단히 하여 당결정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과 그 관철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는것은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장악과 통제는 당적 지도를 실현하는 기본형식이며 당조직들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과 그 관철정형을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정상적으로 통제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들이 제때에 정확히 침투되고 관철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가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물론 당결정서를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사업도 자각성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그러나 높은 자각성도 끊임없는 장악과 통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더욱 공고해질수 있으며 변함없이 견지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일군들은 당결정서를 학습하고 관철해나가는 사업을 한두번 포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며 편향이 나타날 때에는 제때에 바로잡아주고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줌으로써 당결정들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결정서에는 전체 당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집대성되여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명시되여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결정서를 깊이 연구학습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조 세 웅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전국영웅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고있던 장엄한 시기에 진행된 전국영웅대회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한 뜻깊은 대회였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영웅적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대회였다.

전국영웅대회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소한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옳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영웅적 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전국영웅대회를 통하여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위력이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은 한층더 높아지게 되였다.

전국영웅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200일전투를 벌리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우리는 전국영웅대회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또다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주체조선의 혁명적 기상을 떨쳐야 할것입니다.》(《신년사》, 1988년, 단행본, 8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발휘하는 인민대중의 영웅적 기상은 사회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는 새 생활을 창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적극 발양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가 남김없이 발양될수록 그들의 혁명적 기상, 영웅적 기상은 높이 떨쳐지게 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영웅적 기상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문제와 크게 련관되여있다. 기상이 높은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찌기 전례없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인민대중이 창조한 기적과 혁신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곧 그들의 혁명적 기상의 높이를 보여주게 된다. 인민대중의 기상이 높을수록 사회주의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성과가 크고 위

대할수록 그만큼 인민대중의 혁명적 기상은 적극 떨쳐지게 된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세기에 길이 빛날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주체조선의 혁명적 기상, 영웅적 기상을 힘있게 떨쳐왔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고 민족적 존엄을 튼튼히 고수하기 위한 성전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였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과시되였다.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영웅적 인민으로 불리우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적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성전에서뿐아니라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치였다.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다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은 페허속에서 도시와 농촌들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련이어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위업을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최근시기에도 영웅적 기상을 계속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최근 년간 서해갑문과 같은 수많은 기념비적인 건설물들을 짧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일떠세웠으며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200일전투기간에 중요대상건설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난관앞에 굴하지 않으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이렇듯 승리와 영광에 찬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는 우리 인민이 영웅적 기상을 년대와 년대를 이어 계승하고 계속 떨쳐온 빛나는 로정이다.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이 떨친 영웅적 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과이다.

인민대중이 가지고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는 결코 저절로 발양되여 대중적 영웅주의로 전환되고 영웅적 기상으로 떨쳐지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그것을 적극 발양하도록 옳게 이끌어주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영웅적 기상으로 전환된다.

지난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것이 영웅적으로 사는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그들로 하여금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령도자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값없이 피를 흘리고 보람없이 한생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대중적 영웅주의로, 영웅적 기상으로 발현되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영웅적 기상을 힘있게 떨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혁

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혁명앞에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 난관이 조성될 때일수록 우리 인민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그 어떤 난관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도록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였으며 몸소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휘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모든 투쟁과정에서 우리 인민이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더 높이 발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뚜렷이 밝히시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새로운 영웅적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동은 대중적 영웅주의로 구현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고 영웅적 기상으로 날을 따라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이 떨치고있는 영웅적 기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칠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투쟁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면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전례없이 방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계속 힘있게 떨쳐야 한다.

새 전망계획은 원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것을 전제로 하여 세운 계획이며 계속전진, 계속혁신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계획이다. 오늘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전국영웅대회를 성대하게 진행한것도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혁명적 기백으로 잠시도 투쟁을 멈

추지 말고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것이다. 제기된 혁명과업이 어렵고 방대할수록 잠시라도 주저하거나 진군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적 기백, 200일전투의 기세로 계속 과감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20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고 세인을 경탄시킨 그 기세, 그 기백을 계속 견지하여야만 생산과 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투쟁기풍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견결하게 투쟁할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더욱 힘있게 떨쳐지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치는것은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북반부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치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 조국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임의의 시각에 또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매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는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무기를 끌어들여다놓고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 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미제는 《올림픽안전담보》라는 구실밑에 우리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미친듯이 벌리였으며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한다.

이처럼 제기된 혁명과업과 복잡한 내외정세는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진군속도를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견지하며 200일전투가 2000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전체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단행본, 12~13페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을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전략로선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굽임없는 전진을 이룩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대중적 영웅주의를 적극 발휘하고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칠 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장엄한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앞에 내세운 전투적 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으며 우리 인민모두를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고 보람찬 혁명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의 한없이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숭고한 삶의 요구로, 생활과 투쟁의 드팀없는 신조로 삼고 굽임없는 혁신과 위훈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높이 떨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로정에서 이루어지고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는 기상이다.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백두밀림에서 뿌리내린 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영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힘있게 떨치기 위하여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이 전화의 나날에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격전장에서 나타났다면 오늘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장에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제3차 7개년계획을 1년반이상 앞당겨 수행할것을 결의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200일전투를 통하여 이 결의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려 제3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하루빨리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새 전망 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200일전투의 기세로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새로운 200일전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또하나의 비약을 마련하고 새 전망 계획의 진격로를 더욱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이다.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갈 때 우리는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나게 결속하고 다음해에도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200일전투에 이어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계속 커다란 앙양을 일으켜나가면 우리앞에는 보다 휘황한 전망이 펼쳐질것이며 주체조선의 위력은 더욱 높이 과시될것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다시한번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영예의 승리자,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

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주공전선은 의연히 기본건설이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그 기백으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그리고 방대한 건설을 본때있게 내밀어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그 혁명적 열정으로 마감단계에 들어선 광복거리와 중요대상 건설을 빨리 끝내며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보다 웅장화려한 도시로 더 잘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건설대상은 매우 많다. 우리는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과 발전소건설, 탄광, 광산건설, 금속공업기지건설, 기계공업기지건설, 새 철길 건설, 고속도도로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는 위대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중요대상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전국, 전민이 중요대상건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계속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건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새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높이 떨칠수 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을 이룩할수 없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경제기관들에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세부적으로 맞물려주고 필요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과학지도일군들은 과학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바로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것만큼 과학연구기관들사이, 과학연구기관들과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는 영웅적 우리 인민의 기질이며 기상이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높이 맨 주먹으로 일제와 맞서 혈전을 벌리며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벽돌 한장 성한것없는 재더미우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던 천리마의 혁명정신으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모르는것은 배우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도 허용될수 없으며 오직 투쟁과 혁신, 전진만이 요구된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성과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영웅적 조선인민의 혁명적 기개이다.

우리는 200일전투를 벌리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

유 시 영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국영웅대회의 호소따라 사회주의대건설에서 굽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국영웅대회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대회였다. 전국영웅대회의 전투적 호소따라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오늘 우리 당의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은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24페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경제건설과업으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인민의 지향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에 상응하게 근로인민대중에게 풍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하며 경제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굽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경제건설이 진행되는 환경과 조건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매개 나라마다 자연부원의 분포상태가 다르며 기술의 발전 정도와 방향, 적용방식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경제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는 자원, 기술, 자금의 자급률, 부문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이다. 원료, 연료, 동력과 기계설비를 비롯한 기술수단, 자금의 자급률이 높을수록,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여 부문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이 더 잘 보장될수록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참으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일찌기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였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는 자체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위력한 경제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경제로 강화발전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됨으로써 그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단계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는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다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보람찬 투쟁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기간공업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기간공업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초이며 그것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에 대해서도 민족경제의 자주적인 발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대건설은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세멘트를 비롯한 주요공업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이 부문의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강화하는것을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전력과 석탄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석탄은 열동력원천으로뿐아니라 화학공업의 기본원료로 쓰인다. 그리고 강철, 유색금속, 세멘트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본건설과 생산수단생산에 널리 리용된다. 전력, 석탄, 유색금속, 세멘트의 생산장성 속도와 규모는 인민경제 전반의 발전속도와 규모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여기로부터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세멘트의 생산능력을 확대강화하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세멘트의 생산능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의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000만톤의 강철, 170만톤의 유색금속, 2,200만톤의 세멘트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제품들의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이르게 되거나 따라 앞설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된다.

사회주의대건설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보람찬 투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물질생활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자체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이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것도 결국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여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50만정보의 분수식 발관개건설과 10만정보의 바다가양식장건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과업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있는 대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릴수록 경공업, 농촌경리, 수산업과 같이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기술적 개조를 적극 추진시키며 섬유원료, 합성수지원료, 화학비료와 농약, 집짐승먹이 등 이 부문의 생산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자체생산으로 더욱 풍부히 생산보장함으로써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대건설은 또한 우리 당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인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적극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적극 다그치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때만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이 펼쳐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의 빛나는 설계도이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 따라 나라의 과학기술, 특히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빨리 발전시

키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 개조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쳐야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과 극소형 전자공업, 로보트공업에 의거하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된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연부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해나감으로써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5페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기본건설전선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다.

기본건설전선은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공전선이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확대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것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의 과업은 공장, 기업소, 직장을 새로 창설하거나 개건확장하는 실로 방대한 기본건설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기본건설전선에서 투쟁을 어떻게 벌리는가에 달려있다.

전력, 석탄, 철강재와 긴장한 수송문제를 푸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우리는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끝낸 기세로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 남강발전소, 금야강발전소를 비롯한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안주지구, 순천지구, 북부지구를 비롯한 매장량이 많은 여러 지구의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석탄에 대한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적 수요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철강재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생산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하여 금속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기본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한편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본건설공사를 적극 벌려 그 생산능력을 당면하게는 1,000만톤, 전망적으로는 1,500만톤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송능력을 늘이기 위한 기본건설대상에 힘을 집중하여 빨리 끝냄으로써 긴장한 수송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계속 힘을 집중

하여 빨리 끝내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요구이며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큰 힘을 넣어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생산의 정상화는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가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전력, 석탄, 금속, 건재, 기계 공업과 같은 중요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건설재료와 대상설비를 원만히 보장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주공전선인 기본건설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또한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국민소득을 빨리 늘이고 사회적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축적과 소비의 균형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 문제와 인민생활향상문제를 다같이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생산능력을 다 발휘하게 하는 원칙에서 적극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일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 석탄, 금속, 세멘트 생산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며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계획은 일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바로 여기에 현시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벌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사회주의대건설투쟁자체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애로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경제를 보다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경제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떠서려는 높은 각오를 가지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더 찾아내면서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혁명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동로동과 경제활동과정을 조직하고 지휘해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최대

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보다 적은 지출로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당의 령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과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창조력을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경제적 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경제건설전반이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은 그 규모와 속도에서 전례없이 거창한 사업인것만큼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없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수 없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원래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세밀하게 짜고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처럼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맡은 부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깐지게 집행해나가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마는 강한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어려운 일에 언제나 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민요를 바탕으로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방 선 영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음악창작방향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우리 나라 음악예술발전의 실태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음악예술에 대한 작곡가들의 자세와 립장을 비롯하여 음악창작방향과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창작과 연주실천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히신 사상리론들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음악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나라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들데 대한 방침은 이 문헌에서 제시된 중요한 사상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가 진정으로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자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노래를 민족적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통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노래를 왁왁 고는 서양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서정적인 우리 나라의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유순하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든다는것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우리 나라의 민요를 바탕으로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이 쉽게 리해하고 즐겨 부를수 있는 노래를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들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주체적인 음악예술 창작과 창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음악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음악예술을 자기 나라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키고 자기 나라 인민에게 복무하게 하는것은 혁명적 음악예술의 본성적 특성이다. 음악예술의 이러한 특성은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시대적 미감에 맞는 통속적인 음악을 창작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것은 민요가 자기 나라 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으며 즐겨 불리우기때문이다.

민요는 근로인민들의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창작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인민들속에서 전하여지면서 널리 불리워지고 다듬어진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이다. 그러므로 민요에는 인민들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가 훌륭히 구현되여 있을뿐아니라 그 형식이 또한 간결하다. 민요는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그 어느 음악보다도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인민은 서양음악보다도 우리 나라 민요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노래를 더 좋아하며 즐겨 부르고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 민요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잘 맞기때문

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자기의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오는 과정에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심리와 감정, 취미와 기호 등에서 그 어느 민족과도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색은 연하고 선명한것을 좋아하였으며 노래는 유순하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한것을 좋아하였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정서는 인민음악인 민요에 뚜렷이 체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악예술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키자면 부드럽고 정서적인 우리 나라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문화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계승하여 새 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이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주체의 음악예술도 선행시기에 이룩된 우리 나라 민족음악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동과 생활 속에서 발생발전하여온 우리 나라 민요에는 근로하는 인민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과 정서, 뛰여난 음악적 재능이 반영되여있다. 그러므로 음악에 대한 인민적 재능의 정화인 민요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것은 음악예술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것은 또한 우리 음악예술의 교양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의 음악예술은 문학예술의 다른 모든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음악예술이다. 우리의 음악예술은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일뿐아니라 그들이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예술이 자기의 교양적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민족적이면서도 통속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민족성과 통속성은 음악예술의 사상미학적 교양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노래는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으며 누구나 쉽게 리해하고 부를수 있게 되여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대중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민요에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감정과 정서가 뚜렷이 체현되여있을뿐아니라 그 형식이 짧고 간결하여 그것은 알기 쉽고 부르기 헐하다. 훌륭한 민요의 선률에는 쓸데없는 장식이나 멋부림이 없고 까다롭고 변덕스러운것이 없으며 선률이 아름답고 유순하다. 그러므로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노래를 통속적으로 만드는것은 우리 음악예술의 사상교양적 기능과 정서적 감화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항일혁명가요들이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항일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을뿐아니라 오늘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그처럼 거대한 역할을 하는것은 거기에 높은 사상성과 함께 민족성, 통속성이 훌륭히 구현되여있기때문이다. 참으로 민요를 바탕으로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것은 음악예술을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의 예술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음악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방침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들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구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요창작에서의 주제방향을 뚜렷이 밝히시고 가사를 시적이면서도 사상적내용이 풍부하게 쓸데 대한 문제, 가사를 알기 쉽고 곡에 맞추어 부르기 헐하게 만들데 대한 문제, 가사를 절가형식으로 쓸데 대한 문제 등 명가사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노래의 선률을 유순하고 부드러운 민족적인 선률로 일관시킬데 대한 문제, 가사와 곡을 밀착시킬데 대한 문제, 선률의 정서적 색갈을 명백히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선률창작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 문제들과 그 구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끝없는 충성심을 형상한 송가작품 창작과 창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가요창작에 관한 사상리론들은 가요명곡창작을 위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음악창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요창작에 관한 사상리론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신심과 정열에 넘쳐 가요창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작품창작지도기관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개별적인 창작가들이 창작한 노래에 대한 집체적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가요창작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고 가요창작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듯 가요창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밝히시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요창작의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는 한편 몸소 창작현장에 나가시여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이 창작하는 가요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사랑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 가요명곡들중에 그 어느 하나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가 깃들지 않은것이란 없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가요명곡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가요예술발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대전성기가 이룩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가요명곡들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면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정서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가요 《김일성원수님 만세》,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수령님모신 영예 끝없습니다》,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형상한 송가작품들과 가요명곡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서 귀중한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되고 있다.

가요 《어머니당의 품》, 《당중앙의 불빛》, 《한마음 당중앙을 믿고 따르리》, 《우러러 따르는 한마음》,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한생을 바쳐가자 다진 그 맹세》를 비롯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노래한 송가작품들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한마음을 노래한 가요명곡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이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을 위하여 청

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조국을 주제로 한 가요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다양한 생활을 주제로 한 가요명곡들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한몸바쳐 나서도록 추동하고있다.

참으로 지난 20년간 우리의 가요예술분야에서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되고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 통속성이 훌륭히 구현된 우리식의 가요명곡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가요예술의 인식교양적 기능과 역할이 비길데 없이 높아졌다. 가요예술분야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들은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통속적인 노래를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구현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은 우리 음악창작가들앞에 민족적 정서가 흐르면서도 통속적인 노래를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래는 음악가운데서 가장 작은 형식이지만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해나가게 하는데서 그 어느 음악형식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있다. 노래는 기악작품들과는 달리 선률과 함께 가사를 통하여 사상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노래의 사상적 내용을 설명없이도 쉽게 리해할수 있다. 노래는 또한 선률구조가 간결하므로 누구든지 아무때 아무데서나 쉽게 부를수 있기때문에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는 커다란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인차 감화시킨다.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는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일뿐아니라 기악과 가극을 비롯한 음악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요명곡은 기악작품의 기본소재로 널리 리용되며 가극과 무용, 영화와 연극 등에서 인간성격을 창조하고 극을 전개해나가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음악창작가들은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재시한 주재방향에 철저히 의거하여 다양한 주제의 노래를 창작하는것이다.

다양한 주제의 노래를 창작하여야 광범한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기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 음악창작가들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주재의 노래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한 노래를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다양한 주제의 노래를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이다. 이것은 우리 음악창작가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음악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 수준에서 형상한 노래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음악창작가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가요창작에서는 또한 당정책을 반영한 노래를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반영한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힘을 가지고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당정책을 반영한 혁명적이며 호소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혁명적 락관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당정책을 담은 혁명적인 노래들이 사람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음악창작가들은 노래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기동성있게 반영하며 당정책이 구현되는 벅찬 현실을 진실하게 담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다양한 생활을 반영한 통속적인 대중가요를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음악창작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간생활은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생활속에서 발현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따라서 노래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아무때 아무데서나 좋은 노래란 있을수 없으며 구체적인 생활과 환경에 맞는 노래라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상교양과 문화정서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음악창작가들에게 더 많은 통속적인 대중가요를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음악창작가들은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고 희망과 행복에 넘친 근로자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다양한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통속적인 노래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정서적 수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키며 그들의 생활에 혁명적 랑만과 희열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노래를 민족적 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통속적으로 만드는것이다.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 통속성은 높은 사상성과 함께 주체적인 노래가 갖추어야 할 기본징표이며 노래의 교양적역할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래는 민족적 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으며 통속적으로 되여야 대중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모든 민족은 사상감정과 심리, 성격, 생활양식, 언어, 풍속 등에서 자기에게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음악예술을 감수하는데서도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노래에 민족적 정서가 흐르게 하는것은 노래를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음악창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음악적 감정과 정서의 반영이며 예술적 재능의 산물인 우리 나라 민요를 바탕으로 노래를 창작함으로써 노래에 민족적 감정과 정서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은 또한 노래에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현대성을 구현하는것은 노래의 사상미학적 교양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노래는 민족적 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창작되여야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

민요를 바탕으로 노래를 창작하고 노래에 민족적 특성을 구현한다고 하면서 지난날 민요의 낡고 뒤떨어진 요소들까지 그대로 되살리거나 기계적으로 모방한다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를 창작할수 없게 된다.

민족적 감정과 정서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시대와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지난날의 민요에는 우수한 측면들이 있

는 반면에 그것이 창작된 시대적 제한성과 창작가들의 세계관적 제한성으로 하여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내포되여있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민요의 우수한 요소들을 로동당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혁신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노래를 민족적 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창작가들은 또한 노래창작에서 통속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통속성을 구현하는것은 노래의 인민성과 인식교양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노래에 담긴 사상적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이 부르기 힘들어하는 까다로운 노래는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없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인민적인 언어와 음악을 깊이 연구하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가사를 쓰며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유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률로 곡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창작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였다.

음악창작가들은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창작적 의욕을 가지고 작품창작에 전념하며 생활을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노래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음악창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당의 문예방침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야 한다.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하며 창작하는것은 노래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약동하는 현실은 창작의 무진장한 원천이다. 창작가들은 현실속에 들어가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진운동과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느낄수 있으며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가사와 곡을 만들수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사를 쓰고 피아노에만 마주앉아서 곡을 지어가지고서는 시대의 숨결이 흘러넘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틀어잡는 명곡을 창작할수 없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속에 들어가 현실체험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훌륭하게 형상해내야 한다.

민요를 비롯한 민족음악유산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창작가들은 민요를 비롯한 인민음악유산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 우수한 특성들을 음악창작에 잘 살려 써야 한다.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으며 인민들이 즐겨 부를수 있는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가요명곡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음악창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책임적인 사업이며 전반적 음악예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음악창작가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과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함으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우리 당이 음악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차 삼 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강령적 교시들에서 우리 일군들이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지휘성원답게 언제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모든 사업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일군들이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인것만큼 순조롭게만 진행될수 없으며 그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수 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투쟁과정에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자면 무엇보다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혁명성은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 헌신적 복무정신이며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전투력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당과 수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 의지이며 일본새이다.

혁명성과 전투력에서 핵을 이루며 그 근본바탕으로 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투쟁하여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성과 전투력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기상이며 기질이다.

지난 기간 동대원구역당위원회는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언제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안의 모든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조직생활을 짜고들며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견결한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 그들속에서 당성단련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당성단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성단련을 강화하는것은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소유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길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니고 싸워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이 내놓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혁명투쟁이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며 완성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수령에게 충실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에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수령에게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 때 더욱 높아지게 된다.

당성단련을 더욱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우리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당성단련을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그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생활을 짜고들었으며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학습을 학습회와 강연회, 해설담화, 학습담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 모두가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구역당위원회가 여기에서 힘을 넣은것은 일군들의 당성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것이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당정책을 무조건 제때에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사상관점을 확고히 세우며 당정책관철을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강의한 투쟁정신을 발휘하도록 일상적으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일군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장악지도함으로써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을 더욱 단련해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속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확고히 서가게 되였으며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가게 되였다.

당성단련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수록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게 된다는것을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당정책관철과정을 통하

여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과정에 구역당위원회는 철도를 끼지 않은 조건에서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모를 박고 사업하기로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조직부, 선전부 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일군들을 동원하여 구역안의 자동차사업소와 운수기재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직장들에 내려가 당정책을 깊이 해설침투하는 한편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발동하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구역안에는 적지 않은 자동차들이 여러가지 조건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다 뛰게 한다 하여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었다.

구역당위원회는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을 적극 발동하여 자동차부속품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자동차부속품을 수집하기 위한 운동을 널리 벌려 쓸모있는것들을 모두 재생리용하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이 사업을 짜고든 결과 짧은 기간에 멈춰서있던 자동차들을 모두 뛸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구역안의 자동차들이 일정한 기간에 쓸수 있는 부속품예비를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성과 전투력을 적극 발휘하여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성단련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에 따라 그들속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구역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기풍이 적극 발양되게 되였다.

구역이 더욱 현대적으로 꾸려짐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해주기 위하여 새로운 수도관을 부설하며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물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관을 해결하자면 국가로부터 많은 자재를 보장받아야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국가적 방조를 받으면서도 어디까지나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력갱생하여 많은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토의하고 군중적 운동으로 적극 내밀기로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구역안의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군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밀고나갔다.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많은 자재를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우리 일군들은 이 사업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웠으며 자신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내부예비를 찾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관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실천적 경험은 일군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투쟁할 때 어떤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업을 제때에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또한 일군들이 언제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투쟁정신을 배우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이 언제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배우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당사업원칙이다.

로동계급은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으로서 그 어느 계급보다 혁명성과 전투력이 높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준 과업이라면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높은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을 지니고있다. 일군들이 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야 그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심장으로 느낄수 있으며 사업에서 대담해지고 신심에 넘쳐 혁명적으로 일하며 전투적으로 생활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구역당위원회는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로동계급이 지닌 혁명성을 배우며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여 당정책을 관철하도록 당사업을 짜고들었다.

구역당위원회는 책임일군들부터 직접 생산현장에 내려가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깊이 해설선전하고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대책과 방도를 찾도록 하였으며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반적 단위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묘술을 찾고 방법론을 세워 전반적인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주었을뿐아니라 자신들도 로동계급이 지닌 높은 혁명성, 전투력을 배우게 되였다. 실천투쟁과정은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배우고 배워주면서 서로 합심하여 일할 때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교차생산조직기를 만들어 전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던 과정이 그 중요한 실례로 된다.

전력교차생산조직기를 새롭게 만들어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하자면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야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행정경제일군들을 발동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의회를 조직하고 전력교차생산조직기를 만들어 쓰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포치하도록 하였으나 처음에는 일이 뜻대로 잘되지 않았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전력교차생산조직기를 만드는것이 기술적 문제이며 생산조직과 관련되는 경제실무적 문제라 하여 경제지도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제대로 될것만 바라는것은 그릇된 사업태도이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과 함께 생산현장에 내려가 교차생산을 조직할데 대한 당정책을 깊이 해설해주고 그들과 함께 전력교차생산조직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광범히 토의하였다.

묘안은 언제나 군중속에서 나오기마련이며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면 못해낼 일이 없다. 구역당위원회는 대중의 열의를 계속 북돋아주면서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전력교차생산조직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이 과정에 구역안의 어느 한 건설사업소에서 전공으로 오래동안 일해오는 한 로동자를 발동하여 구조가 간단하며 어디에서나 쉽게 만들수 있는 교차생산조직기를 제작하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구역당위원회는 행정경제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이 전력교차생산조직기를 가지고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그 우월성을 해설해주며 그것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사업을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구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교차생산을 조직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게 되였으며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였다.

현실은 일군들이 우리 당이 밝혀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발동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적극 발동하여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다른 하나의 실례는 지렁이를 서식하여 닭먹이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렁이를 서식하여 단백질먹이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은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도시중심구역의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겠는가 하는것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여기에서 일군들은 언제나 자기가 직접 맡은 과업과 같이 모든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높이 발양하였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시주변구역에 나가 농장원들과 의논하는 과정에 쓰기 간편하고 만들기 쉬운 지렁이서식함을 제작하여 보장할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구역안의 여러 단위에 내려가 자재보장대책과 로력,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조건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지도일군들은 한 단위씩 맡고 아래에 내려가 당정책을 해설해주는 한편 솔선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전군중적으로 많은 지렁이서식함을 단 며칠동안에 만들어 주변구역과 닭공장들에 보내줌으로써 닭기르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되였다.

이것은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숨쉬고 생활하며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적극 동원할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구역당위원회는 또한 당의 방침의 요구대로 대중적 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대중적 혁신운동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양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 혁신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대중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도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되게 된다.

지난 기간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개조과정이 다그쳐지고 그들의 혁명성과 전투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당조직들을 적극 발동하는 한편 직접 구역당일군들이 선동원이 되여 아래단위에 내려가 우리 당이 내놓은 대중적 혁신운동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해설해주면서 대중적 혁신운동의 목표와 단계, 투쟁과업을 옳게 설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특히 구역당위원회는 동대원피복공장, 교육도서인쇄공장, 동대원구역송배전소, 동대원상하수도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벌리는데서 모범을 창조하도록 당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거기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이 단위들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강연, 해설담화를 비롯한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벌려 공장이 언제나 들끓게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200일전투가 벌어지자 책임일군들을 망라하여 구역당일군경제선동조를 묶고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그리고 직장과 직장, 작업반과 작업반 사이에 경쟁을 묶고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구역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지도일군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전반사업을 다 틀어쥐고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구역당위원회는 교육부문, 보건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 일군들과 진지하게 토의하여 대담하게 투쟁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가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여기에서 구역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육부문 사업을 적극 도와주는 한편 보건, 재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일군들이 련대적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적극 짜고든것이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 밑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여러 부문에서 집단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모범교육구역, 모범준법구역, 지방예산제모범구역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되였다.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구역이 들끓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전투적으로 살고 투쟁하게 되며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천적 경험은 당조직들이 대중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사람들의 혁명성, 전투력이 더욱 높아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해나갈수 있게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구역당위원회가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불과하다. 우리앞에는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200일전투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로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해나가야 한다.

동대원구역당위원회는 지난 기간과 마찬가지로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듦으로써 구역앞에 나선 혁명과업수행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하겠다.

반제자주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

김 용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스무해가 된다.

라틴아메리카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인 체게바라전사 한돐에 즈음하여 아세아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에 발표된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은 반제자주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전투적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반제반미투쟁의 필요성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립장,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반미공동행동을 강화하며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반제반미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사상리론과 전략전술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반제자주화에 대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이 탁월한 사상리론과 전략전술적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뚜렷한 목표와 투쟁방도를 가지고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는 거기에 담겨져있는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20년동안 세계정치정세와 국제무대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친미독재정권들이 련이어 꺼꾸러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일부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고있다. 오늘 사회주의의 견인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반제자주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쁠럭불가담운동이 강화발전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적 범위를 포괄하는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조직화되고 영향력있는 정치세력으로 자라났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반제자주력량이 강화된 반면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종국적으로 청산되여가고있으며 세계적 판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령역이 훨씬 줄어들었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다.

국제정세발전에서 일어난 변화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으며 우리 시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천명하신 사상리론은 지난 20년간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오늘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반제자주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은 멀리 전진하였으나 인민들의 해방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구상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의연히 남아있고 많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짓밟히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와 중근동, 남부아프리카와 중미주를 비롯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전쟁 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침략과 략탈이 계속되는 한 인민들은 반제자주화투쟁을 잠시도 멈출수 없다. 투쟁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릴 때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때까지 계속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27～428페지)

인민들이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침략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새 세계를 창조하는것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공통의 요구이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이와 같은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세계를 자주화하여야 한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제국주의는 인류력사에서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현시기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시적인 근원으로 되고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나라와 민족들사이에는 예속과 불평등,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있기마련이며 세계는 한시도 평온할수 없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려는 인류의 념원은 실현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며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서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여야 할뿐아니라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여야 한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할 민족과 지배받을 민족은 따로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때 세계에는 지휘하는 나라와 추종하는 나라도 없어지고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를 받는 민족도 없어지며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될것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제국주의자들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말려들거나 리용당하는 일도 없게 될것이다.

반제자주화투쟁을 강화하여야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반제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의 멸망이 가까와오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력사적 전환의 시대이다.

제국주의는 멸망에 직면할수록 그 반동성과 침략성이 강화되고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로동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결탁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데서 더욱더 교활한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를 중심으로 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세계제국주의가 결탁하는 방향에서 재조직됨으로써 자본주의렬강들사이의 관계는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에로 넘어갔다.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에서 새로운 통치수법에 매달리는 한편 식민지를 략탈하는 방법도 바꾸지 않을수 없었다.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를 착취하며 략탈하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로골적인 강압적 방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략탈하던 방법과는 달리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하고 이른바 《원조》를 제공하는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이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지난날 식민지를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은 치렬한 쟁탈전을 벌렸으나 신식민주의에 의거하면서부터는 공모결탁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하게 되고 특히 《원조》를 미끼로 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시킴으로써 손쉽게 상품시장과 원료자원을 차지할수 있었다.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결탁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방대한 시장과 원료자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생산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되였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로 하여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결코 해결된것이 아니며 제국주의의 략탈적 본성이 변화된것도 아니다. 자본은 아무리 국제화되여도 자본외의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략탈적 본성은 변할수도 없고 약화될수도 없다. 제국주의가 변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략탈적 본성이 아니라 착취와 략탈 방법이다. 제국주의가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면서 변화된것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략탈 방법이 더욱 교활해진것이며 자본주의모순이 국내적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로 더욱 확대된것이다. 자본주의적 착취로 말미암아 지난 시기에는 매개 자본주의나라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

상이 지배하였다면 이제 와서는 세계가 부유한 자본주의나라와 가난한 발전도상나라들로 갈라져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우심해지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민족산업은 더욱더 몰락되고 인민들의 빈궁화가 가일층 심화되였으며 이 나라들의 대외채무는 날을 따라 늘어나게 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감퇴와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능력의 약화는 발전도상나라들을 희생시켜 살쪄온 제국주의렬강들에게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상품시장과 자본투하지로서 한계에 부닥치게 됨으로써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이것은 결국 실업자대렬의 증대와 통화팽창을 비롯한 풀수 없는 여러가지 난관을 조성하고 제국주의나라들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대내외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는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반악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들은 평화와 진보의 성새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으로는 핵무기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날라리춤을 추고있다.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굴복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고 발전도상나라들은 커다란 희생과 재난을 당하고있으며 국제긴장상태는 격화되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의 표현인것이 아니라 취약성의 표현이다. 현대제국주의가 림종에 가까와오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자주위업이 승리하는것은 력사적 필연성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오직 세계반제자주력량의 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수 있다.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제반미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는 문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도,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생각할수 없다.

현정세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멸망을 앞두고 발악하는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세계 혁명적 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비할바없는 큰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문제는 반제자주력량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29페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 쁠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옹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력량이다.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는 결국 그 주체인 반제자주력량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세계의 반제자주력량과 제국주의지배세력 사이에 판가름을 하는 심각한 대결이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그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반대해나서고있는 조건에서 세계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강한자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한자앞에서는 포악해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하나의 반제자주력량으로 굳게 뭉치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다. 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써만 제국주의 련합세력에 대항하여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고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면 대오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단결된 력량으로 나갈 때 세계혁명발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도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귀중한 무기로 삼고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이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투쟁해온 길은 참으로 힘난하였다. 이 과정에는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도 있었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은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였기때문에 련합된 국제반동세력을 짓부시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반제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며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고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는 동지적 관계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현시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세계의 광활한 령토와 많은 인구를 망라하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

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이 빨리 확대발전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동의 영향력을 막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파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켜보려고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파탄시키고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단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오늘은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은 이 나라들을 서로 긴밀히 련결시키고있다.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함께 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언제나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하며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정치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게 될것이다.

반제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 모든 반제자주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10호(루계 558호)

편집위원회

번꿋.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8년 10월 1일 발 행. 1988년 10월 3일

ㄱ—85173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 1동 값 7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Kunroja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11호(559)

차 례

김 정 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5월 15일)

올해는 공화국창건 40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35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40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35돐을 계기로 전국영웅대회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국영웅대회를 하려고 하는것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 인차 전국전투영웅대회를 소집하시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미제와 싸워이긴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국보위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영웅적 위훈을 세우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35년전에 열린 첫 영웅대회는 우리 인민이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승리적으로 뚫고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영웅대회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영웅적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력사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간고분투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 투쟁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북반부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정세가 성숙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있게 다그치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말살해보려는 망상을 가지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힘의 정책에 매달려 사회주의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정치경제적으로,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켜보려고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과 세계제국주의세력을 규합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핵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며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시종일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사회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나아가기때문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태평양전략의 실현을 가로막는 불패의 성벽으로 날로 강화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적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미치는것을 겁나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공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시대와 력사 앞에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발악적 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벌리고있는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견지하여야 하며 200일전투가 2000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전국영웅대회를 열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진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대를 이어 수많은 영웅들이 자라났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인민이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강대한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조건에서 장구한 기간 굴함없이 싸운 가장 영웅적인 투쟁이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인민이 낳은 영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인민의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전사로서의 혁명적 의리를 끝까지 지켰으며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습니다.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의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공적은 우리 혁명의 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보나 투쟁정신으로 보나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모범이며 영웅의 귀감입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우리 혁명의 원로로서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항일의 혁명렬사들이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진행한 가장 준엄한 투쟁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이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이 전인민적인 영웅적 투쟁을 벌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자기 조국을 수호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였습니다. 갓 해방된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강대한 미제와 싸워이긴것은 참으로 기적이였습니다. 그때 적아간의 력량관계는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현대적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저들의 방대한 륙해공군무력을 동원하고도 15개 추종국가 군대까지 끌어들였으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습니다. 청소한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이 이러한 적들과 싸워 승리한수 있은것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영웅적으로 싸웠기때문입니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여 사

람다운 생활과 참다운 행복을 체험한 우리 인민들은 조국이야말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바쳐 보답하는것이 응당한 도리라는것을 가슴깊이 자각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원쑤들과의 가렬한 결전장에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의 땅크와 군함을 까부시고 가슴으로 화구를 막아 전투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인민군용사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시기에 후방인민들도 잘 투쟁하였습니다. 후방인민들은 녀성들과 늙은이들, 어린이들 할것없이 다 떨쳐나서 전선을 원호하고 자기의 공장과 마을을 지키면서 전시생산을 보장하여 전쟁승리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영웅적 인민으로 불리우게 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우리 혁명의 귀중한 밑천입니다. 항일투사들은 잃었던 조국을 찾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면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공화국이 낳은 새 세대 영웅들인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을뿐아니라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영웅적 위훈을 떨치였습니다.

세계전쟁력사에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이 다 재더미로 되고 모든것이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례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의 력사에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완전한 페허우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한 례도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범죄적인 파괴의 력사에서 수치스러운 기록을 세웠다면 우리 인민은 보람찬 건설의 력사에서 영예로운 기록을 창조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방해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을 창조한것은 우리 인민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는 우리 인민이 발휘한 집단적 영웅주의의 뚜렷한 표현입니다. 천리마대진군속에서 배출된 우리의 영웅들은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한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이며 집단적 혁신운동의 기수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모두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과 전설에서 집단적인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는데 력사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수많이 자라나고있는 숨은 영웅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숨은 영웅들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숨은 영웅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고있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새형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숨은 영웅들처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숨은 영웅들의 대렬이 날로 더욱 늘어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방침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증하여줍니다.

우리에게는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유명무명의 영웅들도 많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그들이 세운 영웅적 위훈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항일혁명투쟁을 시원으로 하여 우리 영웅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났으며 대를 이어 계승되고 발전되여온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는 오늘 대중속에서 생활화, 보편화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영웅으로 되여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은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는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착취계급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걸출한 사람만을 영웅이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웅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세운 위훈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사람뿐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공동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을 보위하는 싸움에서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는 전투영웅으로 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혁신적 위훈을 떨치는 로력영웅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초소를 주인답게 묵묵히 지키면서 값높은 공헌을 하는 숨은 영웅으로도 될수 있습

니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은 자주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예로 됩니다.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성원으로서 살아나가는것만큼 생활의 가치는 그가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되며 이러한 값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수 있습니다.

만일 사회와 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도 없고 남겨놓는것도 없기때문에 이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한생은 무의미한것입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것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무의미하게 한생을 보낼것인가 하는것은 삶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두 립장입니다.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사는 생활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게 되며 그것은 미래가 없는 생활입니다. 개인의 한생은 끝이 있지만 사회와 집단은 영원히 존재하며 발전합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생활은 자기 개인과 자기 세대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영원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이며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보람있는 생활입니다.

사회와 집단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한몸의 안락만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생활은 본질상 동물의 생활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개인리기주의적 생활관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고상한 희생성이나 영웅적 행동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과는 비할바없이 귀중하고 영원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것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이라는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웅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영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있는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은 다같이 귀중합니다. 육체적 생명이 건전하여야 사회정치적 활동을 더 잘해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님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나도 그가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게 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와 집단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사회와 집단의 요구는 당과 수령에 의하여 대표되는것만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할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여 값있는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는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것이 영웅적으로 사는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영웅적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값없이 피를 흘리고 보람없이 한생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우리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이끌어주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면 누구나 다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으며 영웅으로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가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성스러운 임무이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고지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로를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식민지체계가 붕괴되고 해방된 인민들이 모두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우리 시대에 조국의 절반땅에서 일제식민지통치에 이어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40년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영웅적 조선인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이 성스러운 투쟁에 참가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쳐야 합니다.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이 령도하는 이 장엄한 투쟁에서 락오자가 된다면 그것은 자기 한생의 수치로 될뿐아니라 후대에까지 치욕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전체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전인민적인 영웅적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벌려온 영웅적 투쟁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령도와 결부되여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몸소 앞장에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근로자들을 천리마의 기수로, 영웅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숨은 영웅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을 따라배워 오늘의 전인민적인 영웅적 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온갖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무한한 헌신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비겁성과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영웅적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는 반드시 현대적인 과학기술과 결부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임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위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지금 벌리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대중운동입니다. 그러나 당조직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지 못하고있는데로부터 아직도 이 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는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이 모든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위훈을 세워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그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며 철저히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영웅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영웅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 사회에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며 영웅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

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 앞에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이 계속 꽃을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웅들을 존중하고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영웅대회준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웅대회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영웅들 그리고 숨은 영웅들이 모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 앞에 위훈을 세운 공로자들과 혁신자들도 많이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영웅대회가 큰 규모에서,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영웅대회를 통하여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일관성있게 관철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 로작《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서른해가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공산주의교양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히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공산주의교양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이다.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의 사상정신도덕적 풍모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쌓으신 대중교양의 풍부한 경험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한데 기초하여 발표하신 력사적 문헌으로서 거기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계속혁명사상이 일관되여있으며 각계각층의 군중을 철저히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실로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 점령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한 고전적 로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발표하심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사상개조, 인간개조의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고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빨리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혁명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였다.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특히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결속되고 온 사회가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절대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과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민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것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혁명적 본분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언제나 높은 계급적 립장과 원칙을 견지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고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고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공산주의적 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전사회적 풍모로 되고있다.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끊임없이 심화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5권, 286페지)

공산주의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멀리 전진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의의는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 사회가 전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된다.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는데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공백이 생겨 부르조아사상이 침습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어버리고 혁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사회에 혁명적인 분위기를 세울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주체사상으로 사회를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투쟁과업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가장 폭넓고 심각한 혁명이다. 공산주의교양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투철하고 공산주의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며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특히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높은 계급의식과 열렬한 조국애의 사상감정,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새 세대들은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가야 할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전진하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그에 맞게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 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그들을 변심을 모르는 혁명가의 신념과 고상한 투쟁정신을 지닌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키울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새로운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보람찬 투쟁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는 지금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높은 혁명적 열정을 안고 영웅적 위훈과 변혁을 창조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200일전투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새 전망계획 수행의 진격로를 더욱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당과 수령의 의도와 원대한 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준엄한 전화의 나날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헤쳐나간 영웅전사들처럼 높은 애국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산주의교양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극 벌려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기상과 기백이 나래치게 할수 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영웅적 위훈과 변혁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있게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전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치하고 새 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있다. 조선반도는 새로운 침략전쟁, 열핵전쟁이 임의의 시각에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발화점으로 되고있으며 조국강토우에는 전쟁발발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는 한편 반공, 반공화국 소동과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전쟁관점을 확립하고 그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무장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를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이처럼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오늘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꾸리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 풍모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주체는 로동계급을 핵심력량으로 하고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 조직화된 사회정치적 집단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 세계관이 투철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관점과 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계급적 립장이 확고한 사람만이 높은 계급적 자각과 원칙성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지켜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할수 있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혁명적 원칙성과 일관성이 없고 동지적 의리와 민족적 존엄을 지킬줄 모르는 현상 등은 다 계급적 립장이 똑바로 서있지 못한 표현들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로동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며 인민대중을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의 내외환경이 복잡한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확고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계급적 자각이 높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참답게 살며 투쟁하는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이다.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이며 그것은 자주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예로 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위업에 대한 높은 헌신성을 지닌 사람은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창조한다.

돈만을 알고 개인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생활은 속물적인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돈에 눈이 어둡고 개인의 안일만을 위하여 사는 생활은 한갖 동물적인 생활과 다를바 없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마땅히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참답게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이며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보람있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일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과 사회, 인민대중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좀먹는 사소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강하게 투쟁하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에 따라 살며 투쟁하는 고상한 기풍이 온 사회에 더욱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과 변혁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빛내여나가는 고상한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려는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이다.

혁명은 무엇보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될수 없다.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열렬한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지닌 사람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렬한 사회주의조국애, 민족애는 그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닐 때 더욱 높이 발양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 고결한 정신으로서 그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만을 내세우는 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애, 민족애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가지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보다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숭고한 애국주의이며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견결히 지키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민족적 자주의식, 혁명적 자부심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높은 민족적 자주의식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며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매일매일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공장과 마을, 자기 일터와 직업을 사랑하고 숨은 영웅들처럼 누가 보건말건 성실히 일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고상한 애국심을 지니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투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련이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계속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려는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주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계속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어떤

환경속에서도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열의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굽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우리 인민의 전투적 기상이 높이 나래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영웅적 위훈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공산주의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공산주의도덕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가장 보편적인 도덕이다. 공산주의사회는 가장 고상한 도덕을 가진 사회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은 도덕풍모에서도 완성된 사람들이다.

공산주의도덕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반영한 가장 고상한 도덕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규범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혁명적 도덕관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혁명동지를 열렬히 사랑하는 고상한 풍모를 지녀야 한다. 또한 숭고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과 인민적 례절을 바로 가지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사회공동생활규범에 맞게 언제나 살며 일하여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인 청년학생들이 퇴페적인 자본주의적 생활풍조에 물들지 않고 혁명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도록 잘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공산주의도덕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하는데서 누구보다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풍부한 인간성과 문화성을 소유하고 언행이 고상하여야 하며 사회법질서를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중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생활에서 소박하며 청렴, 결백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되는대로 다루고 랑비하며 탐오하는 사소한 현상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교양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교양으로서 그것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되여 진행될 때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교양을 철저히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는 한편 반동적 사상독소가 외부로부터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른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빨리 다그쳐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공산주의혁명가의 높은 전투정신과 영웅적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찬란한 미래만이 약속되여 있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

최 문 선

옳바른 투쟁구호를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창조와 위훈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이며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혁명적인 투쟁구호를 제시하는 것이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는 대중에게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가리켜주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힘있는 기치이다. 혁명의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 인민들의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하게 나타나게 된다.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시고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인 구호를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단행본, 13페지)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 구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으며 우리 인민모두를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고 보람찬 혁명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의 한없이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은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싸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구호이다.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은 구호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투쟁구호로 내세울 때에만 그것이 빛나게 관철될수 있고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구호는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구현되여 있는것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구호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이 반영되여있다.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한몸바쳐 나선 자주적 인간의 한결같은 지향이

다. 자주적 인간이 지향하는 값있고 보람찬 삶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 있다.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성원으로서 살아나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와 집단을 떠난 인간, 사회와 집단을 떠난 생활이란 사실상 있을수 없다. 생활의 가치와 삶의 보람은 사람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재부나 지식,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데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하는것을 척도로 하여 평가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되며 이러한 값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수 있는것이다.

만일 사회와 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기여한것도 없고 남겨놓은것도 없기때문에 이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한생은 무의미한것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사는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리기와 향락만을 찾으며 무의미하게 한생을 보내는가에 따라 값높은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갈라진다.

사람이 사회에서 살면서 정치도 나라도 인민도 모르고 오직 자기 개인의 리익과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사는것은 본질상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생활은 결국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게 되며 미래가 없는 생활로 되고만다. 개인의 한생은 끝이 있지만 사회와 집단은 영원히 존재하며 발전하게 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생활은 자기 개인과 자기 세대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영원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생활이다. 바로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이며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가장 보람있는 생활로 된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인민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적 인민이다. 세상에는 우리 인민들처럼 투쟁하기 좋아하고 혁명하기 좋아하며 집단주의적 정신이 강한 인민은 많지 못하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한결같이 지향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혁명적 구호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적 생활관을 지니고 한순간을 살아도 당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길에서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그들의 지향이 반영된 구호이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는 또한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는 길을 가리켜주는 혁명적 구호이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며 사람이 가지고있는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은 다같이 귀중하다. 육체적 생명이 건전하여야 사회정치적 활동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는 생명이며 영생하는 생명이기때문이다. 육체적 생명은 개인에게 체현되여있기때문에 끝이 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집단에 체현되여있기때문에 영생한다. 물론 육체적 생명이 끝남과 함께 개별적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활도 끝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집단이 존재하는 한 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그 집단과 함께 영생하게 된다.

사람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될 때 지니게 되는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와 집단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빛나게 된다. 사회와 집단의 요구는 사회적 생명체의 공고발전을 위한 자주적인 생명력이다. 사회와 집단의 요구를 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될 때 사람들은 사회와 집단과 튼튼히 결합되게 되고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게 되는것이다.

사회와 집단의 요구는 당과 수령에 의하여 대표되는것만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할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인민이다. 우리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누구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육체적 생명도 귀중하지만 그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사는 인민이기때문에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을 한결같이 지향하고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굽임없이 빛내여 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가리켜주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우리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로, 전투적 기치로 되는것이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구호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제시된 구호이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려는 인민들의 념원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지난날 착취계급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걸출한 사람만을 영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통사람들은 영웅이 될수 없는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웅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세운 위훈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사람뿐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될수 있는것이다. 인민대중의 공동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을 보위하는 싸움에서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는 전투영웅으로 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혁신적 위훈을 떨치는 로력영웅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초소를 주인답게 묵묵히 지키면서 값높은 공헌을 하는 숨은 영웅으로도 될수 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의 대렬은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운 영웅의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 로력영웅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출신들이다. 그들에게서 남다른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것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로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빼앗긴 조국과 짓밟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밀림과 광야에서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며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그 어떤 명예칭호나 훈장으로도 다 평가할수 없는 빛나는 공적을 세웠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영웅들은 조국이야말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 바쳐 보답하려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깊은것으로 하여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로 육박해들어갔으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숨은 영웅들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당과 수령이 모든 사람들을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있기때문에 누구든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수 있다.

영웅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라 키워진다. 지난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것이 영웅적으로 사는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값없이 피를 흘리고 보람없이 한생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일제의 조선침략을 전후한 시기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의 길에 나섰지만 그들을 옳바로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기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고 놈들의 총칼에 무참히 희생되고말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영웅적 투쟁에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영웅적으로 살게 되였고 수많은 영웅을 낳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이 낳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자라났으며 그 위훈을 빛내이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면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으며 영웅이 될수 있는것이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구호는 또한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견결한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혁명위업수행에 대한 견결한 립장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은 구호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우리앞에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절박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가까이 바라볼수 있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계속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나감으로써만 우리는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있게 다그치면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도 커다란 고무를 주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은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말살해보려고 계속 힘의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정치경제적으로,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켜보려고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과 세계제국주의세력을 규합하여 우리 나라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며 우리 나라를 헐뜯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는 어렵고 방대하지만 우리 혁명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우리가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 공세도 짓부시며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구호는 영웅성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온 나라에 대중적 영웅주의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감으로써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구현되여있는것이다.

참으로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당의 구호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투쟁과 생활의 뚜렷한 목표와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구호는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로 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온갖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무한한 헌신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비겁성과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영웅적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관철해나가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구호의 본질과 내용, 구호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옳바른 방법론을 세우고 구호의 요구를 실속있게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대중운동이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구호를 관철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구호는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전진의 기치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40돐기념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강령적 보고와 전국영웅대회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다시한번 200일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떨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으로 이루어진 전일적인 혁명관

박 승 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문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혁명관을 발전풍부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견결한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지도적 지침을 명시한 불멸의 저작이다. 문헌에는 주체의 혁명관의 혁명적 본질과 그 구성부분들,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명되여있다. 문헌에 의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의 굽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 시대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올바른 해답이 주어졌으며 주체의 혁명관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그 전반내용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는 문헌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혁명적 실천투쟁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올바른 혁명관으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원칙적 문제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운동의 목적과 그 실현방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며 견결한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가지게 하는 혁명관을 지녀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창입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운다는것은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현방도를 옳게 인식하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각오와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단행본, 3~4폐지)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에 대하여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관점과 립장이다.

혁명에 주인으로서 대하는가 아니면 동반자로서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관을 가지는데서 원칙적인 차이를 가진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혁명에 대하도록 한다.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발전의 결정적 요인인 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혁명에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대한다. 혁명에 자주적으로 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객관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혁명투쟁과정을 주동적으로 지배해나갈수 있다는 견지에 서는것이며 혁명에 창조적으로 대한다는것은 혁명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과 건설을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견지에 서는것이다. 그리고 혁명에 의식적으로 대한다는것은 인

민대중의 리해관계에 맞게 혁명발전과정을 의식적으로 추동해나갈수 있다는 견지에 서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에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대하여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더 높여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운다는것은 우선 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수행방도에 대한 옳바른 인식를 가진다는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본질을 사회제도의 교체로 보는데 머무르지 않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으로 보며 혁명의 목적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는데 두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 둔다. 그리고 혁명수행방도를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기초한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리해에 머무르지 않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찾는다.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현방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혁명을 사람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을 조직동원하면 혁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혁명적관점을 가지게 된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운다는것은 또한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각오와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한다는 것이다.

혁명관은 일반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이며 단순한 인식으로서가 아니라 신념으로 체득되는것이다.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은 주체의 혁명관의 필수적인 내용을 이룬다. 주체의 혁명관이 담고있는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이며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강의한 혁명정신이다. 그것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히 이겨내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며 혁명조직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의 정신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이러한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단두대우에서도 변치 않는 불굴의 혁명전사로 되게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에서 주체의 혁명관의 본질적 내용을 심오히 밝힌데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관이 4대구성을 가진 전일적인 혁명관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결합되여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것처럼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여 하나의 전일적인 혁명관을 이루게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페지)

위력한 혁명관을 가지려면 혁명의 주체에 대하여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혁명투쟁에는 혁명의 객관적 조건과 혁명의 주체가 동시에 작용한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이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로부터 혁명관은 수령에 대한 관점과 립장인 수령관, 당조직

에 대한 관점과 립장인 조직관,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과 립장인 군중관을 구성부분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혁명의 주체가 사회정치적 생명체인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적 사랑에 기초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할것을 요구하는 도덕관에 의하여 안받침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은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도덕관에 의하여 담보되게 된다. 여기로부터 주체의 혁명관은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구성부분으로 하게 된다.

주체의 혁명관을 이루는 구성부분들인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자체의 고유한 내용을 가진다.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보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관점과 립장이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집단에서 수령은 그 중심으로 된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생명의 중심이 생명체의 생존과 활동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것처럼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생명력을 지닐수 없다.

수령을 단순히 최고지휘관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지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 어느 계급에 있어서나다 공인되여있지만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 자기 수령을 내세운 계급은 로동계급밖에 없다.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지휘하는 사람과 지휘받는 사람의 관계에만 귀착되지 않는다. 만일 지휘하는 사람은 지휘할 권리만 있고 지휘받는 사람은 지휘에 복종할 의무만 있다고 보면 그것은 순전히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지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관계라고 볼수는 없다. 지휘하는 사람과 지휘받는 사람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만 보는 부르죠아민주주의견지에서는 혁명적 수령관을 리해할수 없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주체의 수령관을 가져야 사람들은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보고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동지적으로 결합되여야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된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할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도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생명의 중심이시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자기들의 운명이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다는것을 깊이 체험하였기때문이다.

주체의 수령관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할것을 요구한다.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혁명투쟁을 해나가는것은 곧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는것으로 된다. 혁명전사는 수령에게 충실할수록 수령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보다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되며 개인주의적 생명관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라야 주체의 수령관이 튼튼히 선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의 구성부분인 조직관은 당을 사회정치적 집단에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으로 보며 당

조직을 자기 생명의 모체로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면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되고 그것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결합체이다. 당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수령에 대한 관점과 립장,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다같이 포괄하게 된다. 수령관을 혁명관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보는 조건에서 당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결국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 귀착된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관의 구성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관과 당관이라고 하지 않고 수령관과 조직관이라고 하는것이다. 조직관은 당조직뿐아니라 당의 령도밑에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모든 사회정치적 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포괄한다.

조직의 귀중성은 단결의 필요성과만 관련되여있는것이 아니다. 물론 혁명을 하자면 조직적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단결하여야 강력한 힘으로 투쟁을 벌릴수 있다.

그런데 조직의 귀중성은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련관되여있다. 개인의 생명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에 모체를 두고있다. 인민대중은 혁명조직을 모체로 하여서만 하나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조직을 떠나서는 그누구도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될수 없으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없다. 그러므로 주체의 조직관은 혁명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고 투쟁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을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혁명적 군중관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며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것을 생활화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이 인민대중우에선 존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당은 인민대중자신의 향도적 핵심력량이며 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들의 투쟁을 이끌어나갈 의무를 지니고있다. 당은 이러한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는것으로서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것이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군중을 깔보고 군중에게 호령하게 되며 자기를 특수한 존재와 같이 생각하면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게 된다.

혁명적 군중관은 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에게 복무할 각오를 가지는 동시에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것을 생활화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의 승패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리게 된다. 개인과는 달리 인민대중만이 인류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모든 사회적재부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자신을 자체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창조적 힘을 지니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을 하자면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면 주체의 혁명관의 요구대로 대중의 힘을 믿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의 리익이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사회와 혁명을 위하여 높은 창발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 도덕관은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며 혁

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공산주의 도덕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이 신념화되자면 혁명적 도덕관과 결부되여야 한다.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규범이다. 그러므로 혁명적 도덕관은 혁명적 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혁명적 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더 귀중하게 보는 사회적 의식이다. 그런데 수령, 당, 대중은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로 된다.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적 량심에 기초한 도덕에 의하여 담보될 때 그것은 참으로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공산주의도덕은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에서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되여야 한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자연스러운 일로 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권력에 대한 사회생활의 규제범위는 점차 줄어들고 공산주의도덕에 의한 사회생활의 규제범위는 더욱 확대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서 권력의 작용이 점차 줄어들고 도덕의 작용이 끊임없이 확대되여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과정에 맞게 동지들사이의 관계와 가정생활, 사회공동생활에서 공산주의도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관을 이루는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유기적으로 련관된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수령, 당, 대중이 전일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수령, 당, 대중은 유기적인 통일체로 되여 혁명의 주체로 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으며 대중과 떨어진 당과 수령도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다. 수령의 역할,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이 밀접히 결합되게 되는 기초가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따라서 그사이에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위력한 도덕적 요인으로 된다. 이것으로 하여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이 혁명적 도덕관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그와 결합되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주체의 혁명관이 수령관을 핵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의 혁명관을 이루는 구성부분들은 수령관을 핵으로 하여 전일적으로 결합되여있다. 수령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며 당과 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여야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있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관은 혁명관의 핵으로 되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관의 모든 구성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련관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주체의 혁명관의 모든 구성부분들이 사회정치적 생명, 사회적 집단의 생명을 중시하는 관점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육체적 생명에 비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보는 관점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개인의 생명의 모체로 보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토대하여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에게 충성다하며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고수하고 빛내이려는 관점과 립장이며 조직관은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정치생활을 발전시켜나가려는 관점과 립장이다. 군중관은 군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군중속에서 군중의 리익을 위하여 살며 투쟁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려는 관점과 립장이며 도덕관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령, 당, 대중에 대한 혁명적 의리를 마땅한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관점과 립장이다.

이처럼 주체의 혁명관은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이루어진 전일적인 혁명관이며 사람들이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영생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자면 그것을 인생관화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적 인생관을 반대하고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가질 때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수 있다.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사회정치적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게 된다. 그리고 자기자신과 자기 세대만을 위해서뿐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수 있으며 자기 인민뿐아니라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정치적 집단인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 여기에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함으로써 혁명관이 인생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관을 철저히 세우자면 또한 그것을 일반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그것이 확고한 신념과 불변의 의지로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고유한 품성으로 체질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 문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에서 혁명관에 관한 문제에 전면적인 심오한 해명을 주신것은 주체사상의 심화발전과 주체의 혁명위업 실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문헌에 의하여 우선 주체의 혁명관의 본질이 심오하게 해명되고 그 4대구성부분이 독창적으로 천명됨으로써 주체의 혁명관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혁명적 세계관이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더한층 심화발전되였다.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위력한 사상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 견해

김 화 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력사적 지위에 대한 새롭고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명철하게 밝히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명시한 력사적 문헌이다.

문헌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 견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혁명정세를 옳게 평가하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1페지)

현대제국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가지는것은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을 옳바로 세우며 그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이다.

현대제국주의는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 흐름을 가로막는 기본세력으로 되고있다.

인류력사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은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해지고있다. 이와 함께 오래동안 전개되여온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세계적 범위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현대제국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칠수 없으며 현대제국주의를 멸망시키지 않고서는 매개 나라 혁명과 나아가서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적지 않게 변모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형형색색의 부르죠아변호론과 기회주의적 리론들이 꾸며졌으며 나돌고있다. 그것들은 현대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반제투쟁과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적 작용을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혁명적 립장을 가지는것이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우며 그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반제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고귀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 혁명은 현대제국주의의 두목 미제국주의와 그 동맹자인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류달리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은 걸음마다 제국주의와의 어려운 격전속에서 전개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제국주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혁명적인 원칙과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

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모든 절박한 요구를 통찰하시고 현대제국주의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그 진면모와 운명에 대한 주체적 견해를 확립하시였다.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문제는 현대제국주의의 정체를 어떻게 보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를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이 어떠한가 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변화된 력사적 조건에서 오늘의 제국주의가 지난날의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어떤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제국주의력사에서 오늘의 제국주의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고 그 전도가 어떤가 하는것이다.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은 뗄수 없게 련관되여있다. 그것은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에 의하여 그 처지와 전도가 규정되며 현대제국주의의 운명이 그 특징에 반영되기때문이다.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이 정확히 밝혀져야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을 옳바로 해명하는것은 현대제국주의리론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기본적인 문제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명하신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을 특징짓는 자본주의세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본주의렬강들사이의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주의렬강들사이의 관계가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에로 넘어간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폐지)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뜯는 관계로부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넘어간것, 이것은 제국주의세계에서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면에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특징으로 된다.

제국주의는 자본이 국제적으로 련결되여있는것만큼 세계적인 체계를 이룬다. 제국주의의 세계적 체계에서 나라들사이에는 일정한 호상관계가 맺어지기마련이다.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원래 약육강식의 관계,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제국주의의 본성과 제국주의나라들의 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그러나 그의 양상과 성격은 제국주의나라들의 세력관계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미제국주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독점권과 지휘권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자본주의세계의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미제국주의는 자본주의세계를 군사경제적으로 장악통제하게 되였으며 장성하는 사회주의력량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정책에 미쳐날뛰게 되였다.

미국독점자본은 발전된 기술과 우세한 경제력에 의거하여 자본의 대외진출을 강화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 새끼회사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체들을 만들어냈다. 다국적기업체들은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많이 출현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의 팽창과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다국적 기업체들이 자본주의세계의 경제를 틀지우지하게 되였다. 다국적기업체들은 지금 자본주의세계 공업생산과 무역액, 기술특허권의 대부분을 틀어쥐고있다.

다국적 기업체들을 통하여 추진된 자본의 국제화과정의 중요한 결과는 자본주의나라들의 호상관계의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한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전에는 자본주의렬강들이 상품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치렬한 경쟁을 벌렸다. 그것은 파괴적인 무장충돌과 전쟁으로까지 번져졌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 격화된 모순과 대립의 폭발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사정은 달라지게 되였다. 자본이 더욱더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세력을 뻗치고 련합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렬강들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결탁하게 되였다. 자본주의렬강들이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꺼꾸러뜨리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소모하였다면 이때부터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강화해야 하는 리해관계의 일치로 하여 서로 힘을 합치게 되였다. 여기에서 력량상 우세한 지위에 있는 미제국주의가 그 중심으로 되였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 모순이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시기 그들의 모순은 부차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오히려 협력과 결탁이 자본주의렬강들사이의 관계에서 주되는것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동안에 170여차의 크고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도리여 군사쁠럭을 통하여 그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적 침략전쟁은 자본주의렬강들사이의 군사적 결탁관계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세계제국주의가 결탁하는 방향에서 재조직화된것은 파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가 되살아날수 있게 하였으며 경제기술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명하신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통치수법과 략탈방법이 더욱 교활해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 결탁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통치수법과 략탈방법도 더욱 교활해졌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제국주의의 통치수법과 략탈방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며 착취적, 략탈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그것들을 변경시킨다.

사회주의력량의 급격한 장성, 로동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앙양은 제국주의의 존재자체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한사코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로동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무마시키며 그것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보다 교활한 수법들과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되였다.

자본주의제도를 보존하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 로동운동을 와해시키는데 큰 힘을 넣게 되였다. 이러한 책동에서 기본으로 삼고있는것이 로동귀족을 의도적으로 많이 길러내고있는것이다. 독점자본에 매수된 너절한 앞잡이들인 로동귀족은 제국주의자들의 비위에 맞게 로동운동을 분렬파괴하고있으며 제국주의국가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밀어주고있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자본의 지배체제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자본가들이 로동귀족을 별동대

로 리용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추악한 책동은 다른 편으로 자본주의적 착취를 은페하고 실업과 빈궁으로 인한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기업이 자본가와 로동자의 《운명공동체》라느니 그들사이의 관계가 《인간관계》로 되였다거니 하면서 자본가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과거의 일로 되고 그들의 리해관계가 같아지게 된것처럼 분칠하고있다. 또한 자본가의 기업이나 부르죠아국가가 몇푼 안되는 《보조금》이나 《수당금》, 기타 사회적 시책비 등을 통해서 실업과 빈궁을 없애며 근로자들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애쓰는듯이 묘사하고있다. 나아가서 그들은 근로자들이 반항할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기업의 《발전》과 국가의 《리익》을 위해서 《협력》할것을 설교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밖으로 식민지를 략탈하는 방법도 바꾸어 신식민주의에 의거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를 착취하며 략탈하는데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떠나서 제국주의는 존재할수도 없고 살찔수도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달라져 더 교활하고 음흉한것으로 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강압적 방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략탈하였다. 그들은 식민지를 령토적으로 병합하였으며 거기에 폭력기구를 비롯한 현지지배기구를 설치하고 강권으로 통치하였다. 식민지들에 아무런 형식상의 자주권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은 통치자, 략탈자로서 식민지인민들과 직접적으로 적대되는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적 방법에 의거하면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처럼 가장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이른바 《원조》를 제공하여 도와주는듯이 위선을 부리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신식민주의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하는데도 매우 유리한 수법으로 되였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렬강들이 제각기 식민지에 들어가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개싸움을 벌렸다.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전쟁도 사실상 식민지와 세력권을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그러나 신식민주의수법을 쓰면서부터는 제국주의나라들이 공모결탁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뚫고들어가게 되였다. 이른바 《집단적 신식민주의》가 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여러나라들이 참가하는 《협정》, 《동맹》, 《기구》 같은것을 꾸며가지고 그것들을 《집단적 신식민주의》의 도구로 악용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약속》한 기만적인 《개발》, 《협조》 등의 미명밑에 서로 합세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원조》의 간판을 들고 그것을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속이며 그들의 반항을 무마시키는 미끼로 삼고 손쉽게 상품시장과 원료자원을 확보할수 있게 되였다.

현대제국주의는 보다 교활한 새로운 통치수법과 략탈방법에 의거함으로써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간신히 유지하며 연명할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명하신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또한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제국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6페지)

현대제국주의는 제국주의대변자들이

떠벌이고있는것처럼 자본주의기본모순이 해결되고 장성하며 번영하는 자본주의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모순과 위기 속에 허덕이고있는 제국주의이다.

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결탁, 그들의 보다 교활한 통치수법과 략탈방법은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을 해결하고 위기를 완화시킨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시켰으며 격화시켰다. 오늘 그것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성과 다극성, 전면성을 띠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형편이 더욱 악화되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휩쓸고있다. 신식민주의적 략탈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민족산업을 몰락시켰으며 자본주의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능력을 약화시켰다. 이것은 꺼꾸로 발전도상나라들을 희생시켜 살쪄온 제국주의렬강들자신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잉여상품을 실현하는데서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으며 이 나라들에 대한 차관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부득이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통화가 팽창되는것을 막을수 없게 되였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처지가 날로 더욱 어렵게 되여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자본주의렬강들이 직면하고있는 공통된 위기를 겪고있을뿐아니라 자본주의세계에서 차지하여온 지배적 지위가 점차 약화됨으로써 곤경에 빠지고있다. 미제는 이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며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는 방향에서 찾고있다.

군비확장과 경제의 군사화는 침략과 전쟁을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는 제국주의의 동반자이며 더 많은 리윤을 탐내는 독점자본의 중요한 횡재수단이다. 독점자본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군비확장과 경제의 군사화를 결코 그만두려하지 않는다. 미제가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을 계속 추진시키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군비확장과 경제의 군사화, 그에 따르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지출은 미국의 경제를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파국상태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옳바른 출로는 무엇보다도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은 방대한 자연부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가 발전하여야 시장문제가 제대로 풀릴수 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에 계속 매달림으로써 결국은 자멸의 길을 걷고있다.

앞으로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격화되게 될것이다. 오늘은 비록 제국주의렬강들이 저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결탁하고있지만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힐수록 그들사이에 리해관계가 대립되고 갈등과 모순이 격화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자체의 심각한 내부모순을 안고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한것 같지만 안으로는 날로 우심해지는 모순으로 하여 병들고있으며 썩어가고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인간생활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모순과 위기 속에서 몸부림치는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풍족하게 살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서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는 더욱더 높은 차원에서 제기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장성하는 자주적 요구와 악화되여가는 정치생활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할수 없다. 자본주의는 그것들을 날이 갈수록 우심하게 만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절대로 자본주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뿐아니라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어긋나게 점점 더 반동화되여가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생활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파멸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력사무대에서 순순히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현대제국주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면서 멸망해가고있는 제국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제국주의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있으며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는 미제와 국제반동들은 평화와 진보의 성새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행동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으로는 핵무기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날라리춤을 추고있다.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진보적 인민들을 굴복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으며 보다 교활해지고있다. 제국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반동성과 침략성은 강화되고있으며 횡포성과 교활성이 결합된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책동은 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발악적인 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취약성의 표현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반동화되여 발악하면 할수록 인민대중은 혁명적으로 각성될것이며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멸망의 날은 더욱 가까와올것이다.

현대제국주의가 림종에 가까와가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를 확립하신것은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견해는 제국주의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 한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 재부이다. 우리 시대 사상리론의 진리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함으로써 확고히 담보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제국주의를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시고 그 진면모와 운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주체적리론의 근본초석이 새롭게 정립되였으며 혁명적인 반제투쟁전략의 과학적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문헌에서 정식화된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견해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제반 변화들의 내용과 그 본질을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한 과학적인 결론으로 된다. 문헌에서 제시된 리론들에 의하여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을 특징짓는 리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제국주의의 특징과 그 력사적 지위를 규정하는 리론이 전면적으로 정연하게 체계화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제국주의리론은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 견해를 근본초석으로 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리론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리론에서 이전의 단계를 멀리 벗어난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불면불휴의 창조적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시고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신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견해는 인민대중을 반제자주위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이다.

문헌에서 천명된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인 리론을 가지게 됨으로써 반제투쟁에서 무엇보다먼저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에 투쟁의 예봉을 돌리며 미제를 중심으로 공모결탁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걸음마다 분쇄하며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과 협조의 전략으로 맞설수 있게 되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통치수법과 략탈방법에 대해서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도 단호히 배격하고 혁명적 원칙성과 적극적인 투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되였다.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 리론은 모순과 위기 속에 허덕이며 멸망을 앞두고 허장성세하며 발악하는 현대제국주의의 정체와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환히 밝혀줌으로써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락관을 가지게 하며 반제투쟁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현대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는 제국주의의 대변자들과 부르죠아변호론자들에게 치명적인 철추를 안긴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명하신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 리론은 인민대중의 반제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그 승리를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무기로 된다.

우리는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변화된 사회계급구성에 맞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창조적 리론

김　　화　　종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문헌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반제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변화된 사회계급구성에 맞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창조적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려면 사회계급구성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옳게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구성에서 일어난 변화를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이에 맞게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운명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심오히 해명하시면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계급구성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원칙적 방도를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시대가 제기한 절박한 력사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　　*

주체적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계급구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력량을 강화하려면 사회계급구성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옳게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13페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은 소여 나라의 사회계급구성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계급구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사회를 이루는 각이한 계급, 계층의 지향과 요구, 그들의 정치적 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립장과 태도를 바로 가질수 있으며 올바른 계급 정책과 로선을 세울수 있다. 사회계급구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는 혁명력량편성을 위한 옳은 전략을 세우고 주체적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제2차 세계대전후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계급구성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나라들에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그들이 수적으로 근로자대렬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인테리대렬이 늘어나는것은 합법칙적 현상이다. 그것은 현대적인 산업의 발전이 과학기술적 수단의 발전뿐아니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일것을 요구하는것과 관련된다. 최신과학기술에 기

초한 생산수단의 발전과 함께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줄 아는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현대적인 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는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를 현저히 줄이게 하고 생산로동에서 기술로동, 정신로동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한다. 또한 전사회적 범위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물질문화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난다.

근로자들의 내부구성에서 기술로동과 정신로동, 비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테리대렬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계급구성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것을 의미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난 사회계급구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이러한 변화는 공산당, 로동당들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난 사회계급구성에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반동적 부르죠아사상가들은 《로자간의 모순이 해소》되고 《번영하는 자본주의》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떠들면서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교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구성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는 부르죠아사상에 굴복하여 자본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게 되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마치도 로동계급의 당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되고 혁명이 점차 퇴조하는것처럼 보는 기회주의, 개량주의에 떨어질수 있다.

실제상 우익사회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은 현대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리념적 목표로 삼았던 과업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청산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여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통제하는 〈사회기구〉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런 립장으로부터 이자들은 인민대중이 독점자본을 타도할것이 아니라 자본주의테두리안에서의 부분적 개량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대중운동을 배합하는것이라고 설교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변호론이며 인민대중을 혁명에서 떼여내려는 유해로운 반동적 리론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변화된 사회계급구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지 못하면 육체로동을 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고 기술로동,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인테리대렬이 많이 늘어나는것이 마치도 로동계급의 당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축소되는것으로, 사회주의혁명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는것으로 그릇되게 판단하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구성에서의 변화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들의 사회계급적 지반을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킨다는 명철한 과학적 해명을 주심으로써 사회계급적 지반에 대한 가장 옳바른 평가를 내릴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구성에서의 변화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사회계급적 지반을 확대시켰다는 새로운 해명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의 사회적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가장 정확한 독창적 해명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에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며 그들의 생활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질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처지에서는 근

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기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건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건 그들은 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육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과 기술문화수준에서와 로동조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임금을 받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사회계급구성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생산수단을 소유한 착취자인 자본가와 자기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로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피착취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 대립과 모순은 해소될수 없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물질경제생활이 일정하게 개선되였다고 하여 경제생활령역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것은 아니며 사상문화생활과 정치생활 령역에서의 그들의 자주성은 의연히 혹심하게 유린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은 날이 갈수록 근로대중의 로동력을 더욱더 교활하게 착취하고있으며 상품판로가 점점 더 제한되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기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자본가들은 날로 위태롭게 되여가는 저들의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회유, 기만하고 매수하는 교활한 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통치기구를 파쑈화하고 더욱더 반동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가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받고있을뿐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상문화적으로 억압과 구속을 받고있는것만큼 자본주의제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있으며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여 자본가에게 고용되고있는 근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것은 곧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대렬이 늘어나는것으로 된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종래의 의미에서의 로동자대중과 새로 늘어난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합하면 자본가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수가 전체 직업주민의 80~90%를 차지한다. 이것은 공산당, 로동당들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된것이 아니라 확대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명철하게 내리신 현대자본주의나라 사회계급구성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는 반동적 부르죠아사상과 그에 굴복하여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혁명을 포기하는 온갖 개량주의, 기회주의에 섬멸적 타격을 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그 순결성을 옹호고수할수 있게 한다. 이 독창적인 과학적 평가가 주어짐으로써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변화된 력사적 조건에 맞는 혁명력량편성의 리론적 기초를 가장 정확히 해명하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능동적으로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 문헌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구성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3페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 조건이며 그 기본요인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일어나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추동되는 사회적 운동이다. 아무리

혁명에 유리한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였다 하더라도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자본주의는 이미 썩고 병들고있으며 그자체에서는 해결할수 없는 사회적 모순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없앨수 없을뿐아니라 높아지는 물질생활과 날로 빈궁하여지는 정신문화생활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장성하는 자주적 요구와 악화되여가는 정치생활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할수 없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자본주의는 파멸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준비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현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 앞에 사회계급구성이 많이 변화된 력사적 조건에 맞게 광범한 근로대중을 쟁취하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릴것을 미룰수 없는 력사적 과제로 제기하고있다.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꾸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화하여 혁명의 편에 확고히 쟁취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지만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혁명투쟁에 나서는것은 아니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인것만큼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은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의 로동계급은 지난날과 같은 무산계급이라고만 볼수 없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로동계급은 선행고전가들이 잃을것이란 철쇄밖에 없다고 한 지난날의 무산자들과는 다르다. 혁명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무산자인가 유산자인가 하는데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려는것은 자주적 인간의 근본요구이다. 자주적 존재인 사람은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풍부한 정신생활을 누리며 정신문화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물론 경제생활에서의 자주적인 요구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서 나서는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요구이며 따라서 경제생활에서의 궁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 나서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경제생활조건이 개선되였다고 하여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가 다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아와 빈궁에 못이겨서만 혁명에 나선다고 볼수는 없는것이다.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이 짓밟히는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문제는 오늘날 부르죠아지의 반동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부르죠아지의 반동적 사상공세로 하여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이 류포되여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몽매하게 만들고있으며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여 사람들을 극도로 타락시키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르죠아지들은 또한 로동귀족을 길러내여 로동계급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그를 완전히 어용화함으로써 로동운동내부를 분렬시키고 무맥한것으로 만들려고 갖은 책동

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대중을 혁명화하고 혁명의 편에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리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없으며 혁명을 앙양에로 이끌어갈수 없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인테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인테리들은 사회의 경제생활과 사상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뿐아니라 정치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정치생활에서 인테리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고 인테리들을 의연히 지난날과 같은 사회간층으로, 동요하는 소부르죠아계층으로만 보는 낡은 관점에 머물러있게 되면 그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대신에 경원시하게 되며 결국은 직업주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대중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테리에 대하여 그릇된 관점으로부터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당은 례외없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정치적 력량관계에서 우익반동정당들에 밀리우는 처지에 떨어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인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혁명세력과의 대결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것이다.

사실 자본주의나라 인테리로서 한때 사회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계속 투쟁해나가지 못하는것은 사회계급적 처지의 제한성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사상적으로 옳게 교양하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비록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는것만큼 자본주의제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있으며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인테리가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혁명의 기본동력의 하나로 될수 있다는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

근로대중을 혁명화하여 쟁취하는데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로동계급의 당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사업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으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없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당을 건설하는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당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당은 원래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 조직체인것만큼 유일한 지도사상과 유일적 령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자기의 지위를 고수할수 없고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죠아사상과 소부르죠아사상, 기회주의, 개량주의와 같은 각양각색의 잡사상이 판을 치고있으며 부르죠아지의 반동공세가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할뿐아니라 조직된 정치적 력량으로서의 존재도 유지할수 있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은 다름아닌 당의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수령의 사상이다. 유일한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만이 가장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전투적 단결로 되며 수령의 유일적 령도만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승리적 전진을 확고히 담보한다. 이것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혁명발전의 전과정에서 일관하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실증된 혁명의 진리이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테리들을 포함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들을 혁명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지는것이다.

혁명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혁명리론이 행동의 옳바른 지침으로 되려면 시대의 발전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발전시켜야 하며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시대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는 과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전과정에 그것을 발전완성시키시였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실천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가장 옳바르게 풀어나가고있으며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사소한 편향도 없이 혁명을 끊임없는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투쟁의 력사적 경험은 당이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구현해나갈때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듯 불후의 고전적 문헌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독창적인 전략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자본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길을 뚜렷이 명시하시였다.

참으로 변화된 사회계급구성에 맞게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리론은 자본의 아성을 짓부시는 새로운 혁명의 거세찬 폭풍을 휘몰아오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이며 현대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치는 불패의 전투적 기치이다. 이 독창적인 리론을 실천에 정확히 구현해나갈 때 인민대중의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보다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제국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는것은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 량 제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그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어떠한 생활기풍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혁명적 생활기풍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투적으로 긴장하게 살며 투쟁하는 태도와 품성을 말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자향과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전투적인 생활기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 생활기풍을 지녀야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200일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 구호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앞에 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조직해나가는 여기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밀고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소한 주저와 흔들림이 없이 우리 당의 의도대로 혁명적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온 사회에 전투적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제국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 손으로는 핵무기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날라리춤을 추고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굴복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지고있습니다.》(《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12~13페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는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제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력량의 급속한 장성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앙양에 질겁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

외의 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었으며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간판밑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랭전정책을 실시하면서 군사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매수를 악랄하게 진행하는 한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투를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놈들은 오늘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으며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들을 만들어 류포시킬뿐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적 생활기풍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확립되게 된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는것은 우선 사람들이 건전한 자주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생활기풍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제약되게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이 어떤 사상으로 무장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의 생활기풍이 규정되게 된다. 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언제나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투쟁기풍을 가지게 되지만 부르죠아사상에 물젖으면 개인의 안락과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면서 헛되게 살게 된다.

부르죠아사상은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오직 돈벌이만이 인간생활의 최고목적으로 되게 하는 최악의 반동사상이며 사람들의 건전한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이다. 부르죠아사상은 사람들에게 노예굴종사상을 주입시켜 그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킨다. 사람들이 부르죠아사상에 물젖으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며 변태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로, 정신적 불구자로 되게 된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사상이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좀먹고 온갖 사회악을 낳게 하며 건전한 혁명적 기풍을 확립할수 없게 하는 사상적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만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높이고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의 진공상태란 있을수 없다. 만일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머리속에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할수 없으며 전투적인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할수 없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는것은 또한 사람들속에서 부르죠아생활양식이 발붙일수 없게 함으로써 혁명적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양식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말한다.

사람들의 생활기풍은 그들이 어떤 생활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며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달라지게 된다.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으로 살며 일할 때에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 생활기풍을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부르죠아적 생활방식대로 행동할 때에는 사람들이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안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안일해이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게 된다. 그것은 생활기풍이 사상과 생활양식의 구

제적인 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적인 생활양식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러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혁명적인 생활양식이 확립되는것은 아니다. 혁명적 생활양식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과 함께 썩어빠진 부르죠아적 생활양식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된다.

부르죠아생활양식은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그것은 안일해이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부패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추악한 생활양식이다.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온갖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국식 생활양식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부패한 생활양식이 만연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고 병든 말세기적인 생활풍조가 판을 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상적 대변자들은 죽어가는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적 생활양식을 류포시켜 우리 혁명대오를 안으로부터 파괴하고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만일 우리가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막기 위한 투쟁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내부에 스며들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속에서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혁명하기를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혁명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 여기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이 모든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확립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조성된 정세로부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늦추지 말고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임무는 온 사회에 언제나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불건전한 사상요소와 생활기풍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금물이며 투쟁과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제국주의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온갖 이색적인 요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불건전한 생활풍조와 생활양식을 배격하며 온 사회에 전투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할 때라야만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은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

들이 평화와 진보의 성새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과 세계제국주의세력을 규합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핵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며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조성된 현정세는 놈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혁명적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혁명이 전진하여오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새 세대들속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고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문화건설분야에서 조그마한 부르죠아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279페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여주는 위대한 사상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량식이다.

혁명적 생활기풍은 혁명사상, 혁명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생활에 구현된것이다.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부르죠아사상문화적 침습을 성과적으로 막아내고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밖으로부터 병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는것처럼 사람들의 머리속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야 사상문화적 침투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 하여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여 그들을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아무리 발악적으로 책동하여도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르죠아사상과 문화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는것이다.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 생활양식이란 어떤것이며 그것이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에 얼마나 해독적인 작용을 하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그 침투를 막고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람들은 부르죠아사상이 얼마나 반동적인 사상이며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양식이 얼마나 썩어빠진것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그것의 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고취하면서 사람들을 착취계급에게 순종할것을 설교하는 부르죠아사상의 반동적 본질과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며 온갖 패륜과 패덕이 판을 치게 하는 부르죠아문화와 생활양식의 반동적 본질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배격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사람들의 생활분야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생활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생활잔재는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가 발붙일수 있는 요소이며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다. 사람들의 생활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잔재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뿌리깊은것으로서 한두번의 강조나 교양만으로써는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다.

우리는 생활과정에 나타나는 낡은 생활인습의 자그마한 요소도 묵과하지 말고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가 발붙일 틈을 철저히 없애버리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온 사회에 혁명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언제나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온 사회에 영웅적 투쟁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백두산밀영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사적물들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내이는 귀중한 재부

강 석 숭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력사를 더욱 풍부히 해주는 새로운 혁명사적들이 수많이 발굴되여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이번에 발굴된 혁명사적들이 분포되여있는 구역은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량강도일대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으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8만 6,000여대의 껍질벗긴 나무와 1,700여대의 구호나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밀영지, 집터자리, 천막자리, 우등불자리와 각종 생활도구 등 귀중한 혁명 유적, 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였다.

새로 발굴된 혁명 유적, 유물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간고한 항일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문헌적으로, 물질적으로 담보해주는 귀중한 력사적 증거물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서 수많은 혁명 유적, 유물들을 새로 발굴한것은 항일혁명투쟁력사를 풍부히 할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보입니다.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혁명사적은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꾸려진 비밀근거지가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의거하여 활동한 혁명의 보루였으며 우리 혁명의 책원지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혁명적 재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이 담고있는 재부들은 그것이 이룩되는 과정에 남겨진 혁명 유적, 유물들을 통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된다.

백두산지구에서 새로 발굴된 백두산밀영을 비롯한 10개의 밀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전반적 조선혁명을 이 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하여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력사적 사실들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조국땅 백두산기슭 소백수골에 꾸려진 백두산밀영은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중심지였다. 소백수골에는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생가가 있었으며 그밖에 비서처, 경위대병실, 재봉소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소백수골에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 있는 사자봉밀영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사업을 지도한곳이였다. 간백산밀영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고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들을 키워내는 사명과 역할을 수행한 근거지였으며 조국해방작전시기에는 국내 진공을 앞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집결처였다. 곰산밀영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가 들어와 활동하던곳이였으며 소연지봉밀영은 간백산밀영근처에 있는 후방밀영

이였다. 선오산밀영과 무두봉밀영은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중간련락소였으며 압록강안지구, 대각봉지구, 쌍두봉지구에 있는 밀영들은 국내에 드나드는 부대들이 리용하던 련락소였다.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정연한 밀영망을 이룬 이 밀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기본활동거점이였으며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령도의 중심거점이였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를 전면적으로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9월 백두산기슭 소백수골에 꾸린 백두산밀영에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두시고 조국해방이 이룩되는 시기까지 국내와 만주일대 그리고 멀리 쏘만국경의 훈련기지에까지 오가시면서 조선혁명전반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 꾸려진 비밀근거지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던 193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날로 강화발전되여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에 겁을 먹은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혜산사건》과 같은 대검거선풍으로 혁명력량을 여지없이 파괴하였다. 한편 좌경모험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무모한 《열하원정》로선에 의하여 조선혁명앞에는 엄중한 해독적 후과가 미칠 위험이 조성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해나가시면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곰산밀영에서 력사적인 보천보에로의 국내 진공작전준비를 완성하시고 간백산밀영에서 무산지구에로의 조국진군작전계획도 더욱 완성하신후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에 의한 국내에로의 진출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곰산밀영에서 1937년 5월하순 국내 당공작위원회 회의를 여시고 국내에 당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며 그 지도체계를 더욱 확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회의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서 우수한 정치일군들로 북선정치공작대를 무어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 당지부인 재조선지부를 결성하도록 하시였으며 백두산지구와 무산, 연사 지구를 포함하여 북부조선의 넓은 지역에서 당조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자봉밀영에서 천도교인들을 비롯한 애국적 종교인들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결속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는 한편 백두산밀영에서는 적들이 일으킨 《혜산사건》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정확히 이끄시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봄 백두산밀영에서 북선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후 이 방침을 국내에 조성된 실정에 맞게 이미 널리 조직되였던 생산유격대, 로동자돌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전민항쟁준비사업을 다그치는것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이처럼 대부대에 의한 적극적인 무장활동과 함께 당 및 군중정치공작이 국내의 넓은 지역에서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1930년대 후반기에 조선혁명의 전반에서는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적 기치는 확고히 고수되고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시기인 1940년대 전반기에도 조선혁명의 령도거점은 백두산지구에 꾸려진 비밀근거지였다.

이 시기에 세계제패의 야망을 품구며 제2차 세계대전에 말려들어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확대책동은 놈들의 승리로가 아니라 반대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을 한층 격화시키고 국제파시즘과 함께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은 가까와오고있었으며 혁명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조성된 혁명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에도 조국땅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혁명의 사령부를 두시고 림시비밀근거지들에 자주 나가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소조들의 군사정치활동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으며 훈련기지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하고있는 부대의 사업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국해방작전과 해방된 새 조선 건설의 지도핵심력량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또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이 면밀히 준비되고 최후결전에 호응할 전인민적 반일항쟁태세가 갖추어졌다.

조국해방작전당시 백두산지구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간백산밀영에 집결되여있었으며 북부조선일대에서 활동한 모든 부대들은 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총공격명령에 따라 일제침략자들을 멸망시키는 결전에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조국해방작전을 앞둔 시기 도처에 파견된 소부대들과 지하정치공작원들의 영향밑에 조선전국에 《**김일성**대》, 《조국해방단》등 수많은 무장봉기조직들과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여 전민항쟁준비가 튼튼히 갖추어져있었다.

실로 새로 발굴된 혁명사적은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기와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력사적 전환기에 혁명의 책원지가 국내에 있으면서 항일무장투쟁이 승리적으로 조직령도되여왔다는것을 증시해주는 혁명사적으로 빛나고있다.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북부조선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혁명유적, 유물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혁명적 재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새로 발굴된 구호나무에 씌여진 글발들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자기 령도자에게 충성다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반영되여있으며 조국광복위업을 자체의 힘으로 이룩하겠다는 주체적 립장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혀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주의정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정신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새로 발굴된 구호나무들에 씌여진 글발들에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구성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영원히 충성다해나가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정치공작원들의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구호나무들에 새겨진 《조선독립 항도성》, 《만고 절세의 애국자》, 《독립조선 최고령도자》를 비롯하여 《**김일성** 반만년력사에 민족영걸이시며 구성이시다》, 《아 **김일성** 민족의 영재 광복의 단상에 천만년 모시리》라는 글발들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우러러 모시고 조국광복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숭고한 념원이 체현되여있다.

《모두가 조선혁명의 심장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모두다 항일혁명 심장

수호하자》라고 쓴 구호에서도 보는것처럼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끝없는 충성심이 그대로 전해지고있으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충성의 한길을 걷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백두산밀영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동포들이여 백두산에 독립 백두성 솟았다》,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라는 구호는 오늘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빛내여주는것으로 하여 최근에 새로 발굴된 혁명사적의 사료적 가치가 그처럼 큰것이다.

새로 발굴된 구호나무들에 새겨진 글발들에는 또한 조국광복위업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확고한 주체적 립장이 체현되여있다.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북부조선일대에서 발굴된 구호나무들에는 《우리 힘으로 조선을 찾자》, 《2천만 조선동포들이여 모두다 단결하여 우리 민족 힘으로 삼천리금수강산 광복하자》, 《자력으로 우리의 행복 찾자》라는 글발들이 새겨져있다.

이러한 구호들은 국가적 후방도 없고 외부의 지원도 없이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일제침략대군이 몇겹으로 포위하고 달려드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오직 자기자신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철석같은 주체적 립장을 력력히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해주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최근에 새로 발굴된 구호나무들에 씌여진 글발들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이 집대성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6년 5월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1937년 11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었다.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담고 그들을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독창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이 밝혀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졌기에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북부조선일대의 대수림지대의 나무들에는 《동포들이여 하루속히 나라를 독립하고 3천리금수강산에 조국광복10조 펼치자》, 《토지혁명 토지개혁》, 《산업혁명》, 《면비교육을 실시하자》, 《강력한 민족군 건설》, 《국제 반제력 단결》이라는 구호들이 새겨졌다. 오늘도 이 혁명적 구호들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는 혁명적 재보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새로 발굴된 구호나무들에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열렬한 애국주의정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정신이 새겨져있다.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아끼며 공산주의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다운 부모처자와 고향마을이 있는 조국을 한없이 그리워하며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광복된 조국땅우에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국광복의 길을 영웅적으로 개척해나갔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한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전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혁명적 의지를 지니고 항일혁명투쟁력사를 빛나게 수놓아왔다.

우리 혁명의 첫 영웅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의 이러한 혁명정신은 새로 발굴되여 전해지고있는 《어머니 조국이여 내 그대 위해 한목숨 아낌없이 바치는 충신이 되리라》, 《조국—생명》, 《필승항일》, 《동포들이여 일제의 총칼에 굽히지 말라》 등 구호들에 반영되여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의 대수림지대의 구호나무들에 씌여진 글발들은 그가 담고있는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 위대성으로 하여 단순한 구호라기보다 항일무창투쟁시기의 문헌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북부조선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혁명사적들은 주체의 기치밑에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여주는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보로 된다.

우리는 최근시기에 발굴된 혁명사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집대성되여있는 백두산밀영의 사령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생가를 원상대로 꾸림으로써 위대한 조선혁명의 력사를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빛내여나갈수 있는 가장 공고한 만년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더우기 백두산밀영과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생가가 솟아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와 더불어 또하나의 마음의 고향을 가지게 되였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튼튼히 고수해나갈 확고부동한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당조직들과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은 사적발굴사업에서 획기적 계기를 열어놓은 이번의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혁명사적발굴사업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력사주의적 원칙에서 원상대로 꾸릴데 대한 방침, 교양적 의의가 있게 만년대계로 꾸릴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며 새로 발굴된 혁명사적자료에 기초하여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백두산혁명전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장소로 잘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백두산혁명전적지를 주체혁명위업의 뿌리를 굳건히 이어주는 력사의 위훈탑으로, 영원히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상징하는 충성의 기념비로 솟아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최근에 새로 발굴된 혁명사적들을 가지고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보다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정책교양을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일관하게 벌려나가는것은 당조직들의 기본임무

박 수 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는 사상혁명을 일관하게 벌려나가는것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의 두 요새,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반드시 앞세워야 한다.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이 사회의 주인인 인간을 공산주의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도 사람이며 또 사람을 위한 사업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부터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하는 사회의 면모와 징표는 주로는 그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산주의사회가 이루어지고 발전하자면 이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자체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사상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상혁명을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높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그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우리 당에 있어서 사상혁명은 언제나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의 하나는 당정책교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280폐지)

당정책교양은 우리 당의 다른 모든 사상교양과 마찬가지로 사상혁명수행의 위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사상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사상혁명의 근본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움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있다.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으로서 사상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상혁명의 본질적 요구와 그 근본목적은 당정책교양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사상혁명수행에서 당정책교양이 노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는데 있다.

사상혁명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이며 그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일색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당정책교양은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작성의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철두철미 그것으로 관통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시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 원리와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이다.

그러므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정책을 깊이 체득시켜야 그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다.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뿐아니라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게 하는데서도 큰 역할을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며 그것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게 하는것이다. 그것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당정책교양은 이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 사상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사상혁명수행에서 당정책교양이 노는 중요한 역할은 다음으로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사상혁명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것만큼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정책교양은 힘있는 정치사업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을 떠난 정치사업은 무의미하며 또 있을수도 없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은 곧 혁명투쟁과정이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3대분야인 자연개조와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이 곧 혁명투쟁과정인것만큼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다.

당정책교양은 이렇듯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며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상혁명수행에서 당정책교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또하나의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조직들은 사상혁명수행에서 당정책교양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정책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6페지)

당정책교양을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당정책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이다.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이로부터 우리 당이 진행하는 당정책교양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된다.

그러므로 당정책교양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그래야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상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자체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인것만큼 당정책교양은 반드시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이 반영되여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관철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당정책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은 이와 같은 우리 당 정책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이기도 하다.

당정책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키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켜 그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당정책집행의 직접적 담당자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며 따라서 당정책은 대중에게 파악되여야 현실에 옳게 구현될수 있다. 당정책이 인민대중에게 파악되여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게 하려면 그들속에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과정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그들의 주동적인 역할을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정책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한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이 당정책교양을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정책교양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것이다.

당정책은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종합분석하여 제시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인민대중은 당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게 된다. 당정책을 떠나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운명을 한걸음도 개척해나갈수 없으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따라서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운명개척과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적 지침인 당정책을 제시해주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정책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당정책교양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실천투쟁은 곧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높이 발휘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으며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당정책을 접수하고 관철하는데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관점과 립장이다.

당과 수령이 내놓은 당정책을 받아들이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삶의 요구이며 그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그리고 당정책을 받아안는것은 그자체가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는것이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정책을 받아안은 전사는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접수하고 관철하는데서 이러한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옳게 교양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을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당정책교양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옳게 결합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자면 사상교양과 함께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은 새로운 혁명적 사상과 아직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의 투쟁과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할수 있으며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낡은 사상은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올수도 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안으로부터 와해해보려고 사상문화적 침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없애는 한편 반동적 사상독소가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게 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장엄한 력사적 진군을 보다 힘있게 다그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강령적 보고와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제3차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대진군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지난 200일전투때와 같이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을 새로운 200일전투에로 보다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대중을 불러일으켜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주되는 임무이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을 더욱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당과 수령께 언제나 끝없이 충실하여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영웅조선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계속 높이 떨치며 보다 큰 영웅적 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것은 당일군들의 고유한 사업기풍

리 승 각

오늘 우리 당은 당사업을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켜나갈것을 강조하고있으며 모든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고 활동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이면 어디에 가나 정치위원노릇을 하여야 하며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이란 당조직을 움직이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사업을 보장하는 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워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한다는것은 행정경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밀어주고 정책적으로 이끌어주며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편향없이 관철하도록 장악통제하고 이끌어주며 광범한 군중이 높은 열의와 자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이다.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는것은 당의 본성과 당사업자체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 무어진 정치조직이며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 령도기관이다.

정치적 령도기관인 당은 오직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실현해나간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을 이루며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으로 시작되고 사람과의 사업으로 끝나는것이 당사업이다. 행정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며 물건이나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데 바로 당사업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당사업은 마땅히 그 어느것이나 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 조직체인 당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는 당사업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당의 활동이 진행될수 없다.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두고 당사업을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는것은 당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 만일 당이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지 않고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거나 행정화하게 되면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당은 오직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본성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당사업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 담당자들이다. 당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어떤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가 하는것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은 당의 본성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고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은 당일군들이 당사업을 행정실무적으로 하는것을 막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한수 있게 한다.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이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 방법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수 없다. 사람들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절대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할수 없다. 강요로써 끌어당길수 없고 명령으로써 움직일수 없는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것이다. 때문에 당일군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활동을 전개할수 있으며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당사업의 본질적 요구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지도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것이 당의 본성적 요구와 당사업자체의 본질로부터 나서는 필수적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는것은 당일군들이 대중의 교양자, 정치활동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대중의 정치적 교양자, 조직동원자이다.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여야 할 임무가 바로 당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당일군들의 모든 활동은 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진행되며 정치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군중을 떠난 당일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일군은 정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이 군중을 조직동원하고 발동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는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고 활동하는것이다. 대중을 발동하고 조직동원하는데서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보다 더 힘있는 무기는 없다.

원래 당일군은 구령을 치고 명령하는 사령관이 아니라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주며 불러일으키는 정치위원이다. 그런것만큼 당일군은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설복과 교양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불러일으키며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방법으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명령하고 호령하며 지시하고 독촉하는것과 같은 다스리는 방법은 당적, 정치적 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행정적 방법이나 물질적 관심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없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적 방법으로 사업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에 의거하여야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적극 발동할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모든 사업을 정

치사업을 하는데 복종시키고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은 대중의 정치적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와 책임적인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이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건설행군이 전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에 따라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집행단위의 당조직들앞에는 여러가지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다. 이로부터 일부 당일군들은 자기가 모든것을 도맡아 하여야 자기 단위앞에 나선 행정경제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이 다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적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일군들의 지도방법을 바로잡는것은 당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높다 하더라도 당일군들이 올바른 지도방법을 소유하지 못하고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당앞에 나선 여러가지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당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에 맞게 철저히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충분히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는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결정지시를 그 어떤 흥정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대중속에서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당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수록 당일군들의 지도방법을 바로잡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결코 그 어떤 개별적인 당일군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준비되지 못한 당일군들이 당권을 가지고 내리먹이려고 한다면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게 된다.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지 않고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게 되면 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게 된다.

당세도와 관료주의는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하고 순탄하게 자라난 일군들속에서 더 많이 나타날수 있다.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우리 당 건설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당일군들의 대렬에는 당사업실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되지 못한 새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였다.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군중우에 서서 군중을 다스리려는 관료화의 경향이 나올수 있으며 명령하고 지시하려는 행정화의 편향이 나타날수 있다. 때문에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광범한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집권당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의 경향과 행정화의 편향도 철저히 막을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것

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와 우리 당 건설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당일군들앞에는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할 과업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이 행정대행, 추미주의적 경향을 없애고 행정경제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며 일단 포치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철저히 집행될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행정에서 혁명적 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이며 우리 혁명의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다 밝혀주는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실로 로동계급의 당의 참된 사업방법의 집대성이며 혁명적 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신 주체의 사업방법,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는것은 당사업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관료주의와 행정식 사업방법을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을 뿌리뽑고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그대로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행정대행을 철저히 없애는것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 정책적 지도이다. 행정대행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사업한계를 벗어나서 행정대행을 하게 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집행정형을 정확히 장악할수도 없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도 없다. 그리고 행정대행을 하면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게 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능동적으로 해나갈수 없게 한다.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도맡아하게 되면 당사업과 경제사업이 범벅이 되여 결국 당사업도 잘 안되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해나갈수 없게 된다.

행정대행을 없애고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며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집체적 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이며 당원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 지도방법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당의 정책적 요구를

올제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바로할수 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김정숙군당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다음 경제사업은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당적으로 밀어주고 정치적으로 이끌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당적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들이 경제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도록 조건도 보장해주고 행정규률도 세워주었다. 그리고 경제조직사업과 지휘에서 편향과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의견을 주고 방법론을 세워주어 그들이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당일군들속에서 행정을 대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강하게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안받침하고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서고 어렵고 걸린 문제가 제기되면 군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이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였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힘을 합쳐 군앞에 제기된 여러가지 과업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우리 군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든 군으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추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실천적 경험은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할때 안되는 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여기에 바로 당사업도 잘하고 행정경제사업도 다같이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일군과 행정경제일군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것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당일군과 행정경제일군과의 관계는 비행사와 정비원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하나의 전투임무수행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비행사와 정비원은 언제 어디서나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친혈육과도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행정일군과 당일군사이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언제나 행정일군들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안받침해주며 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정비원이 비행기의 상태를 항시적으로 세심히 살펴보면서 비행사가 하늘을 실수없이 날수 있게 빈틈없이 정비하는것과 같이 당일군은 언제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살펴보며 일깨워줄 사람은 일깨워주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도 하면서 그들모두가 행정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원이 비행사에게 비행기의 상태를 알려주고 비행기를 다루는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일깨워주듯이 당일군은 행정일군에게 일깨워줄것은 일깨워주면서 정책적 선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일군과 행정일군과의 진정한 합심이 이루어질수 있고 확고한 일치가 보장될수 있으며 당사업도 잘하고 행정경제사업도 다 원만히 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모든 일을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애고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는 중요하게 그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일군들의 조직정치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해설침투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대중에게 침투시키고 정당성을 확신시키며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파악시키는것은 대중을 발동하여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에게 파악되여야 위대한 힘을 나타낼수 있으며 당의 구호도 대중자신의것으로 접수된 때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것은 어떤것인가를 제때에 알려주어 그들모두가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제때에 풀고 당과 수령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이 곧 당사업이며 당일군들의 지상의 과업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푸는데 정치사업의 과녁을 정하고 거기에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이 발양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한번의 정치사업을 하여도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진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여야 하며 모든 정치사업이 경제과업수행을 떠밀어주고 보장하는것으로 되게 하여 그것이 생산과 건설의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르게 하는것은 정치사업의 본질적 요구이다.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찔러야 그것이 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원래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사상을 다루는 창조적인 사업이기때문에 형식주의를 하여서는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정치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르려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겉치레나 하고 회수나 채우며 일반적인 강조와 호소로써 정치사업을 대치하지 말고 대상의 수준과 혁명임무의 특성, 주어진 조건과 조성된 정황, 군중의 동향과 심리에 맞는 생동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 참신한 방법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며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이다.

장악과 통제는 당적 지도실현의 기본형식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어디까지나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의 지도이다.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것이 지도인것만큼 장악과 통제가 없이는 도대체 지도가 이루어질수 없다. 지도는 항상 장악을 전제로 하며 통제를 동반하게 된다.

장악과 통제는 아래에 내려갈것을 요구하며 그것은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당정책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당일군들의 사업대상은 문건이 아니라 기대와 포전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들이다. 당정책이 실지 집행되는곳도 사무실이 아니라 생산현장이다. 때문에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야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편향과 부족점을 제때에 포착할수 있으며 군중의 창발적 의견에 기초하여 정확한 지도대책과 옳바른 방도를 세워 실속있는 지도를 보장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뚜렷한 설계를 가지고 아래에 주동적으로 내려가야 하며 아래에 대한 장악과 통제도 실속있게 하면서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책적 대를 철저히 세우며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능력을 가지는것은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정책적 대란 당의 로선과 방침에 기초한 확고한 주견과 원칙적 립장이다. 사업에서 정책적 대를 세운다는것은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방침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그에 맞게 설계하고 포치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에 맞는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여도 동요하지 않고 끝장을 볼 때까지 강하게 내민다는것을 말한다.

당일군들은 확고한 당적 원칙에 서서 모든 문제를 실무적으로 보고 처리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보고 처리하며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며 밀고나가는데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업에서 정책적 대를 세우고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자면 당정책을 신념화하고 폭넓은 지식과 능숙한 조직적 수완을 가져야 한다.

아는것이 힘이며 알아야 남을 지도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아는것이 적고 실력이 높지 못하면 자연히 직위나 간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러 하게 되고 직권을 람용하여 내리먹이려 하게 되며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 방법으로 일하려 하게 된다. 일군들의 방법이 원만하지 못하고 작풍이 거칠며 사업을 옳게 설계하고 전개하지 못하는것은 그들의 실무수준이 낮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아는것이 많고 수준이 높은 일군들은 직위와 간판이 아니라 높은 실력에 기초한 옳바른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고 수완있게 해나가며 큰소리 한번 치지 않고도 모든 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원만히 지도해나가게 된다.

우리 당 사업이 심화되고 혁명과 건설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치실무적 자질이 높고 조직적 수완이 있는 당일군들을 요구하고있다. 열성 하나만 가지고 일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실력이 없으면 충실할수 없고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없다. 실력, 이것은 충실성의 기본담보이다. 결국 실력가가 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는가 아니면 경험이나 믿고 그럭저럭 지내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하려는가 하지 않으려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당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일군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피타는 노력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다방면적으로 준비되고 넓은 시야와 예리한 정치적 안목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정치활동가이다.

당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본분에 맞게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협동생산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계　형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강령적 교시들에서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는 200일전투의 기세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협동생산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에 맞게 생산조직의 형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에 맞는 우월한 생산조직형태라야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 맞는 생산조직형태의 하나가 바로 협동생산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생산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생산조직의 한 형태입니다.**》

협동생산은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함께 참가하는 여러 생산단위들사이에 계획적으로 맺어지는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인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을 강화하게 되는것은 사회적 분업과 협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적 분업이 생기고 그에 따라 생산단위들이 전문화되면 그들사이에 생산적 련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적 련계는 계획적으로 맺어지는 협동생산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단위들사이에 여러가지로 긴밀한 생산적 련계가 이루어지고있지만 생산적 련계일반이 다 협동생산의 형태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협동생산은 오직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인 절차로 실현되는 생산적인 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기계제품생산에서와 같이 주제품생산기업소와 거기에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분조립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소들사이에 맺어지는것과 같은 보다 밀접한 생산적 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적 련계는 일정한 하나의 완제품생산을 위하여 정해진 대상기업소에 정상적으로 부속품 또는 부분품을 만들어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계획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띤다. 협동생산은 바로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에 기초한 독자적 생산단위인 기업소들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동생산이며 경제관리실천에서는 이러한 협동생산만 따로 틀어쥐고 조직지도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협동생산을 옳게 조직하면 생산단위들사이의 련대성과 동지적 협조가 강화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더욱더 공고화되게 된다. 협동생산이 생산의 전문화와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됨으로써 그것을 강화할수록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생산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합리적으로 실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당의 원대한 경제건설구상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협동생산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협동생산을 강화하여야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지금 우리 당은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우리 기계공업부문에서만 하여도 짧은 기간에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상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기계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할수 있게 되였다.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발전소들, 탄광들이 건설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되였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이러한 공장, 기업소들을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설비조립을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드높은 혁명적 열정을 안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건설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고있다.

당의 경제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건설자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도처에서 끊임없는 높은 진군속도가 창조되고 대중적 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들,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게 된 설비, 자재들을 앞당겨 보장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자동차와 뜨락또르, 불도젤, 굴착기, 압축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여야 건설속도를 높이고 조업기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이러한 기계설비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집체적 힘에 의하여 제작완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생산을 더욱 강화하여야 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 부속품, 부분품, 부분조립품들을 제때에 대주어 대건설장들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을 생산할수 있다.

협동생산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현대과학과 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기계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절실한 요구

로 나선다.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의 하나는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며 그 질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현대 기술공학, 기계공학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해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대적인 기계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기계설비들을 현대적인것으로 개선하자면 그것을 만드는데 참가하는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설계상 요구, 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게 부속품, 부분조립품들을 생산하여 주제품생산기업소에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진행되는 협동생산은 협동품의 이름, 품종, 기술규격과 질, 공급날자까지 직접 밝혀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생산이다.

협동품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문제는 협동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설계상의 요구를 비롯한 모든 요구조건을 원만히 충족시켜야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협동생산을 강화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품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개선하며 그 생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록 사회주의대건설에서는 더 큰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다.

이 모든것은 협동생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그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새로운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200일전투속도》로 협동생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협동생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본위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려면 일군들속에서 본위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협동생산계획은 해도 좋고 안해도 되는 도의적인것이 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법적 과제이다. 협동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 앞에서 지닌 책임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협동품을 먼저 생산공급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협동생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보다도 언제나 인민경제의 전반적 리익, 전사회적 리익을 먼저 내세우며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협동생산을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그것을 저애하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본위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며 그것이 발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본위주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리기주의의 변종으로서 집단주의와는 량립될수 없다.

우리는 온갖 본위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자신과 자기 집단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기업소를 적극 방조하는 정신으로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제품의 량과 질, 생산기일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생산을 조직지휘하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지니고 협동생산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품과 대상설비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여기에 필요한 협동품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혁명성, 책임성은 협동생산지휘를 잘하는데서 중요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대건설행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해당한 대책들을 기동적으로 취하여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협동생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이다.

협동생산조직은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을 잘하는것은 협동생산의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협동생산은 일정한 제품생산에 함께 참가하는 생산단위들사이에 직접적으로 맺어지는 련계이므로 그것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주제품생산기업소가 요구하는 생산조건과 기술조건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생산적 련계를 계획적으로 맞물려주어야 수많은 협동품생산기업소들에서 보내온 부속품, 부분품, 부분조립품들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완제품생산을 다그칠수 있다.

만일 주제품기업소가 요구하는대로 부속품, 부분품, 부분조립품 등 협동생산품을 련관된 협동품생산기업소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제정된 날자에 보내주지 않는다면 완제품을 제대로 생산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고 국가계획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더우기 인민경제적으로 긴요하게 제기되는 제품생산에 여러 생산단위들이 다같이 참가하는 조건에서 조직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그 어느 한 단위라도 제대로 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회적 로동의 랑비를 가져오며 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합리적으로 맺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인것은 협동생산을 위한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제품의 종류와 규격, 생산량, 생산기일과 협동품생산기업소의 전문화수준, 생산능력의 리용수준, 기술장비상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비롯한 모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계획과제를 옳게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단위들사이의 맞물림을 잘하여 생산적 련계의 모든 측면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해야 한다.

협동생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협동생산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조직적인 절차에 따라 실현되는 생산적인 련계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 생산적 련계를 조직화하고 계획화하며 협동생산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협동생산은 전반적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진행되게 되며 협동생산계획은 곧 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협동생산을 국가계획에 예견된대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워 계획에 예견된대로 제때에 협동품을 생산보장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여기에서 선차적인 문제는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모든 제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은 협동품생산기업소들이 주제품생산기업소들의 생산적 요구에 철저히 복종하는 생산적 련계이다. 따라서 협동품생산기업소들은 주제품생산기업소들에 보내주게 된 제품의 전량을 제때에 공급해야 주제품생산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이와 함께 협동품생산기업소들에서 협동품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협동품생산계획에 예견된 기술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완제품의 질을 높이며 국가계획을 제때에 수행할수 있다.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재가공, 반복수송과 같은 사회적 로동의 랑비를 가져오면서도 국가계획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워 질적 수준이 보장된 협동품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함으로써 완제품생산에 사소한 지장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생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협동생산을 위한 자재보장과 수송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원료, 자재를 원만히 대주어야 협동품생산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여 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다. 만일 협동품생산기업소들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면 협동품생산순환과정이 중단되고 생산에서 파동성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소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 협동품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협동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우리는 자재공급사업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협동품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기술지표의 요구에 맞게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자재리용에서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협동품생산에 쓸 자재들이 류용랑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협동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협동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수송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아무리 협동생산을 잘 조직하고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자재공급체계를 바로세운다 하더라도 수송문제를 풀지 않으면 협동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모든 생산자원들을 제때에 실어날라야만 협동생산을 굽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강화하여 협동품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이 제시한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 삭도수송을 발전시킴으로써 협동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협동품을 완제품생산기업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협동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생산과 건설에서 굽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경제계획화의 요구에 맞게 협동생산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형태

정 송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및 기술 협조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대외경제부문의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립각한 형제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22폐지)

자주성을 견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이미 마련해놓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커다란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선진수준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나아가서 세계평화애호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튼튼히 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대외경제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경제발전에서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혁명적 방침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협조와 교류를 확대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주되는 힘을 넣음으로써 짧은 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을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적극 발전시킬수 있었다.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공업생산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무역구조가 보다 완비되고 중공업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업제품들과 농산물의 수출이 더욱 늘어났으며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연료, 원료와 긴요한 기계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대외경제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의 뉴대도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날을 따라 우리의 정당한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더욱 더 늘어나게 되였다.

이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이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주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옳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정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대외경제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 현실의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생산과 건설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특히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린 결과 나라의 경제적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생산과 건설이 다그쳐지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강유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보다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공고발전하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적극 벌린다면 더욱더 넓은 대외시장을 가지고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도 더욱 확대강화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외경제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을 잘하는것이다.

합영과 합작은 다같이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요소들을 서로 류통하고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쌍방이 리득을 얻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형태로 된다.

현시기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합영과 합작을 널리 진행하게 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이룩되고 보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경제관계를 밀접히 할것을 바라고있는 사정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해나가고있다. 중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생산장성이 이룩되고있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창조되고있는 눈부신 사회주의경제건설성과들은 세계의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경제적 위력과 경제발전전망을 옳게 리해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경제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합영과 합작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그것을 옳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가 무역에 큰 힘을 넣어 거래대상과 그 폭을 넓혀나가면서 합영과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게 되면 앞선 기술과 여러가지 생산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경제 합영과 합작은 특히 발전도상 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낡은 국

제경제질서에 집요하게 매달려 발전도상 나라들의 부원을 략탈하고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저애하고있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인 수법에 더는 기대를 걸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제힘으로 살아나갈 길을 개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기술이 있는 나라는 기술을 대고 원료가 있는 나라는 원료를 대며 자금이 있는 나라는 자금을 내여 서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쌍무적으로 또는 다무적으로 합영과 합작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갈 길을 열어나갈수 있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요구를 관철해나갈수 있다.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를 비롯한 일련의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농업합영회사를 설립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있는 경험은 다른 모든 발전도상나라들도 바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고 합영과 합작을 잘해나간다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경제 합영과 합작은 애국적인 재일상공인들을 비롯한 해외교포들로 하여금 조국과 경제적으로 거래할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의 애국심을 계발시키고 해외시장에로 널리 진출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사회주의 조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민족적 긍지를 깊이 간직할수 있게 하여주는데서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외경제발전에서 합영, 합작이 가지는 일정한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적 립장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과 합작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을 장려하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정부는 합영법을 제정공포하는 한편 그 순조로운 리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영법시행세칙》과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등을 련이어 실시하였으며 합영, 합작 기업의 창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 합영법에 규제되여있는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합영법은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장려하고있으며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경영, 청부합작은 물론 쌍무적 또는 다무적으로 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경영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마련하여주고있다. 또한 합영법은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모든 합영당사자들이 경제활동에서 공화국법이 규제한 합법적 권리를 누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로 합영법과 그 시행세칙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합영과 합작을 우리식대로 옳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대외경제부문의 일군들은 합영과 합작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주체적 립장에서 진행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14페지)

현시기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 합영, 합작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널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합영과 합작을 실현하는데 선차적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무역을 확대발전시키고 합영과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경제활동에서 의연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공통된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깨겯고 싸우는 전우이며 전통적인 친선과 계급적 뉴대로 련결되여있는 형제나라들이다. 공화국정부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동지적 협조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 협조와 교류를 끊임없이 높여왔다. 오늘 우리 나라의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은 가장 크고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 협조와 교류는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시장을 중시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하며 경제 합영과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협조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합영과 합작을 진행하는데서 특히 발전도상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다같이 수난과 굴욕의 쓰라린 과거사를 가지고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 원료자원과 인적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얻은 좋은 경험과 기술도 가지고있고 경제적 기초도 일정하게 마련되여있기때문에 경제기술적으로 협조하고 교류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모든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과 필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면서 점차 그 폭을 넓히며 경제협조관계를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합영과 합작을 실현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도움으로 될뿐아니라 이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우리에게는 오늘 자본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교류를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요구하는 유색금속의 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철강재와 세멘트, 경금속 생산기지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있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여 전반적 기술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고있다.

그러므로 자체의 튼튼한 생산기술적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합영, 합작을 비롯한 경제기술교류를 널리 실현할수 있다.

경제 합영,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애국적인 재일상공인들을 비롯한 해외교포들도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의 경제 합영, 합작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적 요구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합영과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인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합영, 합작할 대상을 선정하고 합영, 합작 기업을 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주체적인 견지에서 보고 해결해나가며 우리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쌍방의 리해관계에 맞게 타산을 바로하고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 합영, 합작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다른 모든 대외경제활동이 다 그러하지만 투자와 경영을 공동으로 하고 리해관계가 서로 결합되여있는 합영과 합작의 경우에는 신용을 지키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신용은 곧 합영, 합작 당사자들사이에 맺어진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회사, 기업소 및 개인들과의 합영, 합작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은 상대측과 맺은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며 기술규정과 계약조건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대외수송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제기되는 모든 수송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확대하며 합영과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외경제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대외경제부문의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여야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대외경제부문 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대외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며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과 합작을 옳바른 립장에 서서 잘해나가야 한다.

대외경제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합영과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킴으로써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연극은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

리 평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연극은 주체의 문학예술이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이바지한 또하나의 귀중한 문화적 재부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을 비롯한 5대혁명연극은 그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과 예술적 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시종일관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있다.

5대혁명연극의 특출한 사상예술적 성과와 커다란 사상정서적 감화력은 그 창조에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연극혁명사상과 리론이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구현됨으로써 이룩될수 있었다.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연극예술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적인 연극혁명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미학실천적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 로작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연극혁명의 필연성과 본질, 그의 기본내용과 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5대혁명연극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창조집단을 그 구현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인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를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창조하여 오늘의 무대에 올린것은 실로 연극예술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예술로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력사적 사변으로서 혁명적인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5대혁명연극이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학정서적 지향에 맞는 새형의 혁명연극으로 되고있는데 있다.

연극예술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얼마나 민감하게 수응하는가 하는것은 그의 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된다. 지난 세기에 고착된 낡은 형식의 연극이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된것도 변화발전한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높은 사상미학적 지향에 수응하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연극예술이 주체시대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자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여야 하며 특히 연극의 형식과 형상방법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변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연극의 제한성을 간파하시고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그의 구현과정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연극혁명의 력사적 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새형의 혁명연극인 《성황당》식 연극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연극혁명 사상과 리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성황당》식 연극들인 5대혁명연극은 그 내용과 형식, 형상방법 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한 전혀 새로운 우리 식 혁명연극들이다.

대혁명연극은 주체시대 연극예술의 참된 면모를 대변하고있을뿐아니라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휘황한 등대로, 불멸의 본보기로 된다.

5대혁명연극이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새형의 혁명연극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연극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킨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앞으로 연극무대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 〈3인1당〉을 올리면 연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연극들을 무대에 올리면 신파도 없어지고 연극의 낡은 틀이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혁명적인 연극예술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연극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혁명적인 연극예술로 혁신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인 문제이다. 새로운 혁명연극은 빈터우에서가 아니라 혁명적 문예전통의 고귀한 재부에 기초하여 창조된다. 그것은 혁명적인 연극예술의 전통에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혁명사상과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극형식과 형상방법, 창조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극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혁명적인 연극으로 더욱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원형으로 되는 연극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공연된 혁명연극들은 우리의 연극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항일혁명연극들에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가 관통되여있을뿐아니라 생활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학정서적 지향에 맞는 다양한 극형식들과 독창적인 형상방법들, 귀중한 창조경험들이 풍부하게 담겨져있다. 항일혁명연극에는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 그리고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이 결합된 독특한 극양상들, 방창과 독창, 주제가와 설화 등의 적절한 배합, 막간을 줄이고 관중들의 극적 감흥을 지속시키기 위한 랑통식 무대의 리용, 생활적인 언어와 생동한 연기형상의 탐구 등 실로 낡은 연극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특성들이 참신하게 체현되여있다. 특히 주체적 문예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에는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가 깊이있게 체현되여있으며 새로운 혁명연극의 원형이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연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항일혁명연극의 빛나는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특히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시 형상하는것이 합법칙적인 요구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연극혁명의 기본요구와 항일혁명연극전통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을 새로운 혁명연극창조의 본보기작품으로 형상할데 대한 명철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창조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빛나게 완성하여주심으로써 마침내 연극혁명의 위업을 실현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을 비롯한 5대혁명연극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작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형식과 형상방법을 개척하여 항일혁명연극전통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계승발전시켜 고전적 명작들의 불멸의 가치와 생명력을 더욱 빛내였으며 우리 시대 혁명연극발전의 참된 본보기로, 리정표로 그 빛을 찬연히 뿌리고있다.

5대혁명연극이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새형의 혁명연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공산주

의인간학의 본질과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한데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문학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가 선 인간형상을 창조하여야만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변혁해나가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언제나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 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

혁명연극《성황당》을 비롯한 5대혁명연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초석으로 하여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높은 자주의식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계몽주제의 혁명연극인《성황당》이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깨우쳐주고있으며 일반력사물인 혁명연극《혈분만국회》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것을 례증하여도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 특히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혁명전통물과 일반력사물의 계선을 똑바로 긋고 력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결합시키며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그릴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그처럼 진실하고 심오한 극적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을 깊이있게 심어주는 기념비적 대작으로 되고있다.

5대혁명연극의 다른 작품들도 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의 소재와 양상적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해명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이 결합된 독특한 극적 양상의 작품으로서 남녀로소할것 없이 누구나 배우지 않고 무식하면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없으며 남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가르쳐주고있다. 이것은 이 연극이 당대사회에서뿐아니라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리론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있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도 전적으로 맞는 의의있는 작품이다. 풍자적 형상으로 일관된 혁명연극 《3인1당》은 세 정승이 서로 왕의 룡상을 차지하기 위한 파벌싸움을 일삼다가 나중에는 룡상을 박살내고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당파싸움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뭉쳐야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절감하게 하고있다.

한 작품안에서 풍자적 양상과 정극적 양상을 잘 조화시킨 혁명연극 《경축대회》는 원작의 종자에 맞게 일제침략군놈들의 이른바 《경축대회》를 항일유격대원들의 참된 경축대회로 전환시키는 형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허장성세하여도 멸망하며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반제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5대혁명연극은 자주적 인간의 전형창

조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다. 혁명연극들인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 《경축대회》는 돌쇠, 야학선생, 중대장 등 긍정적 인물들의 성격을 주체의 혁명적 신념을 간직한 인간의 전형으로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긍정적 주인공 돌쇠는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 확고한 자주의식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주며 그러한 신념의 불패의 생활력을 온갖 잡귀신들을 끌어들여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써먹는 지주, 구장놈 따위들의 희극적인 파멸상을 통하여 통쾌하게 확증하고있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에서의 야학선생의 형상은 높은 혁명성과 풍부한 인간성,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혁명연극 《경축대회》에서 중대장을 비롯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성격에는 항일혁명투쟁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주체의 전법으로 무장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이 뚜렷이 체현되여 있다.

이것은 5대혁명연극에서의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도덕적 풍모의 산 모범으로 되며 우리 근로자들을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불멸의 형상으로 된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5대혁명연극이 불멸의 생활력을 지니고 당대에 있어서뿐아니라 오늘에 와서도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며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는 참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참으로 5대혁명연극은 모든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들에서 어떻게 주체의 철학적 원리를 관통시키며 그것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귀결시키겠는가 하는 새로운 창조적 본보기를 풍만하게 마련하여주었다.

5대혁명연극이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새형의 혁명연극으로 되는것은 또한 오늘의 시대적 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형상수법들을 창조하여 연극의 립체성을 전일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한데 있다.

연극창작에서 새로운 형식과 형상방법을 창조하여 립체성을 보장하는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최대한으로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미학실천적 문제의 하나이다.

연극무대에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현실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것처럼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자면 극문학작품으로부터 배우연기와 무대미술 등 연극의 모든 형상 수단과 요소들에서 새로운 형식과 형상방법을 탐구하여 연극형상의 립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극형상에서 립체성이 보장되여야 현실을 그자체의 모습대로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극장무대에서 현실 그대로의 환경과 정황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생활하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산 인간들을 실제로 보는것처럼 되게 할수 있다.

5대혁명연극이 새로운 형식과 형상방법들을 독창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연극형상에서의 립체성을 전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새로운 높은 경지를 보여준것은 실로 사실주의연극발전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온 하나의 사변으로 된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무대에서 펼쳐지는 생활을 현실에 보다 가깝게 보여주기 위한 창조적 탐구와 시도들이 있은것만은 사실이다. 희곡분야에서 고전주의극작법의 하나인 《3일치》의 도식적 틀을 마스고 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그리는데로 지향한것이라든가 막구성법대신 장만으로 극을 구성하는 다장면극을 적지 않게 창작하여온 사실 그리고 무대미술분야에서 회전무대를 창안리용하여 무대전환시간을 줄이고 생활을 폭넓게 보여주려고 한 시도들은 다 연극무대에서 펼쳐지는 생활을 현실에 보다 근사하게 즉 실감있게 립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형식과 형상방법

을 모색하여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이러한 시도들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연극미학리론에 기초하지 못한탓으로 하여 연극의 립체성을 전일적으로 보장하는데서는 먼 거리에 있었으며 일부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것이다. 지난 시기에 나왔던 일부 다장면극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일부 극작가들은 막구성법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담는다고 하면서 극작법의 원리적 요구를 무시하고 산문화의 경향에 떨어졌던것이다.

이러한 편향과는 달리 극적 집중화와 집약화 등 극작법의 원리적 요구를 해결하면서 성과를 거둔 일부 다장면극, 례하면 《붉은 선동원》(7장)의 경우에도 그것은 흐름식 무대전환과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장과 장사이에 벌어지는 긴요한 생활내용 등을 대사로 무리하게 설명하는데 그치고 그것을 무대화폭으로 펼쳐보여줄수 없었다.

5대혁명연극의 극구성에서는 이러한 편향과 제한성을 극복하고 흐름식 무대전환 및 련결음악 등과의 유기적 결합속에 연극의 립체성을 전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기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립체적인 다장면구성법을 완성함으로써 극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혁명연극들인 《성황당》(서장, 9장, 종장), 《혈분만국회》(서장, 9장, 종장), 《딸에게서 온 편지》(서장, 6장, 종장) 《3인1당》(서장 5장), 《경축대회》(서장 6장)등에서는 소재의 특성에 맞게 극을 여러장으로 구성하고 1.5~2시간동안에 생활을 폭넓게 펼쳐보여주면서도 생활과 극발전의 론리에 맞게 극을 집중화하고 집약화하여 현실을 매우 립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으며 극구성으로 하여금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보다 뚜렷하고 감동깊게 해명하는데 철저히 복종되게 하고있다. 이것은 5대혁명연극에서 완성되고 심화발전된 립체적인 다장면구성법이 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극작법의 원리적 요구 그리고 우리의 시대적 미감에 맞는 가장 현대적이며 우월한 극구성법이라는것을 잘 실증하여준다.

5대혁명연극의 무대미술은 다장면구성법 및 련결음악과의 유기적 련관속에서 흐름식 립체무대미술의 높은 경지를 이룩하였다. 5대혁명연극의 무대미술에서는 무대의 공간구성과 장치물의 제작 및 배치에서 최대의 립체성을 보장하여 등장인물들이 살며 행동하는 환경과 조건을 현실그대로 폭넓고 깊이있게 마련하고 그것을 등장인물들의 운명발전과 밀착시켰으며 특히 다양한 무대전환방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막간을 없애고 영화의 화폭과 같이 지속적인 흐름과 운동과정에서 생활을 립체적으로 볼수 있게 하였다.

실로 5대혁명연극의 무대미술은 흐름식 립체무대미술의 우월성을 작품의 주제사상과 양상적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모든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면서도 때로는 소박하고 아담한 무대화폭과 신비롭고 황홀한 무대화폭들을 펼치여 관객들을 경탄케하고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의 가슴을 《성황당》식 연극과 같이 우월한 연극은 세상에 더 없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벅차오르게 하고있다.

《성황당》식 연극에서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연극음악은 5대혁명연극창조과정에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다. 5대혁명연극에서의 연극음악은 《성황당》식 연극음악의 창작원칙과 요구 등을 작품의 주제사상과 양상적 특성에 맞게 훌륭히 구현하여 그의 형상적 기능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고있다. 5대혁명연극의 음악들은 다양한 선률과 양상으로 해당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 등장인물들의 생활정황과 성격적 특징들을 정서적으로 부각하고 작품의 양상을 특징지으며 극적 감흥을 지속시켜주는데서 실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5대혁명연극은 배우들의 연기형상에서도 화술형상을 위주로 하는 우리 식 연

기창조체계의 요구가 훌륭히 구현되고 작품의 양상적 특성에 맞는 연기수법들이 다양하게 탐구됨으로써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잘 살리였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산인간과 그의 생활을 현실에서처럼 생동하고 진실하게 립체적으로 볼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5대혁명연극의 모든 형상수단과 형상요소들에서 연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우리의 시대적 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형상방법들이 창조되여 연극의 립체성을 전일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함으로써 지난 시기의 낡은 형식의 연극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의 혁명연극인 《성황당》식 연극의 혁신적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여주고있다.

5대혁명연극은 그 내용과 형식의 모든 측면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혁신한 전혀 새로운 형의 혁명연극인것으로 하여 그처럼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국내외 관객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으며 그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와 《경축대회》를 보고 감동된 사회주의나라의 한 이름있는 연극전문가는 《조선에서는 영화와 가극뿐아니라 연극도 매우 새롭게 발전하고있다. 무대형상의 예술적 조화가 완벽하고 관객과의 혼연일체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이 놀라웁다. 특히 흐름식 립체무대미술은 신비스럽고 황홀하다고 할 정도로 독창적이고 훌륭하며 연극에 음악을 배합한것은 연극의 정서를 매우 풍만하게 하여주고있다》라고 하면서 무대우에 기러기떼가 날아가는것과 같은 형상은 자기 나라 연극무대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이처럼 훌륭한 연극은 오직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받는 조선의 연극예술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성황당》식 연극인 5대혁명연극이 창조된것은 실로 커다란 민족적 자랑이며 연극사에 특기할 경사로 된다.

혁명연극 《성황당》을 비롯한 5대혁명연극은 우리 연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서 계승발전시키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성황당》식 연극의 창작원칙과 요구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5대혁명연극은 《성황당》식 연극의 새 시대를 찬란히 장식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극예술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등대로 된다.

5대혁명연극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사상예술적 성과는 전적으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인 연극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그의 실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연극혁명위업을 완성하시였을뿐아니라 연극혁명의 승리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결과이다.

오늘 우리 연극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앞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연극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성황당》식 연극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연극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산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김 웅 봉

산지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을 잘 리용하는것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중요한 관심을 돌리시고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뜯어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간지대 군들에서 인민생활을 자체의 힘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며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72페지)

우리 나라에서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지역적 거점이며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참모부이다. 군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군을 잘 꾸려야 자연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우시군은 조플령과 탄령을 비롯한 높은 령과 중중첩첩한 산발들로 둘러싸여있는 전형적인 산간군이다. 군면적의 90%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있는 우리 군에서 산을 잘 리용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우리 군을 찾으시고 산간군의 특성에 맞게 산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시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산을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사상과 열의를 불러일으켜 산열매를 원료로 하여 당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또한 산을 리용하여 비알곡먹이에 의한 축산업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으며 고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산림을 전망성있게 개조하고 조성하며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이룩하는 과정에 우리는 산을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산열매를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여 인민생활향상에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준것이다.

산열매를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여 맛있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많이 생산보장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산들에 무진장한 산열매

들을 종합적으로 가공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고 여러가지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다.

당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식료품의 하나이며 산열매들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초원료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당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식료품생산을 높이지 못하고있었으며 산열매를 가공처리하는데서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자체로 당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우리는 여러가지 산열매들을 놓고 거기에서 당을 뽑아내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탐구해나갔다.

대책과 방도는 과학적이여야 하며 실천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적이며 실천적 가능성이 있는 방도를 찾자면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갔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간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거듭 해설침투하면서 그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한편 우리는 일군들과 협의도 하고 기술자들과 토론도 하였으며 로인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산열매에서 당을 얻어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방도를 찾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토론과정에 여러가지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어느 한 기술자는 우리 군에 흔한 산열매에서 현재 많은 량의 술을 뽑아내고있는것은 그 산열매에 다량의 전분이 함유되여있다는것을 말하며 따라서 거기에서 당을 뽑아내는것은 완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기발한 착상이였고 적극적인 발기였다. 군당위원회는 그의 착상과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과업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을 바라보며 해보겠다는 결심보다 실패할 경우의 책임을 두려워하면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당적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는것이 필요하였으며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당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워내는것은 그들이 지식과 기술로써 혁명에 이바지하고 인민에게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높은 연구성과와 가치있는 과학기술적 발명으로 당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거듭 이야기해주었다. 또한 우리는 연구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군당위원회가 같이 책임진다는것을 약속하였으며 당적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면서 그의 정치생활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책임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답이라는 의리심을 지니게 한다. 안겨지는 믿음이 크고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에 보답하려는 지향과 열정도 그만큼 뜨겁고 강렬해진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의 정치적 신임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힘을 주는것은 없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주게 될 때 그들모두가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헌신성과 고도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한 기술자에게 정치적 신임을 안겨주면서 그의 사업을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도록 하였다. 우리는 해당 부문의 책임일군으로 하여금 그 기술자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친혈육의 정으로 풀어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도록 하였다. 당조직을 통하여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사랑을 뜨겁게 느낀 그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분발하여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온갖 잡념에서 벗어

나 산열매에서 당을 뽑아내기 위한 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새로운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과정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이끌어주는것은 성공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해당 당조직들이 연구사업을 당적으로 밀어주도록 하는 한편 군당책임일군들이 기술자의 성실한 방조자가 되고 친근한 동지가 되여 탐구의 밤을 같이 새우기도 하였고 고심의 나날을 함께 보내기도 하였으며 실패의 책임도 같이 지고 성공의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산열매에서 당을 뽑아내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의 연구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었다. 우리는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해당한 출장지에 가서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실험 설비와 시약, 자재를 해결해다주고 참고도서들을 구해다주는것을 도덕적 의무로 삼고 성실히 도와주도록 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향유하게 하는것은 그들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에 투신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그 기술자의 생활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였으며 그가 사업에서 이룩한 공로도 여러가지 형태로 평가해주고 그에게 영예와 표창도 차별없이 안겨주게 하였다.

군당위원회가 밀어주고 군당책임일군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데서 고무를 받고 힘을 얻은 그는 고심어린 탐구와 이악한 노력으로 마침내 산열매에서 당도가 높고 경제적 가치가 큰 당을 시험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련이어 그것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공정을 완비하여 대량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원료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당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으며 다른 산열매들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로 하여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게 되였으며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천적 경험은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과학기술적 성과로서 충성으로 보답하도록 이끌어주고 믿음을 안겨주면서 책임지는 립장에서 진심으로 도와줄 때 그 어떤 어려운 과학기술적 과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산을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산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을 잘 리용하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산에다 과수원도 조성하고 꿀벌도 치며 산에서 산나물도 캐고 집짐승도 길러 여러가지 부업을 발전시키라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3페지)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과 잠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과 잠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리를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고기를 넉넉히 생산보장해줄수 있으며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높이 산간지대 인민들도 번방부럽지 않게 잘살게 할수 있다.

산간오지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군은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가지고있다. 문제는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때 군안의 일부 일군들은 초지타발만 하면서 알곡사료가 보장되지 않으면 군자체로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악한 투쟁을 벌리지 않고있었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하여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 립장과 자세를 확고히 세워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실제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군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산이 많은 자연경제적 조건을 잘 리용하며 여러가지 자연먹이원천을 적극 찾아내여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중요한 자연먹이원천인 칡을 보호하고 널리 번식시키기 위하여 칡산을 많이 조성할데 대하여 결정한 다음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해당 부문 일군들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면서 칡이 잘 자라고 빨리 퍼질수 있는 적지를 조사장악하였으며 칡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도 풀어나갔다. 이러한 준비에 토대하여 우리는 체계적인 장악과 정상적인 총화, 끊임없는 재포치로 사업을 심화시키면서 칡산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1,000여정보의 칡산을 조성하였으며 그 관리와 리용에서도 정연한 질서를 세워놓았다. 이와 함께 우리는 어디서나 쉽게 얻을수 있는 여러가지 자연사료원천도 많이 찾아내도록 하였으며 산기슭비경지에 여러가지 사료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칡산을 조성하고 자연사료원천을 많이 찾아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였다. 주어진 사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는 군자체의 힘으로 사료분쇄기를 제작도입할것을 결심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애로도 많았고 난관도 적지 않았다. 기술력량도 많지 못하였으며 물질기술적 수단들도 부족하였다. 우리는 군안에 있는 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으며 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러한 조직사업은 은을 내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서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사료분쇄기를 만들어 협동농장의 축산반들에 갖추어놓게 하였다.

축산업에서 기본으로 되는 사료문제가 풀리게 되였고 사료단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소와 양, 염소를 비롯한 초식동물들의 이동방목도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는 산을 리용하여 고기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으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주어진 자연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여기에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체득하게 되였다.

산경사지에 뽕밭을 조성하여 누에치기를 잘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최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산이 많은 자강도에서는 잠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도 조직하고 해설선전도 하면서 산을 리용하여 잠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뽕밭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며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잠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산경사지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라고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포치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반적 단위들을 추켜세우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뽕밭조성의 시범으로 될 전형적인 단위를 바로 정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가장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우며 그러면서도 그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전형적인 단위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단위에 본보기를 창조하여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자기들도 능히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줄수 있었다. 그러한 단위로서는 각이한 경사도를 가진 산을 많이 가지고있는 별하리가 가장 적합하였다. 우리는 별하리에 나가 그곳 일군들, 농장원들과 함께 서로 다른 경사도를 가진 산비탈에 각이한 형식으로 여러 정보의 뽕밭을 조성한 다음 거기에 포전도로도 닦고 퇴적장도 만들었으며 여러개의 야외잠실도 건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우리는 별하리에서 군적인 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하였다. 백번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방식상학은 구체적인 방도를 배워주고 옳바른 방법론을 체득시키는데서 효과가 컸으며 반영도 좋았다.

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납득시키고 할수 있다는 신심도 안겨주었으며 방도도 명백하고 방법론도 선것만큼 군안의 전반적 리들에서 산경사지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치기를 하는데서는 크게 걸린것이 없었다. 우리는 군당위원회집행위원회에서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고 사업을 포치하였으며 모든 리들에서 뽕밭을 조성하도록 과업을 주었다. 전반적 리들에서 뽕밭조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별하리, 하창리, 부흥리, 평상리를 비롯한 10개의 협동농장에 740여정보의 뽕밭을 새로 조성하여 누에고치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경험은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과 잠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바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당일군들이 산을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것은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새이며 광범한 대중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지도작풍이다.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과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당일군의 이신작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견인력을 가지고 대중을 영웅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에로 불러일으키게 한다. 당일군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지시나 하고 요구만 하여서는 사업권위를 세울수 없으며 발언권도 가질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일군의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날이 서지 않아 광범한 대중은 고사하고 몇사람도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

를 틀어밀고 투신하면서 이신작칙하여야 군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당일군의 호소에 광범한 대중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과정에서 군당일군들이 보여준 실천적 모범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이 오면 전군중적 운동으로 나무를 심는 사업이 벌어지며 시기를 맞추어 산열매를 따들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이 중요하며 또 잘해야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구실, 저 핑계 하면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있었다.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 한두번의 조직사업만 하여가지고서는 군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였으며 당일군의 이신작칙이 필요하였다.

산열매를 허실없이 전부 따들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산열매가 열린 정형을 정확히 료해하며 매개 사람들에게 기준량을 바로 정해주는것이다. 우리는 산림보호원들을 통하여 산열매가 열린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는것과 함께 군당책임일군들이 직접 산발을 타고 골짜기를 누비면서 그것을 확증하는 사업을 따라세웠다. 한편 우리는 자신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산열매를 따보면서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심고 딸수 있는가를 가늠해보았으며 그에 기초하여 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매 사람들에게 알맞는 분공을 주었다. 우리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나무심기철이 오면 남먼저 나무심기의 앞장에 섰으며 가을이 오면 배낭을 메고 이슬찬 산발을 먼저 타면서 산열매를 따들이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군당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에 고무되여 군급 기관일군모두가 따라나섰고 기관, 기업소 종업원전체가 떨쳐나섰다. 사로청원들이 궐기하였으며 협동농장원들이 분발해나섰다. 온 군이 나무심기와 산열매따기로 들끓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군안의 전반적 산들에 수종을 바꾸고 경제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고있으며 산열매를 최대한으로 따들여 지방산업공장들에 원료를 충분히 대주고있다.

실로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사람들이 당일군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호소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그것은 여러번의 조직사업보다 더 큰 은을 나타낸 힘있는 선동이었으며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실효를 나타낸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우리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안되는 일, 풀리지 않는 문제란 없으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에 비할바 없는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것을 체험하게 되였다.

생활은 군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투쟁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여기에 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으며 일군들의 이신작칙이야말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지도작풍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더 잘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산을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여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통일대화에 참여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실현되여야 한다

림 동 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투쟁방침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열렬히 지지찬동하고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강령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3천리강산을 하나로 통일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없다.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민족이 오래동안 분렬되여있고 오늘까지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외래제국주의의 간섭과 방해책동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성격과 본질을 뚜렷이 밝히시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또한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과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북과 남사이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남대화는 전민족의 요구와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대화는 당국자들이나 개별적 당파의 독점물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대화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뿐아니라 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인 접촉과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2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통일대화에 광범히 참여할데 대한 폭넓은 협상방침은 우선 조국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인민대중이라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정당한 방안이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인것만큼 조국통일의 주체도 역시 북과 남의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요인이다.

인민대중은 조국통일위업을 직접 책임지고 담당수행하며 그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이다. 또한 인민대중의 힘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 결정적 요인으로 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이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기때문이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기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자주적 요구를 유린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통일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질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하고있는 점에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통일대화를 할데 대한 새로운 협상방침의 리론적 기초가 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통일대화를 할데 대한 새로운 협상방침은 또한 조국통일문제의 거족적인 성격을 반영한 정당한 방안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킴으로써 미제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는 문제이며 이것은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또한 서로 다른 나라들사이의 병합이나 다른 민족들사이의 통합문제가 아니라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미제에 의하여 생긴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통일을 회복하는 민족내부문제이다. 한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의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는 누가 먹고 먹히우는 문제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해와 신뢰에 기초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문제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인것만큼 통일대화에서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마땅히 주인이 되여 참여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것이다.

폭넓은 대화를 할데 대한 새로운 협상방침은 또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통일대화에 주인으로서 참여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있는 현실적 요구를 옳게 반영한 정당한 방안이다.

통일운동의 앞장에 서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족분렬을 끝장내기 위해 그들스스로가 민족화해의 기수가 되고 통일의 역군이 될 결의를 가다듬고 남북학생회담을 발기하여나섰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일부 야당들과 재야단체 그리고 각계 인사들도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고 우리와의 대화를 거듭 제기하고있다.

남조선야당인사들은 지난 6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주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정당회의를 열것을 주장하였으며 한 야당인사는 지난 5월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성주석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 립장을 취해오던 남조선의 종교인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종교인들과의 접촉을 희망하여나섰다.

남조선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 민족통일과 평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여기에서 조선반도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을 철거시키며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 외교적 협정과 조약들을 수정폐기할것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그것을 자기들의 공식립장으로 선포하였으며 북남기독교인들의 접촉의사를 표명하였다.

지난 5월초에 남조선 《녀신학자협회》도 《민족통일과 평화에 관한 녀신학자선언》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남북간의 녀성대표들의 대화와 접촉을 제의해나섰다.

최근 몇달사이에 남조선의 《민족문학작가회》가 올해안으로 남북작가들의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한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50여개 재야단체들도 민족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접촉과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단을 끝장내기 위한 성스러운 통일운동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태발전이다.

최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속에서 통일대화에 참여하려는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있는것은 그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과 함께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주체적 립장이 점차 확립되여가고있는데 기인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며 귀중한것이다. 따라서 남조선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의 요구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무시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은 응당히 민족의 중대사를 론하는 통일대화에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우리와 마주 앉게 된다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게 될것이며 온 민족의 총의를 집대성하여 민족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처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우리와의 통일대화에 참여할것을 요구하여나선것은 거족적 사업인 통일문제해결에서 자기들의 응당한 의무와 역할을 다하려는 자각과 념원에서 출발한 지극히 정당한 애국적인 소행인것이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통일대화를 할데 대한 새로운 협상방침은 또한 1970년대이후 북남대화에서 남조선통치배들이 통일이 아니라 분렬주의적 립장을 취하면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을 감행한 력사적 교훈에 기초하여나온 정당한 방안이다.

1970년대초 북남대화가 시작된 이래 130여차례의 대화와 접촉들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은 일관하게 반통일립장을 취하여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에 의하여 우리와의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대화의 막뒤에서 일관하게 대화부정적이며 통일부정적인 립장을 추구하여왔다.

대화와 대화의 막뒤에서 분렬정책을 추구해오던 남조선통치배들은 드디여 1973년 6월에는 《남북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6.23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저들의 분렬주의적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리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를 파탄에로 몰아넣었다.

통일협상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1979년 2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

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접촉이 마련되였으나 이것도 역시 남조선당국자들의 고의적인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3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류산되였던것이다.

1980년 1월 북남총리접촉을 위한 실무대표접촉도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감행한 광주대학살만행과 전례없는 반공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결렬되고말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군사당국자회담제안,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제안, 다국적 군축회담제안, 북남련석회의 소집제안 등 우리의 거듭되는 통일지향적인 합리적인 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우기 그들은 80년대중반기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련되였던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들을 도발적인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중단시켰을뿐아니라 그 재개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북과 남은 1970년대초에 대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6년동안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였지만 나라의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필요한 비방중상을 중지하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엄중한 대결상태에 있다.

지난 시기의 대화의 총화와 교훈은 온 민족의 사활적 리익과 관련되는 민족의 중대사를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절대로 안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직접 통일대화에 참여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대화에 직접 참가하여야 하는것은 현남조선통치배들이 남조선인민들의 의사를 대표할수 없는 사정과 관련된다.

지난해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자의 64%가, 지난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자의 70%가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민정을 요구하여나섰다.

관권과 금권을 총발동하여 협잡에 협잡을 거듭하고도 30%수준의 《지지표》밖에 얻지 못한 현집권자나 《민정당》은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의 의사를 대표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것이다.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자들이 온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통일문제를 담당하여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이다. 뿌리도 줄기도 독재인 나무에서 민주화의 꽃이 필수 없고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추종하는 분렬주의자들에게서 통일문제해결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로태우역도가 이른바 《6. 29선언》을 《민주화공약》이라고 떠들면서 그것을 실현하여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고 민주정치의 새 장을 열것처럼 떠들었지만 그것이 가짜이고 기만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로태우역도는 남조선의 악독한 군사파쑈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앞장에 서서 총칼을 휘둘러온 살인마이다. 민주와 량립할수 없는 파쑈리념이 골수에까지 꽉 차있는자가 다름아닌 로태우역적이다. 그런자가 《민주공약》과 《민주정치》를 운운한다고 하여 믿을 사람도 없다. 체질로 보나 지나온 행적으로 보나 민주와 통일에 대해 말할 한푼어치의 자격도 없는자가 민주요, 통일이요 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현실적으로 로태우역도는 집권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 《두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의사에 부합되게 인민들을 위하여 내놓은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내놓은것이 있다면 오직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장기화하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7. 7선언》과 같은 분렬주의안밖에 없다.

이 모든것은 통일문제와 같은 민족의

중대사를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배격을 받는 로태우일당에게 맡길수 없으며 또 그들에게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도 없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사활적인 리익과 관련되는 조국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지향을 반영할수 있는 폭넓은 대화마당이 마련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숙된 요구와 통일대화에 참여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폭넓은 협상방침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방침이며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극도에 이르고있는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명시한 구국의 기치로 된다.

이 새로운 협상방침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력사의 주체이며 조국통일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주체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참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통일대화에 광범히 참여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협상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시였으며 탁월한 령도와 한없이 넓은 포옹력으로 온 겨레를 구국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통일구국의 휘황한 등대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협상방침이 실현되여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층 대표들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의 격폐상태를 마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이며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화를 독점하고 그것을 분렬에 악용하려는 목적밑에 《대화창구의 일원화》라는 구실을 내들고 이른바 《당국회담》을 고집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대화참여의 길을 가로막고있다.

로태우일당은 선행독재자들의 《기본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부》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통일론의를 하고 통일대화에 나서는것은 《국론을 분렬》시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북과의 접촉과 대화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부》창구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본질상 온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론의와 대화참여의 자유를 유린하고 북남대화를 저들이 독점하자는것이며 그것을 남북대결과 민족분렬의 고정화의 수단으로, 군부독재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리용하자는것이다.

6.10, 8.15남북학생회담을 총칼로 막아나선 남조선통치배들의 범죄행위자체가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대화를 그들이 얼마나 겁나하고 그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들을 두려워하고 배제하면서 당국주도의 외곬으로 대화를 벌려나가려는것은 진실로 대화를 하고 통일을 하려는 립장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창구의 일원화》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통일론의

의 《자유》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그것조차 《헌정질서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화를 독점할뿐아니라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도 사실상 가로막고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의 《대화창구의 일원화》주장은 인민들의 대화참여의 길을 막고 대화를 독점함으로써 아무 결실도 없었던 지나간 대화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그릇된 태도외의 다른것으로 될수 없는것이며 남조선에서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통일운동을 총칼로 압살하고 분렬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려는 반통일적 립장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통일문제의 거족적 성격으로 보나 지난 시기 여러갈래의 대화들에서 결실을 보지 못한 전례로 보나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요구로 보나 《대화창구의 정부일원화》주장은 전적으로 부당한것이다.

남조선신문까지도 《통일은 민족의 축제이지 정권차원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통일론의와 통일대화의 자유를 주장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렇듯 《대화창구의 일원화》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당국회담》론 역시 인민들을 통일대화에서 배제하기 위한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대화창구의 일원화》주장을 실지 행동화한것으로서 대화를 한다는 입내나 내면서 그 막뒤에서 대결과 전쟁, 분렬의 목적을 실현해보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로태우역도가 《집권》후 130여일만에 내놓은 이른바 《7. 7특별선언》이라는것도 미국의 각본에 따라 선임자가 내놓았던 영구분렬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교차승인론》을 문구와 표현을 바꾸어 각색한 낡은 문서의 변종에 불과한것으로서 그것 역시 《당국주도》하에 교류와 장사나 하고 북과 남의 관계를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들간의 관계로 만들자는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나오자마자 내외여론의 규탄을 받고 산산쪼각이 나고말았다.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사이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회담은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 화해와 대단결의 리념에 기초하여 진심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립장에 서서 서로 접촉하고 회담한다면 통일의 앞길에 겹쌓인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훌륭히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며 통일을 원하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대화와 통일론의를 저들의 독점물로 삼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과 통일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는 남조선통치배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해버려야 한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지향을 외면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로태우일당의 분렬주의적이며 반민족적인 《7. 7특별선언》을 끝까지 반대하고 북과 남의 각당, 각파,각계각층 대표들사이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교차승인론》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

리　왈　수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나라와 민족이 분렬되여 40년이 넘도록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그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기때문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두개 조선》조작음모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저들의 음흉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제24차 올림픽을 계기로 《교차승인》의 분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적 행위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　　　*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은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이며 《교차승인론》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306페지)

미제가 대조선전략으로 내세우고있는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하나의 통일국가로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와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영구히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는 민족분렬책동이다.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차승인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놈들이 들고나온 《교차승인론》은 《동서방》나라들이 조선의 북과 남을 《엇바꾸어 승인》하는 방법으로 《두개 조선》조작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려는것이다.

《교차승인론》을 통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노리는 목적은 남조선으로 하여금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나아가서 국가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조선반도에 《두개 조선》을 기정사실화하여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틀어쥐고 저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 나라들이 상대할 자주적인 《정권》이 못된다. 남조선《정권》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의 도구이며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반인민적인 괴뢰정권이다. 이《정권》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매국정권이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쑈정권이며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분렬주의정권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교차승인론》

을 들고나온 자체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존중하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 나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만일 《교차승인론》이 실현되게 된다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합법화되고 조선의 분렬은 고착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교차승인론》은 철두철미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둘로 갈라놓기 위한 교활한 술책으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교차승인》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이다. 40여년간에 걸치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통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킴으로써 미제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는 문제이며 이것은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또한 서로 다른 나라들사이의 병합이나 다른 민족들사이의 통합문제가 아니라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미제에 의하여 생긴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통일을 회복하는 민족내부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우리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위업이다.

외세에 의하여 산생된 민족내부문제인 우리 나라 통일문제가 우리 주변나라들이 조선의 북과 남을 《교차승인》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북과 남의 전체 인민이 주인이 되여 우리 민족끼리 풀어야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민족의 참다운 자주권, 행복과 번영은 오직 령토의 완정과 민족적 통일이 이루어진 조건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갈라질 때 그 민족은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할수 없으며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렬된 민족이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은 례가 없다. 세계에는 단일민족국가도 있고 다민족국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외래제국주의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 이룩되는 조건에서만 인민들은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매달리는 《교차승인》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것이다.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의 이러한 근본 특성과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에 명시된 자주의 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평화통일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북남쌍방이 무력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단합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현실적인 방도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다.

민족적 통일을 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고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가 분렬되여 수십년동안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하나의 사상과 제도로써는 도저히 통일을 실현할수 없게 된 현실태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이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하나의 공통성, 수천년동안 한 강토우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민족의 동질성, 민족적 리념을 기초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구국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또한 통일국가창립의 방법문제도 빛나게 해결하여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 주고있다.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버릴수 없는 조건하에서 북남쌍방은 각각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련방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북남쌍방은 다같이 자기의 리익을 손상시킴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우리 당은 이처럼 가장 합리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층을 망라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온것을 제의한데 이어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제기될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들을 토의하기 위한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안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응당한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있다.

우리 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우리 당은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온 민족이 갈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기하였으며 련석회의가 소집되기전이라도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이 모든 방안들은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분렬을 방지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뿐아니라 온 민족앞에 확약한 남북공동성명을 집어던지고 미제의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서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기 위한 《교차승인론》에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7월에 로태우역도가 내놓은 이른바 《남북관계와 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이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로태우역도가 내놓은 《특별선언》은 남북동포들사이의 호상교류와 해외동포들의 남북래왕,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호상방문과 서신거래, 남북사

이의 경제교류와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대표들의 자유로운 접촉 및 쌍방《우방국》들과의 관계개선 등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교차접촉》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것은 이미 미국의 각본에 따라 선임자가 내놓았던 영구분렬안인 《민족화합민족통일방안》과 《교차접촉안》을 문구와 표현을 바꾸어 각색한 낡은 문서의 변종에 불과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책동은 북과 남사이에 교류나 하고 장사나 하면서 껍렁껄렁 세월을 보내여 분단을 고착시키고 쌍방《우방국》들과 각기 교차접촉관계를 실현하여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자는데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으로는 반공과 파쑈체제를 꾸리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끌어들여 《교차승인》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밖으로는 《교차승인론》의 낡은 보따리를 메고다니면서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 저들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구걸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만 남조선괴뢰들은 분렬의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장애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 평화통일의 전제인 평화협정체결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애국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공대결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괴뢰들은 인적 물적 교류와 같은 《단계론》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의 주요조건으로 되는 정치, 군사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분렬주의적 립장을 고집하고있다. 더우기 놈들은 말로는 남북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한결같이 반대한 제24차올림픽경기대회단독개최를 끝끝내 강행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괴뢰들에게는 통일이 안중에 없으며 날이 갈수록 놈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되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분렬주의적 책동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을 심화시키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해독적 작용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로태우일당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영원히 분렬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민족적 과업은 없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두개 조선》 정책에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남조선을 틀어쥐고 미국, 일본, 남조선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전략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조선의 통일이 지연되고 조선의 북남 전체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지와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차승인》, 《교차접촉》, 《유엔단독가입》과 같은것들을 들고다니면서 그것을 성사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노리는 《교차승인》, 《교차접촉》, 《유엔단독가입》이니 하는것은 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빚어진 국토와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기 위한 가장 음흉하고 악랄한 책동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꾀하는 이러한 책동이 제때에 타격을 받고 저지파탄되지 않으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 실현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국제정세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은 극히 자명한것이다. 조선을 두 부분으로 갈라놓음으로써 미제는 남조선을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전략적인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틀어쥘것을 타산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의 반공돌격대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명줄을 이어가려 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오직 미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남조선괴뢰정권을 놓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들이 대상할만한 가치가 없다.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고 미제침략군의 총칼의 비호밑에 유지되고있는 철저하게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허수아비정권인 남조선괴뢰정권과 그 무슨 관계를 가진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급적 형제들사이의 의리를 보아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새 세계, 인류의 광명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 력량이며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어깨겯고 함께 싸우는 계급적 형제들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계급적 형제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며 호상관계에서 동지적 의리를 지키는것을 드팀수 없는 혁명적 원칙으로 삼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이 미제의 철저한 식민지앞잡이인 남조선괴뢰들과 국가관계를 가지는것과 같은 일은 있을수 없다. 남조선괴뢰들과 국가관계를 가지는것은 자기의 오랜 벗의 신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로, 그 어떤 구실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 비계급적이며 비우호적이며 비동지적인 행위로밖에 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은 《북방외교》에 대하여 떠들면서 몇푼의 딸라를 가지고 남을 유혹하는 역겨운 놀음까지 벌리고 있다.

남조선경제란 미일독점재벌과 다국적회사들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경제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채무지대이며 외래독점자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빚더미우에 앉아서 허우적거리고 제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남에게 그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것자체가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범죄적인 《교차승인론》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그것은 절대로 실현할수 없다.

세계 진보적 나라들의 한결같은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11호(루계 559호)

편집위원회

편곳•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8년 11월 1일 발행•1988년 11월 3일
ㄱ—8518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88

제12호(56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 정 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나는 오늘 우리 당 창건 42돐을 맞이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으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였기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진정한 혁명가들은 주체의 혁명관을 지니였기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대중과 혈연적 련계를 맺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그마한 동요도 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관은 그 어떤 책이나 서재에서 얻은 한갖 지식이 아니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간악한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체득한 드놀지 않는 신념이였습니다. 혁명관은 이처럼 실천투쟁을 통하여 체득하고 신념화되여야 혁명가의 고유한 품성으로 체질화될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고 혁명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도 많이 달라졌지만 신념화된 혁명관을 지니는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런데 오랜 혁명가들은 점점 늙어들고 우리 혁명대오에는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지 못한 새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혁명관은 일반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합니다. 사상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인것만큼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하여야 공고한것으로 됩니다. 혁명관도 원리적으로 인식할뿐아니라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여야 그것이 확고한 의지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리해관계를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자기의 계급적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감정을 가지며 나아가서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근로인민대중의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였을 때 비로소 혁명적 세계관이 선것으로 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이것은 혁명저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힌 탁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하는것을 보면 대체로 인식단계에 머물러있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체득하고 신념화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학습회나 강연회를 몇번 하였는가 하는 통계나 받고 문구를 따로외우기 위한 경쟁 같은것이나 조직하면 혁명관을 세우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문답식 학습경연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론쟁을 하면서 집체적 지혜를 동원하여 문제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문구를 기계적으로 따로외우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목적은 그들이 문구나 따로외워가지고 멋이나 부리게 하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혁명투쟁에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물론 혁명관을 세우자면 인식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인식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적 각오와 투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형식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것이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입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운다는것은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천방도를 옳게 인식하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각오와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 주인인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혁명의 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혁명을 수행하는 근본방도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결국 혁명의 승패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혁명의 대상에 대하여 잘 아는것도 필요하지만 혁명의 주체에 대하여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것만큼 혁명관을 세우자면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혁명의 주체는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인것만큼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갈것을 요구하는 혁명적 도덕관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합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결합되여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것처럼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여 하나의 전일적인 혁명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우려면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다같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적 수령관을 세워야 합니다.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데서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수령의 령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서는 선행한 혁명리론에서도 많이 강조되였습니다. 수령은 물론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령도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령을 단순히 최고지휘관으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지휘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어느 사회, 어느 계급에 있어서나 다 공인되여있지만 로동계급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 자기 수령을 내세운 계급은 없습니다.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지휘하는 사람과 지휘받는 사람의 관계로만 리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지휘하는 사람은 지휘할 권리만 있고 지휘받는 사람은 지휘에 복종할 의무만 있다고 보면 그것은 순수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지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관계라고 볼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에서는 지휘하는 사람과 지휘받는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봅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적 견지에서는 혁명적 수령관을 리해할수 없습니다.

수령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생명의 중심이 생명체의 생존과 활동에서 중요하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으로서 생명력을 지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며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동지적으로 결합되여야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난날 수령에게 끝까지 충실할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에 수령이 우리 민족의 생명의 중심이며 자기의 운명이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다는것을 깊이 체험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앞에는 오늘의 력사적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수령과 전사사이의 혈연적 련계를 생활적으로 깊이 체험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섭니다. 물론 지난날 혁명가들이 체험한것을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할수도 있습니다. 수령관을 세우는데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전형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만들어 리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하는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오늘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

여 진행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혁명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구체적 환경은 비록 다르지만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혁명투쟁을 해나간다는 점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나 오늘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혁명투쟁을 해나가는것은 곧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혁명투쟁을 해나가는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수령의 사상과 의지에 충실할수록 수령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보다 값높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되며 개인주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커다란 삶의 보람을 누릴수 있습니다.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라야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수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이 있다는것을 체득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당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전위부대를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며 당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관점과 립장으로 됩니다. 수령은 당의 수령인것만큼 당과 수령을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과 수령을 완전히 동일시할수는 없습니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면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결합체입니다. 당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수령에 대한 관점과 립장,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다같이 포괄하게 됩니다. 수령관을 혁명관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보는 조건에서 당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결국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 귀착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관의 구성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관과 당관이라고 하지 않고 수령관과 조직관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조직관은 당조직뿐아니라 당의 령도밑에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모든 사회정치적 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포괄합니다. 당조직은 사회정치적 집단에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회정치적 조직들과 구별됩니다.

조직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될수 없으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뛰여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령과 조직적으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수령이 안겨주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없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떨어져나간다는것은 곧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참다운 혁명가는 조직을 자기

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고 투쟁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는것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직의 귀중성을 주로 단결의 필요성과 관련시켜 많이 강조하여왔습니다. 물론 혁명을 하자면 조직적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단결하여야 위력한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의 힘은 곧 단결의 힘이며 단결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직의 귀중성을 깊이 리해하자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결부시켜보아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서만 하나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조직을 자기 생명의 모체로서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령을 어버이수령이라고 부르고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하는것도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조직이 사회정치적 생명의 모체이기때문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조직관을 세우자면 조직의 귀중성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킬뿐아니라 조직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은 당원들이 지니고있는 정치적 생명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생활입니다. 우리의 정치생활은 곧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직사상생활입니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당생활은 당조직생활과 당사상생활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이 당조직에 소속되여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면서 당이 맡겨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정치활동입니다. 당조직의 주인은 당원들자신입니다. 당원들은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당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언제나 조직의 의사와 규률에 따라 움직이는 습성을 키워야 합니다.

당사상생활은 당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량식을 받아안고 그것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나가는 정치생활입니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당과 사상적으로 결합될수 있으며 당원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나갈수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나갈수 있는것처럼 당원은 사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갈수 있습니다.

당생활은 반드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당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며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일부 당일군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것을 보면 주로 당원들이 조직규률을 어떻게 지키고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만 주의를 돌리고 본신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거의나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일군들은 마치도 당원들이 맡고있는 본신혁명과업 수행에 대하여서는 행정경제일군들만이 관심을 돌려야 할 실무적인 사업인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원들의 당생활이 본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것으로 되지 못하고있으며 지어는 그 수행을 저애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당원들의 당생활을 본신혁명과업 수행과 밀착시켜야 한다는것을 계속 강조하고있습니다.

당생활을 본신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라고 하면 일부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까지도 자기가 다 맡아해야 하는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을 대행하는데 이것도 우리 당의 당생활지도원칙에 어긋납니다.

당일군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실속있게 지도하여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당이 준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습니다. 혁명적 군중관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입니다.

혁명적 군중관을 세우자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이 인민대중우에 선 존재라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은 인민대중자신의 향도적 핵심력량입니다.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당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한다는것은 대중에게 자기의 주관적 의사를 내리먹인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확한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대중을 그 실현에로 이끌어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들의 투쟁을 이끌어나갈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는것으로써 인민대중에게 복무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당의 리익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당활동의 최고원칙이 있습니다.

당은 인민대중의 선진부대인것만큼 대중의 뒤꼬리를 따라다녀서는 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할수 없습니다. 당은 대중이 자기의 참다운 리해관계를 옳게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것은 바로 대중의 참다운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복무하는것입니다.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군중을 깔보고 군중에게 호령하게 되며 자기를 군중우에 선 특수한 존재와 같이 생각하면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게 됩니다. 군중을 깔보면 자연히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생

각하게 됩니다. 군중을 깔보고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는것은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압박하던 낡은 사회통치계급의 사상적 유물입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체득하자면 그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는것과 함께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적 군중관은 군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군중에게 복무할 각오를 가질뿐아니라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것을 생활화할때 확고히 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혁명의 승패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개인은 아무리 총명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인류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지혜와 힘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체현하고있을뿐입니다. 오직 인민대중만이 인류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모든 사회적 재부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자신을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자체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창조적 힘을 지니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대중은 사회의 전진운동을 떠밀고나가는 혁명의 유일한 담당자로 되는것입니다. 혁명을 하자면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있을수 없습니다. 군중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혁명가의 자격이 없습니다. 군중의 힘을 믿지 못하는데로부터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가지게 되고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군중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것은 저절로 발휘되는것이 아닙니다. 군중은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될 때에만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습니다.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군중의 힘은 개별적 사람들의 힘을 산수적으로 합친것과는 대비할수 없이 질적으로 구별되는 거대한 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 사업방법의 불패의 생활력은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모든 문제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인의 리해관계를 자극하는 방법만으로써는 사람들의 창발성과 헌신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습니다. 집단의 리익이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자각한 사람만이 높은 창발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습니다.

혁명에서 개인의 운명은 집단의 운명과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으며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은 통일되여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어디까지나 집단인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지 그 어느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은 오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야 혁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만 자기 개인의 운명도 가장 훌륭히 꽃피워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우월성은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줄뿐아니라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는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의 령도밑에 조직사상적으로 단결되여야 하며 옳은 전략전술에 따라 투쟁하여야 합니다. 군중로선은 반드시 당의 령도와 결부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군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군중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령도를 실현할수 없습니다. 당의 유일적 령도와 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군중로선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고있지만 혁명적 군중관점이 바로서지 않고 군중로선을 구현한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체득하지 못한데로부터 관료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제대로 발양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정책관철에서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지어는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연이 없는 개인주의적 실용주의방법에 기대를 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적 군중관점을 바로 가지고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체득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이 혁명적 량심에 기초하여 신념화되자면 반드시 혁명적 도덕관과 결부되여야 합니다.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규범입니다. 혁명적 도덕관은 혁명적 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립장입니다. 혁명적 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리익에 맞게 행동하였을 때에는 긍지감을 가지게 되며 그와 어긋나게 행동하였을 때에는 비록 남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량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의무로 됩니다. 이것을 어기는것은 결국 혁명을 배반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혁명규률의 견지에서 볼 때 용납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여있는 수령, 당, 대중사이의 관계는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로도 됩니다.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 량심에 기초한 도덕에 의하여 담보되여야 하며 또 그렇게 되여야 참으로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노예로서 갖은 천대와 압박을 받으며 민족의 넋마저 잃어버리게 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민족자주정신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성스러운 혁명투쟁에로 이

끌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민족 재생의 은인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조선에 태여난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수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리상적으로 체현하고있기때문에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행동하는것이 가장 량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된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공산주의도덕의 최고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며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인민대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합니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 도덕은 비단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에서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되여야 합니다.

원래 도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행동규범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계급적으로 대립됨에 따라 도덕도 계급적 성격을 띠고 서로 대립되게 되였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계급적 리해관계를 떠난 그 어떤 보편적인 도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도덕은 로동계급적 성격을 띠고있습니다. 그러나 로동계급은 계급자체를 폐절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이므로 로동계급의 리익은 전사회의 리익과 일치됩니다. 로동계급의 리익을 반영한 도덕은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보편적의의를 가집니다.

로동계급의 도덕인 공산주의도덕은 력사적으로 발전되여온 도덕가운데서 모든 합리적인것을 계승하고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발전시킨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도덕입니다. 공산주의도덕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가장 보편적인 도덕입니다.

로동계급의 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면서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여있습니다. 사람들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공산주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응당하고도 자연스러운 일로 됩니다.

공산주의도덕이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전면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권력에 의한 사회생활의 규제범위는 점차 줄어들고 공산주의도덕에 의한 사회생활의 규제범위는 더욱 확대되게 될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사회생활에서 권력의 작용이 점차 줄어들고 도덕의 작용이 끊임없이 확대되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도덕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도덕교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잘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공산주의도덕교양을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관련하여서는 적지 않게 하고있지만 일상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관심을 잘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도덕을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없으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자체도 공고한 도덕적 기초우에서 다져나갈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도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적 사람들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는 수령, 당, 대중과 개별적 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 표현됩니다.

인민대중이 집단이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집단의 중심으로서의 수령과 집단의 중추로서의 당도 다 집단을 대표합니다. 사회적 재부도 집단에 속하여있으므로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부와 개인의 관계도 집단과 개인의 관계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서 사람과 재부와 령토의 모든것을 다 포괄하고있는 조국과 개인의 관계도 역시 집단과 개인의 관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집단과 그에 속한 개인은 운명을 같이하고있으므로 집단과 개인사이에는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의 도덕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리는 바로 집단과 개인사이에 작용하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 도덕관계를 표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꼭같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단을 떠나서는 개인이 살수 없는것만큼 집단의 리익이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은 명백합니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은 집단의 리익을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겨야 합니다.

사회정치적 집단에 속해있는 개별적 사람들사이에서도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의 도덕적 원리가 작용하지만 집단과 개인의 관계와는 달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평등하므로 어느 개인의 리익이 다른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 문제는 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단안에서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원래 동지적 사랑은 상대방을 자주적인 존재로 보고 그의 독자성을 인정하는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에는 동지적 사랑이 있을수 없습니다. 동지적 사랑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사이에서만 있을수 있습니다. 동지적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데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만일 자기의 리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지적 사랑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평등한 자주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동지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공산주의도덕은 마땅히 개별적인 사람들의 자주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동시에 집단의 통일과 단합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이 훌륭히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이며 동지적 사랑으로 결합된 가장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사회의 특성에 맞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도덕품성은 크게 두면을 가지고있습니다.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지닌 인간은 무엇보다도 가장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부당한 행위를 증오하며 모든 문제를 편견과 사심이 없이 공정하게 대할줄 아는 공명정대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지닌 인간은 또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복무할줄 아는 가장 인민적이며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기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것이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품성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아직 공산주의도덕품성을 소유하지 못한데로부터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뿐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직권을 람용하여 사람을 내리누르려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리익을 희생시켜 자기의 리기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군들은 마치도 이런 현상이 혁명의 근본리익과는 크게 저촉되지 않는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없습니다. 동지를 속이는 사람은 당과 수령도 속일수 있으며 자기를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혁명의 리익도 저버릴수 있습니다.

매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산주의도덕은 동지들사이의 관계와 가정생활, 사회공동생활에서 다 구현되여야 합니다.

동지들사이의 관계에서 혁명적 의리를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라고 하시면서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혁명동지는 하나의 공통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귀중한 전우이며 친근한 형제입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참다운 동지를 얻었을 때 가장 기뻐하며 그러한 동지를 잃었을 때 가장 가슴아파합니다.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초보적인 도덕품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당과 혁명에도 충실할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동지들사이에 혁

명적 의리를 지킬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것을 파악하는것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옳게 진단하고 평가하는데서 첫공정으로 됩니다.

동지적 사랑은 뜨겁고 진실하면서도 원칙적이여야 합니다. 동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지의 결함을 보고도 못본체하며 그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한 동지애가 없고 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동지를 차겁게 대하고 그의 결함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사람을 원칙적으로 대하면서도 동지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뜨거운 동지애를 지녀야 합니다.

상하간의 관계에서도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가 구현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급과 하급사이의 관계는 결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같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동지들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보다 중요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귀중한 동지로서 존경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웃사람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래사람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기층생활단위입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하고 행복하여야 사회생활전반이 명랑하고 활기있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에 기초하고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관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도 사회적 관계인것만큼 가족들사이에는 해당 사회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도덕적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과정에 맺어지는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자매사이의 육친적인 사랑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동지적 사랑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치도 공산주의혁명가는 가정도 모르고 오직 혁명만을 아는 인정미없는 사람인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부모처자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족들사이의 육친적 사랑을 절대화하여서는 안됩니다.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혈연적 관계보다 동지적 관계가 더 중요한것만큼 가족들사이의 육친적 사랑은 어디까지나 동지적 사랑에 복종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다같이 혁명사업에 충실하도록 동지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에서 도덕을 지키는것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남녀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지적 관계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공동생활에서 공산주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공동생활에서 중요한것은 로동생활입니다.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사회적 인간의 신성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사회적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또한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보람찬 삶을 누릴수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을 사랑하며 누가 보건말건 자기가 한 로동의 결과에 대하여 사회앞에 책임지는 립장에서 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로동에 성실히 참가할뿐아니라 로동의 창조물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사회적 집단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일뿐아니라 로동과 로동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례절을 잘 지키며 늙은이와 어린이, 애기어머니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한 신념으로 되자면 인생관화되여야 합니다.

인생관은 크게 개인주의적 인생관과 집단주의적 인생관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인생관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입니다. 개인주의적 인생관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으며 인생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인생관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며 인생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는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것은 자기자신과 자기 세대를 위하여서뿐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하는것이며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하는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저 자기자신의 안락만을 위하여 살다가 한생을 마친다면 남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그런 사람의 한생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무의미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고 풍찬로숙하면서 굴함없이 싸운것은 편안하게 사는것이 좋은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을 살아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것이 떳떳하고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전 세대가 없이는 우리 세대가 있을수 없으며 우리 세대가 없이는 다음 세대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자신과 자기 세대를 위하여서뿐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훌륭한 미래를 마련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하나로 련결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민을 위하여서뿐아니라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리기주의를 배격하는것처럼 민족리기주의도 반대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에 다같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나라가 분렬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지켜 싸우고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 민족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인류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비록 어려운 투쟁이지만 그만큼 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입니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하여 충실하게 사는것이 곧 자기자신을 위하여 가장 충실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 여기에 가장 빛나는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함으로써 혁명관이 인생관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인류사에서 고고성을 울린 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력사의 기본흐름을 이루게 되였으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였다.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전인미답의 길을 빛나게 개척함으로써 승리해온 영광스러운 행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에서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로동계급의 원칙적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혁명이 멀리 전진하여도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에서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결히 고수하는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사회주의가 순탄하지 않는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력사적 조건에서 혁명하는 사람들앞에는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이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 *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은 자주성과 창조성으로 일관된 가장 원칙적 립장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며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창조자이다. 로동계급이 벌리는 혁명투쟁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 투쟁으로 된다. 그것은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려는 로동계급의 세기적 념원과 모든 민족들이 평등하게 생을 누리려는 인류공동의 지향을 담고 있다. 이 인류사적 투쟁위업은 공산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 인민대중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 때 빛나게 완수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본성적 요구와 관련하여 제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적 성격을 띤 혁명운동이며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이 그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언제 어디에서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으로부터 물러나서는 안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 원칙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성격자체가 변하게 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이 실현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이 투쟁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행정을 거쳐야 하는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하시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변혁입니다. 사회주의는 몇천년동안 쌓이고쌓인 온갖 력사적 오물을 청산하기 위한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우기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내외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1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심각한 사회적 변혁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 전환과정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몇천년동안 쌓이고쌓인 온갖 력사적 오물을 청산하는 장기간의 어려운 투쟁을 거쳐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과정은 하루이틀에 끝나는것도 아니며 순탄한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사회주의나라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혁명적 이행의 전력사적 시기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전복된 착취계급이 빼앗긴 자기들의 옛 지위를 되찾으려고 언제나 시도할뿐아니라 외래제국주의자들이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제국주의는 그 침략적, 략탈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날로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 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를 퍼뜨리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렇듯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간고한 행정을 거쳐야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면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일관하게 지켜야 한다. 혁명투쟁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적 원칙성을 철저히 견지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패배주의적 립장에 떨어지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복잡하고 간고하다 하더라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와 혁명적 립장에서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문제는 변화된 환경속에서도 어떻게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는가 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로동계급의 사회이다.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화된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를 개조하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전사회적 규모에서 공산주의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며 계급적 대립과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폐절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 온 사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면모와 기풍이 확고히 서고 흔들림없이 공고화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보는 립장은 사회주의건설의 계급적 본질과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로동계급적 립장이다. 이러한 립장은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여도 변할수 없는것이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계급구성은 변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면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사회계급구성에서 기본을 이루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은 지난날의 무산자가 아니며 농민들도 지난날의 소소유자가 아니다. 인테리들도 2중성을 극복하고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으로 된다.

사회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자, 농민, 인테리의 처지가 변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변화되는것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강화되는것이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요구를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는것으로 보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계급적 차이와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벌려나갈수 없으며 종당에는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성을 면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를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 하여도 그자체로써는 고유한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관리하는 길은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는 관리운영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견지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여있으며 그들사이에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관계가 지배한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에 기초하여 관리운영되여야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은 매개 사회성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집단주의의 본질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공동의 리익을 존중할뿐아니라 집단에 속한 모든 성원들의 리익을 다 귀중히 여긴다. 집단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야 매개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 잘 옹호되고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분산된 개인으로서는 생각할수 없는 큰 위력이 발휘될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사회를 개인주의적 원칙과 방법으로 관리운영하게 되면 사회제도는 사회주의적인데 그에 대한 관리는 비사회주의적으로 하는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는 개인주의적 방법은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기때문에 집단의 위력을 발양

시킬수 없게 하며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열성과 창조적 힘도 제대로 발동시킬수 없게 한다.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관리운영하려면 경제관리분야에서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관리분야에서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리용하여야 사회주의의 진인력을 강화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승리하는 력사적 위업이다. 사회주의사회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인것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할수 없고 사회주의의 고유한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정치적 령도이다. 당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정치조직인것만큼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정치적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야 한다.

당사업에서 관료주의적 방법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사회관리에 대한 지도에서 손을 떼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저버리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집권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강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시종일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건설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 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아무런 편향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민족적인 과업인 동시에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의 위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혁명적 립장을 지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반제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며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고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는 동지적 관계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9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은 공통된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 형제들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계급적 련대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국제로동계급은 련대성의 공고한 뉴대로 굳게 결속될 때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오늘도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주의철쇄를 끊어버리는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의거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합된 력량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특히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사회주의나라들이 하나의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로동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계급적 련대성, 동지적 단결을 견결히 옹호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단결이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서는 자기의 협소한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형제나라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해를 주는 비계급적이며 비우호적인 행동이 허용될수 없다. 자기의 협소한 리익을 위하여 계급적 립장과 동지적 신의를 저버리는것과 같은 배신적 행위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서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어떤 구실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물론 매개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자주성이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자주적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주성이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는것은 아니다. 자주성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자주성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 인민의 리해관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하는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다. 만일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민족리기주의에 떨어지게 된다. 더우기 독자성의 간판밑에 계급적 련대성의 원칙과 계급적 형제들사이의 혁명적 의리를 저버리는것은 공산주의자의 태도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될뿐아니라 자기 나라 혁명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공고한 통일단결은 매개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이 철저한 반제적 립장에 설 때에만 참답게 실현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통일단결은 무원칙한 단합이 아니며 그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전제로 한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현시기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립장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의 날카로운 투쟁을 동반한

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 립장을 떠나서 혁명투쟁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인류력사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제국주의가 결탁하는 방향에서 재조직되고 파멸에 직면하였던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였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해결되였거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자본주의의 능력과 생활력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자본은 아무리 국제화되여도 자본이외의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변화된것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략탈 방법이 보다 교활해진것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국내적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로 더욱 확대된것이다.

련합된 세력으로 재편성된 현대제국주의는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분렬와해시켜 각개격파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는 한편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멸망하는 자들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로골화하고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지배와 략탈, 침략과 전쟁이 없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반제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는 문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도,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반제적 립장,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각방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략탈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피압박민족들이 전개하는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혁명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로동계급의 동맹군을 강화하는것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승리를 촉진하는것이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변함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적 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국제혁명위업에도 훌륭히 기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성을 변함없이 견지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인간개조사업은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

리 상 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 보고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서 우리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원칙과 과업,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서 천명된 귀중하고 풍부한 사상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에 관한 사상이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데 대한 사상을 핵으로 하여 전개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개조사상은 인간을 교양개조하는데서 혁명적 원칙성을 고수하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개조사업의 본질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그것이 차지하는 지위를 뚜렷이 천명한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사회주의적 사상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워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입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17페지)

인간개조사업의 본질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인간개조사업의 방향과 목표, 기본임무는 이 사업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간개조사업의 본질은 개조의 대상인 사회적 인간의 본성과 사회력사적 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때에만 옳게 규정할수 있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정신적 힘을 키우는 사업과 육체적 힘을 키우는 사업은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는 인간개조사업의 두가지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을 높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기술문화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하며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는것은 건장한 체력을 가진 존재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결국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귀착된다. 사람은 정신적 면과 육체적 면의 통일체인것만큼 인간개조사업에서는 마땅히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는 사업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사상개조사업이 기본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만일 사상개조사업을 약화시키거나 홀시할 때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도 지키지 못하고 정치도 혁명도 모르는 정신적 불구자로 되거나 사회정치적 생명보다

육체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속물적 인간으로 되게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데 있다.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사회력사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다. 사람들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도 인류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도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력사의 주체를 강화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만든다는것이다.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그것을 이루고있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인민대중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키울 때 그들은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되며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강화발전되여나가게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창조적 사업이다.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은 각이한 처지와 생활경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업인것만큼 거기에는 고정된 격식이나 틀, 방법이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은 구체적 대상이 처한 환경과 조건,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고도의 창조적 사업이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인간개조사업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키워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창조적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인간개조사업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간개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명할수 있는 리론적 전제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과의 유기적 련관속에서 인간개조사업에 관한 과학적 리해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게 되였다.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의 활동이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지만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것도 사람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것도 사람인것만큼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우와 같은 문헌, 17~18페지)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발전의 기본령역을 이룬다.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결국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여 물질적 부가 더 많이 생산되며 사회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회적 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되며 인간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상문화적 재부를 가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자라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3대개조사업에서 기본은 인간개조사업이다. 그것은 사회와 그 발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되여있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는 다 사람이 창조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고 사회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 한편 사회적 운동은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이다. 인간은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상응

하게 사회적 운동을 떠밀고나간다.

따라서 사회발전과정은 본질상 인간의 발전과정이며 사회발전수준은 결국 인간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물론 인간의 활동이 자연개조정도에 의존되는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개조수준에 의존되는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된다. 인간은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고 력사를 창조할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것도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관계를 개선하는것도 다 사람이다. 객관적 조건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변될수 있다. 자연개조, 사회개조가 아무리 거창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인간개조로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도 인간개조에 귀착된다.

이 모든 사실은 인간개조사업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인간개조사업이 선차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이라는것은 물론 3대개조사업의 순차적 단계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발전에서 인간개조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사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인간개조사업이 차지하는 지위를 뚜렷이 밝힌 탁월한 사상이다. 이 사상이 천명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본령역인 자연개조와 사회개조, 인간개조의 호상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옳바로 리해할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 발전의 기본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지 않고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는 사업에만 치중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는것은 물론 경제건설도 잘해나갈수 없다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임무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임무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8페지)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임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총적 목표는 사람들을 사회적 인간의 본성에 맞게 개조된 인간,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완전히 체현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인간개조의 기본임무는 마땅히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공산주의화된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인간개조의 기본임무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을 통하여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것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 인류의 리상사회인것만큼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한다는것은 그들을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특질과 과학문화지식을 가진 전

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하여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강의한 정신력과 투쟁력,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높은 요구와 생활리올 체현하게 된다.

사람들은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하여 또한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게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집단주의적 생활관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혁명적 수령관과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특질은 결국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통해서만 갖추어지게 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높은 지적 능력은 사람들을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사람들은 인테리화를 통하여 인류가 력사적으로 쌓아놓은 사상문화적 재부와 현대과학기술을 체득하고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높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인간개조사업의 목표라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은 그 근본방도이다.

인간개조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것만큼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인간개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기자신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결합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수 있으며 원대한 리상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자면 사상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진면적으로 구현한 자주사상이며 인류의 완전한 해방과 세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를 주는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인간해방위업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적 원칙과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지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확신과 신심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장기성을 띠고 혁명의 세대가 끊임없이 바뀌는 조건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당의 혁명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상적 량식을 끊임없이 섭취하게 하고 조직적으로 단련하게 하여 혁명성과 조직성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음으로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것이다.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데서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족의 문명정도나 나라의 발전수준도 결국은 과학과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교육은 사회발전에서 기본을 이루는 인간개조사업은 맡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앞자리에 내세우고 힘을 넣어 빨리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사업으로 된다. 현시기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이와 함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 능력을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도록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개화발전되고있는 문학예술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과 참된 인간의 고상한 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을 형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린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며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자면 인민보건사업과 체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건장한 체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이 무병장수하며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에 관한 사상은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완성된 인간개조사상이며 강령적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간개조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다같이 체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총적 목표와 방향,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임무와 수행방도가 뚜렷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완성된 인간개조사상이 출현하게 되였으며 인간개조사업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적 립장과 공산주의적 원칙성을 철저히 견지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간개조사상은 전진하는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인간개조의 강령적 지침으로 되고있으며 그 생활력과 견인력은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간개조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를 철석같이 다지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

김 형 일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신념화된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관을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혁명의 주체에 결합되여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고 나갈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진정한 혁명가들은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지니였음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맺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그마한 동요도 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었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고 혁명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도 많이 달라졌지만 신념화된 혁명관을 지니는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 문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에서 혁명관을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체득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시고 혁명관의 본질로부터 그것을 세우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심오히 밝히시였다.

력사적 문헌은 로동계급의 혁명관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육성의 새로운 길을 밝혀준 불멸의 총서이다.

사람들을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려면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옳게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혁명관을 세우는 주체는 사람이다. 그런것만큼 사람중심의 주체적 관점에서 혁명관의 본질을 옳바로 해명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문헌은 사람중심의 주체적 관점에서 혁명관에 대한 과학적 정식화를 주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입니다.》(《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단행본, 3~4페지)

혁명의 주인은 사람들이다. 그런것만큼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혁명에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이 주체의 혁명관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현방도에 대한 리해를 담는다.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혁명의 본질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있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

이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주성을 실현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자주성이 억눌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린당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회적 운동이 혁명이다.

혁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은 혁명의 근본목적도 밝혀준다. 혁명의 근본목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혁명투쟁을 벌리게 된다.

혁명의 목적에 의하여 그 실현의 근본방도가 규정된다. 혁명의 목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는것만큼 그것은 인민대중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려고 할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혁명적 능력, 창조적 힘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이 발동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보장될 때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것이 혁명수행의 근본방도로 된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인민대중이 혁명활동에서 지켜야 할 립장을 담는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인것만큼 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마땅히 혁명의 주인으로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적 립장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주체적 립장은 혁명적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할 때 확고한것으로 된다.

혁명적 의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적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주인답게 행동하게 하는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은 혁명을 위하여 한몸바쳐 나설 각오와 혁명의 길에 있게 되는 온갖 난관을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를 간직하게 될 때 혁명에 대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된다.

주체의 혁명관이 혁명적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적 립장을 담게 되는것은 혁명관의 근본목적과 관련된다.

혁명관을 세우는 근본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실천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 있다. 물론 혁명에 대한 인식을 떠난 혁명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현방도를 옳게 인식할 때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게 되며 혁명적 의지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된다. 그것은 혁명적 의지가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발휘되며 혁명적 신념은 혁명의 원리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념은 맹목적인것이며 맹목적인 믿음은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오직 혁명의 진리를 체득할 때만이 사람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그러나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지식에 귀착되지 않는다. 혁명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하여 곧 혁명관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기때문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결정적 요인은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은 자주적인 요구를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 의지를 가질 때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되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문헌에 의하여 혁명관이 단순히 혁명

에 대한 지식인것이 아니라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깊이 간직하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 립장이라는것이 밝혀진것은 혁명관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으로 된다.

력사적 문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혁명관이 결국 혁명의 주체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혁명의 대상에 대하여 잘 아는것도 필요하지만 혁명의 주체에 대하여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혁명은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운동이다. 혁명운동, 사회적 운동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다. 혁명은 주체와 대상의 호상작용, 투쟁과정이다. 주체와 대상이 없는 순수 사회적 운동은 있을수 없다. 그런것만큼 혁명관을 세우려면 주체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과 함께 혁명의 대상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혁명은 주체가 일으키고 주체가 떠밀고나가는 주체의 운동이다. 혁명운동을 일으키는 요인도 주체에 있고 혁명운동을 떠밀고나가는 힘도 주체에게 있다. 혁명의 승패는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혁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려면 혁명의 주체에 대한 관점과 립장부터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그런것만큼 혁명의 주체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수령에 대한 관점과 립장, 당에 대한 관점과 립장, 대중에 대한 관점과 립장 다시말하여 혁명적 수령관, 혁명적 조직관, 혁명적 군중관을 포괄하게 된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이 차지하는 위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 당, 대중이 차지하는 위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문헌에 밝혀진바와 같이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

사회가 서로 적대되는 계급들로 분렬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운명의 공동체를 이룰수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 있을수 없다. 사회에 대한 지휘권, 정권을 독점한 최고통치자는 결코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 아니라 그는 사회우에 군림하여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자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성과 창조성이 가장 높고 집단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계급인 로동계급만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이룰수 있었으며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 수령을 내세울수 있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됨으로써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이룰수 있게 되였다. 수령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과 떨어져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혈연적 뉴대로 운명의 공동체에 결합되여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을 이룬다. 중심으로서의 수령이 없이는 사회정치적 집단이 생존할수도 없고 그 생명활동이 보장될수도 없다. 그러므로 혁명적 수령관은 주체의 혁명관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혁명관의 핵으로 된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면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추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다. 인민대중을 이루는 성원들은 당조직과 당의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에 참가하여야만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안을수 있다. 인민대중은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서만 하나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

명체로 결합될수 있으며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이 혁명의 주체의 중추를 이루는것으로 하여 혁명적 조직관이 혁명관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자주적인 주체를 이룰수 있지만 인민대중을 떠난 당은 있을수 없다. 당은 인민대중밖에 선 조직인것이 아니라 인민대중과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대중의 한 부분이다.

혁명의 주체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집단에 결합된 인민대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 혁명적 군중관을 떠난 혁명관은 있을수 없다.

수령, 당, 대중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에 기초한 혁명적 도덕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에 결합된다. 혁명의 주체는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인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혁명적 도덕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 도덕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 혁명의 주체에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 도덕관은 주체의 혁명관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포함되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독자적 의의를 가지면서도 서로 련관되여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결합되여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것처럼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서로 뗄수없이 련관되여 하나의 전일적인 혁명관을 이루게 된다.

문헌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관이 결국 혁명의 주체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며 그것이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이 밝혀진것은 혁명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해명으로 된다.

력사적 문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혁명관에 대한 전면적으로 심화된 리해를 준 기초우에서 혁명관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 요구들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문헌에 밝혀진바와 같이 주체의 혁명관을 신념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생관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이며 혁명운동은 이 집단의 생명활동이다. 따라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집단의 생명과 개인의 생명, 집단의 생명활동과 개인의 생명활동의 호상관계에 대한 관점, 립장과 밀접히 련관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적 인생관과 통일된다.

인생관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운명의 공동체에 결합되여 집단을 위해 헌신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의 혁명관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된다.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 다름아닌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으며 인생이 개인의 생명으로 끝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생명관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며 인생이 개인의 생명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는것으로 된다.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로 간직할 때 그리고 수령, 당, 대중에게 충실하는 여기에 참다운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 때 사람들은 혁명관을 인생관으로 체득하게 된다.

혁명관이 인생관화되면 신념화된것으

로 된다. 인생관화된 혁명관이 바로 신념화된 혁명관이다. 혁명관을 인생관으로 체득하는 여기에 신념화된 혁명관을 가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신념화된 혁명관을 가지려면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문헌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상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인것만큼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하여야 공고한것으로 된다. 혁명적 실천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깊이 자각하고 의지를 단련할수 있으며 혁명관을 신념으로 체득할수 있다.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생활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사람들은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지로 체득할수 있으며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내놓으시여 주체의 혁명관을 새롭게 심오히 전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간해방위업에 이바지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문헌에는 주체의 혁명관에 대한 새로운 고전적 정식화가 주어져있으며 그것이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들로 이루어졌다는 주체의 혁명관의 구성이 새롭게 밝혀지고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다. 그리하여 주체의 혁명관이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되고 완성되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이바지한 위대한 사상리론적 업적으로 된다.

문헌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간개조사업은 다른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 진행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문헌은 주체의 혁명관을 전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혁명적 품성의 전모, 혁명가들이 가져야 할 생활규범, 행동준칙을 포괄적으로 밝혀주며 혁명가의 고유한 품성을 키우기 위한 근본방도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체득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혁명적 교양의 위력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문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는 난관과 시련도 있을수 있다. 문헌은 사람들을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 혁명적 의지를 가진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전진도상에서 나서게 되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진로를 열어놓았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문헌에서 밝혀진 위대한 사상과 리론,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것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

리 주 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긍지높은것은 위대한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주는 고귀한 사상적 량식이다.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이 위대한 혁명전통을 어떻게 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여온데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주체의 혈통을 굳굳이 이어가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 *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것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 위업이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게 된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적 재부이며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이다. 혁명전통에는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 발전의 전행정에서 영원히 지침으로 삼아야 할 지도사상과 투쟁방도가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또한 혁명위업이 완성될 때까지 혁명의 모든 세대들이 따라배우고 구현하여야 할 혁명정신과 고귀한 업적, 풍부한 투쟁경험이 담겨져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만일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전통을 고수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

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해나가는것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 여기에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전통을 마련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함으로써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혁명적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의 길을 걸게 된다. 이 과정은 수령이 혁명전통을 창시하고 그것을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 과정과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수령은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면서 올바른 지도사상으로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간다. 이 행정에서 수령은 빛나는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쌓는다.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초행길을 헤치며 혁명승리의 길을 열어가던 시기에 수령이 이룩한 사상과 리론, 방법 그리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그 이후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끝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재부로 된다. 혁명전통은 이렇게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수령은 혁명전통을 창시할뿐아니라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계승하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굽임없이 전진시켜나간다.

이것은 결국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되는 과정이 곧 수령에 의하여 혁명전통이 창시되며 그것이 순결하게 계승되고 발전풍부화되는 과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혁명전통을 마련하고 그것을 계승하여 굽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 혁명의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문제로 나서게 된다.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함이 없이는 혁명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없고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력사적 뿌리인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새로운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는 행정에서 빛나는 업적과 투쟁경험을 이룩하고계신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는 과정에서 개척되고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 발전풍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대를 이어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해나가는것이다.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것은 곧 혁명전통을 마련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함으로써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바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 여기에는 또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혁명적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의 활동에 의하여 전진한다.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형성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순결하게 이어나감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져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여나갈수 있다. 만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이 약화되여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위업은 중도에서 멈추어지게 된다.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혁명의 주체의 형성과 강화발전이 바로 혁명전통과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혁명의 주체는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혁명의 주체는 자기의 력사적 뿌리를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이 혁명조직을 뭇고 혁명대오를 결속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형성되게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강화발전되게 된다. 이 행정에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로 되는 혁명사상과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업적과 경험 등 고귀한 혁명적 재부가 마련되게 된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혁명적 재부이다.

따라서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의 형성과 그 강화발전의 력사적 원천으로 된다.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야만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혁명의 주체인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바로 이러한 진리성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주체의 혁명전통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남달리 깊이 체득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혁명전통이 참으로 위대하고 생활력

있는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어디까지나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혁명위업을 전진시키고 완성할수 있는 그러한 혁명적 재부이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전통이라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오늘과 미래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민들이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 주체의 혁명전통은 바로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의 개척과 함께 이룩되였으며 그 내용 전반이 인민대중의 자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전통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통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 재부인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때문에 이 혁명전통을 틀어쥐고나가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 과업, 당과 정권 건설, 경제문화건설과 무력건설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특히 주체의 혁명전통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비상히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으며 백전백승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깊이 새득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언제나 혁명전통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 방도를 찾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확신은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밑에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면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전통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는 위대한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전통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한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 때만이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것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움직일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장엄한 력사적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혁명의 세대도 바뀌였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 립장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고있는데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서 핵을 이룬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을 우리 민족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으며 우리 혁명대오안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다.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살수도 혁명할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해나가려는 신념이 확고하기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이 내놓은 사상리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려오는 과정에 그것을 구현하여 제시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어느 하나도 놓친적이 없으며 순탄한 시기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특히 우리 당과 인민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를 견결히 반대하고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주체사상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그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고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에게는 제 정신을 잃고 남만 쳐다보거나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도, 썩어빠진 자본주의적 문화와 생활양식도 절대로 달라붙을수 없게 되였다.

언제나 당적, 혁명적 원칙에서 모든것을 분석판단하며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자그마한 사상요소에 대해서도 추호도 허용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립장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 이러한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있기때문에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영원히 담보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5～16페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단결의 빛나는 전통이다.

지난날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령도자를 받드는 립장과 자세가 투철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날아오는 적탄도 가슴으로 서슴없이 막아나섰다. 특히 그들은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모르는 그 암담한 시기에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갔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전통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부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은 주체사상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높이의 통일단결이다.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단결의 중심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신념은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긍지이다.

혁명전통이 순결하게 계승되여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을 이룩한 본때의 혁명대오가 있기에 단결의 힘으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 있다.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또한 항일유격대식으로 살며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전통에 담겨진 혁명사상과 혁명정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작풍을 깊이 체득시켜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만드는데 있을뿐아니라 그 사상과 정신, 업적과 경험, 사업 방법과 작풍을 오늘과 래일의 생활과 투쟁에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 잘, 더 빨리 전진시키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전통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 및 국가활동으로부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이 혁명적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여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방법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늘 아래에,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성신히 수행하고있다. 대중

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수행해나가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사업기풍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높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만년대계의 건설물들을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훌륭히 창조해나가고있다.

온 나라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을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던 그런 혁명적 학습기풍이 확립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생활상 제일차적 요구로 내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배워 자신들을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갖춘 참된 혁명가로 준비하고있다.

참으로 오늘과 같이 항일의 그날에 이룩된 혁명전통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여 활짝 꽃펴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해온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을 멈출줄 모르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항일유격대오에 차넘친 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사업기풍, 생활기풍을 이어받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영웅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인민은 영웅적 인민으로, 우리 나라는 영웅을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으로 된것은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해온데 있다.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영원불변하며 그것은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거대한 추동력이 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의 그날을 앞당겨나갈것이다.

* *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에도, 래일에도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진의 무기, 승리의 무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참다운 길이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 주체의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이다.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전통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자랑찬 오늘의 시대가 펼쳐진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전통을 빛내이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사회주의사회발전과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

김 병 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불멸의 총서이며 반제자주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필승불패의 전투적 기치이다.

문헌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는데 맞게 당의 령도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원칙적 문제이다. 특히 사회주의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해답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여 이 원칙적 문제에 새로운 리론실천적 해답을 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22페지)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쌓아지고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 능력이 높아지며 사회관계가 공고발전되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고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고 문화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인테리대렬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사회주의가 발전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접근할수록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가 줄어들고 온 사회가 인테리화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변화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사회이며 사회주의사회의 변화발전과정은 계급적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는 과정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발전과정이란 로동계급이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드는 과정이며 사람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로동계급을 다른 계급과 계층속에 용해시키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로

동계급의 령도적 역할과 혁명적 작용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사상정신적 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업이라는데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 로동계급적인 인테리로 만드는 사업인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그자체의 이러한 계급적 성격으로부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게 되며 그 성과에 토대해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로동계급화된 인테리,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접근할수록,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갈수록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은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강화된다.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강화되는것이 합법칙적이라고 하여 그 과정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강화하자면 로동계급의 리익의 가장 철저한 대변자이며 옹호자인 혁명적 당의 령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은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강한 조직력과 령도력을 가진 혁명의 참모부,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강화될수 있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는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투쟁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또한 온갖 비로동계급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가기 위한 사업도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당의 정치적 령도에 의해서만 고수되고 강화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인것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사회주의는 이 사회의 기본계급이며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이다.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는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집단주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로동계급은 유기적으로 련결된 생산공정들의 전일적 체계를 가진 현대적 공장들에서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일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느 계급보다도 집단의 리익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가장 집단주의적인 계급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이다.

해당 사회의 본질은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도덕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작용하는 제현상을 통하여 표현되지만 구경은 사회관계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데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관계의 기본은 집단

주의와 동지적 협조, 단결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우월성과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 관계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속 발전하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접근할수록 사회의 조직화수준과 집단주의적 성격은 더욱 강화된다.

집단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고 로동계급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되고있는것만큼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사회로 된다.

사회주의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혁명의 향도자인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할수 없고 사회주의의 고유한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 집단주의적 우월성의 발양, 공산주의에로의 끊임없는 전진,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가 철저히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발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훌륭히 보장되고 유지되자면 강한 조직력을 가진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적 령도가 있어야 한다.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조직된 부대이며 사회적 집단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핵심력량이다.

강한 조직력을 가진 당은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이끌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집단주의적, 조직적 성격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적 령도는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가 구현된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우월성이 오직 당의 정치적 령도에 의해서만 강화되고 발양될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자면 반드시 당의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원칙에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문헌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당의 령도를 강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수준을 높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만일 당이 발전하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낡은 리론과 방법을 답습할 때에는 교조주의,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되며 반대로 변화된 현실을 구실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에서 리탈할 때에는 여러가지 좌우경적 오유를 범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당은 마땅히 로동계급의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회발전과정은 본질상 그 담당자인 인간의 발전과정이며 사회발전수준은 결국 사람, 인민대중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그 발전의 추동력이며 담당자인 혁명의 주체가 강화되고

공고발전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접근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승패의 근본요인은 객관적 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에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것이 물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이다.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것도 사람인것만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첨예한 대결과 투쟁 속에서 발전하며 승리하게 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야 자본주의를 모든 분야에 걸쳐 압도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도 막아낼수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은 혁명의 주체의 령도적 력량이며 핵심력량이다.

당이 혁명의 주체의 령도적 력량으로 되는것은 당이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합시켜나갈수 있는 능력의 가장 높은 체현자이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근로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은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다. 당은 그 구성의 면에서 볼 때 수령이 제시한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자각적인 혁명가들로 이루어진 선진적 부대이며 조직적 면에서 볼 때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조직적 부대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되여야 영생하는 생명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될수 있다. 이로부터 당은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 되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령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당이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 령도적 력량인것만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자면 당부터 강화하여야 한다.

당이 사상적으로 건전해야 대중이 사상적으로 건전할수 있고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되여야 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일심단결될수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려면 또한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고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사람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할수 있으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다.

혁명의 주체의 주동적 작용과 능동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통일적 령도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헌신성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은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 실천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당을 건설하고 당활동을 벌려나가는 중요한 목적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려는데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여야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 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을 그 령도적 지위에 맞게 건설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에 맞게 당활동과 당사업을 벌려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적 성격이 강화되여나가는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이 새로운 해명은 로동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고수하면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접근해나가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며 그에 상응하게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을 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였다는데 바로 문헌에서 천명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그 의의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을 물리치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그 실현에서 나서는 전략전술적 문제들과 방법론적 원칙들을 옳게 밝혀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 원칙들과 근본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온갖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고유한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제시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

김 하 광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은 경제관리 전반을 규제하는 합법칙성을 반영하며 경제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경제관리방향, 거기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들을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모든 고리들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준칙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옳게 규정하고 철저히 지켜야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경제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옳바로 지도관리할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는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입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1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에는 당의 정치적 지도밑에 국가경제기관들의 경제기술적 지도를 실현하며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매개 단위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며 민주주의를 보장하면서 지휘를 유일적으로 하며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원칙적 요구가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의 하나는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실현하며 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고 관철하는것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반드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는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최고정치조직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당적 령도, 정치적 지도를 실현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이며 옹호자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국가경제기관들은 당의 정치적 지도밑에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정확한 경제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맞게 당의 정치적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기술적 지도를 보장하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시고 당의 정치적 지도와 국가의 경제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할데 대한 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심으로써 당의 정치적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경제기관들의 경제기술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여 경제발전 방향과 목표를 바로세우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생산과 경영활동 전반에서 과학성과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다음으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손에 틀어쥠으로써 사회의 주인, 생산과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경제를 지도관리하자면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당의 경제정책과 그것을 구현한 국가의 결정, 지시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 지도밑에 전반적 경제부문들과 지방들, 모든 단위들이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매개 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는것은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의 실정이 서로 다르고 특성이 있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 단위들이 밀접히 련관된 생산유기체로 결합되여있지만 그 매개 부문, 단위들은 생산의 규모와 구성, 기술장비와 관리운영수준, 원료와 자재 보장, 수송 등 생산조건이 서로 다르며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매개 부문, 단위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매개 단위들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생산의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이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와 매개 단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유일

적 지휘를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를 옳게 결합한다는것은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적극 발양시키며 대중의 의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도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들의 요구와 집체적 의사가 구현되도록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정된 규정과 규범, 직능대로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유일적 지휘를 실현하여야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없애고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으며 경제관리에서 무질서와 무규률성을 극복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능률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해서는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사람은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정치도덕적 요구와 물질적 요구를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두가지 요구를 가질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자체가 또한 두가지 성격, 공산주의성격과 과도적 성격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이 두가지 요구와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에 맞게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두 성격가운데서 공산주의적 성격이 기본을 이루며 그것이 강화되여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여가는것이 합법칙적 과정으로 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는 정치도덕적 자극을 기본으로,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더 중시하고 앞세우면서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 여기에 대중동원의 중요한 비결,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 동원의 중요한 방도가 있으며 집단주의우월성을 발휘시키고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가는 곧바른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실현된다.

원래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사람중심의 경제관리, 주체의 경제관리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 요구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합법칙성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경제법칙들을 반영하여 경제지도관리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을 관철할 때 원만히 실현된다.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강화하며 군중로선을 구현하자면 경제지도관리의 원칙들이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그래야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과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합법칙성,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서로 견제하고 보충하면서 경제관리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복무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의 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들은 다같이 경제관리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사상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관리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문제해결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탁월한 사상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은 무엇보다먼저 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 무기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올바로 풀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는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공동의 리익, 전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당의 령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은 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며 혁명적 원칙을 옹호고수하는것과 관련된 근본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에는 경제관리에서 당적 령도와 국가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이 일관되여있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옹호고수할데 대한 근본요구가 관통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에는 당이 책임지고 경제건설을 지도하며 국가경제기관들은 당의 지도밑에 경제기술적 지도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이 밝혀져있으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매개 단위의 책임성,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지휘를 유일적으로 실현하며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옳바로 결합할데 대한 원칙이 밝혀져있다. 이리하여 당의 정치적 지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경제관리 형태와 내용이 정확히 해명되고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바로세우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게 되였다. 이렇듯

경제지도관리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과학적 해명을 주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이 가지는 중요한 리론실천적 의의가 있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은 또한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인민대중을 힘있게 동원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에는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할데 대한 사상이 일관하게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며 경제건설은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된다.

사회주의경제제도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를 높여 인민대중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공정한 분배, 사회주의적 분배를 실시할것을 중요하게 요구한다. 이 요구는 인민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면서 생산자집단, 개별적 생산자들의 요구와 리익도 다같이 보장하며 당의 정치적 지도밑에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요구와 집체적 의사를 구현하도록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키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우선 일군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는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당의 정치적 지도밑에 발현되는 민주주의, 경제관리과정에 그것이 매개 단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

바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에는 일군들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할데 대한 요구가 정확히 구현되여있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성과 의식성을 높이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각성, 의식성은 그들을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속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에는 정치적 지도를 앞세우고 정치적 방법으로 경제를 지도할데 대한 요구,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할데 대한 요구가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은 이처럼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대중동원문제에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 경제지도관리원칙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그 본성에 맞게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지도관리하여야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과학성과 효과성을 높일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성격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성격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관리문제들과 함께 과도적 성격과 관련한 경제관리문제들을 어떤 립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일면만을 강조하면서 가치법칙의 리용, 물질적 자극과 같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과 관련한 경제관리문제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루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없게 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일면만을 보고 경제단위의 창발성, 가치법칙의 리용, 물질적 자극을 절대화하거나 지나치게 내세우는 경우에도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편향을 범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관리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그것을 더 잘 실현하게 하는데 복무하게 하는 원칙에서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명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옳바로 관리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법칙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법칙들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인민대중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며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또한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고도로 현대화된 경제인것만큼 경제관리에서 생산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경제법칙들과 생산의 과학기술적 요구들은 단순히 경제기술적 지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정치적, 경제기술적, 조직적 보장의 측면들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측면들이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정확히 해결되여야 경제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한데 대한 원칙들은 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과 경제기술사업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를 옳게 결합할데 대한 기본원칙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들을 정확히 구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옳바로 풀어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관철되여 당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커다란 성과들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을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것은 새로운 200일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그것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과업

윤 기 정

우리 당은 최근 나라의 투자를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데 집중할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투자를 확대재생산에 집중적으로 돌리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경제법칙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국민소득을 축적과 소비에로 계획적으로 분배한다. 여기에서 축적은 인민경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제도에서 축적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그것은 바로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공장을 더 짓고 기계도 더 장만하고 문화후생시설들도 더 건설하고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들을 앞으로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78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축적은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거나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문화시설들을 마련하는데 돌려짐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적 축적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생산확대를 위한 생산적 축적이다.

생산적 축적이란 생산의 물질적 요인을 마련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 쓰이는 국민소득부분을 말한다. 생산적 축적이 늘어나야 생산적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이 증대되여 경제의 끊임없는 장성을 이룩할수 있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회는 생산과 소비를 잠시도 멈출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생산과정은 그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든지 모든 경우에 련속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끊임없이 갱신되고 반복되는 사회적 생산은 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의 두가지 형태를 취한다. 확대재생산에서는 국민소득의 일부가 축적되여 생산의 확대에 돌려지게 된다. 축적하지 못하면 단순재생산만이 이루어진다. 축적은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확대재생산은 기계와 현대적 기술이 널리 도입되여 사회적 로동생산능률이 빨리 높아가던 시기,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비로소 특징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확대재생산의 성격과 내용은 사회제도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확대재생산은 과잉생산공황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중단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다.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관광업이 돈벌이가 잘되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자본투자를 집중하고있다. 그 결과 관광업은 끊임없이 늘어나지만 생산은 파동성을 띠고 절름발이걸음을 하고있으며 경제위기까지 겪는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확대재생산이 인민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면서 계획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추진되는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려면 그에 맞게 국가가 축적, 특히는 생산적 축적을 늘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적가운데서도 생산적 축적을 빨리 늘여야 그

사명에 맞게 확대재생산의 성과적 진행을 보장할수 있다. 생산적 축적을 늘일데 대한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에 지장이 생기고 나아가서 인민들의 앞으로의 행복한 생활도 잘 보장할수 없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적 축적을 늘여 확대재생산을 다그칠데 대한 요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훌륭히 실현되여 왔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 가능성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정당한 로선이다.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축적을 하지 않고 번것을 다 때려먹으려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우경투항주의적 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적 축적을 생산수단을 위한 생산수단생산부문과 소비재를 위한 생산수단생산부문을 다같이 발전시키는데 돌릴수 있었으며 그와 함께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생산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도 리용할수 있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여기에 생산적 축적을 정확히 리용하여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것은 제3차 7개년계획시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려면 새 전망계획 기간에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0%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여 1.9배로 늘어나야 하며 농업생산은 1.4배로 증대되여야 한다.

제3차 7개년계획의 목표들은 생산능력을 훨씬 늘여야 실현할수 있는 높은 목표들이며 방대한 기본건설을 전제로 하는 경제과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전망계획에서는 생산의 확대와 문화건설, 대자연개조사업을 위하여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1.6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국가기본건설투자를 실시할것이 예견되고있다. 그리고 새 전망계획 기간에 국가기본건설투자의 80% 이상이 기간공업을 비롯한 공업부문 건설과 농업부문 건설, 운수부문 건설 등 생산적 건설에 돌려지게 된다.

이것은 새 전망계획 기간에 생산적 축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면 축적의 형성, 리용과 관련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원칙적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축적을 리용하는데 있어서 생산적 축적에 선차성을 부여할데 대한 원칙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국민소득을 축적과 소비에로 배분하고 리용하는데 있어서 축적의 우위성을 보장하는것은 원칙적 문제이다. 축적과 소비는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들의 사명과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축적은 소비를 늘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소비는 축적의 결과에만 장성할수 있다.

축적의 우위성을 보장하려면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데 일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축적은 생산적 축적과 비생산적 축적으로 나누어진다. 생산적 축적과 비생산적 축적의 호상관계는 고정되여있지 않으며 당의 정책적 요구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나 전망적으로 보면 이 호상관계에서 기본은 생산적 축적이 비생산적 축적보다 빨리 늘어나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여야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정상적 진행을 정확히 보

장할수 있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는 국민소득, 특히 사회순소득의 장성정도에 상응하게 생산적 축적을 늘여나가는것이다.

축적과 소비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며 축적의 구체적인 원천은 사회순소득이다. 사회순소득이 늘어나야 생산적 축적을 증대시킬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마련될수 있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것이 국민소득의 형성, 리용 분야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라고 하여 무턱대고 그것을 증대시킬수는 없는것이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려면 국민소득, 특히는 사회순소득을 장성시키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야 한다. 만일 사회순소득이 증대되지 않았는데 생산적 축적을 일방적으로 늘이려고 하면 소비몫을 침범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축적과 소비의 옳바른 균형관계를 파괴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생산적 축적이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그 합리적 리용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존생산능력의 효과적 리용과 관련된 투자와 새로운 능력조성을 위한 투자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이다. 이 호상관계는 당이 제시한 정치경제적 과업과 나라의 경제형편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으로 하여 수시로 변동될수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적 축적의 많은 몫이 현존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돌리져야 한다.

우리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마련해놓은 나라의 경제토대는 매우 위력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도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생산장성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려면 이미 있는 생산기술공정들을 개조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주기 위한 보충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

현존능력의 효과적 리용과 관련된 투자는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익할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 축적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선차적으로 돌려지는것이 원칙적이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의 효과적 리용은 생산장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지만 그것은 기술경제적으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현존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수 없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한 방대한 계획이다.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을 비롯하여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한 목표들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생산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데 대한 과업은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생산적 축적의 일정한 부분을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데 돌릴것을 요구한다.

결국 생산적 축적을 현존생산능력의 효과적인 리용과 관련한 투자와 새로운 능력조성을 위한 투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것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경제문제이다.

전당, 전국, 전민이 력사적인 200일전투에서 발휘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오늘 이 기세찬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려면 생산적 축적을 끊임없이 늘여 확대재생산을 더 잘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모

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인민에게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는 축적을 많이 해야 하며 또한 축적을 하여 경제건설을 잘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인민생활이 높아진다는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법칙이며 이 법칙을 전체 인민,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당원자신들이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110페지)

생산적 축적은 저절로 늘어나는것이 아니다. 오직 일군들과 생산자들자신이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적극 투쟁하여야만 생산적 축적이 늘어날수 있다.

생산적 축적을 실지로 높이려면 사회순소득의 규모를 증대시켜야 하는 동시에 국가수중에 장악된 순소득을 생산적 축적을 위하여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순소득의 규모를 끊임없이 늘이는 문제나 순소득을 생산적 축적에 옳게 리용하는 문제들은 다같이 경제지도일군들과 생산자들의 관점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축적을 많이 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다는 자각을 확고히 가질 때 그들은 사회주의적 축적, 특히는 생산적 축적을 높이기 위하여 높은 열의를 발휘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축적, 생산적 축적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지 않을뿐아니라 조성된 축적을 옳게 실현할수도 없다.

만일 일군들이 축적의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에는 확대재생산의 정상적 진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번것을 다 때려먹는것과 같은 우경적 편향을 범할수 있으며 반대로 축적일면에만 치우칠 때에는 인민생활향상에 지장을 주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축적문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다같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심중한 문제이다.

경제지도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축적, 특히 생산적 축적을 높이는것이 경제법칙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축적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들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 정책에는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과 축적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경제일군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생산적 축적을 높이는데서 그 어떤 편향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축적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생산적 축적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기업활동의 질적 지표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생산적 축적을 높이려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순소득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기업소들이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저하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생산적 축적을 높일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될수 있다.

순소득은 생산물생산이 진행되는 기업소들에서 조성된다. 순소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이 바로 로동생산능률, 원가, 수익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이다.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 늘어날수 있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문제는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 당은 새 전망계획 기간에

로동생산능률을 공업부문에서는 1.6배, 기본건설부문에서는 1.5배로 높이며 공업총생산액 증가의 80%이상을 로동생산능률장성에 의하여 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생산량의 증대뿐아니라 원가저하의 기본요인으로도 된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모든 국가경제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리용을 개선하고 원자재와 로력을 절약적으로 리용하며 비생산적 지출을 극력 줄임으로써 원가를 공업부문에서 해마다 평균 3.4%, 기본건설부문에서는 해마다 평균 4.6% 낮출것이 계획화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순소득을 빨리 늘이려면 사회총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로력과 생산수단의 지출을 극력 절약하여 원가를 낮추도록 하는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인민경제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는 오늘 제품의 원가저하를 통하여 순소득을 늘이는 방법은 사회순소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고리로 된다.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모든 경영단위들에서는 원가계획, 특히는 원가저하과제를 의무적인 계획지표로 삼고 그 수행에 대하여 국가앞에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 시달되는 계획과제들은 그 모든것이 철저히 지령적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나 원가계획은 인민경제계획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특성으로 하여 도의적 성격의것으로 간주되기 쉬운 계획지표라고 말할수 있다. 원가계획은 생산계획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원가의 크기는 생산계획수행정도에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해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일군들속에서는 원가계획은 생산계획을 달성하면 자동적으로 수행될수 있는것처럼 보려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의 생산원가저하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원가계획을 생산계획과 같은 위치에 놓고 취급하는 원칙적 립장을 가져야 하며 그 수행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질데 대한 당과 국가의 요구를 어김없이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가계획작성에서 그 과학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원가저하과제의 계획화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며 원가계획수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원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계획원가를 늘이거나 원가저하과제를 미달하는 기업소들, 생산계획은 수행하면서도 원가저하과제를 미달하는 기업소들에 대하여 강한 자극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것을 옳게 실현하는것은 축적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생산적 축적을 옳게 실현하는것은 그것을 높이는것과 꼭같은 의의를 가진다. 아무리 사회순소득을 많이 마련하여 생산적 축적을 늘여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면 확대재생산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진행을 보장할수 없다.

생산적 축적을 옳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생산적 기본건설이 크게 늘어날것이 예견되고있는 조건에서 기본건설투자를 바로하는 문제의 의의가 더욱더 부각되게 된다.

생산적 건설에 대한 기본투자를 계획에 예견된대로 정확히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 기본투자는 인민경제발전계획에서 규정된 목적과 항목, 규모에 엄격히 의거하여 실시되여야 한다. 기본투자를 계획에 예견된대로 하지 않으면 생산적 축적의 내부균형이 파괴될뿐아니라 인민경제전반의 균형관계에 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적 건설에 대한 기본투자를 바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경제적 효과성

을 높여야 한다.

건설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는것은 기본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당의 건설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기본건설대상의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중요대상들의 건설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씩하나씩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껴나가야 한다.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건설의 공업화수준을 제고하고 새로운 건설자재들과 앞선 건설공법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건설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건설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며 부재생산능력을 높이고 부재를 대형화, 경량화하며 산업건설에서 완성부재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적 축적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국민소득생산의 기본단위는 기업소이다. 기업소경영활동을 개선하여야 국가수중에 집중되는 순소득부분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을뿐아니라 국가가 공급하는 기본투자의 경제적 효과성도 높일수 있다.

기업소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한다는것은 기업소들에서 계획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로력과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고 모든 비생산적 지출을 줄이며 생산내부예비를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기업소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관리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경영활동을 자체가 책임지고 창발적으로 하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국가계획을 질량적으로 넘쳐 수행하며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얼마나 패기있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직접 조직지휘하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중요하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혁명적 립장에서 표현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지니고 대오의 앞장에 서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힘있는 정치사업과 능숙한 조직적 수완으로 생산자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특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새로운 200일전투의 앙양된 기세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나라의 재부와 생산의 축적을 끊임없이 늘이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

김 웅 호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강령적 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200일전투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운동은 더욱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인민생활을 높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이다. 제3차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중요제품생산에서 거대한 량적 장성이 이루어지게 될뿐아니라 인민생활을 높이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서 새로운 질적 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나라가 세계 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들어서려면 먼저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합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14페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일정한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리용하여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자연을 개조변혁해나가는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질기술적 수단들의 발전정도, 사회적 로동의 효과성은 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수준과 관련되여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여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할수 있으며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힘을 넣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연료, 동력, 원료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연료, 동력과 원료는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생산요소이다. 사회적 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있는 오늘 연료, 동력과 원료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중요제품생산에서 이룩해야 할 거대한 량적 장성은 그에 상응한 방대한 량의 연료와 동력, 원료를 요구하고있다. 날로 늘어나는 연료, 동력, 원료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이처럼 중요한 연료, 동력, 원료 문제를 풀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면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의 자원을 모조리 찾아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세울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연료, 동력, 원료 자원을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으로 대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연료, 동력, 원료에 대한 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더 잘 충족시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요인의 하나는 기계설비들의 기술장비수준이다. 발전된 기계설비일수록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발전된 기계기술수단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없애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실현할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지금 있는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로 보충완비하면 생산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을뿐아니라 기본건설에 드는 투자를 절약하여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진행할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도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달려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의 성과에 의거해야만 건설작업을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하여 긴장한 로력과 기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새 건설대상을 현대적 생산공정으로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은 또한 생산방법과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생산방법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의 필수적 요구이다.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고 자립적인 경제체계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수 있으며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 튼튼한 자립적인 경제체계가 마련되여있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갖추어져있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생산방법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워 생산을 더욱 과학적으로 짜고드는데 있다.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복잡한 기업관리와 경

제계산에 요구되는 전자계산기와 같은 경영수단들을 생산공급하고 그 리용수준을 높이며 보다 새로운 경영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일수 있는 조건들을 해결하는 모든 문제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만 원만히 풀수 있다.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때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도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사회적 로동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로, 현시기 빨리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은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최근시기 또다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만 하여도 대규모집적회로와 극소형전자계산기의 연구개발, 카리장석과 회망초의 종합적인 가공기술의 연구, 고온초전도체의 연구를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많은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건설에 튼튼히 앞서나가고있으며 새 전망계획 수행의 밝은 앞길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와 우리 나라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을 빨리 세계 선진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한다.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원칙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이다. 특히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생산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고 농업과 수산업을 현대생물학의 성과에 토대하여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의 연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열동력문제를 원만히 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닦는것이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새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대하고 어떻게 집행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고 새 전망목표를 점령할수 없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현상과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과 태도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그에 상응한 튼튼한 토대를 꾸려야만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만 생각하면서 과학기술에 힘을 넣지 않는 현상을 없애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올려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 실험실과 중간공장을 잘 꾸려주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본위주의를 없애고 과학연구기관과 생산기업소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의 협동작전, 과학연구성과의 도입과 기술개건에서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사이의 창조적 협조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발전된 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이 사회화되여있고 학문이 고도로 세분화되여있는 오늘 과학연구기관들사이, 과학연구기관과 생산기업소들사이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과학기술적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서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결국 최단기간안에 과학연구성과를 넓히기 위한 담보로 된다.

과학연구기관들과 인민경제부문의 지도일군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밑에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 기업소들에 있는 기술력량의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연구과제를 정확히 분공하고 창조적 협조를 잘 조직하며 그 결과를 정상적으로 장악, 총화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리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은 그 연구 분야와 대상이 매우 넓으며 하나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자금과 자재, 오랜 기일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다 자체로 짧은 기간에 해결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경제적 효과성도 높지 못하다. 나라들 사이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는 서로 발전된 기술을 주고받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하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보다 빨리 끌어올리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일 대상과 선후차를 잘 정하고 이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현대적인 표준공장을 들여오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류사업과 정보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세계 선진수준으로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책임지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 담당자들이다. 오늘 우리 당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창조적 열의를 적극 발양하게 하는것과 함께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과학기술일군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며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과학기술연구의 훌륭한 성과로 보답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과학지도일군들,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며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올려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발동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

리 현 호

군중정치사업은 군중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다.

생산과 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이며 따라서 당조직들은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대중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생산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생산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생산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모든것은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반영이다. 사람들에게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이 없이는 창조적 지혜가 나올수 없다. 대중이 오직 사상적으로 발동될 때라야만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게 되며 따라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나가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200일전투를 작전하시고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면서 200일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군중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지난 200일전투기간 당의 의도대로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킴으로써 200일전투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이 기간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정광생산은 120%, 박토처리는 125%로 각각 장성시켜 나라의 철강재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할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200일전투기간에도 군중정치사업에 힘을 넣어 사람들의 사상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창조적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정광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가 200일전투기간에 군중정치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창조적 지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개별교양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는것이다.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집체교양과 함께 개별교양을 잘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수준과 준비정도가 각이하다. 그들가운데는 선진분자가 있는 반면에 뒤떨어진 사람도 있을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매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개별교양을 짜고들어야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옳게 이끌어줄수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체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매개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개별교양을 짜고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기업소의 실정으로부터 개별교양을 짜고드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우리 기업소에서 핵심적 역할을 놀아야 할 일부 청년들이 생활에 안착되지 못하고 일에서 열성을 내지 못하고있었기 때문이다.

개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여 옳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기업소안의 일부 청년들이 생활에 들떠있는데는 그들이 낯설고 물설은 고장으로 달려와 인차 정을 붙이지 못한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고있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가야 할 청년으로서 나라의 보배산인 철산봉을 지켜선 주인이라는 높은 긍지를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었다.

우리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광산을 여러차례 찾아주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광산에서 정광을 많이 생산해야 금속공장들에서 강철생산을 부쩍 늘일수 있고 나아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신데 대하여 그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에게 도안의 금속공장들을 견학도 시키고 전문일군들을 데려다가 해설강의도 조직하여 우리 광산이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생명선이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켰다. 그리고 출판보도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리 광산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였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광산에서 일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데서 적지 않은 효과를 나타냈다.

개별교양을 잘 짜고들기 위해서는 분공조직을 면밀히 하고 그 수행과정을 옳게 장악지도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기업소 당 및 행정 책임일군들에게 개별교양분공을 정확히 주고 분공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지난 시기 개별교양분공을 받은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일이 바쁘다는 구실밑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두번의 담화나 하는것으로 개별교양을 대치하는 현상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분공받은 모든 일군들이 굴진막장과 기대와 초소, 합숙을 비롯하여 로동청년들이 생활하는곳에서 함께 일도 하고 잠도 같이 자며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분공수행정형을 매주 당위원회에서 총화하고 교양대책을 다시 작전하면서 개별교양사업을 심화시켰다.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개별교양을 짜고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매개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재능을 옳게 살려나가도록 이끌어주는것이다. 우리는 생활에 안착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게 노래경연, 체육대회, 시랑송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조직하여 그들이 일하는 일터마다에 언제나 청춘의 열정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였다. 특히 기업소안의 종업원들의 노래경연을 조직하고 생활에 안착되지 못한 청년들가운데서 우수한 동무들로 청년기동예술선동대를 무어 경제선동을 벌리게 한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게 하였다.

우리가 생활에 안착되지 못한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그들이 당의 신임과 배려를 진심으로 느끼게 한것이다.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

어서 더없이 귀중한것은 당의 믿음이다. 당에서 믿어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당의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우리는 생활에 안착되지 못한 청년들에게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의 능력에 따라 초소장의 직무와 광산의 귀중한 설비까지 대담하게 맡기는 등 당적 신임을 표시하여주었다. 한편 우리는 일군들이 혁명적 동지애와 친혈육의 정으로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극진히 돌봐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이렇게 진지하고 인내성있게 개별교양을 짜고든 결과 그들이 진정으로 당의 신임에 보답하려는 충성심을 가다듬게 되였으며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 200일전투기간에 그들은 맡겨진 전투과제를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다.

경험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바로세워가지고 개별교양을 짜고들어 근기있게 진행할 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줄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을 움직이고 지혜를 발동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200일전투기간 군중정치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또한 혁명과업수행에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선전일군들은 긍정적모범을 가지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그 모범을 따라 대중이 당경제정책관철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사실을 내세우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 긍정감화교양은 사람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대중교양방법이다.

긍정감화교양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받도록 강한 사상적 충동을 준다. 또한 그것은 긍정으로 부정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긍정감화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동할수 있다.

우리 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200일전투기간에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200일전투과업수행에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도록 이끌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도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하였으며 걸린 고리를 풀고 정광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도 긍정적 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광산에는 4부자운전수를 비롯한 로력영웅들과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수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되였다.

우리는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형식을 총동원하여 긍정적 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우선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모임, 축하방송과 여러가지 직관선전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는 모범적인 사실들과 생산에서의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그리고 많은 종업원들이 통근렬차로 출퇴근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긍정자료선전을 렬차방송을 통하여

활발히 벌리였다. 이것은 확실히 선전적 효과가 컸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거기에서 크게 자극을 받고 고무되여 그날 전투과제를 그날로 어김없이 끝내는것은 물론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케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매일, 매 시각 발현되는 혁신적 성과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는 한편 로력영웅들과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갔다.

로력영웅들과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이다. 우리는 로력영웅들과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광산 전투속보인 《칠산봉》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벌리였다. 신문에 우리는 광산의 로력영웅들과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공적을 매 사람별로 체계적으로 싣게 하였으며 그것을 가지고 실효모임도 조직하고 가두 인민반에 나가 그들의 가족들을 축하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게 하였다. 이것은 200일전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산의 모든 종업원들은 물론 그들의 온 가족이 200일전투과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온 광산, 온 마을이 200일전투로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사람들의 창조적 지혜가 높이 발양되여 날에 날마다 영웅적 위훈과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되였다.

우리는 실지 사업을 통하여 긍정감화교양은 군중정치사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것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갈 때 군중을 옳게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비상히 높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가 200일전투기간에 군중정치사업에서 얻은 경험의 하나는 또한 군중을 옳게 교양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자면 핵심당원, 군중핵심들을 군중정치사업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여 움직이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군중교양방법이다.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사업은 결코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다. 웃간부들은 아래일군들을 교양하고 아래일군들은 당원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은 군중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군중교양을 심화시켜나가야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군중교양에서 핵심당원, 군중핵심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늘 군중속에서 사업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군중의 사상상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핵심당원, 군중핵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조직들이 군중교양에서 언제나 힘을 넣으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지금까지 당조직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근로단체조직들을 옳게 지도하여 핵심당원들과 군중핵심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이였으며 200일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그들의 역할을 높여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우리는 핵심당원들과 군중핵심들을 정상적으로 만나 교양하면서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놀며 학습과 조직생활, 일상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렇게 한 결과 그들은 어렵고 힘든 과업이나 긴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하여 언제나 앞장에 나서게 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겨워하는것은 도와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걸린것은 풀어주는 등 동지적 협조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그

들의 이러한 모범적인 행동과 아름다운 소행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였다.

우리는 핵심당원들과 군중핵심들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주면서 군중교양을 한몫 맡아 수행하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우리는 그들에게 군중교양을 위한 과업과 방법론을 정확히 주고 수행정형을 알아본 다음 새로운 과업을 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활발히 움직였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군중속에 당의 숨결이 쉬임없이 미치게 되였으며 이것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였던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개변하는데 크게 작용하게 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핵심당원들과 군중핵심들을 적극 인입하여 군중정치사업을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 결과 200일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뒤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혁신자의 대렬에 당당하게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200일전투기간에 진행한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되였다. 그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옳게 교양하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자면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체험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는 학습회, 강연회, 해설담화 등을 우에서 내려보내는 제강이나 되받아넘기는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것으로 사상사업을 대치해왔다. 그리고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비로동계급적인 그릇된 사업태도와 생활양식이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좀처럼 해결할수 없는 문제로 여기면서 그에 대한 교양대책을 바로세우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200일전투과정의 군중정치사업경험을 통하여 옳바른 방법론을 연구해가지고 군중교양을 실속있게 짜고든다면 누구나 다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혁신자로 키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200일전투의 계주봉을 이어쥐고 2000일전투, 2만일전투의 행군길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200일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다. 우리 련합기업소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이 전투에서 또다시 자랑찬 승리와 위훈을 떨칠 자신만만한 투지와 확고한 결의에 넘쳐 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군중정치사업을 참신하고 활기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적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철정광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겠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로 태 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여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숙천군에서는 해마다 농업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특히 올해에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논벼는 정보당 1.5톤, 강냉이는 2톤을 더 증수하여 군적으로 알곡을 3만 5천톤 더 생산하였다.

농업생산에서의 이와 같은 류례없는 대풍작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은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보람찬 사업이였다.

숙천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군당위원회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열쇠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찾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짜고들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먼저 군중정치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당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의 담보가 있는것입니다. 농업생산에서의 성과도 역시 중요하게는 이 부문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농업부문지도일군들도 무엇보다먼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553페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농촌경리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결국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illegible]적인 강습을 조직하였으며 당일군들과 농촌경리부문 일군들 속에서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주체의 농업지도체계를 절대화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대였다.

군중정치사업에서 군당위원회가 모를 박고 진행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조된 숙천땅에서 살며 투쟁하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더욱 뜨겁게 안겨주고 그들이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한것이였다.

우리 숙천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기본을 이루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시하여 주신 력사적인고장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시된 숙천군은 다른 군들보다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더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신 영광의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농업지도체계가 창시된 숙천땅에서 살며 투쟁하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믿음과 은혜에 보답할 충성의 결의로 불타고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이겨내고 농사에서 대풍작을 이룩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영광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우리 군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우리는 주체의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고 그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도록 적극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강연, 선동제강들을 자체로 만들어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해설침투시켰다.

군당위원회가 진행한 군중정치사업에서 효과적인것은 인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숙천혁명사적지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대풍작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을 가지도록 한 것이였다.

이와 같은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숙천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주체의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으며 공화국창건 40돐이 되는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대중의 앙양된 정치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한해 농사의 첫 출발로 되는 거름생산전투에서부터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였다. 농장원들은 물론이고 군안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옵 가두인민반원들까지 거름생산에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지난해보다 20여만톤의 거름을 더 생산하고 수만톤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거름을 논에는 정보당 평균 26톤, 밭에는 정보당 평균 22톤을 내였다. 이것은 올해 농사에서 대풍을 이룩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오늘의 농사는 기계농사이며 뜨락또르운전수들을 비롯한 농촌기계화초병들은 농촌기계화의 직접적 담당자들이다. 농업생산에서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이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계화초병들과의 정치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협동농장들에서 당 및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이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모내는 기계운전공들을 빠짐없이 담당하고 정상적으로 교양하게 하였으며 작업반들에서는 당세포비서가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책임지고 하게 하였다. 농업생산에서 기계화초병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군적으로 뜨락또르운전수열성자회의와 모내는 기계운전공들의 강습을 조직하였으며 협동농장들에서는 봄갈이출동식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일수록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특히 모내기때에는 군급 책임일군들과 리당비서들,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이 농장별에 직접 나가 써레질을 하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을 비롯한 농촌기계화초병들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든 결과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모내기와 김매기는 훨씬 앞당겨지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려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486페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와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군에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과 농업기술자들이 충분히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전반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이 중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군내 국가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영농공정별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로력, 자재, 설비의 리용대책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잘 지도하게 하는 한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매개 부서의 사업을 담당한 일군들과 함께 협동농장들에 자주 나가 계획작성사업을 직접 료해하고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웃기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협동농장들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영농공정에 따르는 작업별 계획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아래에 내려보내게 하였다. 작성된 계획에 기초하여 협동농장들에서는 영농공정별, 시기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업반들에서는 10일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매 영농시기에 따르는 작업별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것과 함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협동농장기사장들과의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게 하였으며 뒤따라 경영위원회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그 집행을 구체적으로 장악지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함으로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부터 협동농장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계획을 가지고 토지와 물, 농기계, 화학비료를 비롯한 농업의 생산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

었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모든 영농공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기술지도를 심화시킬수 있었다.

올해 우리 군에서 벼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제철에 튼튼히 키워 5월 20일전으로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끝내고 뒤이어 5월말전으로 벼모내기를 와닥닥 해제꼈으며 비료를 적기에 칠수 있은것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농업에서 시기성을 보장하는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농산작업은 적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할수 없으며 한해 농사를 망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농사에서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당면한 영농전투를 옳게 조직지휘하는 한편 협동농장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다음 영농전투의 방향과 방도를 설계하고 그에 맞게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조직하도록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영농사업을 앞질러가면서 조직하고 지도하게 됨으로써 올해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에 이어 김매기를 뒤따라 세우기 위한 물질적 준비를 잘하지 않는 편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성있게 세울수 있었다. 그 결과 군적으로 모내기를 끝내자바람으로 제창 김매기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모든 농장원들이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김매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의 전반적인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난해보다 김매기를 한번 더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위대한 생활력과 커다란 우월성을 남김없이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35~36페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농사를 실속있게 지도할수 없으며 농장원들을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에로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한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이 우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료주의적 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언제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대로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군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급기관책임일군들로부터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올해 봄에 계속된 가물로 군내 양수관개세계의 말단인 백암지구에서 모내기가 긴장하게 되였을 때였다.

백암지구의 물문제를 제때에 해결하는것은 이 지구는 물론 군내의 전반적인 모내기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는 백암지구에 물을 잘 공급해줄데 대하여 관개관리소에 독촉도 하고 지하수를 잘 리용하여 물문제를 해결하라고 리일군들에게 강조도 해보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사무실에 앉아서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받는 방법으로 긴장된 물문제를 해결할수 없었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에,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야 하였다. 걸린 문제를 풀 방도를 잘 아는 사람도 생산자대중이며 그것을 풀 힘을 가지고있는 사람도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이다.

우리는 군적인 물 공급량과 소비량을 다시 장악분석한데 기초하여 아래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담화하면서 구체적인 실정을 료해하여보았다. 물이 긴장하게 된 원인은 수리화가 이미 완성된 우리 농촌에서 흔한것이 물이라는데로부터 관개체계의 웃부분에 있는 협동농장들에서 물랑비가 심하고 아래부분에 있는 협동농장들에서는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잘 벌리지 않은데 있었다. 관개말단지구에서 물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을 정확히 찾은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을 협동농장들에 내보내여 농민들속에서 물을 극력 아껴쓰며 지하수를 잘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었다.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함으로써 당면하게 제기되는 물문제를 해결하였을뿐아니라 홍오리저수지 언제를 높여 그 저수능력을 배로 늘이는 방법으로 그 어떤 왕가물에도 관개체계의 말단지구에까지 물을 넉넉히 공급해줄수 있는 방도를 세울수 있게 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지도일군들이 직접 생산현장에 내려가 도와주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야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혁명적 기풍이다.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군중을 불러일으키면 점령하지 못한 요새란 없으며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200일전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보고 그들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처럼 일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렸다.

군당위원회의 이와 같은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군급기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일군들속에서는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서 앞장서나가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막아나서는 혁명적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농사차비때부터 협동농장에 나가 몸을 잠그고 현지에서 영농전투를 조직하고 지휘하였으며 농장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그들을 주체농법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금풍리와 약전리를 비롯한 군안의 모든 지역의 당일군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처럼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서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 나갔다.

200일전투기간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군안의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그들속에서 3명의 로력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숨은 공로자들과 혁신자들이 배출되게 되였다.

우리는 보람찬 실천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야말로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며 이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튼튼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 군당위원회는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감으로써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가까운 시일안에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선결조건

전 금 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유구한 력사를 두고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조선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의하여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한채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전쟁정책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평화가 위협당하는 근본요인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된다.

(1)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48페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되는것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는 근본요인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기때문이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군사적 힘으로 뒤받침하고 있다.

해방후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군무력에 의거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악독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부지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의 기본은 군사적 강점정책이며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제도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정책의 산물이다. 미제가 남조선에 세워놓은 괴뢰정권은 미군의 군사적 강점을 미화분식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미제의 군사력에 의하여 지탱되고있다.

미제침략군에 의한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조선민족은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둘로 갈라져 분렬의 비운을 겪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마음놓고 참가하지도 못하고 있다.

남조선이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강점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 권리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짓밟히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또한 남조선에서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무력으로

뒤받침해주고있다.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데서 쓰는 상투적 수법이다. 미국은 《두개 조선》을 만들어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는것을 조선에 대한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미제는 전조선을 침략하려던 저들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는 목적으로부터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또한 조선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 근원으로 되고있다.

아세아에 침략무력을 집중하고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려는것은 미제의 일관한 대아세아정책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남조선을 핵선제공격기지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만들었다. 미제는 이미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중성자탄까지 배치되여있는 남조선에 《에프16》 전투폭격기와 《랜스》 미싸일을 비롯한 핵공격수단을 끌어들였다.

조선의 절반땅이 미제의 전쟁기지로 됨으로써 조선반도에는 언제나 전쟁위험이 감돌고 긴장상태가 격화되고있으며 정세는 어느 시각에 전쟁의 불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계선에 이르고있다. 이런 상태에서 조선의 통일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이야말로 민족분렬의 비극을 들씌우고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화근으로 된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장기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인민을 불행과 고통에 빠뜨릴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없다.

우리 민족은 언제 한번 미국을 침략한 일도 없고 미국인민들에게 해를 끼친적도 없다. 우리 인민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기를 바라고있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에서도 체약쌍방은 3개월안으로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킬것을 결정하였다.

세계인민들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거할것을 주장하고있으며 미국인민들자체도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는것은 자주시대의 요구에 배치된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는것은 군축을 실현하고 평화를 바라는 시대의 념원에도 역행하는 호전적인 행위이다.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영구히 틀어쥐려고 그곳에 미군을 계속 눌러두려는 미제의 책동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모한 짓이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영구히 남아있을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힌 망국노의 처지를 어느때까지나 감수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각성되고 그들의 반미자주화투쟁기세는 더욱 앙양되고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남조선에 대한 강점정책을 끝장내야하며 조선의 통일을 더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여왔으며 남조선에서 미군이 《영예의 철퇴》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있다.

우리는 이미 1974년에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을 마련하고 조선정전협정을 대

신할 평화협정을 맺을것을 제의하였으며 1984년에는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자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지난 11월 7일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북과 남의 공동의 평화강령으로서 평화보장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그 평화방안의 하나로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우선 철수하며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철수하며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며 철수하는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을데 대한 문제가 들어있다. 련합회의가 제기한 이 방안은 조선반도에서 믿음직하고 공고한 평화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미관계의 새 장을 열어나가는 문제를 토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미합중국 국회사이의 국회회담을 진행하는것이다.

조미 국회대표들사이의 회담을 가지는것은 현실적으로 조미당국자들사이의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있는 실정에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방도로 될수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나약성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하며 전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망상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주되는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이 철거되고 긴장이 완화되며 식민지통치가 종식되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가 실현되면 조선인민은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을것이다.

(2)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동시에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셔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쌍방의 군대를 축소하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241페지)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을 해소하고 북과 남의 대화를 활발히 진행할수 있게 할것이다.

원래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며 북과 남이 다같이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민족적 단합을 체현하는 문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있는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는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며 동족끼리의 승벽내기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되며 민족적 리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화근으로 된다.

북남대화를 마련하고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한다. 북과 남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고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고서는 서로의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대화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선의있는 대화를 할수 없다.

북과 남이 격폐되여 오해와 불신을 가지게 되는것은 주로 서로 침해당할수 있는 위협을 느끼고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속에 칼을 품고 총포질을 하는 조건에서는 서로 마주앉을수 없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없다.

북과 남이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서로 마주앉아 대화를 한다면 속에 품은 칼을 꺼내놓아야 하며 총포질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해소하고 대화를 실현하며 추진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해결하여야 할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고 민족적 뉴대를 회복하며 북과 남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추진시켜야 하며 민족적 뉴대를 잇고 북과 남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협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서로의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질수 없다.

대포를 걸어놓고 화점들이 배치되여있는 그밑으로 사선을 넘어다니면서 래왕을 하고 장사를 하며 예술단이 오고가기는 힘든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이 공동의 리익을 도모하고 북과 남이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자고 하여도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가 해소되여야 하며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특히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에 의하여 대결과 긴장 소동이 더욱더 악랄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조선에서 핵전쟁위험이 더 커지는 현정세하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미제와 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날로 격화되고있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는것은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전후 첫날부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와 그 괴뢰도당은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미제호전광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전쟁 전략과 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강점미군무력의 대부분과 방대한 괴뢰군무력을 군사분계선 가까운 지역과 전투지대에 전진배치하고 그 기동력을 급격히 높이였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소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과 남사이에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할수 없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와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해서는 조선반도에 완화와 평화를 가져올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마련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완화와 평화를 이룩하지 못한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나 오늘의 첨예한 정세로 보나 빈말로 《평화》를 운운하고 《긴장완화》를 외워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

실지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으로만 《완화》, 《평화》에 대해 말하는것은 진짜 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인민들에 대한 기만으로 된다.

북과 남은 동족으로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며 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난 7월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실현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한것은 바로 이러한 념원과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북남국회련석회의에서 토의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내용은 북과 남이 서로 위협하고 침해하지 않으며 분쟁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현군사분계선을 불가침경계선으로 확정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을 비핵지대로 만들며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것과 같은 7개의 항목으로 되여있다.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에는 북과 남이 서로 침해하지 않고 완화를 이룩하며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제시되여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에서의 침략과 새 전쟁의 근본위험으로 되고있는 미군과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할데 대한 문제가 제시되여있으므로 불가침과 완화문제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할것을 확약하고있으므로 불가침에 관한 념원과 주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상이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것을 공약함으로써 불가침에 관한 선언을 원만하게 리행할수 있다. 이밖에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은 불가침경계선문제, 중립국감시문제, 불가침선언과 다른 나라와 이미 체결한 조약, 협정의 호상관계문제 등이 명백히 제시되여있어 불가침문제의 리행을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다면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법적 및 제도적 담보가 마련되여 오래동안 지속되여오던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살아갈 방도를 열어나갈수 있게 된것이며 평화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펼쳐나갈수 있게 된것이다.

지난 7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남조선 《국회》에 보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회담이 판문점에서 여러차례 진행되였지만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대화부정적인, 통일부정적인 부당한 립장으로 하여 북남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의 상봉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북남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하여 지난 8월과 10월, 11월에 북과 남의 대표들이 상봉하였을때 남측은 북남국회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것을 반대하고 단순히 불가침문제를 당국에 《권고》하는 정도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불가침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이고 조국통일실현의 선결적인 조건인것만큼 응당 이 문제는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로 되여야 한다. 국회는 마땅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것은 온 겨레의 요구이고 지상의 명령이다.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있는 북남국회련석회의의 소집을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북남대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남사이의 최고위급 회담도 하려는 립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과 남의 최고위급 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일찌기 우리가 발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기념경축보고대회에서 다시금 북남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북남최고위급 회담에서는 우선 그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통일국가의 련방정부를 세우는 문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통일위원회와 같은 통일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시키기 위한 문제나 론의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최고위당국자가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평양에 오겠다면 환영할것이다. 문제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이 실현되여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있다.

북남사이에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성숙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북과 남의 첨예한 정치적 대결상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군사실권자들의 회담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서는 호상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북남사이에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 뉴대를 도모하며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정치군사문제들을 협의해결하여야 할것이다.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시급히 소집하는것도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대한 계기로 된다. 그러므로 쌍방 국회의원들의 판문점상봉을 빨리 결속하고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열어 불가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긴장완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위해서는 민족적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해치는 법률적 및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남대화, 조국통일과 량립될수 없는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최고위급 회담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남조선측은 북남대화에 대한 옳은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에 호응해나서야 한다.

미국국회는 조미국회회담을 가질데 대한 우리측의 편지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 하며 조미국회회담에 조속히 응해나서야 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실현에 기여하려는 립장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미국회회담과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실현하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경주할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

김 영 히

오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곳에 인민들의 반항이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하며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이것은 력사와 현실에 의하여 확증된 법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기간 민족적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1960년의 4월인민봉기와 1980년의 광주인민봉기 그리고 지난해에 있은 6월인민항쟁은 그 어떤 포악한 원쑤들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조선민족의 강의한 자주정신과 기개를 보여준 영웅적투쟁이였으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력사적 계기로 되였습니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각성된 남조선인민들은 공격의 화살을 점차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로 돌리고있습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25~26페지)

최근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적 지배,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오늘에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날 남조선인민들이 외래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운 오랜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미제의 민족적 억압과 파쑈독재자들의 광란적인 폭압을 반대하는 투쟁을 용감히 벌려 남조선인민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8.15직후에 민족재생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 또다시 망국노의 처지에 놓이는가 하는 엄혹한 시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침략군을 반대하는 10월인민항쟁을 벌려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에 의하여 수립된 리승만괴뢰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960년 4월에는 전국적인 인민봉기를 일으켜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다 감행하던 리승만파쑈독재아성을 꺼꾸러뜨리고말았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그 후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괴뢰들이 지난 36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매국적이며 굴욕

적인 《회담》을 벌리자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3.24, 6.3 투쟁을 벌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1979년 10월 부산, 마산 항쟁을 벌려 악명높은 박정희 유신파쑈독재의 파멸을 가져왔으며 뒤이어 1980년 5월에는 《유신체제》의 전면적 철폐를 위한 격렬한 광주인민봉기를 일으켜 광주시는 물론 전라남도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고 그곳을 10여일간이나 견지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투쟁이였으며 동방민족해방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인민항쟁이였다. 그러나 광주인민봉기는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감행된 전두환, 로태우 군사파쑈도당의 류혈적인 군사적 진압작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말았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1986년 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전, 반핵, 반미 투쟁에 이어 1987년 6월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거족적인 인민항쟁이 일어났다.

6월인민항쟁은 그 대중적 성격과 격렬성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쑈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남조선인민들의 6월항쟁은 지난해 6월 10일 미제의 조종하에 전두환일당이 《민정당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후보》 지명놀음을 강행하여 남조선 사회의 민주발전에 전면도전하여 나선것이 그 직접적인 동기로 되였다.

서울에서 먼저 타오른 항쟁의 불길은 남조선도처에 급속히 퍼졌으며 여기에는 남조선전역의 78개 대학의 14만명의 청년학생들과 재야단체들, 학계,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등 수백만명이 참가하였다. 6월 10일부터 시작되여 근 3주일동안이나 계속된 남조선인민들의 6월인민항쟁은 1960년 4.19인민봉기와 1979년 10월의 부산마산폭동 그리고 1980년 5월의 영웅적 광주인민봉기의 직접적인 계승이였으며 심화발전이였다.

실로 8.15직후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남조선에서 벌어진 인민들의 투쟁과정은 그들의 투쟁이 년대에 년대를 이으며 심화발전되여온 오랜 력사적 전통에 기초하여 벌어지고있는 투쟁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 무엇으로써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반미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오랜 전통에 기초하여 심화발전되여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확고히 올라서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투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자기들의 투쟁리념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있는것이다.

뚜렷한 투쟁 리념과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투쟁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지난 기간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명확한 투쟁리념을 내세우지 못하고 매 시기 제기되는 당면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 그쳤다.

광주인민봉기 당시까지만 하여도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막연한 《민주주의리념》에 물젖어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들은 남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데로부터 리승만이나 박정희와 같은 파쑈우두머리를 때려부시기만 하

면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도래할수 있으며 그렇게만 되면 만사는 다 풀린것으로 소박하게 생각하고있었다.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원흉을 볼수 없었고 문제의 핵을 가려낼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해방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독재자를 교체하여도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런 투쟁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반미자주화를 자기들의 투쟁리념으로 내세우게 되였던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과 함께 미제의 현지지배기구들인 미국대사관, 미국문화원, 미군기지, 은행 등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기관에 대한 공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견결히 벌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민주주의보다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는것을 더 급선무로 여기고 민족해방과 민족독립을 반독재민주화와 밀접히 결합시키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한편 남조선인민들은 그전까지만 하여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떠드는 《선평화, 후통일》, 《선건설, 후통일》에 대해 효과적인 반격을 조직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재야민주세력들속에서 퍼지고있던 《선민주, 후통일》론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비판적 견해를 바로세우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사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다름아닌 민족의 분렬에 있으며 그 책임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나라의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급선무로 보고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당사자는 《당국자》들이나 몇몇 소수특권층이 아니라 민족통일의 중하를 한어깨에 걸머지고있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이 성취될수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하고있다.

1987년 8월에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자기의 선언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3대투쟁과업으로 명시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 그들은 6.10, 8.15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민중주체의 통일운동의 돌파구를 열어놓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리하여 반독재민주화투쟁은 반미, 통일을 위한 투쟁과 하나로 련결되게 되였다.

인민운동리념이 막연한 《민주주의》로부터 《자주, 민주, 통일》리념으로 전환되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반독재민주화로부터 자주, 민주, 통일 운동으로 결정적인 방향전환을 한 여기에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투쟁의 대렬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군중이 광범히 참가하고있는것이다.

투쟁의 규모와 방대성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군중이 참가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며 그것은 투쟁의 심화발전정도를 보여주는 주요척도로 된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는 애국적 청년학생들이 그 어느 계급, 계층보다 많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선각자적 역할이 비할바없이 높아짐으로써 로동자와 청년학생간, 로동자와 농민간의 련계가 보다 강화되여 남조선의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참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재야민주세력과 애국적인 지식인, 종교인들의 투쟁도 전례없이 확대되여 나가고있다.

지난해에 있은 6월인민항쟁은 그 대

표적 실례로 된다. 6월인민항쟁에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야당인사, 천주교신부, 기독교목사, 불교승려, 대학교수, 사무원, 상인, 기업가 등 300여만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사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는 인천대시위와 건국대학교 롱성투쟁과 같은 격렬한 시위투쟁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6월인민항쟁은 이 모든 투쟁의 규모를 훨씬 릉가한 현재까지의 대중투쟁사상 가장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한 최대규모의 인민항쟁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종전에는 찾아볼수 없는 규모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그 형식과 방법이 달라지고있는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대중투쟁의 심화발전은 투쟁의 형식과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규정된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벌어진 인민들의 투쟁을 보면 많은 경우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의 투쟁에 도시중산층이 합류하는 방법으로 벌어지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자기들의 련속적인 가두정치시위투쟁에 도시중산층을 합류시키기만 하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고 민주화의 꽃은 피리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투쟁에 도시중산층이 광범히 참가하는것은 그 승리를 위한 주요조건의 하나로 될수 있다. 그러나 도시중산층을 가두정치시위투쟁에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수 없다. 이것은 지난 기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남긴 귀중한 교훈이다. 이로부터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합법적인 투쟁과 비합법적인 투쟁을 능란하게 배합하고 평화적인것과 비평화적인 투쟁수법을 정세변화의 추이에 맞게 적절히 리용하고있으며 가두시위뿐아니라 파괴기관습격, 롱성점거투쟁, 각종 집회와 서명운동, 순례대행진 등 투쟁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있다. 이러한 투쟁 수법과 방법을 통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자연발생성과 분산성, 단일성을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으로 전환되고있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이 강화되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굴함없이 벌리고있으며 그 과정에 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으며 외래침략자와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여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남조선사회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피할수 없는 투쟁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173페지)

제국주의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겨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또는 지역은 식민지로 된다.

남조선은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에게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철저히 예속되여있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남조선은 미제의 신식민주의통치의 음흉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겉으로는 《독립》도 《자유》도 표방되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전지역을 무기한으로 강점하고있으며 그곳에 수많은 군사기지와 근 5만명에 달하는 강점군을 두고있으면서도 값싼 식민지고용군

으로서의 남조선괴뢰군을 방대한 규모로 편성하고 그것을 저들의 전쟁정책에 복종시키고있다. 오늘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은 미국장성이 틀어쥐고있다.《근 100만에 달하는 군대의 통수권을 외국인 사령관에게 맡기고있는것은 동서고금에 그 례를 찾아볼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미국사람들자신이 말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군대통수권의 장악은 군사파쑈통치가 수립된곳에서 군수뇌부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바로 정치행정기구의 중추기관에 대한 지배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제는 저들의 서울주재대사관을 비롯한 현지지배기구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안받침된 절대권력을 리용하여 충복자를 괴뢰우두머리로 내세우고있으며 식민지통치에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괴뢰들에게 군대를 풀어주어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학살하는 등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 감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괴뢰정부의 장차관은 두말할것도 없고 《대통령》까지도 떼고 올려놓는것을 식은죽먹기로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정치, 군사적 지배와 간섭은 날로 강화되는 경제침략과 문화침투를 동반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추가적인 물질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이다. 미제침략세력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남조선의 매국배족세력의 상전이고 그의 적극적인 비호자이며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을 짓밟고 우리 민족의 존엄을 유린말살하고있는 장본인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지 않고서는 민족적 독립도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도 조국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미제강점군을 내쫓고 민족해방을 이룩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것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남조선인민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고있는데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인민대중의 투쟁의 발전추세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투쟁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중투쟁은 낮은 단계의 투쟁으로부터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심화발전하는것이 합법칙적 현상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혁명의 주체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준비정도 여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근로인민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그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높아지면 대중투쟁의 내용은 심화되고 그 성격도 변화된다.

광주인민봉기이전시기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벌리는데 그쳤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높지 못한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 물론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대중투쟁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차지하는 지위는 중요하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반파쑈민주화투쟁만으로는 남조선

에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반전한 전환점으로 된다.

1980년대에 들어와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은 40여년간 끊임없이 벌어진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가일층의 심화발전으로 되며 그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질적 비약으로 된다.

새롭고 진보적인것이 승승장구하는것처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될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발전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모든 민족이 독립을 요구하고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갈것을 바라고있다.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좋아할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40여년간 짓눌리여 온갖 불행과 고통을 참으며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과정에 그들은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도 죽은것과 다름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처럼 귀중한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은 누가 선사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만 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40여년간 투쟁과정에 얻은 진리인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남긴 교훈이다. 이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리게 된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주요구성부분인 동시에 자주와 독립,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벌어지고있다.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높은 민족적 자각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은 단합된 힘으로 미제침략자들과 핵무기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그 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고야말것이며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야말것이다.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은 그 어떤 특정된 계급, 계층만이 참가하는 투쟁인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거족적 투쟁이다. 때문에 모든 반미 반파쑈애국력량이 하나의 력량으로 결속되는것은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청년학생운동을 로동운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투쟁대오의 조직화와 단결을 보장하는것은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파쑈독재의 아성을 짓부셔버리고야말것이다. 정의와 진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인민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업

리 승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서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방침과 그 실현방도들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에로의 발전,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 등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의 근본적 변화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자주성을 반대하는 국제반동들사이의 대립과 투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적 흐름의 기본내용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 력사의 새 시대, 우리 시대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시금 천명하신 온 세계 자주화에 관한 탁월한 방침은 자주적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전투적 기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31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의 현단계에서 세계인민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과 그 내용을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세계혁명을 끝바른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이다. 이것이 정확히 밝혀져야 세계혁명적 인민들은 자기앞에 나선 투쟁과업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이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곧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은 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인

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으로 된다. 자주성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와 억압을 받음이 없이 자기 문제를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해결하려는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본성적 요구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다.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견지할 때에라야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집행해나가지 못하며 경제생활을 자립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는 나라는 비록 대통령과 국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갖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상에 있어서 아무런 자주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예속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은 매개 나라 인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오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다. 지구우에 나라가 있고 국경이 있는 이상 혁명과 건설은 개별적인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수행되게 되며 매개 인민의 자주적 권리는 나라의 범위, 민족의 범위에서 옹호되고 고수되게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며 어떤 국가사회제도를 세우고 나라의 정치생활과 경제, 문화 건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 인민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매개 나라가 자기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자체로 결정하고 해결해나가는데 대하여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시비할수 없으며 더구나 그것을 강권으로 방해하려는 책동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오직 매개 나라 인민자신만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오늘과 전도와 관련되는 문제를 자기 자신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그리고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처리할 완전한 권리,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있다.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자주성의 실현, 자주권의 확립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청산을 전제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 자주권을 유린하며 나라들사이, 민족들사이에 지배와 피지배, 압박과 피압박의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관계를 산생시키고 존속시키는 장본인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억압을 자기의 생존방식, 생활법칙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을 소멸해버리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우에 군림하려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과 천대받고 압박받던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세계를 자주화하는 위업의 통일적 과정의 두 측면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이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류공동의 운명을 개척하며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이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인류공동의 운명과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개별적인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인류공동의 운명사이의 련관관계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사회계급적 본질에 의하여 규정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는 사회력사적 운동이다. 인민대중이 벌리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그것이 의거하고있는 사회계급적 기초에서 보나 그가 내세우고있는 근본목적으로 볼 때 하나로 련결된 공동의 위업으로서의 성격을 그자체에 내포하고있다.

물론 나라마다 혁명의 단계가 다르고 해결해야 할 혁명과업이 다른데로부터 자주성의 실현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총적으로 자주성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로 지향되고있는 사회력사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나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공통성을 띠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국제적 성격은 개별적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인류공동의 운명과의 유기적인 련관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하여 인민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어제날의 피압박민족들과 인민들은 력사적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여있다. 따라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은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는 긴박한 정세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결코 몇몇 특정된 나라들과 민족들에게만 한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들이 지구상의 여러곳에 수많이 축적되여있는 조건에서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의 생존, 인류문명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현실은 새 세계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인류공동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자주화된 세계에서 이룩될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인류공동의 번영을 담보하는 국제관계로 된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화된 세계의 국제관계는 자주성에 기초하여 확립되게 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인것만큼 그것은 국제관계의 기저에 놓여야 할 근본바탕이며 국제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는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이 자기의 자주성을 견결히 지키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자주적인 국제관계가 확립될때 세계에는 지휘하는 나라와 추종하는 나라도 없어지고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도 없어지게 되며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다.

자주화된 세계에서의 국제사회는 민주화된 사회이다.

국제사회의 민주화는 국제관계의 당사자들인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에서 그 어떤 차별도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어도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어떤 형태의 간섭과 억압도 없어야 하며 서로의 리익을 다같이 도모하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 실현되여야

하는것이다.

현실은 세계인민들이 인류공동의 운명을 해결해나갈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완전히 해결할수 있으며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 때 매개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도 보장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심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완전한 자주성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종국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주되는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세력이라고 규정하시고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되는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세력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혁명투쟁에서 그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이 《민주》니 《평화》니 《정의사회》니 하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온 세계 자주화의 주되는 투쟁대상이 정확히 규정됨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이 공동의 원쑤를 똑바로 알고 그에 화력을 집중할수 있게 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세력이 온 세계의 자주화 실현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되는것은 그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우리 시대 자주화의 흐름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로 되기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세계는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제국주의와 그의 비호밑에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유지해보려는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재편성되였다.

자본주의렬강들이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꺼꾸러뜨리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소모하였다면 이때로부터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의 낡은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게 되였다. 자본주의렬강들사이의 관계가 서로 물고 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는 관계에로 넘어간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자주화의 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은 국제정치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체제》에 의한 정치적 결탁, 《북대서양동맹》을 비롯한 각종 군사쁠럭들을 통한 군사적 결탁, 《구라파경제공동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쁠럭들을 통한 경제기술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는 한편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리하여 국제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세력이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되는것은 그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도 관련되여있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그 사회경제적 기초를 두고있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최대한의 독점적 고률리윤을 짜내는데 있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자기의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략탈할뿐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란폭하게 유린하며 지배와 략탈을 일삼는다.

제국주의의 력사는 침략과 략탈의 피거름속에서 태여나 살쪄온 피비린내나는 력사이다. 지나온 인류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제국주의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란폭하게 짓밟는 인류공동의 첫째가는 원쑤로 고발하고있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더욱더 교활해지고있다.

미제는 지금 한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를 퍼뜨리면서 다른 나라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세력은 교활하게도 《평화》와 《긴장완화》의 미명밑에 인류공동의 번영을 지향하는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의연히 힘의 정책에 매달리며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다그치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기 위하여 침략과 략탈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구라파지역에서는 핵무기를 《축감》하고있지만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확립하려는 야망밑에 새로운 핵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있으며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을 더욱 다그치고 미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 결탁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하여 세계정세는 호전되지 못하고 더욱 불안정해지고있으며 자주, 독립,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나라와 민족들의 정의로운 위업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자주성을 반대하는 세계제국주의세력의 원흉이며 우리 시대 자주화흐름을 가로막는 주되는 세력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실로 온 세계 자주화의 주되는 투쟁대상이 명확히 밝혀지게 됨으로써 세계인민들은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앞에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 자주화의 길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나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인민들의 자주위업수행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멸망의 운명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승리적 완성을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김 수 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지난 7월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의 탄생 75돐을 계기로 《에리히 호네케르저작선집》을 출판하였다.

《에리히 호네케르저작선집》에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1971년 6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사이에 당대회들에서 한 보고와 여러 회의들에서 한 연설 그리고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아인하이트》를 비롯한 국내외 신문, 잡지들에 발표한 론문들가운데서 22건의 문헌이 수록되여있다.

《에리히 호네케르저작선집》에 수록된 문헌과 론문들에는 독일사회통일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전략전술들과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업들이 밝혀져있으며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독일사회통일당의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문헌과 론문들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할데 대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수 있다.

특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경제, 군사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위협하고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일련의 문헌들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은 지난 기간 독일사회통일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서방제국주의자들과 복수주의세력의 파괴암해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내고 구라파의 중심부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웠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조선인민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인민은 영원한 계급적형제》, 단행본, 3페지)

당 제8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15년동안에 국민소득은 2조 7천억마르크에 이르렀다. 이것은 1947년부터 1970년까지의 22년동안에 생산한것보다 1.7배나 더 많은것으로 된다. 국민소득장성의 90%이상이 로동생산능률의 증가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독일사회통일당 제10차대회이후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하였다.

1981—1985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과 생산력, 생산관계, 과학, 교육,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와 나라의 국방력이 더욱 완비되였다.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고도로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요구에 맞게 강화되였다.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가 계속 확신성있게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구라파에서 서로 다른 두 사회 체계, 와르샤와조약기구와 나토를 갈라놓는 분계선에 위치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고 인민들의 창조적 힘이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는 사회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생산력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일찌기 없었던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였다.

저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이룩된 모든 변혁들가운데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장성시키며 사람들의 물질문화적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인민들의 정신적 잠재력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저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정책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사회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력사적 증거로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성과들이 한계점에 이른것이 아니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에리、호네케르동지는 문헌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을 보장하는 로선을 견지하는것이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경제발전속도를 규정하는 분야에 힘을 집중시키며 무엇보다도 과학과 생산, 생산과 과학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또한 사회주의를 강화발전시키는데 부합되게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계속 개선해나가는데 큰 힘을 돌릴것이 예견되여있다.

공업은 인민경제의 잠재력을 증대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공업은 풍부한 기술공학적 경험과 특히는 극소형 전자공업기지를 가지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극소형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조종되는 기계들과 로보트들의 적극적인 도입은 사람을 생산의 가장 관건적인 요소로, 기술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최상의 질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현대화를 계속 철저히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화학공업부문의 생산종합체들에서는 벌써 최상의 세계적 수준에 이른 고도의 효과성을 가진 자동화된 기술공정들과 생산공정들이 도입되고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이러한 선진적인 기술공정이 완전히 도입된 생산복합체로, 기업소전반을 합리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자동화된 공장으로 만들것을 예견하고있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문헌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요조건으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1990년에 가서 인민소비품생산량을 30~32% 늘인것을 예견하고있으며 해마다 제품의 30~40%를 갱신하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상품을 70%까지 갱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저자는 문헌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주택강령을 실현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지적하고 1990년까지 건설분야에서의 실적을 130~132% 높인것이라고 하였다.

현 5개년계획기간에 106만 4,000여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거나 현대화하게 된다. 국가는 살림집을 더 합리적으로 더 쓸모있게 건설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1990년까지 사회적 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해결될것이며 혁명적 로동운동의 오랜 소원이 실현되게 될것이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문헌에서 농

촌경리를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알곡과 축산물 생산량을 더 많이 늘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86—1990년 5개년계획기간에 알곡 년평균수확고는 1.7%, 축산물생산량은 1.4배 더 늘어나게 된다.

저자는 문헌에서 또한 200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있는 독일사회통일당의 경제전략의 본질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혔다.

독일사회통일당의 경제전략을 요약하여보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며,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이며, 원료, 자재, 동력의 원가를 적게 들이고 생산을 늘이며, 국제적 수준에 상응한 생산의 질을 보장하며, 경제의 사회주의적 합리화를 실현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투자활동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며, 소비품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라의 경제를 계속 장성시키며, 집약적인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문헌에서 또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군인들은 평화와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독일사회통일당의 정책을 관철하는데 적극 참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토의 무력이 침략준비를 다그치고 무장력이 높은 속도로 질적으로 변화되고있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민족인민군과 국경경비대 군인들앞에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로동자, 농민의 국가의 형성발전과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쟁취한 사회주의건설성과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의 활동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독일사회통일당은 사회의 향도적 력량으로서 언제나 자기에게 높은 책임성을 부여하고있다.

독일사회통일당은 로동계급의 당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전체 인민의 당이다. 지자는 당은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자각적이며 조직적인 선봉대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로동의 열매를 그들자신이 향유하는 보람찬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로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조직동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적 현실에서 이룩된 커다란 변혁은 독일사회통일당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저자는 문헌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 언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과 형제적 협조관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에리히 호네케르저작선집》의 출판은 우리의 독자들이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며 계급적 동맹관계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근로자 1988년 제12호(루계 560호)

편 집 위 원 회

번푯•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8년 12월 1일　　발 행•1988년 12월 3일

ㄱ—8519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신흥1동 값 70전

1988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수 페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명전통론설

당건설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과학문화론설

경험론설

조국통일 및 남조선 론설

국제론설

반동리론비판론설

형제당들에서

형제당문헌출판소식